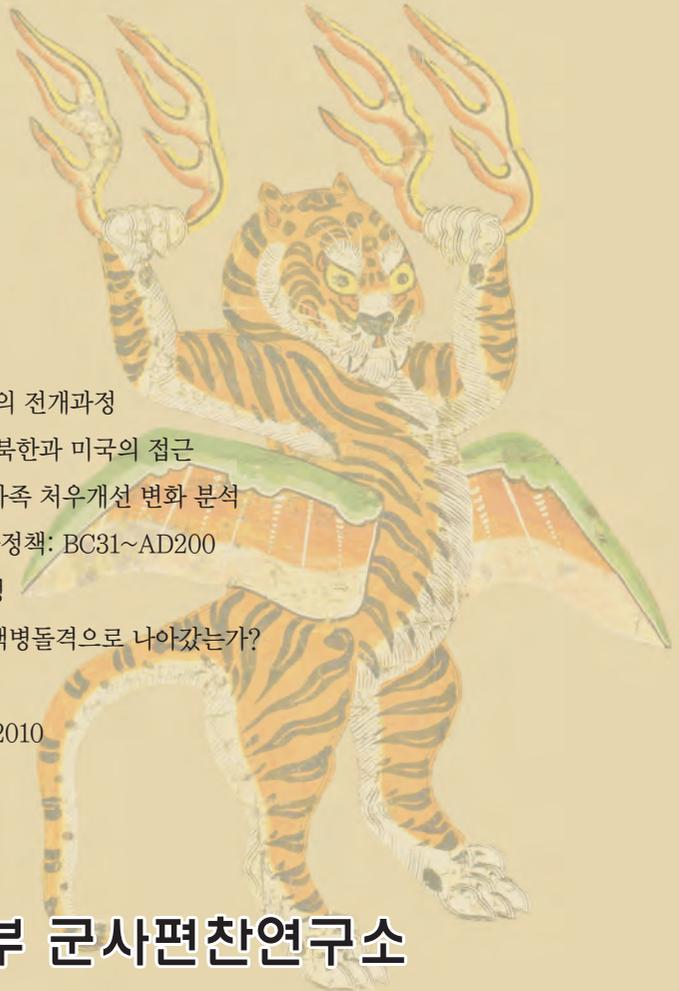


# 軍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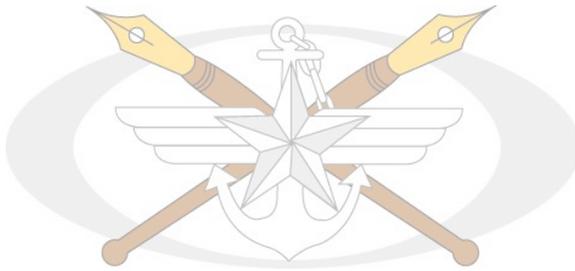


제 86 호 2013. 3

- 百濟의 倭使國書 奪取사건
- 러일전쟁 시기 함경도 전투의 전개과정
- 푸에블로호 사건을 둘러싼 북한과 미국의 접근
- 한국군의 발전과정별 군인가족 처우개선 변화 분석
- 로마제국의 대(對)동방 군사정책: BC31~AD200
- 20세기 초 미 육군 개혁과정
- 왜 일본 육군은 단기결전, 백병돌격으로 나아갔는가?
- 예방공격과 공격-방어이론
- 정밀유도탄의 발달: 1918~201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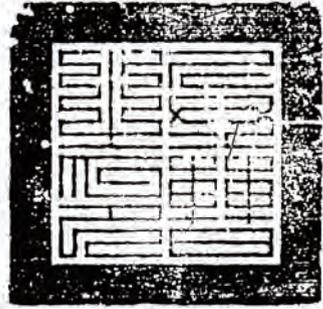


**표지그림**

虎旗(조선후기. 營門밖 양편에 세우는 군기로서 검은색 바탕에 날개 달린 호랑이가 화염을 쥐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 軍史

第 86 號  
2013. 3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 軍史

第 86 號

2013.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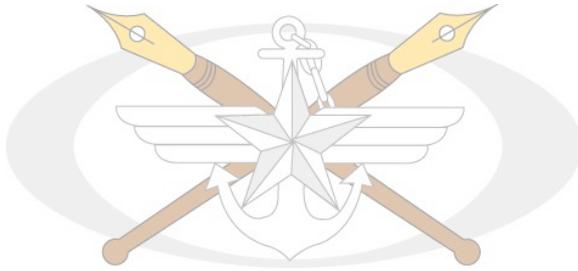
## 目 次

- 百濟의 倭使國書 奪取사건  
- 602~3년 阿莫城 · 北漢山城 전투와 관련하여 -  
..... 徐榮教( 1 )
- 러일전쟁 시기 함경도 전투의 전개과정  
..... 조재곤( 41 )
- 푸에블로호 사건을 둘러싼 북한과 미국의 접근  
..... 엄정식( 71 )
- 한국군의 발전과정별 군인가족 처우개선 변화 분석  
..... 홍창국( 93 )
- 로마제국의 대(對)동방 군사정책 : BC31~AD200  
..... 조영식(123)
- 20세기 초 미 육군 개혁과정  
- ‘개혁 정체 및 후퇴기(1904~1909)’를 중심으로 -  
..... 설인효(157)

- 왜 일본 육군은 단기결전, 백병돌격으로 나아갔는가?  
- 근대 일본 육군의 제1차 세계대전 인식과 대응 -  
..... 심호섭 (199)
- 예방공격과 공격-방어이론  
- 군사전략과 군사기술의 역할에 대한 연구 -  
..... 박준혁 (221)
- 정밀유도탄의 발달: 1918~2010  
..... 문장렬 · 문권 (267)

부  
록

1. 연구소 동정
2. 자료기증 및 자료이용 안내
3. 신간 도서 소개
4. “軍史”誌 투고안내
5. 연구윤리예규



본 저작물은 정부예산으로 발간하였으므로 기관(부대) 자산으로 영구보존하시기 바라며, 보관이 불가능할 경우 당 연구소로 회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百濟의 倭使國書 奪取사건\*

- 602~3년 阿莫城·北漢山城 전투와 관련하여 -

徐榮教\*\*

1. 머리말
2. 阿莫城·北漢山城 전투에 대한 여러 견해 검토
3. 倭의 신라출정 연기와 백제군 전멸
4. 북방초원의 정세변화와 고구려의 등장 출정
5. 국서탈취에 대한 倭·隋의 默過와 倭·新羅 관계 정상화
6. 맺음말

## 1. 머리말

『日本書紀』推古天皇 16年(608) 6월 조에는 당시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기사가 보인다. 隋에 갔던 왜의 사절 小野臣妹子가 수황제의 국서(返書)를 소지하고 귀국하던 중 백제에게 이를 강탈당했다는 내용이다.

\* 이 논문은 2012년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연구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중원대학교 한국학과 교수

江戸시대 國學者 本居宣長(1730~1801)은 자신의 대외관을 다룬 저서 『馭戎概言』(1796년)에서 妹子가 수황제의 返書가 천황의 御心을 자극할 수 있는 내용이라 두려워 분실하였다고 둘러댄 것으로 추측했다.<sup>1)</sup>

일본을 세계의 중심으로 보았던 本居宣長은 수황제가 왜왕에게 보낸 국서가 탈취당했다는 기록을 사실로 인정할 수 없었다. 607년 왜왕은 “해 뜨는 곳의 천자가 해 지는 곳의 천자에게 글을 보낸다.”라고 시작되는 국서를 수 황제에게 보낼 정도였다.<sup>2)</sup> 수나라와 동등한 위치에서 외교를 했던 왜국에 대하여 백제의 탈취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의 견해는 후대의 학자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sup>3)</sup>

西嶋定生은 수양제가 왜의 국서내용이 무례하다고 여겨 返書에서 이를 책망하는 언급을 했기 때문에 차마 ‘천황’에게 보일 수 없어 탈취당했다고 둘러댄 것으로 보았다.<sup>4)</sup> 607년 왜가 수와 대등한 입장을 취하려고 했고, 꺾은 신라와 백제를 조공국으로 삼아 군림하려고 하는 왜의 소책봉체제 유지를 위한 자세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하였던<sup>5)</sup> 그가 本居宣長의 주장을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 1) 本居宣長, 『馭戎概言』(山口志義夫譯) 現代譯語 本居宣長選集 2, 多摩通信社, 2009, 67쪽. 일본의 국학은 18세기 쇠퇴한 막번체제에 대한 비판 저항 속에서 생겨났다. 국학자들은 유학이 신봉하는 중국학에 반발하며, 고전과 시가의 객관적 연구법을 중추로 하여 일본 고래의 정신으로 환원하고자 하는 복고주의를 주장했다. 국학자의 거두인 本居宣長은 90종 260권에 달하는 방대한 저술을 남겼다. 그는 『源氏物語』의 연구에서도 문학의 본질을 권선징악에서 해방시키고 내재하는 것에 추구에 있다고 주장하여 많은 사람을 매료시켰다. 이러한 연구방법과 목적에서 연역되어진 고대로의 환원과 외교사상의 배격을 기저로 하는 그의 학문적 태도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았다. 전국에서 문인들이 그에게 몰려들어 일본적인 하나의 학류를 이루게 되었다(미야케 히데토시 지음·하우봉 옮김, 『역사적으로 본 일본인의 한국관』, 풀빛, 1990, 110~111쪽).
- 2) 『隋書』卷81, 동이 왜국전 “大業三年(607), 其王多利思北孤遣使朝貢. 使者曰 聞海西菩薩天子重興佛法, 故遣朝拜, 兼沙門數十人來學佛法. 其國書曰 日出處天子至書日沒處天子 無恙云云. 帝覽之不悅, 謂驛 卿日蠻夷書有無禮者, 勿復以聞.”
- 3) 일본학계에서는 대체로 ‘허위설’의 입장을 피력한다(『岩波講座日本書紀』190쪽, 頭註 11 참조).
- 4) 西嶋定生, 『日本歷史の國際環境』東京大出版會 1985, 92쪽.  
-----, 『遣隋使と國書』, 『西嶋定生東アジヤ論集』3卷, 岩波書店, 2002, 238쪽.
- 5) 西嶋定生, 『6-8世紀の東アジヤ』岩波講座日本歷史 2, 岩波書店, 1962, 229~278쪽.

堀敏一도 백제의 국서탈취사건을 사실로 인정하는데 주저하고 있는 것 같다. 그는 妹子 개인의 ‘기우’로 그 원인을 돌렸다.<sup>6)</sup> 堀敏一의 주장은 논점이 애매한 면이 있지만 妹子 개인의 판단으로 돌린 점에서 本居宣長の 시각을 이어받은 ‘허위설’에 가깝다.

한편 三品彰英은 ① 정식으로 수 양제의 국서를 받아오는 데 실패한 妹子가 자신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 백제의 탈취로 보고했을 가능성, ② 수양제의 국서를 받아오긴 했지만 그 내용이 천황에게 그대로 바칠 수 없는 것이기에 거짓 보고했을 가능성, ③ 大和 정권과 수나라와의 관계를 의심한 백제가 실제로 국서를 탈취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했다.<sup>7)</sup> 三品彰英은 ‘허위설’과 ‘사실설’의 가능성을 함께 열어놓았다.

한편 ‘허위설’에 대한 정면 반론도 있었다. 李成市는 수나라와 왜의 ‘대등외교’를 전제한 ‘허위설’은 그 전제부터 성립되기 어려우며, 妹子의 귀국길에 동행한 수나라 사신 裴世清의 언동을 누구도 막을 수 없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은 『日本書紀』에 전해지는 그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당시 왜의 대수외교가 고구려의 전략 아래 행해졌으며, 백제는 그러한 왜의 외교를 그대로 묵인할 수가 없어 국서약탈을 했다고 보았다.<sup>8)</sup>

노중국도 국서탈취를 사실로 인정했다. 그는 593년부터 603년까지 왜와 백제는 긴밀한 관계를 추구하였으나, 603년 이후 614년 사이에 양국의 외교적 공백이 보인다고 하였다. 당시 聖德太子는 관위·憲法 시행 朝禮개정 등의 일련의 정책을 시행했고, 607년 수에 전해진 왜왕의

金子修一, 「동아시아세계론(鄭炳俊譯), 『역사와교육 12, 역사와교육학회, 2011, 351쪽.

6) 堀敏一, 『中國と古代東アジア世界, 岩波書店, 1993, 204쪽.

7) 三品彰英, 「聖德太子の任那對策, 『聖德太子論集 平樂寺書店, 昭和46(1971), 22~26쪽.

8) 李成市, 「高句麗와 日隋外交」 이우성정년기념논총1990, 156~157쪽.

井上光貞은 607~8년 왜가 고자세로 임했던 대수외교도 고구려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당시 고구려가 왜와 관계를 일층 강화하고 있었고, 동시에 고구려와 수나라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다는 것이다(井上光貞, 「推古朝外交政策の展開, 『聖德太子論集 平樂寺書店, 1971, 42쪽).

국서에 ‘日出處天子’라고 했듯이 왜가 독자성을 강조했다라는 것이다. 왜가 선진문물을 직접 받아들이기 위해 대수접근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이에 수도 사신을 파견하는 등 이렇게 호응하는 상황을 좋지 않게 생각한 백제가 양국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국서를 탈취한 것으로 보았다.<sup>9)</sup>

李成市의 경우 왜가 고구려 외교 전략의 짐을 지고 수와 외교를 하는 것을 백제가 묵인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고, 노중국은 왜의 독자외교에 대한 백제의 강력한 반발이라 보았다. ‘왜의 친고구려적인 행보’와 ‘왜의 독자노선 견지’는 백제와 왜 관계가 멀어진 분위기의 하나로 인정할 수는 있다. 하지만 국서탈취사건이 발생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쉽지 않다.

노중국도 지적했듯이, 사건은 왜뿐만 아니라 수의 입장에서 일대 사건인 바, 왜왕의 권위는 물론이고 수황제의 권위까지 손상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sup>10)</sup> 국제적으로 문제시 될 사건이었다. 하지만 너무나 조용했다. 이성시의 지적대로 귀국길에 수나라 사신 裴世淸과 동행했다는 점을 엮두에 두면 倭使 妹子가 허위보고를 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렇다 해도 隋나 倭가 백제에 대해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설’의 약점이다.

논점을 돌이켜 보면, 本居宣長 이래의 ‘허위설’도 바로 이러한 ‘無抗議’에 기반한 것이 아닐까 싶다. 혹 일개 사신 妹子가 일으킨 일이니 왜 조정이 그것을 감지하고 큰 문제로 삼을 수 없었다고 볼 수도 있다.

『수서』 권3, 양제기를 보면 “(大業 四年 三月) 壬戌, 百濟, 倭, 赤土, 迦羅舍國並 遣使貢方物.”라고 하고 있다. 백제와 왜국의 전통적인 우호적 관계를 고려해볼 때 왜국사절은 백제사를 따라 수나라에 갔으며, 그해 대수외교를 매개했던 것은 백제일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9) 노중국, 「7세기 백제와 왜와의 관계」, 『국사관논총』 52, 1994, 156~157, 160~162쪽.

10) 노중국, 앞의 논문, 162쪽 참조.

문제는 百濟와 倭 이외에 赤土·迦羅舍國 등이 나란히 수나라 조정에 遣使하고 방물을 바쳤다는데 있다. 백제가 왜사를 동반했다고 하더라도 赤土나 迦羅舍國이 함께 나오는 것은 무엇인가.

堀敏一은 백제·왜 공동입조 기사와 적토국 등의 입조기사가 각기 다른 것인데 『수서』 대업 4년 3월 壬戌조에 혼입되었다고 보았다. “前年(대업 3년, 607)에 妹子の 사신단이 백제를 경유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때 백제 사신도 동행하여 동시에 수에 도착하였던 것인데, 그것이 뭔가 이유로 적토국(말레이반도 아니면 수마트라 섬 부근에 있었던 나라)의 입조 기사에 혼입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어쩌면 대업 4년 3월경에는 妹자가 귀국길에 올랐을 가능성도 있고, 그것이 기사의 혼입 원인인 지도 모른다.”<sup>11)</sup>

이는 당시 백제·왜의 관계가 좋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서기』에서 602년 10월<sup>12)</sup>과 615년 9월<sup>13)</sup> 사이 12년 동안 백제와 왜의 외교관계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이것도 『수서』 양제기를 근거로 608년 백제가 왜의 대수외교를 중개했다고 보면, 12년간 백제와 왜 사이의 외교적 공백의 중간지점에 다리를 놓을 수 있다.

백제가 지속적으로 親倭적 정책이 일관되게 유지했다고 보는 관점이 ‘허위설’을 지탱하는 강력한 버팀목이기도 하다. 백제와 왜는 긴밀했으며, 608년 4월 백제가 왜에 도발한 국서강탈 사건은 妹子の 자작극이라는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왜가 어떻게 홀로 백제의 선박지원 없이 수나라에 조공을 할 수 있는 항해술이 있었는지 반박할 수도 있다.

608년 왜국의 2차 견수사 때 백제사와 동반 조공했다고 보았던

11) 堀敏一, 『中國と古代東アジア世界』岩波書店, 1993, 206~207쪽.

12) 『日本書紀』卷22, 推古天皇 10年(602), “겨울 10월 백제 승려 觀勒이 왔다. 이에 曆本과 天文·地理書 및 遁甲·方術書를 바쳤다. 이 때 書生 3, 4명을 선발하여 관료에게 배우도록 하였다. 陽胡史의 선조인 玉陳은 曆法을 익혔고, 大友村主 高聰은 天文·遁甲을 배웠으며, 山背臣 日立은 方術을 배워, 모두 배움에 성취가 있었다.”

13) 『日本書紀』卷22, 推古天皇 23年(615) 조, “23년 가을 9월 犬上君(御田) 와 矢田部造가 唐에서 돌아왔다. 百濟의 사신이 犬上君을 따라 來朝하였다. 11월 己丑 초하루 庚寅 百濟사신에게 항응을 베풀었다.”

石母田政은 백제의 국서탈취사건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sup>14)</sup> 백제의 동반 조공과 백제의 국서탈취 두 가지 사실이 논리상 상극이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도 『수서』 양제기가 백제의 국서탈취 기록을 부정할 수 있는 확실한 단서라 할 수도 없다. 百濟·倭·赤土·迦羅舍國 등이 수양제에게 각기 조공 사절을 파견했고, 수 조정에서 만나 함께 조공했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국서탈취사건을 사실로 인정하고 또 왜가 변함없는 친백제노선을 취했다고 보는 ‘종합설’도 있다. 妹子가 백제의 국서 탈취를 보고하는데도 야마토 정권이 결국 이를 묵인했다고 한 기술에서도 당시 야마토 정권의 외교노선의 기초를 읽을 수 있다고 한다. 요컨대 왜국사신의 백제루트의 이용은 친백제 노선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국서 탈취 운운할 정도로 백제는 수나라와 야마토 정권의 직접 교섭에 대해 매우 경계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한다.<sup>15)</sup> ‘종합설’은 논리 자체에 문제가 있다. 언급한 바와 같이 왜사를 수나라에 데리고 간 백제가 동시에 국서를 압수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러나 한편 여기서 왜의 지속적 ‘親百濟路線說’이 왜의 ‘묵인’이란 반석 위에 세워진 누각임이 드러난다. 왜 항의가 있었다면 ‘허위설’은 설 자리가 애초에 없었다. 허위설의 대표주자인 西嶋定生の 다음과 같이

14) 石母田政, 『日本の古代國家 岩波新書, 1971[2001], 24쪽. 石母田政은 왜의 대수외교의 목적을 신라와 백제 양국이 왜의 ‘朝貢國’이라는 사실을 공인받는데 있었다고 보았다(앞의 책 27쪽). 이러한 그의 논리에서는 조공국인 백제의 국서탈취 기록을 인정할 수 없다. 608년 왜의 대수외교를 매개했던 것은 백제라고 보았던 石母田政의 견해에 연민수는 동의하고 있다(延敏洙, 『日本書紀 ‘任那調’ 關係記事檢討, 『九州史學 105, 1992; 『고대한일관계사, 해안, 1998 327~328쪽). 또한 그는 “600년에 시작된 왜왕권의 대수외교는 고구려의 역할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604년에서 610년까지 『日本書紀』에 보이는 왜에 대한 고구려의 원조에 대해 이렇게 지적했다. “이와 같은 교류를 통해 왜왕권의 대고구려관계는 백제에 버금가는 우호적으로 전개되어 갔다.”(연민수, 『7세기 東아시아 정세와 倭國의 對韓政策, 『新羅文化』 24, 2004, 44쪽). 그는 왜와 고구려 관계가 가까워지는 가운데 왜 백제의 관계도 우호적으로 지속되었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

15) 김현구·박현숙·우재병·이재석 共著, 『日本書紀 한국관계기사 연구 Ⅲ, 일지사, 2004, 67~68쪽.

주장했다. “國使가 그 使命인 返書를 절도 당했다는 것이 의심되며, 당시 백제가 그것(返書)을 절도할 ‘理由’도 생각나지 않는다.”<sup>16)</sup>

백제의 국서탈취사건은 왜가 수와 대등한 입장을 취하면서 신라와 백제를 조공국으로 삼고 소책봉체제를 유지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았던 西嶋定生の ‘册封體制論’과 배치되는 면이 있다. “해 뜨는 곳의 천자가 해 지는 곳의 천자에게 글을 보낸다.”라고 시작하는 왜왕의 국서에 대한 중국황제의 국서 분실사건은 西嶋定生 입장에서도 불편한 기록이었다. 더욱이 일본 자체의 그것이 아닌가. 그의 논리에서 조공국인 백제가 대국인 왜의 국서를 탈취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사실설’이 왜의 ‘친고구려’적 성격이나 백제에 대해 ‘독립’적 성격을 부각했다면, ‘허위설’은 왜의 친백제적 성격을 견지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백제의 국서탈취사건에 대하여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허위설’을 견지하고 있는 鈴木英夫의 견해도 그러하다. 그는 왜의 新羅征討 발단이 추고 8년(600) 신라의 임나공격에서 비롯되었고, 왜왕의 독자출병이라는 『일본서기』 기록은 의문이고 백제가 주도하여 추진된 신라정토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602년 왜의 新羅征討계획의 목적은 백제에 의한 가야지역 奪回를 원조하여 백제와 연속관계를 회복하려는 시도였다고 한다. (왜의) 신라정토가 좌절되면서 그것은 수포로 돌아갔다고 보았다. 이어 608년 백제는 왜의 대수외교를 중계했으며, 백제의 순조로운 외교에 위협을 느낀 신라가 610년 왜에 접근했다고 보았다.<sup>17)</sup>

여기서 602년 (왜의) 신라정토 좌절이 야기할 수도 있는 백제와 왜·고구려 사이의 불협화음에 대한 고려는 없다. 수항제가 내린 국서를

16) 西嶋定生, 「七世紀の東アジアと日本」, 『隋帝國の出現と日本』, 日本古代史講座 5, 學生社 昭和56(1981) 16쪽 3째줄. 西嶋定生, 『日本歷史の國際環境』, 東京大出版會, 1985, 92쪽 12째줄.

17) 鈴木英夫, 「任那の調の起源と性格」, 『國史學』 119, 1983: 『古代の倭國と朝鮮諸國』, 青木書店, 1996, 256~257쪽.

백제에게 탈취당하는 수모를 당한 왜는 어떤 이유로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았고, 마찬가지로 피해의 당사자인 수황제도 왜 묵과하고 말았을까. 과연 백제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국서탈취를 했고, 근거 없는 만용을 부렸다는 것인가.

본고에서 필자는 왜가 백제의 국서탈취 사건에 대해 왜 침묵할 수밖에 없었고, 세계질서의 중심에 있었다고 하는 수나라도 어떻게 이를 문제 삼지 않았는지 규명해 보려고 한다.

먼저 아막성과 북한산성 전투에 대한 일본학계의 여러 견해들을 재음미해 보았다. 다음으로 백제군 4만이 전사한 602년 아막성 전투의 결과에 주목하여 여기에 왜가 어떠한 원인을 제공했는지 생각해 보았다. 그 다음으로 603년 고구려의 신라 북한산성 침공이 어떠한 이유로 1년 지체되었는지 검토해 보고, 마지막으로 백제의 국서탈취사건이 아막성 전투 결과와 어떠한 관련이 있고, 어떻게 왜와 수가 여기에 항의하지 않았는지 원인을 규명해 보았다. 나아가 국서탈취사건이 610년 신라와 왜의 관계정상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생각해 보았다.

1962년 西嶋定生이 국제적인 정치체제로서 ‘冊封體制論’을 ‘제창’한 그 시기는 일본고대사연구자들의 국제적계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던 때였다. 동시기에 石母田政의 ‘國際的契機論’(일본의 東夷 小帝國 관념: 1962~3)이 나왔고, 이후 武田幸男의 ‘小中華主義論’으로 이어졌다. 이를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연구자들도 계속 나타났다.

이러한 일본학계의 분위기에서 ‘허위설’은 생명력을 가질 수 있었다. 수황제가 왜국에 보낸 그 국서를 백제가 탈취한 사건을 그들의 입장에서 사실로 인정할 수 없었다. 일본학계에서는 602~3년 왜가 백제와 고구려를 끌어들이 단행하려 했던 신라정토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했다. 하지만 정작 그 좌절의 결과가 야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실들에 대해서는 간과했다. 때문에 그것이 고구려와 전쟁을 앞둔 수나라와 麗濟의 양면공격을 받던 신라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검토할 수도 없었다.

이 글의 주제는 ‘任那의 調’ 문제 그리고 ‘동아시아 세계론’과 관련된다.

하지만 논외로 했다. 6세기 말~7세기 초반은 국제상황이 급변하는,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전란의 시대였기 때문이다. 수나라 중심의 세계질서가 견고했다고 볼 수도 없고, 그 수명도 매우 짧았다. 고구려가 그 세계질서를 흔드는 선두에 있었고, 주변나라들은 냉엄한 현실 속에서 각기 생존의 열쇠를 찾기 위해 긴박하게 움직였던 격동의 시기였다.

## 2. 阿莫城·北漢山城 전투에 대한 여러 견해 검토

602년 지리산 남원 운봉에 위치한 阿莫城에서 신라와 백제의 전쟁이 벌어졌다. 『三國史記』 백제본기를 보면 이 전투에서 백제군 4만이 전멸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일찍이 今西龍은 602년 羅濟의 아막성 전투를 국지전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다음의 사료에 주목했다.

(推古 9年[601] 3月) 大倭連 를 高麗에 坂本臣糠手를 百濟에 보내 任那를 급히 구원하라고 했다.<sup>18)</sup>

(推古 9년[601] 가을 9月) 신라의 간첩 迦摩多가 대마도(對馬)에 도착하였으므로 잡아서 바쳤다. 그래서 가마다를 上野에 유배하였다.”<sup>19)</sup>

(推古 10年[602] 2月) “來目皇子로 擊新羅將軍으로 삼고 諸神部 및 國造, 伴造 등. 并軍衆 2萬 5千을 주었다.”<sup>20)</sup>

(推古 10年[602] 4月) “將軍 來目皇子 筑紫에 도착했다. 이내 屯嶋郡으로

18) 『日本書紀』 卷22, 推古天皇 9年(601) 3月 조, “遣大倭連 于高麗.遺坂本臣糠手于百濟.以詔之曰.急救任那.” 坂本臣糠手는 587년 7월 蘇我씨가 정적인 物部氏를 타도할 때 蘇我氏의 휘하에서 활약했다(『日本書紀』 卷21, 崇峻天皇即位前紀 用明天皇二年(587) 7月 조).

19) 『日本書紀』 卷22, 推古天皇 9年(601) 9月 戊子 조, “新羅之間諜者迦摩多到對馬. 則捕以貢之. 流于上野.”

20) 『日本書紀』 卷22, 推古天皇 10年(602) 2月 조, “來目皇子爲擊新羅將軍.授諸神部及國造. 伴造等. 并軍衆二萬五千人”

나아가 船舶을 모우고 軍糧을 운반했다.”<sup>21)</sup>

(推古 10年[602]) 6월 大伴連<sup>22)</sup>과 坂本臣糖手が 함께 百濟로부터 도착했다.

(眞平王 24年[602]) 가을 8월 百濟가 쳐들어와서 阿莫城을 공격했다. 王將士들을 시켜 逆戰하여 (백제군을) 大敗시켰다. 貴山과 箒項이 여기서 죽었다.<sup>23)</sup>

(眞平王 25年[603]) 가을 8월 高句麗가 北漢山城을 침공하였다. (진평)왕이 親히 軍대 1萬을 이끌고 가서 그것을 막았다.<sup>24)</sup>

今西龍은 추고 9년(601)에 왜가 신라를 공격하는데 백제와 고구려에 참여를 촉구했으며, 602년 백제와 신라 사이의 아막성 전투가 이러한 왜의 촉구와 관련이 확실히 있고, 『삼국사기』 신라본기와 고구려본기에 보이는 603년 고구려의 북한산성공격도 마찬가지라 한다.<sup>25)</sup>

601년 3월 왜의 백제와 고구려에 대한 신라공격 촉구, 601년 신라 간첩 대마도에서 체포, 602년 2~4월 신라 征討를 위한 왜군 2만 5천의 九州 筑紫 주둔, 602년 6월 신라를 협격을 협의하기 위해 고구려와 백제에 갔던 왜사절의 백제로부터 도착, 602년 8월 백제의 신라 아막성 공격, 603년 8월 고구려의 신라북한산성 공격 등의 일련의 사건들은 논리적으로 맞아 떨어진다. 今西龍이 601~3년의 『삼국사기』와 『일본서기』 기록이 대응된다고 보았던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인 듯하다.

山尾幸久·井上光貞·石母田政·李成市도 今西龍의 견해에 동의했다. 602년 아막성 전투와 603년 북한산성 전투가 왜의 촉구에 의해 일어난 것이고 602~603년 2만 5천 왜군의 九州 주둔도 이와 관련이

21) 『日本書紀』 卷22, 推古天皇 10年(602) 4月 丙, “將軍來目皇子到于筑紫,乃進屯鳴郡,而聚船舶運軍糧.”

22) 『日本書紀』 卷22, 推古天皇 10年(602) 6月 丁未朔 己酉 丙, “大伴連鬻,坂本臣糖手,共来自百濟.”

23)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眞平王 24年(602) 8월 丙, “秋八月, 百濟來攻阿莫城. 王使將士逆戰, 大敗之, 貴山箒項死之.”

24)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眞平王 25年(603) 8월 丙, “秋八月, 高句麗侵北漢山城, 王親率兵一萬以拒之.”

25) 今西龍, 『百濟史研究』, 京城 近澤書店刊行, 昭和 9年(1934) 212~216쪽.

있다고 보았다.<sup>26)</sup>

하지만 위의 601년 3월 왜가 大伴邇邇(오오)를 고구려에 坂本臣糠手(사카모토노 미나토데)를 백제에 파견한 기록에서 백제와 고구려에 명령하는 것과 같은 뉘앙스가 보인다. 가야지역에 대해 麗濟가 급하게 병력을 보내라는 것이다. 『일본서기』 특유의 어법이다.

7세기의 『일본서기』 기록은 정확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만들어진 8세기 초반의 율령적 이데올로기로 가필·윤색이 가해진 것을 부정할 수 없다.<sup>27)</sup> 가령 추고 31년 조의 기록을 보아도 “임나의 땅을 빼앗아 백제에 사여하려 한다”는 식의 기록이 나온다. 三品彰英과 鬼頭清明은 물론이고 한국의 다수 학자들이 한반도와 九州에서 일어난 두 사실의 관계 여부에 대해서는 선뜻 수긍하지 않았거나 무시했던 것도 이와 관련이 있는 듯하다.

그러나 三品과 鬼頭도 602~3년 왜군의 九州 筑紫 주둔 사실 자체는 완전히 부정하지 못했다.<sup>28)</sup> 8세기 초중반에 편찬된 것으로 보이는 『肥前国風土記』에서 推古天皇대 來目皇子가 축자에 군대를 이끌고 와서 주둔한 기록이 보이기 때문이다.

三根郡 物部郷 이 郷의 가운데 神社가 있다. 物部 經津主神이라 했다. 囊者에 小墾田宮에서 나라를 다스릴 적에(御宇) 豊御食炊屋姫天皇(추고천황)이 來目皇子에게 영을 내려 將軍으로 삼아 新羅를 정벌하게 했다. 그때皇子가 勅을 받들어 筑紫에 도착하여 이내 物部若宮部을 파견하여 그 촌에 神社를 세우게 하고 그 神을 鎮祭했다. 인하여 物部郷이라 했다.

26) 山尾幸久, 「大化前後の東アジア情勢と日本の政局」, 『日本歴史』 229號, 日本歴史會編輯, 1967年 6月, 28쪽. 石母田政, 『日本の古代國家, 岩波新書, 1971[2001], 23쪽. 井上光貞, 「推古朝外交政策の展開」, 『聖德太子論集』, 平樂寺書店, 1971, 36~37쪽. 李成市, 「高句麗와 日隋外交」, 『이우성정년기념논총』, 1990, 158쪽~159쪽.

27) 延敏洙, 「日本書紀 ‘任那調’ 關係記事檢討」, 『九州史學』 105, 1992; 『고대한일관계사』, 혜안, 1998, 338~340쪽 참조

28) 三品彰英, 「聖德太子の任那對策」, 『聖德太子論集』, 平樂寺書店, 昭和46(1971), 7~15쪽. 鬼頭清明, 「推古朝をめぐる國際的環境」, 『日本古代國家形成と東アジア』, 校倉書房, 1976, 89~90쪽.

(三根郡) 漢部郷 옛날에 來目皇子가 新羅를 정벌할 때 忍海漢人에게 칙을 내려 그 村에서 兵器를 제조하게 했다. 인하여 이르기를 漢部郷이라 했다.<sup>29)</sup>

『肥前国風土記』(히젠국, 현재의 사가현·나가사키현)는 현존하는 5개의 풍토기 중 하나이다. 『風土記』는 奈良에 平城京이 遷都되고, 지방 제도가 정비된 元明天皇대에 諸国の 国司·郡司를 총동원하여 작성한 郷土誌의 文書이다.<sup>30)</sup>

和銅 6年(713) 畿内七道 諸国은 그 郡内에서 생산되는 銀銅, 彩色, 草木, 禽獸, 魚虫 등의 그 품목을 기록하고 또한 토지의 沃涯, 山川原野의 名号의 所由, 옛날부터 전해오는 旧聞異事를 史籍에 기록하여 올리라는 명을 천황이 내렸다.<sup>31)</sup> 713년에 자료 수집 명령이 지방 관리들에게 하달되었고, 714년 2월 戊戌에 紀朝舊人과 三宅臣藤麻呂에게 편찬이 맡겨졌다.<sup>32)</sup>

713년 肥前国 관리들이 관할하는 각 지역의 현지를 조사했을 것이고, 三根郡 物部郷과 漢部郷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현지의 신사와 지명 유래를 듣고 기록했던 것으로 보인다. 來目皇子가 筑紫에 주둔한 사실, 그가 物部郷에 神社를 창건한 사실, 漢部郷에서 무기를 제조하게 한 사실 등이 100여 년 후에도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 있었다.<sup>33)</sup> 推古(豐御食炊屋姫天皇)대 來目皇子가 이끄는 왜군이 筑紫에 주둔했던 것이

29) 『肥前国風土記』三根郡 物部郷 “此郷之中有神社 名曰物部經津主之神 囊者小墾田宮御宇豐御食炊屋姫天皇 令來目皇子爲將軍征伐新羅. 宇時皇子奉勅到於筑紫 乃遣物部若宮部 立社於此村鎮祭其神 因曰物部郷.” 『肥前国風土記』三根郡 漢部郷 “昔者來目皇子爲征伐新羅 勅忍海漢人將來居此村令造兵器 因曰漢部郷.”

30) 板本太郎, 『風土記について』, 『史蹟名勝千年紀念物 15-3, 昭和15(1940)年』; 『日本古代史の基礎的研究』 文獻篇, 東京大學出版會 1964, 331~342쪽.

31) 『續日本紀』 卷6, 和銅 6年(713) 5月 甲子, “制. 畿内七道諸國郡 名着好字 其郡内所生 銀銅彩色草木禽獸魚 等物. 具綠色目. 及土地沃埴. 山川原野名号所由. 又古老相傳舊聞異事 載于史籍亦宜言上.” (板本太郎 앞의 책 332쪽 참조)

32) 『續日本紀』 卷6, 和銅 7年(714) 2月 戊戌, “詔從六位上紀朝臣清人. 正八位下三宅臣藤麻呂 令撰國史.”

33) 『肥前国風土記』에는 景行天皇이나 神功皇后의 伝説과 密接한 關係에 있는 說話나 土蜘蛛·女性賊長과 관련되는 설화가 많이 기재되어 있는 것도 특징이다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조금 다른 시각도 있다. 왜와 백제의 긴밀한 협조는 인정되지만 고구려의 개입은 유보적으로 보는 鈴木英夫의 견해가 그것이다. 고구려는 가야지역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가 없으며, 601년 왜의 대고구려 사실판견 사실 그 자체가 의심된다고 했다.

또한 그에 의하면 602년 백제에서 가야지역으로 통하는 곳에 위치한 아막성의 포위 공격은 가야지역을 노리고 있던 백제의 군사행동으로 왜 왕권과의 연락을 통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며, 그것은 종래 백제의 외교에서 볼 때도 용이한 추측이라고 한다. 나아가 『日本書紀』(卷22, 推古天皇 9年(601) 3月 조)에 왜왕권이 독자의 출병계획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은 의문이며, 백제 主導로 추진된 新羅征討策으로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sup>34)</sup>

백제가 실질적으로 가장 먼저 대규모 병력을 투입했다는 점에서 鈴木英夫 지적대로 백제 主導로 추진된 新羅征討策으로 볼 수 없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고구려가 임나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는 것을 근거로 601년 大伴連嚙의 고구려 판견을 의심하는 것에는<sup>35)</sup> 동의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서기』 권21, 승준천황 3年(590) 是歲 조는 눈길을 끈다.

是歲.度尼大伴狹手彦連女善德.大伴狛夫人.新羅媛善妙.百濟媛妙光.又漢人善聰.善通.妙德.法定.照善.智聰.善智惠.善光等.鞍部司馬達等子多須奈.同時出家.名曰德齊法師.

34) 鈴木英夫, 「任那の調の起源と性格」, 『國史學』 119, 1983: 『古代の倭國と朝鮮諸國青木書店, 1996, 256~257쪽. 1967년의 논고에서 山尾幸久는 왜의 축구로 백제와 고구려의 군대가 움직였다고 보았다(앞의 논문). 鈴木英夫의 지적을 받아들인 그는 6세기 후반과 601년 이후에는 왜와 고구려를 媒介한 것은 백제였던 것으로 보았다(山尾幸久, 『古代の日朝關係』, 塙書房, 1989, 356쪽).

35) 鈴木英夫, 앞의 책 256쪽 4~5째줄.

587년 6월 蘇我馬子が 物部守屋이 천황으로 응립하려던 자신의 甥姪 穴穗部皇子를 척살한 직후였다. 아직 物部氏가 건재한 상황이었다. 같은 달 8일 善信阿尼 등이 蘇我馬子를 찾아가 백제에 불교를 배우러 갈 것을 청했고, 馬子는 왜국에 온 백제사신에게 그들의 유학을 부탁했다.

직후 善信阿尼 등은 백제로 유학을 떠났다. 3년 후인 590년 승준천황 3년에 백제에서 불교를 배워온 善信 등이 귀국했다. 아마도 그녀 아래에서 불교를 배우고자 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10여 명의 出家가 있었다. 그들 가운데 하나가 ‘大伴狛夫人’이었다. 大伴狛과 관련하여 다음의 기록은 주목된다.

“壬子，從五位 狛 朝臣秋麻呂言，本姓是阿倍也，但當石村池邊宮御宇聖朝，秋麻呂二世祖比等古臣使高麗國，因狛，實非眞姓，請復本姓，許之”<sup>36)</sup>

711년 12월이었다. 박조신추마려(狛朝臣秋麻呂)가 천황에게 자신의 본姓을 찾기를 청원했다. 본래 성은 아배(阿倍)인데 석촌지변궁(用明天皇 587~588)에 그의 2世祖인 비등고신(比等古臣)이 고구려에 사신으로 간 까닭에 ‘박(狛)’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는 천황의 허락을 받아 본래의 성으로 돌아갔다.

추마려의 조부 比等古臣은 고구려에 다녀온 이후 고마(狛)가 그 가족의 성이 되었다. 물론 그의 집안이 아배씨였다는 흔적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속일본기』 和銅 원년(708) 3월 丙午 조에는 추마려의 성과 이름이 “阿倍狛朝臣秋麻呂”라고 명기되어 있다. 추마려의 집안은 조부 이후 자연스럽게 ‘狛’성이 붙여지게 되었고, 阿倍氏 本家에서 분지되었다. 大伴狛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겨지며, 大伴氏가 왜조정의 대고구려 외교에서 활발한 활동을 했던 흔적으로 보인다.<sup>37)</sup>

36) 『續日本紀』 卷5, 和銅 4年(711) 12月 壬子 조.

37)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고에서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徐榮教, 「遣高句麗使 阿倍 比等古臣」, 『韓國古代史探究』 12, 2012, 195~234쪽.

더구나 위의 ‘大伴狛夫人’의 기록은 秋麻呂의 조부 比等古臣이 고구려에 다녀온 3년 후의 기록이다. 물론 大伴 夫人의 배우자도 추마려의 조부와 함께 고구려에 파견되었거나 바로 뒤이어 590년 이전에 고구려에 다녀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587년 가을 7월 蘇我氏와 物部氏 사이에 권력을 놓고 거대한 무력 충돌이 벌어졌을 때에도 大伴씨는 阿倍씨와 함께 蘇我씨 휘하에서 物部守屋을 타도하는데 참여했다.<sup>38)</sup>

그러나 『日本書紀通證』은 ‘大伴狛夫人’을 大伴狹手彦連이 고구려를 쳤을 때 잡은 포로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한다.<sup>39)</sup> 通證은 그녀를 大伴氏의 狛夫人으로 보고 있다.<sup>40)</sup> 이러한 논리대로 본다면 위의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大伴狹手彦連女善德(大伴狹手彦連의 딸 善德) 다음에 大伴狛夫人이 등장한다. 딸이 먼저이고 부인이 나중이다. 최상층 남자의 妻를 일컫는 夫人의 칭호를 포로에게 사용하는 것도 석연치 않다.

무엇보다 『일본서기』 권25, 대화 5년(649) 3월 己巳조에 大伴 連이란 인물이 보인다. 通證의 논리대로라면 그는 大伴氏의 狛連이 된다. 하지만 이어지는 같은 기록에서 大伴連이라고 하고 있다.<sup>41)</sup> 通證의

38) 『日本書紀』卷21, 崇峻天皇即位前紀用明天皇 2年(五八七) 7月 丙, “秋七月, 蘇我馬子宿大臣勸諸皇子與群臣, 謀滅物部守屋大連, 泊瀨部皇子, 竹田皇子, 廩戶皇子, 難波皇子, 春日皇子, 蘇我馬子宿禰大臣, 紀男麻呂宿禰, 巨勢臣比良夫, 膳臣賀施夫, 葛城臣烏那羅, 俱率軍旅進討大連, 大伴連, 阿倍臣, 平群臣神手, 坂本臣糠手, 春日臣, 〈關名字〉 俱率軍兵從志紀郡到澁河家, 大連親率子弟與奴軍, 築稻城而戰.”

39) 한편 김현구는 大伴狹手彦連이 고구려를 쳤다는 것 자체가 사실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기에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김현구外 共著, 『日本書紀 한국관계기사 연구 Ⅲ, 일지사, 2004, 33쪽).

40) 일본학계에서는 通證의 설을 따르고 있는 것 같다. 小島憲之 外 校註譯, 『日本書紀 2, 新編日本古典文學全集3 小學館 1997, 521쪽 頭註 17을 보면 “大伴 狛夫人, 大伴氏의 高句麗人 妻”라 하고 있다.

41) “是日, 以大伴 連與蘇我日向臣, 爲將領衆使追大臣, 將軍大伴連等及到黑山.” 大伴連에서 알 수 있듯이 ‘狛連’이란 이름으로 존재한다고 보기 쉽지 않다. ‘連’은 684년 天武天皇대에 제정된 ‘八色 성(姓)’, 真人:まひと-朝臣:あそん-禰 :すくね-忌寸:いみき-道師:みちのし-臣:おみ-連:むらじ-稻置:いなぎ 가운데 7번째이다. 連은 관직·관등적 성격이 있는 명칭인 듯하며, 이름이라기보다 大伴 씨의 連(무라지) ‘누구’이다. 그러나 大伴씨의 連이라 할 수도 있었다.

논리에 동의할 수 없다. 大倭伯 連이란 阿倍伯 朝臣과 마찬가지로 고구려의 전담외교에 참여하면서 大伴씨 내부에서 분지된 가계가 존재했던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李成市는 신라에 대한 고구려와 백제 그리고 왜의 포위는 인정했다. 다만 왜의 주도로 이루어졌다고는 보지 않았고, 고구려의 요청과 후원으로 보았다.<sup>42)</sup> 연민수는 전쟁보다 ‘외교’라는 관점에서 여기에 동의하고 있는 듯하다.<sup>43)</sup>

물론 이러한 추측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고구려가 백제보다 1년 늦게 신라를 공격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고구려가 주도했다면 백제보다 먼저 신라를 공격해야 했을 것이다.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고구려의 늑장은 백제에게 치명적이었다.

598·607년 백제는 수에게 고구려를 협격하자고 제의했고, 그때마다 고구려는 백제를 즉시 공격했다.<sup>44)</sup> 양국은 숙적관계였다. 백제와 관계가 좋지 못한 고구려가 왜에 요청하여 양국을 중재하게 했다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상정은 가능하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왜의 ‘의지’<sup>45)</sup>와

42) 李成市, 『高句麗와 日隋外交』, 『이우성정년기념논총』, 1990, 158~159쪽. 앞의 논문 158쪽 註48. 그리고 李成市, 『고구려 승려 혜자와 쇼토쿠 태자』, 『고대 환동해 교류사 1부-고구려와 왜-』 동북아재단 2010, 62쪽 註29에 1932년 『文教の朝鮮(1925년 9월부터 한국에서 발행된 월간지)에 연재된 今西龍의 논고『酒 時代 I』을 『聖明王의 敗死 任那의 滅亡』이라 오기하고 있고, 저자도 池内宏로 오기하고 있다. 번역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李成市, 『高句麗と日隋外交』, 『思想』 1990~9: 『古代東アヅアの民族と國家』 岩波書店 1998에는 정확히 今西龍의 그것으로 명기하고 있다. 今西龍이 『文教の朝鮮』에 昭和 5年 6월부터 연재한 논고들은 『百濟史講話』라는 하나의 장으로 묶여져 그의 『百濟史研究』 63~244쪽에 실려 있다.

43) 연민수 앞의 논문. 최근 그의 논고에서 601년 9월 신라 간첩이 대마도에서 체포되면서 왜왕권은 즉시 긴장상태에 들어갔으며, 그해 11월 신라침공을 논의하고 이듬해는 신라정토를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북구주에 來目皇子를 장군으로 하는 2만 5천의 병력을 집결시켰다고 한다. 이것은 신라와 긴장관계 표출이며 대외관계의 관문인 북구주에 대한 경비태세로 군사시설의 점검이었다고 보았다(延敏洙, 『新羅의 對倭外交와 金春秋』, 『新羅文化』 37, 2011, 4쪽).

44) 『三國史記』 권27, 백제본기 무왕 8년(607) 조. “여름 5월에 고구려가 송산성을 공격해 와서 함락시키지 못하자. 옮겨 석두성을 습격하여 남녀 3천 명을 사로 잡아갔다.”

45) 『日本書紀』 기사들 중에는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지만 임나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왜왕들의 의지에는 일관성이 있다. 이는 欽明에서 推古까지 4대에 걸친 숙원사업

실무적 중재없이 삼국의 신라협격은 계획 그 자체도 불가능하다.

고구려 주도설도 완벽하지는 않으며, 백제 주도설도 신라에 대한 선제공격이라는 결과를 놓고 본 해석이다. 아무런 선입관 없이 사료 그대로 왜가 고구려와 백제를 중재했다고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한 것이 아닌가 한다.<sup>46)</sup>

### 3. 倭의 신라출정 연기와 백제군 전멸

이제 위에서 제시한 사료로 아막성 전투 이전의 단계와 발발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살펴보자. 601년 3월 왜는 大伴連嚙를 고구려에 坂本臣糠手를 백제에 파견했다. 가야지역에 대해 麗濟가 급하게 병력을 보내라는 것이다. 왜는 신라가 점령하고 있는 가야지역에 대한 협공을 사신을 보내 려제 양국과 협의했다.

이 시기에 왜의 동향에 대한 정보수집에 신라가 열중했던 기록이 보이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601년 9월 신라의 간첩 迦摩다가 대마도(對馬)에서 체포되었다. 그것으로 왜국 내부의 신라 간첩활동이 모두 중단되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601년 11월에 왜 조정에서 신라침공이 논의되었다. 602년 2월 기유 朔에 聖德太子의 동생인 來目皇子를 對신라 정벌 장군으로 하고 神部·國造·伴造 등과 아울러 군병 2만 5천 명을 주었고, 같은 해 여름 4월에 무신 朔에 장군 來目皇子는 筑紫 도착했다. 나아가 嶋郡(福岡 鳥郡)에 주둔하여 선박을 모아 군량을 운반하였다.

이었다. 다른 건 몰라도 『日本書紀』가 자기네 천황들의 의지표명까지 굳이 조작해 넣었으리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이희진, 「가야의 멸망과정과 ‘任那調’, ‘任那復興’의 의미」

『한국고대사 속의 가야』,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1).

46) 山尾幸久, 「大化前後の東アジア情勢と日本の政局」, 『日本歴史』 229號, 日本歴史會編輯, 1967年 6月, 28쪽.

九州에서 왜군 2만 5천이 신라출정준비를 하고 있었다. 신라도 왜군의 상륙이 예상되는 남해안에 병력을 집중시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今西龍이 지적한 바와 같이 『삼국사기』 귀산전을 보면 아막성 전투 종료 직후 진평왕이 신하들과 함께 전사한 귀산과 추항을 맞이한 阿那之野는 咸安이었다.<sup>47)</sup>

602년 8월 당시 진평왕은 신하들과 함께 군대를 이끌고 남해안의 전략적 요충지인 함안에 진을 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남원 운봉 아막성에서 승리한 전투를 치른 귀산과 추앙이 왕경으로 가지 않고 함안으로 향한 것은 왜의 상륙에 대비해 신라 병력이 그곳에 재배치되는 것을 반영한다고 여겨진다. 당시에도 왜군 2만 5천은 여전히 九州 筑紫에 주둔하고 있었다. 신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들이 언제 침공해 올지 몰랐다.<sup>48)</sup>

고구려에 파견된 大伴連嚙이 견백제사 坂本臣糠手와 함께 602년 6월 백제로부터 귀국했다.<sup>49)</sup> 고구려로 간 왜사의 백제로부터의 귀국에 대해 왜왕권의 대고구려 접촉 내용을 백제 측에 알리기 위한 것이었고, 왜왕의 특명에 의해 그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 견해가 있다. 고구려-백제-왜의 긴밀한 협조관계 속에서 신라에 대한 포위망이 형성되고 있었다는 것이다.<sup>50)</sup>

왜국의 제안에 대한 반응이 백제에서 먼저 나왔다. 602년 8월 백제 무왕은 군대를 지리산 중턱 아막성으로 진군시켰다. 아막성은 지금의 남원 운봉지역으로 그 부근에 지리산의 고개 팔랑치가 위치해 있다. 그것을 넘어서면 함양이 나오고 남강을 따라가면 가야지역이다. 『삼국사기』 무왕 3년 조는 이렇게 전하고 있다.

47) 今西龍, 『百濟史研究』, 京城 近澤書店刊行, 昭和 9年(1934), 212~216쪽.

48) 서영교, 「阿莫城 전투와 倭」, 『歷史學報』 216, 2012, 7~12쪽. 고구려 백제에 대한 왜국의 신라협력 제안은 앞의 논고에 소개되어 있다.

49) 『日本書紀』 卷22, 推古天皇 10年 (602) 6月 조.

50) 연민수, 「7세기 東아시아 정세와 倭國의 對韓政策」, 『新羅文化』 24, 2004, 44쪽. 다만 여기서는 외교적 시각에서 보았다. 앞서 井上光貞은 601~603년의 그것을 新羅에 對한 「軍事的 外交」로 표현하고 있다(앞의 논문 40쪽, 44쪽).

“왕이 군사를 출동시켜 신라의 아막성을 포위하였다. 신라왕 진평이 정예기병 수천 명을 보내 막아 싸우니 우리군사가 이득을 얻지 못하고 돌아왔다.”  
 “신라가 소타·외석·천산·옹잠 등 네 성을 쌓고, 우리 변경에 침범하였다. 왕이 노하여 좌평 해수에게 명령하여 보병과 기병 4만 명을 거느리고, 그 네 성을 공격케 하였다. 신라 장군 건품, 무은이 군사를 거느리고 마주 싸웠다. 해수가 불리해지자 군사를 이끌고 천산 서쪽의 소택지로 퇴각하여 복병을 숨겨 놓고 기다렸다. 무은이 승세를 타고 갑병 1천 명을 거느리고 소택지까지 추격하여 왔을 때, 복병이 달려들어 갑자기 공격하였다. 무은은 말에서 떨어지고 군사들은 놀라고 당황하여 어찌할 줄을 몰랐다. 무은의 아들 귀산이 큰소리로 말했다.

[내 일찍이 스승에게 들으니 ‘군사는 적을 만나서는 물러서지 말라’고 하였는데 어찌 감히 도망하여 스승의 가르침을 저버리겠느냐!]

그는 말을 아버지에게 주고 즉시 소장 추항과 함께 창을 휘두르며 힘껏 싸우다가 사망하였다. 나머지 군사들이 이를 보고 더욱 분발하여 우리 군사가 패배하고, 해수는 겨우 위기를 모면하여 단신으로 돌아왔다.”<sup>51)</sup>

602년 8월 백제군이 아막성을 포위했다. 신라가 기동성이 있는 騎兵 수천을 급히 파견하여 그 포위를 풀었고, 백제군은 일단 후퇴했다. 아막성에 대한 선제공격에 백제군 4만이 모두 동원된 것은 아닌 듯하다. 이는 신라가 아막성 주변에 4개성을 쌓고 백제영토로 침공해오자 백제가 步騎 4만을 동원하여 반격했다고 명기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신라의 기병 수천이 상대한 백제군은 본대가 아니라 선발대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51) 『三國史記 권27, 백제본기 무왕 3년 조. “秋八月, 王出兵, 圍新羅阿莫山城[一名毋山城]. 羅王眞平遣精騎數千, 拒戰之, 我兵失利而還”. “新羅築小城, 畏石泉山壑峯四城, 侵逼我疆境. 王怒, 令佐平儼, 帥步騎四萬, 進攻其四城. 新羅將軍乾品武殷, 帥衆拒戰. 儼不利, 引軍退於泉山西大澤中, 伏兵以待之. 武殷乘勝, 領甲卒一千, 追至大澤, 伏兵發急擊之. 武殷墜馬, 士卒驚駭, 不知所爲. 武殷子貴山大言曰, 吾嘗受教於師曰, ‘士當軍, 無退.’ 豈敢奔退, 以墜師教乎? 以馬授父, 卽與小將項, 揮戈力鬪以死. 餘兵見此益奮, 我軍敗績, 解僅免, 單馬以歸.”

신라의 원군 가운데 將軍 무은 그리고 少將인 귀산·추향도 있었다.<sup>52)</sup> 신라군이 백제군을 대패시킨 곳이 泉山大澤에 한정하여 볼 수 없고 그곳에서 승기를 잡은 신라군이 운봉분지의 넓은 들판에서 기병으로 백제군을 전멸시켰으며, 귀산과 추향은 신라 원군 수천 기병의 구성원이었다고 본 견해가 있다.<sup>53)</sup>

아막성 전투를 泉山大澤에 한정하여 보지 않았다.<sup>54)</sup> 이는 아막성 전투의 전개양상과 관련하여 상당히 진전된 지적이다.<sup>55)</sup> 하지만 신라의 원군 규모를 아막성의 포위를 풀기 위해 급히 출동시킨 ‘수천 기병’으로 한정하여 보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가능성이 낮다. 말을 먹이고 관리해야 할 기병 수천으로 4개성 축성을 해냈고, 4만의 백제군을 전멸시켰다는 것은 선뜻 수긍할 수 없다.

산술적으로 보아도 그렇다. 백제 병력은 步騎 4만으로 보병과 기병으로 이루어진 병력이었다. 그 가운데 1/10이 기병이라고 해도 4천으로 신라의 기병 수천을 상회할 수도 있는 규모이다. 백제의 병력운용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수천의 기병으로 신라가 4만 대군을 전멸시켰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무은·귀산·추향이 말을 타고 있었다 해도 그것은 그들이 장군이나 장교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들은 신라 장군 무은 휘하의 ‘甲兵 1천’에 속했고, 백제가 아막성을 공격하자 진평왕이 출동시킨 ‘將士’였다.<sup>56)</sup>

신라기병 수천은 아막성의 포위를 풀기 위해 급하게 출동한 선발대이고, 무은·귀산·추향 등은 공병을 대동한 대규모 2차 원군이라 여겨진다.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신라군들은 아막성을 주위로 소타성·

52) 『三國史記 권45 열전 제5 귀산전.』

53) 金周成, 「백제 무왕의 대야성 진출 기도」, 『百濟研究 49, 2009, 46쪽.』

54) 김수태는 아막성 전투를 泉山大澤 지역으로 한정해서 보았다(김수태, 『백제의 전쟁 주류성, 2007 189쪽.』)

55) 필자는 직전에 제출한 논문에서 金周成 교수의 이 견해에 대해 주석을 달지 않는 본의 아닌 실수를 했다(서영교, 「阿莫城 전투와 倭」, 『歷史學報』 216, 2012. 12, 251쪽·267쪽.』)

56) 『三國史記』 卷4, 眞平王 24年(602) 8월 조.

외석성·천산성·웅잠성 등 4개의 요새를 건설했을 뿐만 아니라 백제영토로 진격하여 백제 4만 대군을 전멸시킬 정도의 규모였을 것이다.

신라의 원군 도착과 관련하여 『일본서기』 권22, 추고천황 10년(602) 6월 조가 주목된다.

6월 丁未 朔 己酉에……이때 來目皇子는 병에 걸려 신라정벌을 다하지 못하였다.

앞서 6월에 九州에서 신라를 향해 출발하려던 왜군의 총사령관 來目皇子가 築紫에서 병에 걸렸다. 같은 사실을 『聖德太子傳曆<sup>57)</sup>』 上卷7, 十年(三十一歲 602), 夏 4月 조는 이렇게 전하고 있다.

來目皇子가 築紫에 도착했는데, 臥病으로 不進했다. (聖德)太子가 그것을 듣고, 左右에게 말하기를 “新羅奴 등이 將軍(래목황자)을 厭魅(저주)함이 果度하지 않았나 의심된다.”

聖德太子가 新羅(奴) 등이 장군인 황자를 저주하여 병이 걸렸다고 좌우에게 말했다. 이 기록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또한 來目皇子의 와병으로 왜군의 출병이 연기된 사정을 신라가 파악했다는 증거로도 볼 수 없다. 다만 왜가 九州에서 신라 간첩들의 활동을 의식하고 있었고, 동시에 신라가 九州에서 왜군의 움직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 하나의 방증일 수는 있다.

왜의 신라출병 지체는 신라가 병력을 아막성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고 여겨진다. 그것은 백제에게 치명적이었다. 백제군의 목표는 지리산을 돌파하여 남강유역의 가야지역 장악에 있었다.<sup>58)</sup>

57) 『聖德太子傳曆』 和銅의 日本 『日本記』 그리고 『日本書紀』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있다. 坂本太郎, 『『聖德太子傳曆』 日本書紀』, 『南都佛教』 29, 昭和 47년(1972) 2月 刊行; 『日本古代史叢考』, 吉川弘文館, 1983, 1~21쪽.

58) 今西龍, 『百濟史研究』, 京城 近澤書店刊行, 昭和 9年(1934), 215쪽.

백제군이 任那로 가기 위해 통과할 고개로 여겨졌던 운봉이 결과적으로 결전의 장소가 되었다. 『삼국사기』 귀산전은 전투의 결과를 이렇게 전하고 있다. “적(백제군)의 넘어진 시체가 들판에 가득하여 한 필의 말, 한 채의 수레도 돌아간 것이 없었다.”

가야지역 구원요청을 먼저 한 왜군은 오지 않았고, 뒤에 언급하겠지만 고구려는 1년 지각을 했다. 그 와중에 백제군은 병력 4만을 잃었다. 재앙적인 패전은 백제의 왜·고구려 관계에 어둠을 던졌다.

왜의 출병연기의 주요 원인은 來目皇子의 와병이었다. 그것은 조작한 것이 아니었다. 이듬해 九州 주둔지에서 그 결과가 보인다.

(推古) 11년 봄 2월 癸酉 초하루 丙子 來目皇子가 筑紫에서 죽었다. 이에 驛使를 보내어 아뢰니, 天皇이 듣고 크게 놀라 皇太子와 蘇我大臣을 불러, “신라를 정벌하는 대장군 來目皇子가 죽었다. 그가 큰일에 임하고도 완수하지 못하였으니, 매우 슬프도다” 라고 말하였다.<sup>59)</sup>

603년 2월 신라정벌 장군 來目皇子가 죽었다. 같은 해 4월과 7월에 변화가 있었다. 『일본서기』 권22, 추고천황 11년(603) 여름 4월 조와 7월 조를 보자.

4월 朔에 래목황자의 兄 當摩皇子를 신라 정토의 장군으로 하였다.

7월에 辛丑 朔 癸卯(3일)에 당마황자는 배로 난파를 뒀다. 丙午(6일)에 당마황자가 播磨에 이르렀을 때, 따라오던 처 舍人姬王이 赤石에서 죽었다. 그래서 척석의 檜笠岡 위에 매장하고 당마황자는 되돌아와서 마침내 정토하지 않았다.

---

김태식, 「백제의 가야지역 관계사 : 교섭과 정복」, 『백제연구논총』 5, 충남대백제연구소, 1997, 76쪽

59) 『日本書紀』 권22, 推古天皇 11年(603) 2月 丙子 “十一年春二月癸酉朔丙子。來目皇子薨於筑紫。仍驛使以奏上。爰天皇聞之大驚。則召皇太子。蘇我大臣。謂之曰。征新羅大將軍來目皇子薨之。其臨大事而不遂矣。甚悲乎。”

603년 4월 來目皇子가 죽고 그 자리에는 當摩皇子가 임명되었다. 하지만 7월 當摩皇子의 처가 죽고 그가 돌아가면서 왜국의 신라침공계획이 중지되었다.

#### 4. 북방초원의 정세변화와 고구려의 등장 출정

왜군이 九州에서 철병한 바로 그 다음 달인 8월에 고구려는 신라의 북한산성을 공격했다.

(영양왕 14년(603) 왕은 장군 고승을 보내 신라의 北漢山城을 공격했다. 신라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漢水를 건너오니, 성안에서 (신라군이) 북 치고 소리 지르며 서로 호응하였다. 고승은 저들이 수가 많고 우리는 적으므로, 이기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여 물러났다.<sup>60)</sup>  
(진평왕 25년) 가을 8월, 고구려가 北漢山城을 침공하니, 왕이 친히 병력 1만을 이끌고 가서 그것을 막았다.<sup>61)</sup>

진평왕은 친히 병력 1만을 한강 하류까지 이끌고 가서 북한산성을 구원했다. 사료 상에서 왜군의 筑紫철병과 고구려의 북한산성공격은 1개월의 차이가 있다. 신라의 원군 1만은 원거리를 이동해온 군대였다. 하지만 고구려 장군 고승은 싸워보지도 않고 철수했다. 그는 진평왕이 친히 1만의 원군을 이끌고 온 것을 보고 왜군의 철병을 감지했을 수도 있다.

고구려가 왜와 약속을 준수하기 위해 군이 출병을 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기회가 왔을 때 한강하류의 중요한 거점인 북한산성을 신라로

60) 『三國史記 권20, 고구려본기 영양왕 14년 조.

61) 『三國史記 권4, 신라본기 진평왕 25년(603) 조.

부터 탈취해야 했다. 그곳을 차지하면 고구려가 한강하류 지배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고구려의 신라 북한산성 공격 시점은 정확히 백제의 신라 아막성 공격과 12개월의 차이가 난다. 1년 전에 고구려가 신라를 공격했다면 진평왕은 직접 대군을 이끌고 와서 북한산성을 구원하기 곤란했을 것이고, 고구려가 신라 서북방의 거점인 북한산성을 차지했을 수도 있다. 고구려가 신라의 전력을 북쪽으로 분산시켜 백제도 아막성에서 재앙적인 패배를 당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고구려는 뒤늦은 출병으로 북한산성을 탈취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지체된 이유는 무엇인가. 고구려의 서북방 상황을 살펴보자.

601년 3월 왜의 사신 大伴鸕鷀이 고구려에 와서 신라를 공격하자고 요청을 하였을 때 상황은 나쁘지 않았다. 600년 都藍가한 雍虞闔가 그 부하에게 살해되자<sup>62)</sup> 서돌궐의 가한 阿史那玷厥, 達頭可汗은 동쪽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돌궐 제국의 재통합을 실현시키고자 하였다.

비잔틴제국의 사료에 타르두(Tardu)로 나오는 그는 먼저 중국의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수(隋)의 수도인 장안을 위협했다. 601년 1월 서돌궐의 달두가한의 공격으로 수의 장군 韓洪이 恒安鎮(산서성 大同市)에서 궤멸되었다.<sup>63)</sup>

사태가 이렇게 되자 수나라의 지원을 받던 啓民可汗 휘하의 斛薛(돌궐계 유목부족, 鐵勒의 하나) 등의 여러 부락들이 이탈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602년 달두가한은 오르도스의 계민가한을 공격했다. 달두가한의 부하인 阿勿思力俟斤 등이 계민가한을 공격하여 남녀 6천과 가축

62) 『隋書』 권84, 돌궐전, “雍虞闔侵掠不已, 遷於河南, 在夏”, 勝二州之間, 發徒掘塹數百裏, 東西拒河, 盡啟民畜牧之地. 於是遣越國公楊素出靈州, 行軍總管韓僧壽出慶州, 太平公史萬歲出燕州, 大將軍姚辯出河州, 以擊都藍. 師未出塞, 而都藍其麾下所殺.”

63) 『資治通鑑』 권179, 수기3 문제 인수 원년(601) 정월 조.

20만 두를 약탈해갔다.<sup>64)</sup>

하지만 이에 대응하는 수문제 양건의 공작은 매우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달두가한 휘하에 있는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시베리아 바이칼 부근에 위치한 鐵勒과 시베리아 예니세이 강 상류에 위치한 僕骨의 반란은 그해 달두가 동쪽 몽골리아에서 계민가한을 공격하느라 서쪽의 본거지를 비운 사이에 일어났다.<sup>65)</sup>

『자치통감』 권179, 수기3 문제 인수 2년(602) 봄 3월 조를 보면 “이로부터 돌궐은 멀리 숨었고, 사막의 남쪽에는 다시 노략질하는 일이 없어졌다.”<sup>66)</sup>라고 하고 있다. 계민가한은 수의 후원 아래 몽골리아를 장악한 것 같다. 그 결과를 『자치통감』 권19, (수)문제 인수 3년(603) 9월 조 아래에 있는 是歲 조의 마지막 부분은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돌궐의 보가(步迦-달두)가한이 거느리는 부락이 크게 어지러웠고, 鐵勒과 僕骨 등 10여 부락이 모두 배반하니, 보가 가한이 계민 가한에게 항복하였다. 보가 가한의 무리는 무너져서 서쪽으로 가서 토욕혼으로 달아났고, 長孫晟은 계민가한을 보내어 磧口(내몽골 蘇尼特右旗)에 두었으며, 계민가한은 이에 보가가한의 무리를 다 소유하였다.”<sup>67)</sup>

위의 사료는 達頭가한의 패망의 결과 이후 1년 이상의 기간을 일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그리니까 602년 3월부터 603년 9월까지 사이의 기록이다. 결과는 달두가한에게 치명적인 것이었다. 달두는 자신의 영역 안에서 세력기반을 상실했다.

64) 『隋書』 권84, 돌궐전, “仁壽元年, 代州總管韓擒虎虜所敗於互安, 廢為庶人. 詔楊素為雲州道行軍元帥, 率民北征. 斛薛等諸姓初附, 民至是而叛. 素軍河北, 值突厥阿勿思力俟斤等南度, 擄民男女六千口, 雜畜二十餘萬而去.”

65) 르네 그루세는 수나라의 초원공작을 암시하고 있다(르네 그루세, 『유라시아 유목제국사』 (김호동외 譯) 사계절 1998, 151쪽).

66) 『資治通鑑』 권179, 수기3 문제 인수 2년(602) 봄 3월 조; “自是突厥遠遁, 磧南無複寇抄.”

67) “突厥步迦可汗所部大亂, 鐵勒仆骨等十餘部, 皆叛步迦降於啟民. 步迦眾潰, 西奔吐穀渾; 長孫晟送啟民置磧口, 啟民於是盡有步迦眾.”

602년부터 시작된 서돌궐의 달두가한의 붕괴는 고구려에게 불리한 것이었다.<sup>68)</sup> 서돌궐은 수나라 휘하의 계민가한의 군대를 초원에 묶어 둘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었다. 수나라의 지원을 받고 있는 계민가한 휘하에 돌궐 제부족이 통합되었다. 초원에 대한 수나라의 통제력이 상승했다.

고구려는 수가 계민가한의 동돌궐 병력을 동원하여 침공해 올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할 상황이었다. 급격한 변화는 고구려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었다. 사태를 관망해야 했던 고구려는 신라침공을 연기해야 했을 것이다.

초원의 상황변화가 고구려의 남방정책과 연동되어 작용했던 것 같다. 『삼국사기』 권4, 진평왕 26년(604) 조를 보면 “南川州를 폐하고 北漢山州를 설치하였다.”라고 하고 있다. 604년 신라는 경기도 이천지역에 있는 남천주를 폐하고 한강 이북에 북한산주를 설치하여 한강하류방면에서 주치를 복진시켰다.

605년 신라는 패전으로 약해진 백제를 공격하기까지 했다. 『삼국사기』 권27, 무왕 6년 조를 보자.

6년(605) 봄 2월에 角山城을 쌓았다. 가을 8월에 신라가 동쪽 변경을 쳤다.

角山城은 지금의 전북 정읍 내장면 葛岷으로 추정하고 있는 견해도 있다.<sup>69)</sup> 605년 가을 8월에 신라가 백제의 동쪽 변경을 공격했다. 국지적인 전투가 있었겠지만 백제가 여기에 대항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병력이 고갈된 상태에서 무왕은 반격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어려워진 백제의 사정을 설명하듯이 606년 3월 사비도성에

68) 602년 서돌궐 달두가한의 붕괴에 대해서는 여호규가 지적한 바 있다(여호규, 「6세기 말 ~7세기 초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고구려 대외정책의 변화」, 『역사와 현실』 46, 2002, 30쪽.) 다만 그는 603년 8월 고구려의 북한산성 공격을 서북으로의 진출이 막히자 남쪽으로 전력을 투사한 것으로 보았다.

69) 井上秀雄 譯註, 『三國史記』, 1983, 382쪽.

흠비(雨土)가 내려 낮에도 밤처럼 어두웠다.<sup>70)</sup>

백제입장에서 보았을 603년 8월 고구려의 북한산성 침공은 극장 대응이었다. 고구려와 백제는 공동이해를 가지고 협력 ‘계획’에 함께 참여하면서 가까워질 수도 있었지만 ‘계획’이 틀어지면서 양국의 관계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던 것으로 보인다.

백제는 고구려에 대해 외교적으로 적대적인 조치를 취한다. 607년 백제는 수나라에 사신을 보냈다. 그해 동돌궐 계민가한의 牙帳(천막궁정)에서 수양제가 고구려사신과 마주쳤고, 양국의 사이가 악화되었다. 『수서』 권81, 백제전을 보면 그해 백제가 사신 王孝隣을 보내와 고구려 토벌을 청했다고 한다. 수양제는 그것을 허락하고 고구려의 동정을 엿보게 하였다.<sup>71)</sup> 여기에 대한 고구려의 반응은 바로 나타났다.<sup>72)</sup> 『삼국사기』 권27 무왕 8년(607) 5월 조를 보자.

여름 5월에 고구려가 松山城을 공격해 와서 함락시키지 못하자. (군사를) 옮겨 石頭城을 습격하여 남녀 3천 명을 사로잡아 돌아갔다.

70) 『三國史記』 권27 백제본기 무왕 6년 조.

71)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문장에 “그러나 璋(백제 무왕)은 고구려와 連和하면서 속임수로 중국을 엿본 것이었다.”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백제의 속임수는 607년 당시에 바로 認知한 것이 아니었다. 이는 그 뒤에 이어지는 문장을 보자. “대업7년(611) 양제가 몸소 고구려를 정벌하려 하자 璋이 그의 신하 國智牟를 보내와 출병의 시기를 물었다. 양제가 크게 기뻐하여 尙書起部郎 席律을 백제에 보내어 서로 알게 하였다. 이듬해(612)에 六軍(황제의 군대)이 遼水를 건너니, 璋도 군사를 (고구려의) 국경에 배치하고 隋軍을 돕는다고 공공연히 말하면서 실제로 兩端策을 쓰고 있었다.” 612년 고구려와 전쟁이 발발되면서 백제가 속였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612년의 백제의 양단책에 대한 인식이 607년으로 일부 옮겨져 『수서』 권81, 백제전에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72) 『수서』 권81, 동이 백제전. 실제 백제 무왕은 수양제의 고구려 침공이 결정된 직후인 611년 2월에도 사신 국지모(國智牟)를 파견하여 행군기일을 요청하기까지 했다. 그러자 수양제는 사신 석율(席律)을 백제에 보내 무왕과 서로 모의하게 했다. 공격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다. 하지만 백제는 말과 행동이 달랐다. 『수서』 권81, 동이 백제전은 “이듬해(612) (수나라의) 육군(六軍)이 요수(遼水)를 건너니, (백제) 무왕(璋)도 군사를 (고구려의) 국경에 배치하고 수군을 돕는다고 공공연히 말하면서 실제로는 兩端策을 쓰고 있었다.”라고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607년 당시부터 의도적으로 수를 속이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앞의 기록을 그대로 믿는다고 해도 백제의 양단책은 그로부터 5년 후인 612년에 실행되었다.

백제와 고구려의 관계 재악화는 고구려와 전쟁을 앞둔 수의 입장에서 백제를 동맹세력으로 믿을 수 있는 하나의 유력한 조건이 되었다.

## 5. 국서탈취에 대한 倭·隋의 默過와 倭·新羅 관계 정상화

그 이듬해 백제의 국서 탈취사건이 일어났다. 『일본서기』는 608년의 그 사건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16년(608) 여름 4월 小野臣妹子가 大唐으로부터 도착하였다. 당나라에서 妹子臣을 ‘蘇因高’라고 불렀다. 대당의 사신 裴世淸과 下客 12인이 妹子臣을 따라 筑紫에 이르렀다. 難波 吉士 雄成을 보내어 대당의 사신 裴世淸 등을 부르 고, 당나라 사신을 위하여 다시 새 館舍를 難波 高麗館의 위에 만들었다.<sup>73)</sup>

6월 壬寅 초하루 丙辰 사신들이 難波津에 정박하였다. 이날 飾船 30척으로 사신들을 강 입구에서 맞이하여 新館에 안치하였다. 이에 中臣宮地連烏摩呂·大河內直糠手·船史王平을 掌客으로 삼았다. 그러자 妹子臣이, “(臣이) 돌아올 때에 당나라 황제가 서찰을 신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백제를 지나올 때에 백제인이 조사하여 빼앗았으므로 올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라고 아뢰었다. 이에 군신들이 의논하여, “무릇 사신이란 비록 죽을지라도 소임을 잃지 않아야 하는 법인데, 이 사신은 어찌 그렇게 태만하여 대국의 서찰을 잃어 버렸는가”라 하고, 유배형에 처하였다. 그때 천황이 칙을 내려, “妹子는 비록 서찰을 잃어버린 죄가 있으나, 경솔하게 이를 처벌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다.

73) 『日本書紀』 卷22, 推古天皇 16年(608) 4月 丙, “夏四月.小野臣妹子至自大唐.唐國號妹子臣曰蘇因高.即大唐使人裴世淸.下客十二人.從妹子臣至於筑紫.遣難波吉士雄成.召大唐客裴世淸等.爲唐客更造齋於難波高麗館之上.”

그 대국의 사신들도 이를 듣고 또한 좋지 않다고 하므로, 죄를 용서하여 처벌하지 않았다.<sup>74)</sup>

608년 수황제의 국서를 가지고 귀국하던 왜국의 사절이 백제의 해안가를 지나갔다. 백제는 왜국의 사절단의 손에 들려 있는 황제의 국서를 압수했다. 국서를 빼앗긴 妹子는 왜 조정에서 처벌받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백제의 강압에 못이겨 국서를 절도당한 사정을 잘 알던 수나라의 사신들이 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천황도 그의 죄를 용서했다.

노중국은 실권을 장악한 성덕태자가 593년부터 603년까지 백제와 긴밀한 관계를 추구하였지만 603년 이후 614년 사이에 왜의 대백제정책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난다고 한다. 『일본서기』에 이 시기 백제와 왜 사이의 사신왕래기사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한다. 그는 603년~614년의 외교공백은 양국 사이에 문제가 있음을 말해주며, 국서탈취사건을 그러한 맥락에서 보았다.

또한 그에 의하면 백제와 왜 양국의 관계는 늘 우호적인 관계로 지속된 것이 아니라 자국의 정치상황의 변화나 동아시아 정세변화에 따라 대립과 갈등 관계를 빚기도 했고, 외교공백과 백제의 국서탈취사건도 그러한 일로 발생하는 사건의 일부로 보았다.<sup>75)</sup>

외교공백이 양국간의 문제 있었음을 의미하며 국서탈취사건을 그러한 맥락에서 본 것은 동의한다. 하지만 외교적 공백의 원인을 성덕태자의 ‘독자노선추구’로 돌리고 있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그는 아막성 전투의 참사가 양국의 관계 악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아막성의 참사의 결과를 놓고 602년 10월<sup>76)</sup>

74) 『日本書紀』 卷22, 推古天皇 16年(608) 6月 丙, “六月壬寅朔丙辰, 客等泊于難波津, 是日, 以飭船卅艘迎客等于江口, 安置新館, 於是, 以中臣宮地連摩呂, 大河內直糠手船史王平爲掌客, 爰妹子臣奏之曰, 臣參選之時, 唐帝以書授臣, 然經過百濟國之日, 百濟人探以掠取, 是以不得上, 於是羣臣議之曰, 夫使人雖死之不失旨, 是使矣, 何怠之失大國之書哉, 則坐流刑, 時天皇勅之曰, 妹子雖有失書之罪, 輒不可罪, 其大國客等聞之亦不良, 乃赦之不坐也.”

75) 노중국, 「7세기 백제와 왜와의 관계」, 『국사관논총』 52, 1994, 156~157, 160~162쪽.

76) 『日本書紀』 卷22, 推古天皇 10年(602), “겨울 10월 백제 승려 觀勒이 왔다. 이에 曆本

이후에서 615년<sup>77)</sup> 사이에 12년 동안 백제와 왜의 외교관계기록 공백은 보다 합리적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닐까.

井上光貞의 지적대로 602~3년 신라정벌 사령관에 聖德太子의 두 동생(來目皇子와 當摩皇子)을 임명했다.<sup>78)</sup> 왜는 결과적으로 신라를 침공하지 않았고, 고구려가 1년 늦게 신라를 공격했다. 그러한 와중에 백제가 아막성에서 4만의 병력을 상실하는 참패를 당했다. 여기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왜의 입장이었다. 백제의 국서탈취에 대해 왜가 항의한 어떠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

한편 국서탈취사건은 수황제의 권위까지 손상시킨 일대 사건이었다.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적대국인 고구려를 둘러싼 여러 나라의 움직임에 수나라의 관심이 증폭된 시기였다. 608년 백제의 국서탈취사건 현장에 있었던 遣使使 裴世清이 귀국한 후 수나라가 사건에 대해 몰랐다고 보기도 쉽지 않다.

하지만 수나라도 어떠한 반응을 하지 않았다. 황제를 모독하는 일을 저질렀는데도 백제에 대한 수나라의 상응 조치가 없었던 것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西嶋定生の 지적대로 번국 신하의 예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책봉체제의 유지는 말 그대로 수나라가 국운을 걸고 행하던 사업이었고, 고구려 원정의 결과에 명운을 걸었던 수양제였다.<sup>79)</sup>

수양제는 그로 인해 파생되는 또 다른 문제를 비켜갈 수는 없었던

---

과 天文·地理書 및 遁甲方術書를 바쳤다. 이때 書生 3,4명을 선발하여 관료에게 배우도록 하였다. 陽胡史의 선조인 玉陳은 曆法을 익혔고, 大友村主 高聰은 天文·遁甲을 배웠으며, 山背臣 日立은 方術을 배워, 모두 배움에 성취가 있었다.”

77) 『日本書紀 卷22, 推古天皇 23年(615) 조, “23년 가을 9월 犬上君御輶 와 矢田部造가 唐에서 돌아왔다. 百濟의 사신이 犬上君을 따라 來朝하였다. 11월 己丑 초하루 庚寅 百濟사신에게 향응을 베풀었다.”

78) 井上光貞, 『推古朝外交政策の展開』, 『聖德太子論集』 平樂寺書店, 1971, 36~37쪽.  
石母田政, 『日本の古代國家』 岩波新書, 1971[2001], 32~33쪽. 石母田政은 曷曷 장군의 임명 그 형태는 성덕태자가 군사를 통수하는 체제의 결과로 여겨진다고 보기도 했다. 이와는 별도로 그는 친백제적인 蘇我방식과 친신라적인 (聖德)太子방식을 언급한 바 있다 (앞의 책 51~52쪽). 필자는 기계적인 도식에 동의할 수 없다.

79) 西嶋定生, 『6-8世紀の東アジヤ』, 『岩波講座日本歴史』 2, 岩波書店, 1962, 249쪽.

것은 아니었을까. 적국 고구려의 후방에 위치한 백제는 이용가치가 있는 상대였다. 그러한 백제에게 국서탈취사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608년 당시 강적 고구려와 전쟁을 앞두고 있던 그의 입장에서 일단은 원조를 약속을 했던 백제와 불편한 관계를 만들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번국 신하의 예를 바로 잡고 책봉체제의 유지하기 위해 고구려를 정벌해야 하는 목적은 또 다른 현실을 낳았던 것으로 보인다.

수문제도 그러한 현실에 무력했다. 598년 고구려가 말갈기병 1만을 동원하여 요서를 습격하자 돌궐의 도람가한과 달두가한이 수나라를 침공했다. 고구려의 요서침공에 북방민족들이 연쇄반응을 보였다.<sup>80)</sup>

그러자 수나라의 고구려 침공은 도중에 중지되었고, 수와 고구려 관계가 정상화되었다. 『수서』 권81, 백제전을 보면 598년 6월 백제의 고구려 토벌 요청에 대해 수문제는 “高元(고구려 영양왕)君臣이 두려워하여 죄를 자신에게 돌리고 북종하므로, 朕은 벌써 죄를 용서하여 주어 토벌할 수가 없소.”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고구려가 수에 조공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고구려 침공을 다시 할 수 없었다고 말한 것은 진실이 아니다. 당시 수나라는 돌궐과 교전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여력이 없었다.<sup>81)</sup>

611년 2월 백제 무왕은 사신 國智牟를 파견하여 행군기일을 수나라에 요청하였다. 그러자 수양제는 사신 席律을 백제에 보내 화답했다.<sup>82)</sup> 백제가 결국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러한 사실이 드러나기 전까지 수양제는 백제의 심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sup>83)</sup>

80) 鬼頭清明, 『日本古代國家の形成と東了』, 校倉書房 1976, 74~75쪽.

81) 여호규, 「6세기 말~7세기 초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고구려 대외정책의 변화」, 『역사와 현실』 46, 2002, 29쪽.

82) 『隋書』 권81, 동이 백제전.

83) 백제의 양단책이 드러난 612년 병력 30만을 상실한 수양제의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고구려와 분한 마음에 전쟁을 지속했던 수양제는 이후 백제에 대해 따질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했다. 수나라의 무능함이 폭로되고 고구려의 막강함이 드러난 당시 수나라 중심

왜의 자존망대의 자세가 보이는 왜의 국서에 분개하면서도 裴世淸을 妹子에 달려서 왜에 사신을 파견하여, 왜왕의 견사에 답하고 있는 수양제였다. 양제가 무례한 국서를 받았지만 고구려정벌을 눈앞에 두고 왜를 버려두기보다는 끌어들이는 쪽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sup>84)</sup>

국서탈취사건 이후 왜와 신라의 관계에 변화가 보이기 시작한다. 608년 많은 신라인들이 왜에 귀화해 왔다.<sup>85)</sup> 井上光貞은 이 사건을 이후 신라와 왜의 관계가 호전된 증거로 보았다. 이어 그는 610년 신라의 견왜사 파견과 관련한 다음의 기록에 주목했다. 『日本書紀』 卷 22, 推古天皇 18年(610) 조를 보자.

18년(610) 가을 7월 新羅의 사신 喙部奈末 竹士가 任那의 사신 喙部大舍 首智買와 함께 筑紫에 이르렀다.

(18년) 9월 사신을 보내어 新羅와 任那의 사신을 불렀다.

(18년) 겨울 10월 己丑 초하루 丙申 新羅와 任那의 사신이 서울에 도착하였다. 이날에 額田部連 比羅夫에게 명령하여 新羅의 사신을 맞이하는 莊馬(かさりうま)의 長으로 삼고, 膳臣 大伴을 任那의 사신을 맞이하는 莊馬의 長으로 삼았다. 그리고 阿斗河 근처의 숙소에 머물게 하였다.

(18년 10월) 丁酉 사신들이 조정에 배례하였다. 이에 秦造河勝과 菟部連 를 명하여 新羅 사신을 인도하는 사람으로 삼고, 間人連 鹽蓋와 阿閉臣 大籠을 任那 사신을 인도하는 사람으로 하였다. 모두 인도하여 南門으로 들어와서 뜰 한가운데 섰다. 이때 大伴昨連, 鱸野 浦蝦夷臣, 坂本糠手臣, 阿倍鳥子臣 등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나와와 뜰에 엎드렸다. 그러자 양국의 사신들은 각각 두번씩 절하고 사행의 뜻을 아뢰었다. 이에 4명의 大夫가 일어나 大臣(소아마자)에게 나아가 아뢰니, 大臣은 자리에서 일어나 政廳 앞에 서서 들었다. 다 마치고 사신들에게 祿을 주었는데, 각각 차등이 있었다.

(18년 10월) 乙巳 사신들에게 조정에서 향응을 베풀었다. 河內漢直贄를 新羅 사신과 함께 먹는 사람으로 삼고, 錦織首久僧을 任那 사신과 함께 먹는 사람

의 세계질서는 흔들리고 있었다.

84) 李成市, 「高句麗와 日隋外交」, 『이우성정년기념논총』 1990, 149쪽 및 같은 쪽 註 30 참조.

85) 『日本書紀』 卷22, 推古天皇 16年(608) 是歲 조.

으로 하였다.

(18년 10월)辛亥사신들이 의례를 마치고 돌아갔다.

井上光貞은 『日本書紀』에서 이와 같이 신라사절을 영접하고 맞이하는 외교의례 등 상세한 경과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그때 신라 입공에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며, 다음의 몇 가지가 특히 주목된다고 한다.

먼저 의식의 상세한 절차에는 조공에 관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사신의 목적이 조공 그것에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다음으로 신라 사인이 임나사인과 함께 공동으로 참여했다. 그것은 그 내용이 신라에 의한 임나조의 대납에 관한 약정이란 것을 말해준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귀국한 한 후 다음해 8월 신라사신이 임나사신과 함께 왜국에 왔으며, 그들은 명확한 조공사신이었다. 이렇게 볼 때 610년의 신라사 仕事는 임나공조에 대한 약정이고, 다음 해에는 그 약정을 이행하는 조공이었던 것으로 이해된다고 한다.

나아가 그는 신라와 임나사신의 왜조정 來朝는 小野妹子가 2회에 걸쳐 사신으로 수나라에 다녀온 추고 17년(609) 9월에서 약 1년 후에 있었으며, 추고 2기의 대수외교를 基軸으로 한 외교정책 안에서 일본과 신라 간에 평화외교관계가 수립되었다고 보았다.<sup>86)</sup>

610년 신라의 遣倭使와 왜왕권의 대신라 외교노선 우호적 전환에 대한 지적은 동의한다. 하지만 신라가 그해 의례를 통해 임나의 조를 약정했고, 이듬해 그것을 이행하는 조공을 했다고 보는 것은 一面적 시각이다. 그러한 변화의 원인이 수나라와 왜의 외교관계를 기축으로 한 틀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그의 견해는 중심과 주변의 명백한 구분이 있어 다분히 이념적이다. 왜의 대수외교에 대해 과도한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

왜국이 수나라와 외교관계가 맺어졌다고 해서 신라가 왜에 접근했다고 보는 것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었던 당시의 현실을 직시하지 않은

86) 井上光貞, 『推古朝外交政策の展開』, 『聖德太子論集』, 平樂寺書店 1971, 45~46쪽.

것이다. 신라·왜 양자가 당면한 현실이 양국의 관계정상화에 더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무엇보다 과거 적대적이었던 양국의 관계 개선이 백제의 국서탈취 사건 이후 이루어진 것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이는 왜와 백제의 관계 악화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다.

먼저 신라의 입장을 보자. 602년부터 고구려·백제 양면공격을 받기 시작한 신라는 왜와 관계개선이 필요했다. 608년에 진평왕은 빈번한 고구려의 침공을 수나라에게 말하고 군사를 청하는 글을 올렸다.<sup>87)</sup> 고구려는 그해 2월 신라 북쪽 변방을 공격하여 8천 명을 사로잡아 돌아갔고, 4월에 신라 우명산성을 함락시켰다.

611년 8월에도 신라가 왜에 사신을 보냈다. 『일본서기』 권22, 추고 19년(611) 가을 8월 조를 보면 “新羅가 沙喙部 奈末 北叱智를 보내고, 任那가 翳部 大舍 親智周智를 보내어 함께 조공하였다.”라고 한다.

다음으로 왜의 입장을 살펴보자. 고도로 발달된 중국의 문물을 수입하기 위해 왜가 對신라외교를 타협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610년 신라사에 대한 왜국의 빈례는 2년 전(608) 수나라 사절 일행을 맞이했을 때와 같은 중국적인 의식에 준하고 있으며, 규모면에서는 떨어지지만 共食者는 수나라사절 빈례에는 없었던 일이라고 한다.

빈례에 참여한 大伴昨連, 阿倍鳥子臣은 수나라 사신 裴世清으로부터 국서를 넘겨받은 인물이고, 蘇我豐浦蝦夷臣은 당시 최고 권력자인 蘇我馬子の 아들로서 후에 大臣(오오오미)이 된다. 빈례의 책임자는 소아마자였으며, 빈례에 참여한 인물들은 당시 권력의 최상층부에 있던 고관들이었다. 신라사신은 수석관위가 11위인 奈麻인 점은 『日本書紀』의 신라관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이례적이다.<sup>88)</sup>

87) 『三國史記』 권4, 진평왕 30년

88) 延敏洙, 「日本書紀 ‘任那調’ 關係記事檢討」, 『九州史學』 105, 1992; 『고대한일관계사』, 혜안, 1998 327~332쪽.

延敏洙, 「7세기 東아시아 정세와 倭國의 對韓政策」, 『新羅文化』 24, 2004, 46~47쪽  
연민수는 앞의 두 글에서 신라가 왜의 대중국외교의 향로상에 위치했고, 견수사의 주요

왜의 입장에서도 볼 때 백제와 관계가 악화된 상태에서 신라와 기존의 적대적인 관계 청산이 필요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왜의 대중국외교의 향로상에 위치한 신라였다. 백제와 신라 둘 모두와 관계가 좋지 않으면 선진문물 수입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백제의 倭使所持 隋皇帝 國書탈취사건과 왜왕권의 신라사신에 대한 이례적인 외교적 의례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왜보다 신라는 더욱 절실했다. 고구려·백제와 만성적인 전쟁상태로 들어간 신라는 그 배후의 왜와 관계개선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했다. 611년 수나라의 100만 대군이 고구려를 침공하기 위해 지금의 북경부근에 집결하고 있는 가운데 진평왕은 수양제에게 결사표(乞師表)를 봉(奉)했고, 양제가 이를 허락했다. 그해 10월 백제가 신라를 공격했다. 신라 서쪽의 전략적 요충지인 가잠성을 함락시켰다. 그곳은 백제군이 익산-무주-성주-대구를 거쳐 신라 왕경으로 갈 수 있는 최단 거리 코스에 위치한 요새였던 것으로 보인다.<sup>89)</sup>

## 6. 맺음말

일본학자들이 주장한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에 수 중심의 세계질서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질서는 불완전했다.

통과지점을 신라가 장악하는 한 항해의 안전은 보충하기 어려워 왜가 신라와 관계를 정상화했다고 했다. “특히 국서 등의 기밀 서류를 휴대하고 있는 까닭에 외교상의 기밀이 누출될 가능성도 있다. 推古15년(607) 견수사 이듬해 귀국할 때 수황제의 국서를 「백제인이 약탈했다」는 견수사의 보고도 있듯이 사절의 왕래에는 항상 불의성과 위협성이 잠재해 있다.” 또한 608년 왜의 견수사는 백제가 동반했고, 당시 백제는 한반도에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략으로서 수-백제-왜를 잇는 신국제질서를 구상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610년 왜의 신라와의 관계개선은 왜의 ‘다면외교’로의 전환이며, 당시에도 왜와 백제가 우호적이었다고 보았다.

89) 최근 가잠성의 위치를 전북 무주지역으로 논증한 견해가 제기되었다. 윤선태, 「武王과彌勒寺」 『미륵사지 국제학술대회 발표요지』, 국립문화재연구소 주최, 고궁박물관 2010년 5월.

“해 뜨는 곳의 천자가 해 지는 곳에 천자에게 글을 보낸다.”라는 구절로 시작되는 왜왕의 국서가 수황제에게 전달되었고, 귀국하던 왜의 사절이 소지한 황제의 국서를, 동행한 수나라 사신이 보는 앞에서 백제가 탈취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시대였다. 국가 간의 외교도 좋은 관계로만 지속될 수 없었고, 그 반대가 되기도 어려웠다. 국제정세의 유동성은 수나라가 고구려와 2차 전쟁을 결정하면서 더욱 커졌다.

堀敏一의 지적대로 강력한 중국 국가(隋)의 출현은 한반도 삼국 간의 대립·항쟁을 격화시켰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sup>90)</sup> 북방초원의 세계도 마찬가지였고, 한반도의 배후에 위치했던 왜국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601년 왜는 고구려와 백제에 신라를 협격하자고 제안했다. 가야지역을 과거로 회귀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였던 것 같다. 602년 3월 왜군이 신라출병을 위해 九州에 집결시켰고, 백제는 4만의 군대를 동원했다. 그해 8월 백제가 신라의 아막성을 공격했다. 지리산 운봉에 위치한 아막성은 백제가 남강유역을 타고 임나지역으로 가는 길목이었다. 양군의 결전이 벌어졌고, 결과 백제군 4만이 전멸했다. 왜와 고구려의 신라침공이 지체되고 있는 와중이었다.

602년 6월 왜는 신라출병 사령관 來目皇子의 병환으로 신라출병이 연기되었다. 그해 고구려는 수의 지원을 받던 동돌궐 계민가한이 서돌궐 달두가한을 타도하고 초원의 지배자가 되었다. 급격한 변화에 직면하여 사태를 관망해야 했던 고구려는 남쪽 신라에 대한 출병이 지체될 수밖에 없었다. 608년 8월에야 신라의 북한산성을 공격했다.

고구려·백제·왜 3국이 신라를 협공하기로 합의했지만, 정작 계획을 제안한 왜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고구려는 1년 동안 늑장을 부렸다. 약속을 정확히 준수한 백제만이 신라에 패배하여 4만의 병력을 상실하는 재앙을 맞았다.

90) 堀敏一, 『中國と古代東アジア世界』, 岩波書店, 1993, 194쪽.

왜와 고구려에 대한 백제의 원망이 없었을 수 없다. 603년과 615년 사이 12년 동안 백제는 왜에 사신을 보내지 않았고, 607년 수나라에 고구려를 협공할 것을 제안했다. 고구려와 전쟁을 결심한 수황제는 백제의 청병을 반겼다.

608년 수황제의 국서를 가지고 서해안을 지나던 왜사신의 선박을 백제가 세웠다. 그 배에는 수나라의 견왜사가 동승하고 있었다. 망망대해에서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백제 견수사가 귀국하여 자국해안을 경유할 왜 사절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일 것이다. 승선한 백제 인들은 왜사신의 손에 들려있던 황제의 국서를 압수했다. 602년 왜는 백제에게 신라출병 약속을 어긴 일이 있어 이를 문제 삼지 않았던 것 같다. 신라출병 증지가 백제군 4만 전멸로 이어진 사정을 왜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다.

한편 국서탈취 사건은 세계질서의 중심에 있던 수황제의 권위까지 손상시킨 일대 사건이었다. 사건 현장에 있었던 遣倭使 裴世淸 등이 귀국한 후 수나라에 사실이 알려졌을 것이다. 황제를 모독하는 일을 저질렀는데도 백제에 대한 수나라의 상응 조치는 없었다.

西嶋은 번국 신하의 예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책봉체제의 유지는 수나라가 국운을 걸고 행하던 사업이었다고 했다. 고구려 원정의 결과에 명운을 걸었던 수나라는 고구려 후방에 위치한 백제의 심사를 살피지 않을 수 없었다. 수의 입장에서 향후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원조를 약속을 했던 백제에게 국서탈취문제를 제기하여 불편한 관계를 만들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세계질서가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지극히 현실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李成市の 지적대로 자존망대의 자세가 보이는 왜의 국서에 분개하면 서도 裴世淸을 왜에 파견하여, 왜왕의 건사에 답하고 있는 것이 당시 수양제의 입장이었다. 고구려정벌을 눈앞에 두고 왜를 버려두기보다는 끌어들이는 쪽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한편 백제와 왜 양국의 명백한 불협화음이라 보지 않을 수 없는

608년의 국서탈취사건은, 신라에게는 왜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졌을 것이다. 610년 왜국에 대한 신라의 사실판견에는 이러한 기대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왜도 자국을 찾아온 신라 사신을 환대했다. 국서탈취사건으로 백제와 관계악화가 가시화된 상태에서 왜는 신라와 기존의 적대적 관계를 지속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왜의 조정은 신라사절을 위해 빈례의식을 했다. 의식의 책임자는 왜국의 실질적인 통치자 蘇我馬子였으며, 빈례에 참여한 인물들도 당시 권력의 최상층부에 있던 고관들이었다. 백제의 국서탈취에 대한 왜의 ‘반응’이 신라사신에 대한 왜왕권의 무게 있고 격식이 갖추어진 외교적 의례로 나타났던 것으로 생각된다.

(원고투고일 : 2012. 12. 31, 심사수정일 : 2013. 2. 19, 게재확정일 : 2013. 2. 25)



주제어 : 武王, 眞平王, 隋煬帝, 蘇我氏, 達頭可汗, 小野臣妹子, 裴世清, 來目皇子, 阿莫城, 北漢山城

&lt;ABSTRACT&gt;

## Baekje Intercepted a Japanese Diplomatic Message

Seo, Young-kyo

Sui Dynasty centered world order existed as Japanese scholars insisted, but it was incomplete and didn't last long. Japanese king sent a diplomatic message to the emperor of China. Chinese emperor sent a message in reply to the king of Japan, But Baeje seized the message in the presence of the Chinese envoy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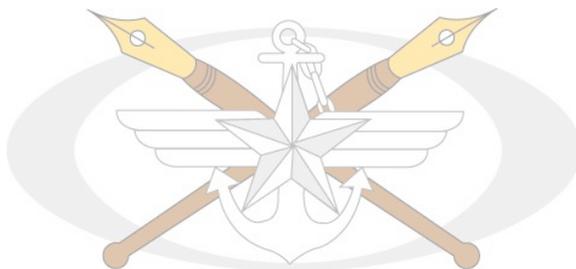
In 601 Japan proposed Goguryeo and Baekje to attack Shilla. In March, 602, the Japanese army of 25,000 troops assembled in Kyushu(九州) to attack Shilla. Baekje's 40,000 troops were gathering in Namwon(南原).

Baekje's first military action began in August, 602. Baekje attacked Shilla at Ahmak fort located in Jiri Mt. Silla army counterattacked and defeated Baekje while the Japanese and Koguryo armies were being delayed.

Japan did not keep the promise to attack Shilla, because the commander was sick. At the time, Goguryeo was facing dramatic changes in their area and delayed dispatching its army for a year. Baekje blamed Koguryo and Japan. Baekje had severed diplomatic relations with Japan. In 607 Baekje proposed Sui Dynasty to attack Goguryeo. Sui emperor welcomed Baekje's proposal. In 608, Baekje had captured the Japanese ship and diplomatic documents were seized. It undermined the authority of the Sui emperor who believed China was at the center of world.

The Chinese emperor tolerated the fact that Japan did not keep its promise, because the emperor needed Japanese forces to attack Koguryo. In 610, Shilla sent an envoy to Japan, and Japanese emperor warmly welcomed the envoy because Japan could not maintain hostile relationship with Shilla when Japan's relationship with Baekje was worsening.

Key Words : Baekje King Mu, Silla King Jinpyong, Su China Yangti, Tardu, Ononoimoko, Baesechung, Kumenomiko, Amak Castle, Bukhan Castle



# 러일전쟁 시기 함경도 전투의 전개과정

조 재 곤\*

1. 머리말
2. 러시아군의 남하와 일본군의 북진
3. 러·일군의 작전구상과 편제
4. 후반기 교전상황
5. 강화조약과 종전
6. 맺음말

## 1. 머리말

러일전쟁(1904~5)은 한국 전 지역과 중북 동북지역을 두고 러시아의 남진과 일본의 대륙진출 과정에서 발생한 20세기 최초의 국제전이자 한국에서 시작되고 한국에서 끝난 제국주의 침략전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의 시선은 주로 중국 관내 전투에만 집중되어 있다. 또한 제물포 해전과 평안도 전투(평양전투, 정주전투, 의주전투, 압록강 도하 전투 등)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으나 한반도 북동부에서 또 다른 한 축을 형성하고 있던 함경도 지역의 전투뿐 아니라 당시의 지역상황 등에 관한

---

\* 동국대학교 연구교수

전반적 내용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변경의 ‘잊혀진 전쟁’이었다. 동시대 영어교사이자 대한제국 황제의 구미 외교창구 역할을 했던 한국 통 헐버트(H. Hulbert)도 평안도 정주전투와 일본군대의 압록강 도하 이후 한국에서 러일간 교전은 종식되었다고 이해하고 있었다.<sup>1)</sup>

당시 한국 내 러일군 주력 동선이 서울-평양-정주-의주-압록강-만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일본군의 만주진출 이후 평안도의 전투는 소규모 게릴라전을 제하면 큰 내용이 없었다. 만주방면의 주요전투는 1904년 2월 일본군의 여순항 기습, 5월의 남산전투, 8월의 요양전투, 10월 사하전투와 1905년 1월 여순공방전, 3월 봉천(심양)대회전 등으로 이후 큰 전투는 없었다. 사할린전투도 1905년 7월 7일 남 사할린에 상륙한 일본군 13사단이 24일 북 사할린에 상륙하여 같은 날 31일 러시아군의 항복을 받아내면서 종결되었다. 반면 러일전쟁 초기부터 시작되어 일본군의 압록강 도하 이후에도 육해전으로 이어지던 함경도 지역의 전투는 1905년 9월 5일 「포츠머스 강화조약」으로 종전이 공식화된 이후에도 크고 작은 전투가 일정기간 지속되었던 최후의 전쟁이었다.

함경도 전투는 한국과 러시아의 국경선과 동해에 접해 전개된 전투였다. 최근 연구에서 러시아 주요 문서보관소 자료를 바탕으로 함경도 지역 러일간의 전황을 처음으로 정리 분석하였다는데 일정한 의미가 있다.<sup>2)</sup> 한편 이 전투의 승패 여부는 러시아 측에서는 일본군의 자국 영토 진입우려라는 측면은 물론 정반대로 일본 본토진입 계획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일본도 이 지역이 전장 중 일본과 가장 근접지로서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점으로 한 러시아 함대의 자국 영토

1) Homer B. Hulbert, 申福龍 역, 『大韓帝國滅亡史』, 平民社, 1984, 204쪽(원 저서는 1906년 London William Heinemann 출판사에서 *The Passing of Korea*라는 제목으로 발간되었다).

2) 심현용, 『한반도에서 전개된 러일전쟁 연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1 중 3장 3절과 5장 2절의 내용. 그러나 이 연구는 거의 러시아 군사관련 문서를 중심으로 이해하여 또 다른 한 축인 일본 자료와의 균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전체적인 전투지형과 정황이 제대로 밝혀져 있지 않다.

수시침입 우려와 더불어 만주전투와는 별개로 러시아 영토인 연해주와 사할린 나아가 시베리아 진출이라는 관건해결의 열쇠가 되기 때문이었다.

본 연구는 러일전쟁 당시 러시아군과 일본군 관련자료의 비교검토를 통해 함경도에서 러일 간 전투가 전개되는 실시간 상황의 정리와 작전구상과 군사 편제, 전투의 역사적 함의 등을 구체적으로 살피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자료접근의 한계 상 러시아 관련 문서는 아직까지는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확보할 수 없었기에 보다 치밀한 분석은 후일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 2. 러시아군의 남하와 일본군의 북진

### 1) 초기 전투상황

일반적으로 러일전쟁은 1904년 2월 8일 오후 일본함대가 무력시위 차원에서 제물포의 러시아 함선 카레이즈 호를 위협 사격한 사건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보다 이틀 앞선 2월 6일 오전 12시 54분 일본군함 헤이엔고우(平遠號)가 부산항에서 동청철도 소유 러시아 상선 ‘묵텐(Мукден)’과 인근 해양에서 러시아 선박 1척을 포획한 것이 러일전쟁 최초의 전투상황이다.<sup>3)</sup> 이 사건은 일본군함의 여순 도착 이틀 전으로 주한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林權助)가 경성우편 전신국장 다나카 지로(田中次郎)를 불러 전신선 고장을 핑계로 일본 연결선만 제한 公電 이외의 모든 전신의 3일 간 발송금지를 지시했기 때문에 당시 세간에는 알려지지 않았다.<sup>4)</sup> 일본정부는 이미 전쟁 전인

3) 防衛省 防衛研究所, 『海軍省公文備考類』, 『日本戰時機關部記事 平遠(1)』, 1904년 4월 18일; 제정러시아대외정책문서보관소(АВПРИ), ф.150, о п.493, л.1279, л.2 а, 상서 말렙스키-말레비치의 비밀 전문, 1909년 10월 2일.

4) 林權助, 『舊韓國政府와 日露戰爭千千里』, 1938년 5월호, 120~121쪽.

1월부터 비밀리에 마산포에 상륙한 일본군을 통해 부산과 마산·진남포 등 한국 내 주요 전신국 장악과 전신선 통제계획을 준비하였고, 2월 6일 마산에 상륙한 일본군은 마산의 전신국을 점령하였다.<sup>5)</sup> 일본군은 당일부터 부산·창원·충주·전주 우편·전신국의 서신왕래를 검사하고 내외의 암호전문 발송도 금지하였다.<sup>6)</sup> 이후 마산과 부산의 교신이 중단되었고, 서울-의주 방면 연결 전신선도 차단되었다.<sup>7)</sup>

그런 상황에서 2월 8일 인천에 상륙한 일본군은 당일 서울에 진입하였고 2월 9일 아침 제3전대가 제물포에 정박 중인 러시아군함 바라크(Варяг)호와 카레이츠(Кореиц)호를, 밤에는 제2전대가 중국 여순항의 러시아 군함 2척을 차례로 격침<sup>8)</sup>시킨 후 10일 뒤늦은 선전조치를 포고하였다. 러일간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2월 8일 일본군은 마산 외에 후방의 주요지역인 창원, 대구, 부산 등지의 전보사를 점령했다.<sup>9)</sup> 정확한 일자 는 알 수 없지만 일본은 제물포의 러시아 전함 공격 며칠 전 어느 날 네덜란드 회사 소유 케이블과 한국정부의 전신을 의도적으로 훼손했고, 그 결과 러시아 전함의 함장들은 일본과의 관계단절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 한다.<sup>10)</sup> 그 결과 2월 12일 주한 러시아공사 파블로프(A. И. Павлов)는 서울에서 퇴거하였고, 22일 일본군 평양병참사령부가

5) 外務省 外交史料館, 『韓國電信局占領一件』, 『馬山電信局占領一件』, 1904년 1월 22일(마산 영사 三浦彌五郎) 및 1904년 2월 8일(마산 三浦 영사→小村 외무대신), 와다 하루키는 2월 6일 아침 스시마를 출항한 제3함대 제7전대가 당일 저녁 병력을 진해만에 상륙시키고 마산 전신국을 점령한 이 사건을 러일전쟁 최초의 상황으로 보고 있다(와다 하루키, 『러일전쟁과 대한제국』 제이앤씨, 2011, 59~60쪽).

6) 『舊韓國外交文書』 제6권, 日案 6, #7798 「日兵의 郵電司業 侵害, 負軍徵募, 物資請求 恣行에 對한 抗議」, 광무 8년 2월 10일.

7) 러시아연방국립문서보관소(ГАРФ), ф.568, о п.1, л.182, л.36, 6등관 플란손의 비밀전문, 1904. 1. 26<2. 8>.

8) 후일 대한매일신보는 이 사건을 각기 '제물포 해전'과 '여순구 함락'으로 규정하고 있다(『大韓每日申報』, 1905년 1월 26일자 논설). 이 중 제물포 해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가스통 루르, 이주영 역, 『러일전쟁, 제물포의 영웅들』, 도서출판 작가들, 2006이 참고된다.

9) 『皇城新聞』, 1904년 2월 11~12일.

10) ГАРФ, ф.88, оп.1, л.74, лл.1-2 об., 한국과 관련한 일본정부의 조치에 대해 외국주재 러시아 외교대표들에게 보내는 회람 통지문, 1904. 2. 20.

평양을 점령하였다. 24일에는 「한일의정서」로 한국과 동맹을 강제하였다.

개전 직후 함경도 지역 상황을 보면, 1904년 2월 4일 일본은 어전 회의에서 러시아와 교섭단절과 개전을 결정하였고, 이날 만일의 위기에 대비 함경도 일대의 일본인 老幼婦女를 원산항으로 철수시킬 것을 내밀히 전달하여<sup>11)</sup> 2월 10일 완료하였다. 일본군 제4사단 제37연대 제3대대는 2월 19일 인천에 상륙하여 3월 1일 육로로 원산에 도착하였다. 종래 이 지역을 수비하던 보병 제38연대 11중대를 대신하여 24일 후비보병 제45연대 제4중대도 합류하였다. 당시 함경도 북부는 2월 파블로프 대령을 지휘관으로 하는 우수리 기병분견대를 창설하고 소수의 러시아 기병이 두만강을 넘어 雄基 및 鏡城 부근에 출몰하는데 불과하였다.<sup>12)</sup> 3월 5일 러시아 기병이 경성으로부터 회령·길주로 향하였고, 조만간 육군이 남하한다는 보고에 따라 일본군은 거류민 보호 구실로 원산주둔병 중 2중대를 파견시켰다.

서울을 장악한 시기 일본군은 평안도와 함경도 도처에 포진하고 있었고, 새로운 육군이 이 지역으로 계속 북상 중이었다. 2월 25일 일본군과 러시아군 척후는 평양 북방 肅川에서 처음 충돌하였다. 러일 간의 전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은 3월 말부터였다. 3월 13일 진남포전보국을 접수<sup>13)</sup>하고 3월 28일 평안도 정주성 부근에서 기병의 도보전으로 러시아 병사를 격퇴한 일본군은 4월 4일 의주를 점령하였다. 이어 10일부터는 압록강 연안에서 소규모의 전투가 빈번하였고, 함경도에서는 12일~14일 사이 러시아군이 경성과 길주에 도착하면서 일진일퇴를 거듭하고 있었다. 같은 달 16일에는 城津에 러시아 기병

11) 金正明 편 『日韓外交資料集成 제5권-日露戰爭 編-』, 嚴南堂書店, 1967, 36쪽.

12) 로스투노프 외 전사연구소 편, 김종현 역, 『러일전쟁사 건국대출판부, 2004, 457~458쪽; 參謀本部 編, 『明治 三十七, 八年 日露戰史(제10권; 이하 '日露戰史'로 약칭함), 偕行社, 1914, 375쪽.

13) 外務省 外交史料館, 『韓國電信局占領一併 「鎮南浦電信局占領ノ併」, 1904년 3월 14일 (진남포 染谷 부영사 → 小村 의무대신).

약 30명이 침입하여 일본거류민 50여 명은 원산으로 철수하였다. 성진에는 영국인 선교사 2명과 세관원 1명만 잔류하였다. 이때 러시아군은 일본인 가옥 총 29동 및 창고와 관세창고를 불태워 버리고 전보국 기계를 가지고 다음날 오후 경성으로 퇴각하였다. 19일에는 러시아군 약 250명이 길주를 출발하여 북청으로 남진하고 있었다.

이에 대응하여 일본군 제2함대가 4월 22일 원산항에 들어와 1개 부대를 성진 부근에 파견하여 적정을 탐색하였다. 그런데 일본군 보병 제37연대 제9중대가 탑승한 긴슈마루(金州丸)는 4월 25일 함경도 이원을 정찰하고 원산으로 귀항 중 新浦 동남 약 19리에 도착하였다. 이때 블라디보스토크 함대 소속 러시아 군함은 긴슈마루에 접근하여 船名 및 국적을 묻고 승원의 퇴거를 재촉하였고, 다음날 4월 26일 오전 1시 30분 수뢰포를 발사하여 명중 침몰시킨 후 퇴각하였다.<sup>14)</sup> 또한 같은 날(4월 25일) 정오경 수뢰정 2척이 원산항에 정박하고 있던 고요마루(五洋丸, 민간 기선으로 韓商 소유의 어물을 탑재)와 前津港에 있던 하기우라마루(萩浦丸)의 선원을 강제 상륙시킨 후 수뢰를 발사하여 격침시켰다. 이때 하기우라마루에 탑승한 선원 24명은 포로가 되어 시베리아 횡단열차로 러시아 페테르부르크 인근 노보고로드 메드베지(медведь) 지역에 수감되었다가 포츠머스 강화조약 이후 유럽, 아프리카와 인도양을 지나 일본을 경유 귀환하였다. 이들 중 한국인은 사무원 韓得淸 등 총 9명으로 전체 포로 중 1/3 이상을 차지하였다.<sup>15)</sup>

반면 서북방면 일본군 제1군은 4월 26일부터 압록강 도하작전을 개시하여 용암포의 러시아군 주력을 압록강 대안 청국 안동현으로 퇴각시켰고, 5월 1일 압록강을 넘어 구련성과 봉황성을 차례로 함락하였다. 이로써 함경도가 한국 내의 유일한 陸海戰지역으로 남게 되었다. 5월

14) 『官報(日本國), 明治 37년 4월 30일. 이때 일본인 사망자는 대위 2, 소위 1, 특무조장 1, 사졸 73, 통역 2명이었다. 생존자 중 군인 경상 10, 중상 1명이었고 상인과 인부는 무사하였다.

15) 外務省 外交史料館, 『日露戰役ノ際滿 艦隊元山來襲金州丸, 五洋丸, 萩浦丸遭難一件』, 『日露戰役ニ關スル個人損害要償事件調査報告(1908년 2월 1일)』.

이후의 상황을 보면, 5월 18일 한국정부는 러시아와 맺은 조약의 폐기를 선언하고 러시아와 국교를 단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기병 약 700은 포 12문으로 5월 21일부터 26일까지 명천 남방으로부터 2분하여 약 400기, 포 7문은 길주로, 나머지는 갑산으로 향했고 후방에 약 4천의 보병이 속행하고 있었다.<sup>16)</sup> 甲山지방으로 전진하던 러시아군은 다시 德川방향으로 퇴각하여 합쳤고, 또 吉州방향으로 전진하던 러시아군은 점차 남진하여 30, 31 양일에 걸쳐 咸興에 도착하였다. 이 기간 러시아군은 경성-크라스노예 셀로(녹둔도)-우수리스크 연결 전신선 가설을 마쳤다.<sup>17)</sup> 함흥의 러시아군은 6월 2일 전진하던 중 3일 그 척후가 文川에서 일본군의 습격을 받아 5명의 사상자를 내고 高原을 지나 퇴각하였다.

6월 당시 극동주둔군 총사령관 리네비치(Линевич) 대장은 보병 8대대, 기병 1중대, 포병 3중대로 편성된 1지대로 경성-무산선을 점령한 후 남부 우수리지대 보병을 진격시켜 원산을 약취하고자 하였다. 그는 기병 14중대, 騎·山砲 6문으로 이루어진 지대를 함경도에 파견하였다. 그 목적은 무산을 지나 강계 및 초산 방향을 점령하고 일본군의 보급수송기관을 습격하여 후방을 교란시키는데 있었다.<sup>18)</sup> 한편 6월 15일에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함대가 대한해협에 나타나 조우리쿠마루(常陸丸)와 와이즈미마루(和泉丸)를 격침시키고 사토마루(佐渡丸)를 포격하였고, 30일 수뢰정 4척이 또다시 원산에 나타나 항내에 정박해있던 소증기선 코우운마루(幸運丸)와 민간 소유 범선 세이사마루(淸沙丸)를 격침시켰다. 이때 일본군 수비병 1명이 부상하고 포격으로 거류지 가옥 30호가 파손되었다.<sup>19)</sup>

16) 이에 대응하여 일본주차군 사령관은 서울주둔 후비보병 제48연대 제1대대 및 기관포 4문을 원산방향으로 파견하였다.

17) 러일전쟁전사편찬위원회, 『러일전쟁 1904~1905(제1부: 1904~1905년 한반도 동북지역에서의 전투상황 상페테르부르크, 1910(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편,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 그리고 한반도』, 2012, 38쪽 참조).

18) 『日露戰史』, 387쪽.

19) 『日露戰史』, 383쪽. 그런데 幸運丸은 그해 3월 20일 함흥의병 시 진압차 출동한 일본군

해상과는 달리 6월 하순 이래 함경도 내륙지역에서 러시아 육군의 활동은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었다. 그 결과 6월 22일 일본은 원산-인천간 전화를 개통하였다.<sup>20)</sup> 러시아군의 육상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일본군은 원산 동·북의 산에 요새를 건설하였다.<sup>21)</sup> 이곳에는 야간통행 금지령이 내려져 20년 이상 원산항만장을 하던 한국관리도 일본당국이 발행한 통행권을 소지해야만 했다.<sup>22)</sup> 7월 초 함경남도의 러시아군은 검산령을 넘어 평안도 강계로 돌아갔고, 덕천에서 장진으로 향하는 군대는 만포진을 경유해 청국 경내로 들어갔다. 이 기간 7월 9일 駐劄軍司勳官은 한국정부의 비용으로 지방관 및 일본 군대의 감독 하에 경성-의주간 도로 수복을 결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지방관에 훈령하여 농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속히 결행토록 하였다.

그러나 7월 하순에 이르러 러시아군은 다시 남진하여 8월 1일 경성-성진간 진신선 가설에 착수하였다. 그러던 중 러시아 기병 400여 명이 8월 2일 함흥, 4일 정평, 5일 영흥에 도착하여 영흥에서 한국인 5명을 살해하였고<sup>23)</sup>, 약 1,000기가 강원도 접경인 高原까지 육박했다. 8일 오후에는 약 200명의 파블로프 대령 부대 정찰대가 덕원 북방에 나타나 그 척후가 포 2문으로 일본군 경계병과 사격을 교환하다 북방으로 퇴각하였다. 9일에도 기병 약 100명이 덕원에서 일본군 척후와 격렬한 사격전 후 文川으로 퇴각하였다.<sup>24)</sup> 이날 전투에서 러시아군 사상자는 장교 이하 25명이었고 마필 2기를 잃었다. 이 기간 일본군은 원산 수비대를 교체하였고 8월 10일 보병소좌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를 원산수비대장으로 파견하였다.

수송의 명을 받고 함경도 西湖港에서 원산으로 귀환하였다. 『日露戰役ノ際瀕 艦隊元山來襲金州丸, 五洋丸, 萩浦丸遭難一件 請願書 (운송업자 堀力太郎 → 내각총리대신 寺內正毅, 1918년).

20) 『皇城新聞, 1904년 6월 23일.

21) Rudolf Zabel, 이상희 역, 『독일인 부부의 한국 신흠여행, 1904』, 살림, 2009, 237쪽.

22) Rudolf Zabel, 앞의 책, 264쪽.

23) 『大韓每日申報, 1904년 8월 10일.

24) 대한매일신보에서 이 전투를 설명하면서 러시아군(‘로국병’)을 ‘적군’으로 표현한 사실이 주목된다(『大韓每日申報, 1904년 8월 13일).

## 2) 일본의 제해권 확보 이후 전황

1904년 7월 하순부터 8월 상순에 걸쳐 경흥과 경성을 경유해서 남진한 러시아군은 약 1,500기, 포 4문으로 병력면에서 일본군보다 우세하였다. 그럼에도 만주지역의 연이은 승첩에 따라 전쟁의 대세는 일본이 승리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었다. 동해에서의 해전은 처음에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함대의 수차례에 걸친 해양포격전을 통한 일방적인 공격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8월 14일 울산만 해전에서 우에무라 히코노조(上村彦之丞) 중장이 지휘하는 일본군 제2함대의 블라디보스토크 함대 격파로 동해 제해권을 확보하였고<sup>25)</sup>, 이를 이용하여 일본군은 파블로프 대령이 이끄는 함흥지대를 격파하고 점령지역을 확대코자 하였다. 그 결과 해안도로가 위협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9월 4일 함흥주둔 러시아 기병 1,400은 퇴각을 개시했다.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토크와 여순의 2개 군항을 요새화하고 강력한 태평양 함대로 동해의 제해권을 장악한 후 시베리아와 유럽에서 파견한 육군으로 일본군을 파멸시킨다는 전략이었지만 선제공격을 받고 방어전으로 끝나게 된다.<sup>26)</sup> 그 결과 블라디보스토크의 전략적 위치도 약화되었다.<sup>27)</sup> 이에 한국주차군사령관은 원산에 있는 후비 부대를 함흥으로 전진시켜 17일 도착하였고, 같은 달 24일 우가키 소좌는 기세를 몰아 咸關嶺의 러시아군을 홍원방면으로 축출하였다.<sup>28)</sup> 일본군의 첩보에 의하면 9월 중순 함경도 방면 러시아군은 경성에 약 100, 성진에 약 2천, 館南里에 약 600, 북청에 약 400이 있었고, 기병 약 2천, 포 4문이 29일 북청에 도착하여 이중 약 400의 기병이 함흥과 인접한 홍원으로 전진하고 있었다. 함경도 일본군 점령지역에는 10월 8일부로 軍政이 선포되었다.

25) 그 과정에서 우에무라 함대가 이틀간 함경도 나진항에 정박한 일이 있었다. 羅津商工會, 『大羅津, 近澤印刷所, 1935, 4쪽.

26) 야마무로 신이치(山室信一), 정재정 역, 『러일전쟁의 세기-연쇄시점으로 보는 일본과 세계-』, 도서출판 小花, 2010, 150쪽.

27) 大江志乃夫, 『世界史における日露戦争』, 『日露戦争』, 新人物往來社, 2003, 42쪽.

28) 金正明 편, 『朝鮮駐劄軍歴史』, 巖南堂書店, 1967, 26쪽; 『大韓每日申報』, 1904년 10월 13일.

한편 주차군사령관 하세가와는 11월 30일 원산 및 그 이북의 부대를 咸鏡道梯隊라 명하고 보병 소장 이케다 마사스케(池田正介)를 지휘관으로 삼아 후속 전투를 준비하였다. 이어 1905년 1월 27일 대본영은 북한방면에 투입될 후비 제2사단을 편성하고, 후비보병 제25연대 제1대대를 오사카에 기타 제 부대를 히로시마에 집중시켰다. 그 과정에서 함경도 러시아군이 1월 하순 이미 성진 이북으로 퇴각하였다는 보고를 접했다. 이에 주차군사령관은 점령구역을 확장하고자 2월 11일 이케다에게 명하여 후비보병 제32연대와 제47연대로서 27일경 전진시켰다. 이케다 소장은 원산 및 영흥지방의 후비보병 제47연대 본부 및 제2대대 제7중대를 함흥에 집결시켰고, 성진에 진출한 후비보병 제32연대는 28일 임명역을 점령하였다.<sup>29)</sup> 포대설치를 위해 3월 16일에는 「영흥만 내 군용지 수용에 관한 건」을 재가받아 영흥만 내 송전리 부근, 갈마반도, 연도 이북, 호도, 영흥만 입구에 산재한 여러 섬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였다.<sup>30)</sup>

그해 1월부터 3월 간 러시아군 상황을 보면, 만주군총사령관 쿠로파트킨(Куропаткин) 대장은 1905년 1월 일본군의 여순 점령 이래 제3군사령관 노기 마레스케(乃木希典)의 부대가 여세를 몰아 연해주와 블라디보스토크 방면에 유력한 병단을 진전시킬 것을 우려하였다. 이에 그는 남우수리스크 지대 및 블라디보스토크 요새 수비병력을 증가시키고 편성배치 등을 수차 변경하였다. 그 결과 3월 초순경 만주군 방면으로부터 부대를 증파하여 남우수리스크 지대를 나누어 시코프 지대, 다위자 지대, 파타쉬 지대, 라즈돌리노예 지대 및 총 예비대로 하여 주력을 라즈돌리노예 부근에 집결시켰다.<sup>31)</sup> 한편 2월 성진에서 길주를 거쳐 북방으로 퇴각한 베르노프 소장이 지휘하는 러시아 기병 3연대, 기포병(혹은 산포병) 1중대 및 기관총 부대의 주력은 경성에

29) 『日露戰史』, 400쪽.

30) 이는 블라디보스토크 해군기지에 대응하기 위한 영흥만 요새구축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이후 영흥만요새사령부, 포병대대, 병원 등이 편성되었다.

31) 『日露戰史』, 414쪽.

있었다.<sup>32)</sup> 3월에도 러시아군 주력은 경성에 주둔하면서, 일본군 각 부대와 대치 중이었다.

이후 러시아군은 함경도의 주을온천, 경성, 부거, 웅기, 부령과 두만강 대안의 중국 혼춘 등지에 배치되어 있었다.<sup>33)</sup> 3월 3일, 10일, 26일에 吉州 지역에서 전투가 있었으나 러시아 기병에게 차단된 일본군은 패주하였다. 그러던 중 4월부터 우수리스크 주둔 러시아군은 두만강을 건너 대거 남진하였고, 선두부대는 4월 15일 경성 부근에 도착하였다. 5월 20일 베르노프 소장은 총사령부로부터 일본군 약 1사단이 블라디보스토크 요새와의 연락을 차단하려 두만강 방면으로 출발한다는 정보를 접하였다. 이에 그는 28일 부령의 시베리아 카자크기병 제9연대 제4중대를 무산에, 혼춘의 동 연대 본부 및 1중대를 부령에 전진시켜 6월 5일 목적지에 도착하였고, 기병 제9연대 주력도 28일 회령에 도착하였다.

반면 일본 국내의 후비 제2사단 잔여부대는 해군의 호위없이 4월 27일부터 5월 1일에 걸쳐 원산에 도착하였다. 이 기간 군사령관은 北韓軍의 작전계획을 수립하였고, 5월 21일 후비 제2사단장 미요시 나루유키(三好成行) 중장이 북한방면 제부대를 지휘하게 되었다. 일본군 분견대 2천여 명은 성진에, 1천여 명은 단천에 도착했다.<sup>34)</sup> 그로부터 며칠 후인 5월 27일과 28일 양일에 도고 헤이하치로(東郷平八郎) 제독이 지휘하는 일본군 聯合艦隊가 동해에서 발틱함대를 맞아 대승리를 거두었다.<sup>35)</sup> 대본영은 북한방면 러시아군을 격퇴하고자 기관포대 편성에 착수하여 6월 7일 완성하였다.<sup>36)</sup> 이같은 상황에서 대본영은

32) 『日露戰史』, 397쪽.

33) 3월 6일경 일본군 정보에 의하면 우수리스크 및 북한방면의 러시아군은 보병 21중대, 기병 24중대, 포병 7중대, 블라디보스토크 요새포병 16중대, 파타쉬 및 혼춘 요새 포병 각 1대, 요새공병 1중대, 수뢰 1중대, 전신 1중대, 氣球 1중대를 만들어 요새포병 8중대와 공병, 수뢰, 기구 각 1중대는 러시아로부터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는 중이었다.

34) 러시아 군역사문서보관소(РГВИА), ф. ВУА, оп.??, п.10385, л.20, 1905. 5. 25.

35) 이 전투에서 발틱함대 전사자는 4,524명, 포로는 6,168명이고, 연합함대 전사자는 116명, 부상자는 570여 명이였다. 『寫真圖說 帝國聯合艦隊-日本海軍100年史-』, 講談社, 1969, 57쪽. 5월 27일 이날을 일본정부는 해군기념일로 제정하였다.

36) 『日露戰史』, 413쪽.

안동현 주둔 후비보병 제16여단을 해로를 경유하여 원산으로 수송시켰고 6월 8일 점령지역을 경성부근으로 확장하였다. 북한군은 10일부터 점차 북진하여 明川, 富澗, 吉州까지 도착하였지만 15일부터 16일에 걸쳐 러시아군이 경성에서 수성과 부령, 부거방면으로 퇴각하였다는 소식을 접하였다. 이에 북한군 기병척후는 6월 20일 鏡城 및 그 부근을 22일 보병 약 2대대, 기병 1중대는 전투없이 輸城을 점령하였다.<sup>37)</sup>

이렇듯 러시아 발틱함대의 패전 이후인 6월부터 함경도 방면에서 일본군의 행동이 활발해지고 더욱이 북진 기도의 모습이 보이자 이로부터 한국북부는 물론이고 러시아 국경까지 위협상황에 직면하였다. 이에 러시아 군관구사령관은 6월 26일경 아니시모프 소장에 속한 네르친스크 기병대 제1연대는 富寧과 茂山 사이에서 경계하고, 동 연대 제1중대 및 시베리아 카자크 기병 제6연대의 2소대는 富居에, 동 연대의 1소대는 蛛隅 부근, 동 연대의 1/2중대는 雄基 부근, 동시베리아 제7연대의 1중대, 네르친스크 카자크 기병 제1연대 제2중대, 騎山砲兵 1중대(4문)은 古豊山 부근, 시베리아 카자크 기병 제6연대의 1/2중대는 榛田 부근, 동시베리아병 제7연대의 2중대는 舜陶基 부근, 동 연대 동부 시베리아 산포병 제2중대는 會寧에 집중시켜 일본군에 대비하였다.

각기 전투편제를 마친 후 양국 간 육상전은 6월 30일부터 시작되었다. 이날 러시아 기병 30명이 章興坪 부근 일본군 전초의 사격을 받고 퇴각하였고, 7월 2일과 4일 獐項 서북 고지에서 일본군 척후와 러시아 소부대 간에 국지전이 있었다. 이 전투에 참가한 일본군은 보병 약 2대대, 기병 2중대, 포 3문으로, 러시아 기병대의 손해는 사망 2명, 부상 14명, 마필 손실 27기였다.<sup>38)</sup> 이후 러시아군 대부분은 7월 상순부터 최후 방어선인 두만강 지역 회령을 향해 퇴각하여 일부는 多葛嶺, 白沙峰, 富寧, 茂山 등지에 산재하고 있었고, 주력은 고평산에 집결시켰다. 이후 함경도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러일 간에는 대규모 전투와 국지전이 지속적으로 교차 전개되었다.

37) 『日露戰史』, 425쪽.

38) 『日露戰史』, 429쪽.

### 3. 러·일군의 작전구상과 편제

#### 1) 韓國分遣隊(러시아)

러시아군의 한국분견대 편성계획은 1904년 7월 2일 프리아무르 군 참모장이 심양(묵텐)의 극동총독 알렉세예프에게 보낸 보고서에 처음 나타난다. 그는 한국 주둔 일본군 부대의 측면과 후방을 상대로 한 분견대는 제2동시베리아보병사단 9개 대대 및 8개 대대로 구성된 1개 보병여단, 즉 도합 17개 대대로 구성해야 하며, 4개 산악포 중대(속사포)와 대포 32문, 4개 야전포중대(속사포)와 대포 32문, 4개 백인중대로 구성된 1개 기병연대와 1개 공병 대대를 보유할 것을 제안하였다. 참모장은 일본군과의 첫 번째 충돌은 국제항인 원산 근처에서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진군 착수 약 2개월 지나 러시아군이 원산을 점령한 뒤, 분견대는 평양 또는 서울을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39)</sup> 향후 분견대가 함경도 지역에서 평양과 압록강으로 진군하면 일본군의 후방퇴로를 차단함으로써 만주 방면 러시아군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고, 러시아군이 한국 남부로 진격하여 서울 점령을 완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러시아 측의 한국분견대를 활용한 측면공격 작전은 수세적 측면과 공세적 측면이 당시까지는 병존하고 있었다.

그의 견해는 당시 일본은 한국에 소규모의 수비대만을 남겨 놓고 전체 육군을 만주의 전쟁터로 파병하였기 때문에 일본 본토에 잔류하고 있는 예비대는 거의 고갈된 상황을 염두에 두면, 지금 분견대를 편제하여 한국으로 진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참모장은 이런 행동으로 일본의 군사력을 만주 전쟁터로부터 유인하여 당장 만주 주둔 러시아군의 작전을 손쉽게 만들어 줄 수 있고, 나아가 분견대를 진군시키면 짧은 기간 내에 한국에서 대규모의 군사적·정치적 성공을 달성할

39) РГВИА, ф.846, о п.16, л.31866, л л.26-31 о б, 프리아무르군관주 참모장의 보고서.

수 있을 것으로 단정하였다. 그는 입수한 정보에 따라 한국 황제와 나라 전체가 러시아군의 도착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며 그렇게 된다면 상황이 결정적으로 바뀔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속히 분견대를 구성하여 추가로 파병할 것을 주장하였다.<sup>40)</sup>

한편 프리아무르 군관구 사령관은 7월 11일 심양의 플루그(Флуг) 장군에게 전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따르면 분견대의 한국 진군을 위해 러시아 쪽 두만강 대안에서 함경도 경성으로 가는 도로 부설 작업 후 분견대가 2개 梯隊의 형태로 경흥과 부령을 따라 한국으로 진군하는 것이 가능하며 모든 작전의 성공은 이 작업의 성공에 달려 있다고 파악하였다. 군관구 사령관은 분견대 내 8개 포병중대 중 절반은 산악포병중대여야 하며, 여단 소속 포병 중 3개 속사포 산악포병중대를 배치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청원이 승인될 경우 17개 대대, 8개 포병중대, 4개 백인중대 그리고 1개 공병중대의 병력으로 분견대를 구성할 것을 전망하였다. 참모장과 마찬가지로 군관구 사령관도 현 상황에서 지체 없이 계획을 추진하자는 주장을 개진한 것이다.<sup>41)</sup>

이에 반해 7월 27일 프리아무르 군관구 참모부 급양계 장군은 현 시점에서 특히 기병분견대 파견은 모험적인 것으로 만주 주둔 러시아 육군의 작전 성공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는 일본인들이 대응차원에서 포병과 함께 예비대를 진군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기병분견대의 한국출정을 당분간 자제해야만 하지만, 군관구 내에 집결한 군단은 완편 기준으로 구성하여 원산을 거쳐 서울로 진군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sup>42)</sup> 당시 서울의 거주 일본인 발행 신문 『大韓日報』에 러시아 수도에 체류한 공사 이범진이

40) РГВИА, ф.846, о п.16, л.31866, л л.32-32 о б, 프리아무르군관구 참모부의 전문.

41) РГВИА, ф.846, о п.16, л.31866, л л.41-42 о б, 프리아무르군관구 사령관의 금년 6월 28일자(7/11) №1495 암호 지급전문의 사본.

42) РГВИА, ф.846, о п.16, л.31866, л л.45-45 о б., 48, 프리아무르군관구 참모부 소속 급양계 장군의 보고서.

공중에 전보하여 러시아군 60만 명이 장차 함경북도로 향한다는 보도가 있었다.<sup>43)</sup>

그러나 1904년 여름 러시아군 측에서 구상한 분견대는 만주의 전황이 급박히 돌아가는 상황에서 실현되지 못하였고 이로부터 만 1년 이후인 1905년 7월 7일 남우수리 분견대를 지휘하던 아니시모프 소장을 사령관으로 하는 한국분견대 편성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편성 당시부터 그해 10월 중순 철병 직전 정리된 자료에 따라 각 부대의 구성과 변동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sup>44)</sup>

분견대 예하 단위부대는 제41동시베리아보병연대, 제6동시베리아보병연대, 제7동시베리아보병연대, 포시에트 보병연대 소속 제5·제6중대, 제2동시베리아포병연단 소속 제3포병중대, 제2동시베리아산악포중대, 제12동시베리아산악포중대, 기마-산악포병 예비중대, 제2동시베리아보병사단 소속 기관총 중대, 자바이칼부대 소속 제1네르친스크(Нерчинский) 연대, 제6동시베리아카자크연대 소속 제3백인중대 소속 1/2개 백인중대 및 제4·제5백인중대, 제9시베리아카자크연대, 제3베르흐네우딘스크(Верхнеудинский) 카자크연대 소속 제3백인중대, 제9오레크부르그스크(Орехбургский) 카자크연대 소속 제5·제6백인중대, 제9공병대대 소속 제3중대 1/2부대, 제2동시베리아산악포병 군수품 저장소, 제12동시베리아산악포병 군수품 저장소, 기마-산악이동포병 군수품 저장소, 기마-회광통신부대, 제2동시베리아사단 소속 사단 수송대, 제2동시베리아사단 소속 사단야전병원, 제3호 야전 이동병원로 구성되어 있었다. 3개의 포병 중대에는 총 20문의 대포를 소유하고 있었다. 기간별 병사들의 구성은 7월 9일 10,610명, 7월 26일 10,661명, 9월 8일 이전 13,000명, 10월 14일 이전 17,223명으로 되어 있다.

43) 『大韓每日申報』, 1904년 8월 18일.

44) 프리아무르주군관구 지휘관의 6월 9일자 № 1553 전문과 6월 10일자 № 1566 전문 그리고 분견대에 하달된 6월 24일자 № 127 명령.

## 2) 北韓支隊(일본)

러일 간의 전쟁이 시작될 무렵 대본영 육군 참모차장 나가오카 가이시(長岡外史)는 함경도 방면의 작전을 개시하여 군대를 전진시켜 한-러 국경선은 물론이고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점령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같은 참모차장의 강한 주장은 대본영 육군부를 대표하는 의견이 아니었고, 참모총장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의 생각과도 달랐다.<sup>45)</sup> 그 결과 더 이상의 논의는 없었다.

그러나 유리한 전황에 따라 1905년 초부터 함경도 방면 작전 구상이 다시 구체화되었다. 1월 18일 참모총장은 「北韓支隊司令部編成要領」을 작성하여 육군대신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와 1월 19일부터 7일 이내에 北韓支隊 사령부를 편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요령'은 다음의 7개조로 되어 있다.

1. 북한 관내의 군대를 지휘하기 위하여 북한지대사령부를 편성한다.
2. 북한지대사령부 편제는 附表와 같다.
3. 북한지대사령부의 편성지는 東京으로 하고 그 편성 담당관은 留守近衛師團長으로 한다.
4. 북한지대사령부 요원 중 將校와 相當官은 육군대신이 이를 배속한다.
5. 병기, 피복, 糧秣, 器具, 材料에 관해서는 육군대신이 이를 정한다.
6. 편성담당관은 편성명령 발포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편성을 완결하고, 장교와 상당관 직원표 및 人馬 일람표를 육군대신 및 참모총장에게 보고한다.
7. 이상 외의 편성에 관해서는 陸軍動員計劃 諸 條規에 준거한다.<sup>46)</sup>

45) 谷壽夫, 『機密日露戰史 原書房, 1966, 561쪽.

46) 防衛省 防衛研究所, 『陸軍省密大日記, 『北韓支隊司令部編成要領允裁御協議, 1905년 1월 18일. 附表(편제표)에 따르면 북한지대 사령부 편제는 지대장, 막료(참모부, 부관부), 법관부, 헌병, 관리부(위병, 치중병 예속), 경리부(金櫃部, 糧餉部 예속), 軍醫部, 獸醫部 등으로 되어 있고, 중(소)장부터 대중소좌, 대중소위 및 상당관, 하사 병졸 등의 계급을 두었다.

북한지대사령부 편제를 마친 후 대본영은 2월 후비 제2사단 편성을 완료하고 일부를 증파하여 북한방면의 점령구역을 확장할 것을 명하여 병참부 요원 및 咸鏡道梯隊(3월 10일 北關支隊로 개칭)를 전진시켰다.<sup>47)</sup> 사단장 미요시 나루유키 지휘의 보병 11대대, 기병 1중대, 포병 4중대, 공병 1중대였다. 이어 3월 31일 야마가타 아리토모는 북한지대 작전계획을 입안하고 그것을 內奏하였다. 그 목적은 러시아군을 한국선 및 만주로부터 축출하고 필요한 토지를 점령하는데 있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였다. 즉, 북관과 우수리스크 방면의 러시아군에 대해 한국 방어를 위해 1~2개 사단을 두만강 부근에 파견하고, 정황이 허락한다면 만주군 일부와 북한에 있는 團隊로 별도로 1군을 편성하여 해군과 협력하여 블라디보스토크와 그 부근을 점령한다는 것이다.

참모총장은 북한방면의 러시아군을 구축하여 안정을 보장하는 것은 「日韓議定書」에 기초한 의무에 속하는 것이고, 블라디보스토크는 東洋에서 러시아의 유일한 군항으로 이곳을 소유한다면 러시아를 영구히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sup>48)</sup> 당시 러시아 만주군 총사령관 쿠로파트킨도 노기 마레스케가 인솔하는 대부대가 블라디보스토크 작전으로 전환하거나 후비대 공격을 위해 포시에트를 통해 吉林 방향에서 공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sup>49)</sup> 이보다 먼저 북한지대는 3월 초 이래 성진 인근 臨溟驛 부근에 있었다. 대본영은 히로시마에 있던 후비 제2사단의 잔여부대를 4월 10일 북한지대의 엄호 하에 성진에 상륙시키고자 하였지만, 해군 군령부가 4월 8일 싱가포르만에 도달한 발틱함대의 내습우려를 개진하였기 때문에 작전은 지연되었다.<sup>50)</sup>

47) 『日露戰史』, 664쪽.

48) 沼田多稼藏, 『日露陸戰新史』, 岩波書店, 1940, 202~203쪽.

49) Alexei Nikolaievich Kuropatkin, 『러일전쟁(러시아 군사령관 쿠로파트킨 장군 회고록)』(심국용 역),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07, 255쪽(원 저서는 스페인 Barcelona 출판사에서 *Guerra Ruso-Japonesa 1904~1905, Memorias del General Kuropatkin*이라는 제목으로 1909년 발간되었다).

50) 그러나 발틱함대는 캄란만에 들어가 4월 20일에 이르러도 출항하지를 앓았고, 우수리스크

일본군은 5월 1일 후비 제2사단을 원산 일대에 집결시켰다. 또한 만주파견 부대의 일부를 북한지대로 배속시키고, 나아가 1군을 편성하여 해군과 협력하여 1904년 이래 참모차장의 기안인 블라디보스토크를 탈취하는 계획도 다시 대두되었다.<sup>51)</sup> 6월 16일 야마가타 아리토모 참모총장은 “1. 만주군은 이미 정한 작전방침에 따라 銳意 그 실행을 기할 뿐 아니라 이를 수 있다면 兩期 전에 전면의 적을 공격을 요함. 2. 만주군의 작전과 서로 協應하여 북한방면으로부터 블라디보스토크를 脅威하고 또한 樺太(사할린) 점령을 실행한다”는 작전계획을 상주하였다. 이 작전계획은 봉천회전 이후 강화를 추진하는 방향이 결정된 이래 중요시된 것으로 그 중심은 제2항이었으나 실행하지는 못하였다.<sup>52)</sup> 참모차장 나가오카 가이시는 7월 1일 전 수상 가즈라 타로(桂太郎)를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다. 즉, “평화담판을 유리하게 진척시키기 위해서도 한국의 上下에 대해 제국의 위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장차 또 육군의 능력상으로 말해도, 이때의 시비가 한국 토지 내의 적을 擊攘하고 그 영향을 조금도 남기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서 한국을 제2영토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sup>53)</sup> 일본군 수뇌부는 7월 12일 참모본부에 모여 한국의 북부지방에 군대를 진군시키자는 의견에 대해 논의가 있었고, 2개 사단을 파견하는데 동의하였다.<sup>54)</sup> 이 같은 내부 조율에 따라 한국주차군사령관은 함경도 방면의 작전계획을 수립하여 北韓支隊를 재편성하고 집결을 완료하였다.<sup>55)</sup>

---

크 방면의 러시아군은 점차 두만강을 건너 경성 부근에 도달하였다. 『機密日露戰史』 565쪽.

51) 『機密日露戰史』, 563~564쪽.

52) 古屋哲夫, 『日露戰爭』, 中央公論社, 1970, 184~185쪽.

53) 『機密日露戰史』, 570쪽.

54) 山本四郎 편, 『寺內正毅日記(1900~1918)』, 京都女子大學研究叢刊 5, 1980, 338쪽.

55) 『機密日露戰史』 572쪽.

#### 4. 후반기 교전상황

사할린 전투 진전 무렵 러시아와 일본은 각기 한국분견대·북한지대를 편성하여 마지막 전투에 박차를 기하고자 하였다. 일본이 해양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던 상황에서 러시아군은 1905년 7월 7일 군관구사령관의 명에 의해 한국 동북부에서 행동하는 군대를 한국분견대라 개칭하고 전투서열 및 임무를 변경하였다. 설치된 분견대의 임무는 가능한 한 장기간에 걸쳐 한국 북부를 수중에 장악하고 일본군이 두만강을 넘어 러시아 경계로 침투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군 당국은 당시 한국에 주둔한 총 2만~2만 3천 명의 일본군이 야전포와 산악포를 포함한 대포 24~40문을 보유하고 있고, 그 선봉부대가 경성과 수성에 주둔하고 1개 포병중대는 갑산에서 무산으로 이동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7월 17일 일본군 함선이 두만강 하구와 해안에 모습을 드러냈고, 웅기에서는 일본 수뢰정 5척이 촌락을 포격하고 상륙하여 전신선을 파괴했다는 정보도 얻게 되었다.

이에 아니시모프(Анисимов) 소장은 7월 20일 연해주 혼성 카자크 여단장 코사고프스키(Косаговский) 장군을 지휘관으로 하는 총 2개 대대, 11개 백인중대, 1개 기병의용군부대, 대포 4문, 공병 1개 소대, 1/2개 예비포병대 그리고 1.5개 수송대로 선봉분견대를 구성하였다.<sup>56)</sup> 분견대는 당일 다음과 같은 임무를 받고 배치되었다. 즉, 주력은 회령에 포진하고, 12.5개 백인중대와 대포 4문으로 구성된 기마부대는 로디오노프 곶(мыс Родионов)<sup>57)</sup>-富居津-富寧-茂山-지타소(Титасо)<sup>58)</sup> 전선을 점령한다. 남부 전위부대는 대포 4문에 2개 대대

56) 한국분견대 총사령관 아니시모프 소장은 선봉분견대의 전반적 임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정치적 목적에서 그리고 적군이 우리 국경을 넘지 못하도록 가능한 지속적으로 한국 북부를 장악하고 있으나,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또 어떠한 이유에서도 일본인들의 두만강 접근을 허용하지 말되, 도하는 더더욱 허용해서는 안 된다.”(РГВИА ф.ВУА, о п.??, д.28207, л л.26-27, 훈령, 1905. 7. 20).

57) 연해주 시코톱스키(Шкотовский) 지역에 위치한 곳.

58) 地[芝]陀所. 간도 璦春지역에 위치.

그리고 기마의용부대의 병력으로 古豊山 진지에 위치한다. 이때 각각 1개 중대로 이루어진 2개 선봉부대를 白沙峰과 그 인접지에 먼저 배치한다. 특별 측면분견대는 1개 대대와 1/2개 백인중대로 雄基에 주둔하면서 분견대의 좌익과 후방을 바다 방면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이다.

러시아 분견대는 7월 23일 회령과 고평산 및 부거진-부령-무산선을 점령하였다. 다음날인 7월 24일부터 러일간의 전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일본군 3개 대대와 3개 이상의 기병중대의 압박으로 파블로프 부대는 부령으로부터 철수하게 되었다. 7월 25일 부거에서 전투가 있었지만 러시아 분견대는 일본군의 공격을 격퇴했다. 이 전투에서 러시아군 1명이 전사하고 6명이 부상하였다.<sup>59)</sup> 같은 날 백사봉 부근 전투에서도 러시아군은 대위 2명, 병졸 4명이 전사하고 중령과 소위보 각 1명, 병졸 8명이 부상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군 1개 대대가 공격해 들어온다는 소식을 접하자 분견대는 고평산으로 후퇴하고 마루이(丸井) 지대가 부거를 점령하였다.

그런데 이날, 즉 7월 25일 오전 7시 30분에 일본군 약 2개 대대는 러시아군 제7연대 소속의 한인의용군(민병대)<sup>60)</sup> 103명이 주둔하고 있었던 무산령(Мусальенг) 고갯길에 위치한 진지를 공격해 들어왔다. 그들은 1개 기병중대를 러시아군 좌익으로 우회시켰다. 오전 11시까지 버티던 의용군은 고평산 방면의 등천골(Тынченгори) 고갯길로 후퇴하기 시작했고 일본군도 무산령 고갯길의 북쪽 기슭으로 퇴각했다.

그러나 당시는 장마철로 7월 23일 이래 강우로 강물이 팽창하고 교량이 유실되었다. 러시아군은 부족한 식량사정 때문에 현지 징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소의 전염병 발생으로 주민들로부터 수레를 구하는 것도 어려웠다. 그 결과 군사행동 기간 동안 분견대에게 공급될 예정이었던 전체 식량의 2/3 이하만이 운송되었다.<sup>61)</sup> 25일의 강풍호

59) 『日露戰史』, 444쪽.

60) 한인의용군 창설계획은 이미 1904년 11월 연해주 군관구의 코르프 중령이 구체적인 안을 제시한 바 있었으나 대한제국 정부의 반대와 전황의 악화로 중단된 바 있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심현용, 앞의 책, 176~180쪽 참조.

61) РГВИА, ф.846, о п.16, л.27184, л л.1-27 о 6, 지리-통계부문.

우로 대소 하천이 불어 일본군 후방연락도 전부 단절되었다.<sup>62)</sup> 태풍으로 다음날인 7월 26일 분견대에 소속된 각각의 러시아 부대들도 일본군과 마찬가지로 서로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다. 회령-경흥간 도로는 흔적도 없이 씻겨 내려갔고 전신선은 파괴되었으며 모든 개천들은 도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리고 러시아군 주력이 구축해놓은 두만강 주요 다리는 강물에 의하여 완전히 떠내려갔다. 이러한 교량 부재와 식량 부족 등으로 인하여 분견대장은 포시에트 연대 소속의 단 2개 중대만을 옹기로 파병한 뒤, 향후 식량이 확보되는 시점까지 제41연대를 두만강의 좌안에 남겨둘 수밖에 없었다.

다시 7월 29일 松坪 부근의 전투에서는 이시이(石井) 소좌의 부대는 러시아군에 승리하였는데, 반면 일본군도 전사 5, 부상 23, 포로 1명을 남겼다. 이날 松酒洞과 五柳洞 부근에서도 전투가 있었다. 특히 일본측 기록에서도 일본군 2개 중대가 참여한 오류동 동북고지 전투는 한국인 의용군과 러시아군이 연합하여 일본군과 매우 격렬하게 전투하였지만 패퇴하였다고 되어 있다.<sup>63)</sup> 당시 러시아 군사령관의 입장은 두만강 지역으로 북상하는 일본군들을 강력히 저지하는데 있었지만, 러시아군이 밀릴 경우 치열한 전투를 피할 것을 명령하였다. 분견대장 아니시모프 장군이 한국 북부에서 고립되어 있는 상황 때문이었다.

8월 5일 무산령으로부터 전진한 일본군의 새로운 공격이 시작되었다. 일본군은 6개 중대, 2개 기병부대 그리고 대포 2문의 군사력을 동원하여 러시아 경비부대를 격퇴하고 고풍산을 점령했다. 그러나 8월 7일부터 8일의 이틀간 갈포령 부근의 전투에서 일본군은 막대한 손실을 입은 채 러시아군의 화력에 의해 격퇴되었다. 이후 당분간 전투는 소강상태에 접어들었고, 이때부터 8월 31일까지 일본군은 공격해 들어오지 않았으며 러시아와 일본 양측이 실시했던 정찰의 결과 소규모의 충돌만이 발생했다.

8월 15일 주차군사령관은 후비 제2사단장에게 점령구역을 두만강까

62) 『日露戰史』, 445쪽.

63) 『日露戰史』, 449쪽.

지 확장하고, 상황이 허락한다면 점차 점령구역을 확장하라는 훈령을 전달하였다. 8월 16일에는 2척의 일본 어뢰정과 순양함이 로디오프곶의 러시아 초소에 함포사격을 가했다.<sup>64)</sup> 20일에는 일본군 보병 2중대, 기병 1중대가 오류동으로 향해 전진하였지만 시베리아 카자크 기병 제9연대의 소초가 이를 격퇴하였다.<sup>65)</sup> 8월 30일 비가 줄어들자 일본군은 다시 전진을 개시하였고 러시아 선견부대의 모든 전선을 공격했다. 그러다가 8월 31일 제6동시베리아보병연대 소속 15개 중대의 화력지원을 받고 있던 발레예프(Балеев) 중령 휘하의 정찰대는 일본군과 교전을 벌였다(회령 昌斗嶺 전투). 이 과정에서 일본의 군사력이 우월하였지만, 러시아군 정찰대는 합류한 한국인 민병대와 함께 연합 전술을 전개하여 일본군의 우익을 격퇴하고 4명을 포로로 생포했다.<sup>66)</sup> 전투에 참여한 일본군은 보병 4대대, 기병 2중대, 포 12문, 공병 1중대, 전투 총원 약 4,200명으로 그중 사상자는 장교 이하 92명이었다. 반면 러시아 하사졸 5명을 생포하고, 마필 5기, 소총, 탄약, 피복 및 천막 등을 노획하였다.<sup>67)</sup> 같은 날 부거방면 전투에서는 일본군은 하사졸 전사 3명, 소위 1명, 하사졸 4명이 부상하였고, 갈포령으로 향한 척후도 러시아 보병 약 50명의 사격을 받아 하사졸 6명이 전사하고 부상 병졸 3명을 남기고 퇴각하였다. 이날부터 일본군은 러시아 선봉부대의 정면을 따라 공격을 실시했다. 이어진 이틀간의 전투에서 러시아군은 하급병사 8명이 전사하고, 장교 3명과 하급병사 31명이 부상당했고, 9월 2일 총사령관 리네비치 대장은 회령의 진지로 후퇴명령을 내렸다.

9월 3일 일본군 독립기병은 회령으로 퇴각하는 러시아군을 추격하여 그 중 제1중대는 성내로 진입하였다. 러시아 기병 1縱隊는 회령-행영의 도로를, 다른 1중대는 회령-고령진으로 퇴각하였고 일부는 두만강

64) 앞의 『러일전쟁 1904~1905(제1부 1904~1905년 한반도 동북지역에서의 전투상황)』, 95쪽.

65) 『日露戰史』, 457쪽.

66) РГВИА, ф.846, о п.16, д.27184, лл.1-27 о 6, 지리-통계부문.

67) 『日露戰史』, 469쪽.

을 건너 후퇴하였다. 일본군 전위는 회령까지 진입하게 되었다.<sup>68)</sup> 이 전투에서 러시아군은 8명의 하급병사가 사망하였고 장교 3명과 하급 병사 33명이 부상을 입었다.<sup>69)</sup> 일본군의 손해는 장교 2명 전사, 하사 졸 2명 부상, 마필 8기였다.<sup>70)</sup>

이후 우천으로 전투는 또다시 중지상태에 들어갔다. 그러나 9월 5일자로 미국 포츠머스에서 러일 간의 강화조약이 체결되었다는 보도가 다음날 전장에 전달되었고, 9월 7일 일본군 후비 제2사단장은 전투행위를 중지시켰다.<sup>71)</sup> 당시 후비 제2사단장은 군사령관의 지시로 러시아 분견대 총사령관과 휴전을 협의하였지만 경계선에 관한 논의가 일치되지 않아 현상유지 상태에서 전투만 중지되었던 것이다.

## 5. 강화조약과 종전

함경도와 두만강 일대의 홍수로 전쟁이 일시 소강상태에 들어설 무렵인 1905년 7월 26일 극동주둔군 총사령관 리네비치 대장은 분견대장 아니시모프 소장에게 한러 접경 러시아 지역 영토 고수를 강하게 지시하였다. 그는 분견대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일본군들이 두만강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며, 더욱이 국경 러시아 지역인 노보키예스크(Новокиевский; 한국명 烟秋로 현 크라스키노)에 그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할 것을 역설하였다. 총사령관은 일본군이 러시아군을 한국으로부터 밀어내는 것만을 원하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그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한국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아야만 한다고 지시하였다.<sup>72)</sup> 총사령관은 다시 7월 27일 파블로

68) 『日露戰史』, 482쪽.

69) РГВИА, ф.846, о п.16, л.28225, л.75.

70) 『日露戰史』, 483쪽.

71) 『日露戰史』, 486쪽.

72) РГВИА, ф.ВУА, о п.??, л.28207, л л.54-57.

프 대령을 비롯한 분견대의 주력이 계속 퇴각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고, 이는 러시아군 전략상 매우 불리하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현실적인 힘의 열세를 인정하여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적군을 지연시키면서 퇴각할 것이며, 오랫동안 무산을 장악하여 러시아군 수중에 보유할 것을 지시하였다.<sup>73)</sup>

당시 러시아 분견대는 한국 북부의 견고한 점령을 요구받았지만 급량기지와 거의 단절된 상태로 충분한 식량확보가 불가능하였다. 부득이 아니시모프는 8월 9일 제9시베리아카자크연대 소속의 백인중대만 회령을 방어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대는 두만강 대안 防川을 거쳐 도하용 선박시설이 갖추어진 훈춘(Хунчун)으로 퇴각할 것을 명령했다.<sup>74)</sup> 이후 두만강 한국방면에 있던 러시아군은 소극적 방어전을 전개하면서 한편으로는 점진적인 철수를 진행시켰다. 그러던 중 9월 1일부터 러일간 강화담판 교섭이 시작되었다. 이날 잠정적으로 합의된 내용은 “만주 및 두만강 방면에 있는 양국 군대 간에 일정한 거리(구획지역)를 정할 일”이었다.<sup>75)</sup> 그러나 같은 기간 러시아군은 제17보병사단 소속의 제1여단을 니콜스크(Никольск; 秋豊, 현 우수리스크)와 라즈돌노예(Раздольное; 블라디보스토크와 우수리스크 중간의 교통분기점)로부터 한국으로 파병하라는 총사령관의 명령이 접수되었고, 분견대장은 상황이 명료해지는 시점까지 위 여단을 노보키엥스크에 잔류시키자고 요청했다. 강화담판 진행간 일본은 후비보병 제2사단의 점령구역을 두만강까지 확장하고자 8월 31일 고평산을 출발하여 9월 2일 회령점령 후 전진을 계속하였다.<sup>76)</sup>

그 과정에서 9월 5일 러일 강화담판 위원 간에 휴전에 관한 「포츠

73) РГВИА, ф. ВУА, оп. ??, л. 28207, лл. 39-40. 8월 1일 하바롭스크의 흐레사티츠키(Хрещатицкий) 장군도 일본군이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공격할 경우, 러시아 부대들은 치열한 전투에 말려들 필요가 없다고 지시한 사실을 다시 환기시켰다. РГВИА, ф. ВУА, оп. ??, л. 28207, л. 44.

74) РГВИА, ф. ВУА, оп. ??, л. 28207, лл. 45-47.

75) 『大韓毎日申報』, 1905년 9월 9일.

76) 沼田多稼藏, 앞의 책, 224쪽.

머스 강화조약 이 조인되었다. 양국 군대의 전투는 강화조약 체결 순간까지도 계속되었다. 이에 러시아군과 일본군은 각 부대에 휴전을 명하였다. 그런데 당시 육전의 최고지휘관인 만주군 총사령관 쿠로파트킨의 회고록에 따르면, 러시아의 경우 전쟁을 수행하는 많은 병사들도 ‘혁명전선’에 몰들어 있었고,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인기없는 전쟁에 열정없이 싸워야만 했던 것이다.’<sup>77)</sup> 이러한 안팎의 혼란은 무엇보다도 니콜라이 2세가 전쟁의 종결을 급선무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건파 비테(Сергей Юльевич Витте)가 실각하고 베조브라조프(А.М. Безобразов) 등 강경파의 주도로 러시아는 전쟁을 계속하지 않을 수 없었고<sup>78)</sup>, 결국 발틱함대의 궤멸 이후 재반격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미국 대통령 테오도어 루즈벨트(T. Roosevelt)의 권고로 그해 9월 급히 강화를 체결하게 되었던 것이다.

일본 대본영은 9월 6일 전군에 휴전을 명하였고, 한국주차군사령관은 다음날인 7일 함경도 회령 남방 비석동에 있던 후비 제2사단장 미요시 나루유키에 명하여 위원을 정해 북한방면 러시아군사령관 혹은 그 위원과 상의하여 휴전조건의 세목을 협정토록 하였다. 따라서 후비 제2사단장은 8일 리네비치 대장에게 휴전조건 세목의 협정에 관한 위원을 정해 9일 정오 회령 북동지역 鐵洞에서 회견하자는 서한을 러시아군 전초를 통해 전달하였다.<sup>79)</sup> 그 결과 9월 16일 함경도 방면 일본군과 러시아군 사이에 휴전에 관한 협정을 맺게 되었다.<sup>80)</sup>

77) 『러일전쟁(러시아 군사령관 쿠로파트킨 장군 회고록)』, 87쪽.

78) 위의 책, 328쪽. 1920년대 러시아 역사가 M. 파크롭스키는 베조브라조프 일파 주도의 ‘군사봉건적 제국주의’와 재무상 비테 주도의 ‘자본주의적 제국주의’로 규정한 바 있다. 와다 하루키, 『러일전쟁과 대한제국』, 제이앤씨, 2011, 81쪽.

79) 『日露戰史』, 502~503쪽.

80) 그러나 같은 기간인 9월 14일 휴전과 관련한 대한제국 황제의 입장이 상트페테르부르크 주재 한국 공사 이범진을 통해 니콜라이 2세에게 전달되었다. 서한의 핵심은 양국 군대의 휴전 체결은 희망을 상실하게 했고, 일본인들은 이제부터 더 많은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고 우려하면서, 가능하면 속히 러시아 대표를 보내달라는 내용이었다(ГАРФ, ф.818, оп.1, л.110, л.106.). 이에 러시아측은 9월 19일 외무대신 람즈도르프(В. Н. Ламздорф)를 통해 러시아 황제는 대한제국의 국익과 영토의 온전성에 대해 항상 심려하고 있으며, 평화가 완전히 정착되는 즉시 서울에 러시아 대표를 파견할 것이

두만강 방면 양국군의 휴전협정 이후 10월 14일 총사령관 리네비치는 아니시모프 장군과 코사굽스키 장군에게 비준서에 따라 한국 북부 전체는 일본인들이 차지할 권리를 갖게 됨에 따라 러시아군은 철병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두만강 좌안 러시아 영토 지역은 일본군이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도록 반드시 점령해야만 한다는 사실도 환기시키면서, 제1네르친스크 카자크연대 소속의 4개 백인중대가 이 지역 전체를 점령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sup>81)</sup> 전쟁 종결 이후 11월 3일 한국주차군사령관 부 소장 하야시 타이치로(林太一郎)는 러시아군 위원 파블로프 대령과 회견을 통해 한국 영토 내에 있는 러시아군대는 이날부터 5일간 한국 영토 내에서 완전히 철퇴를 마치고, 일본군대는 그 사이 전초를 부거-회령 선으로 이동하고 러시아군이 철퇴를 마치면 전진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교환하였다.<sup>82)</sup> 하명에 따라 11월 10일 한국분견대는 해체되었다. 그러나 당시는 두만강이 팽창하여 러시아군 철수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11월 30일에 이르러 비로소 두만강 좌안으로 도강을 마치고 그 과정에서 일본군 수비대 1소대와 헌병 7, 기병 4명이 두만강 국경 경흥지역까지 진입하였다.<sup>83)</sup>

한편 일본에서는 천황이 10월 16일 「平和克復에 관한 조칙」을 발표하여 대내외에 종전을 공식화하였고, 함경도 진출 각 부대는 10월 19일부터 철수를 개시하여 같은 달 23일부터 11월 4일까지 청진에서 배로 본국으로 귀환하였다.<sup>84)</sup> 12월 7일에는 만주군총사령부가 동경으로 개선하였고, 31일 대본영 및 총사령부도 해산을 완료하였다. 1906년 2월 24일 한국 북부 수비를 전담하는 북부수비대를 새로 배치하였다.<sup>85)</sup> 이로써 만 2년여에 걸친 러일 간의 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끝난 것이다.

라는 내용을 회신하였다(Г А Р Ф, ф. 818, о п. 1, л. 110, л. 2.).

81) РГВИА, ф. В У А, о п. ??, л. 28207, л л. 81-82.

82) 『朝鮮駐劄軍歷史』, 169~170쪽.

83) 『大韓每日申報』, 1905년 12월 20일. 경흥군수의 보고.

84) 『朝鮮駐劄軍歷史』, 170쪽.

85) 『日露戰史』, 512쪽.

## 6. 맺음말

한반도에서 처음 시작된 러일전쟁은 1904년 5월 일본군의 압록강 도하 이후 만주로 이전된 이후 함경도만이 한국 내의 유일한 전쟁지역으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초전은 육전과 해전이 병행되었고, 특히 함경도 전투의 경우 양자가 복합적으로 연계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다. 러일전쟁에서 일본과 러시아가 전투를 벌인 곳 중에서 한국지역 내에서 본격적인 공방전을 벌인 것은 함경도이다. 지정학적 여건 상 만주와 같은 대규모의 전투는 없었지만 초기부터 종전 시까지 함경도에서는 국지전이 지속되었다. 이는 러시아 국경과 붙어 있다는 지리적 측면뿐 아니라 러·일 간의 제해권 확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만약 러시아가 승리할 경우 일본 본토가 지장을 받고 그 반대로 일본이 승리할 경우는 블라디보스토크와 시베리아 등 러시아 동부 지역이 타격을 받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양국 모두 블라디보스토크 작전에 촉각을 세우고 있었다.

육상에서는 러시아군이 일본군에 비해 병력 상으로는 우세하였지만 만주지역의 연이은 승첩과 해상에서 블라디보스토크 함대와 이후 발틱 함대가 일본군 제2함대 및 연합함대에게 연패하는 분위기 속에서 주도권을 상실한 러시아군은 방어전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1905년 7월부터 러시아군 측은 한국 동북부에서 행동하는 군대를 한국분견대라 개칭하였고 일본군도 北韓支隊司舎部를 편제하여 각기 집결을 완료한 후 다시 대소규모의 전투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이때 러시아군 정찰대는 한국인 민병대와 연합작전을 전개하는 사례가 다수 보인다.

지도상으로 보면, 함경도 내 러·일간 전투는 남도와 북도 전역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전개된 것이었다. 예컨대 북서부 일부 산악 오지를 제하면 함경도 명천-덕천에서 갑산-검산령-장진 등을 경유해서 평안도 덕천-강계-만포진으로 이어지는 선, 강원도 접경 원산-문천에서

두만강 하구 웅기까지 이어지는 해안 주요 거점지역, 경성-수성-부거-부령-회령-경원-훈춘(간도)의 러시아 방어선과 그 인접지역에서 전투가 이루어졌고, 주요도시와 도로를 망라하고 있었다.

동해해전 이후 대세는 일본군이 우세한 상황으로 전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일본의 일방적인 우세로만 점철되지는 않았고 종전 직전까지도 일진일퇴를 거듭하고 있었다. 러시아군과 일본군 모두 장마철의 강우로 인한 두만강과 대소하천의 팽창과 전염병, 식량 확보의 불가능, 연락두절 등의 요인에 의해 현상유지 상태에서 소규모 공방전만 지속되었다. 러시아는 일본군의 두만강 접근을 우려하였고 만주방면에서 전력을 소진한 일본군 또한 더 이상의 확전을 원하지 않았다. 1905년 9월 5일 「포츠머스 강화조약 체결 결과 같은 달 16일 함경도 방면의 러시아군과 일본군 당국자도 휴전협정을 맺었지만, 한국 내에서 러시아군의 완전한 철퇴는 11월 30일에서야 이루어진 것이다. 결국 강화조약 2달 후에도 변경인 함경도에서는 실질적으로 전투가 종결된 것이 아니었다.

요컨대 러일전쟁의 각 전투 중 가장 최후의 함경도전투는 총력전은 아니었으나 총 21개월 동안 국지전이 지속된, 지역별 전투 중 가장 최장기간 전개된 것이었다. 계속되는 전투와 더불어 전국 유일의 함경도軍政도 확장되었고 이는 전쟁 종결 후에도 1달 이상 유지되었다. 당연히 지역민의 인적 물적 정신적 고통과 희생이 막심하였다. 전쟁과 군정으로 국가적 차원과 민간차원의 동원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당시 함경도 지역상황과 지역주민의 현실적 처지 등에 관한 분석은 별도의 논문을 준비 중에 있다.

(원고투고일 : 2013. 1. 1, 심사수정일 : 2013. 2. 19, 게재확정일 : 2013. 2. 25)

주제어 : 러일전쟁, 한국분견대, 북한지대, 한인의용군, 포츠머스 강화조약, 블라디보스토크, 함경도, 군정

&lt;ABSTRACT&gt;

## A Study on the Hamgyeongdo Battle during the Russo-Japanese War

Cho, Jae-gon

The Russo-Japanese War was the global war which took place for the first time in the twentieth century. The war covered the entire parts of the Korean Peninsular, and north and north eastern regions of China and was the Imperial War that began and ended in the Korean Peninsular.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make an in-depth study on the Hamgyeongdo Battle focusing on the concept of the military operations and organizations, and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Russo-Japanese War.

The main stage of the Russia-Japan War which started on February 6, 1904 was moved to Manchuria, after the Japanese troops crossed the Aprokgang River (Yalu) in May the same year. During the war, Hamgyeongdo Province was the only battle area in the Korean Peninsular. But from the historical perspective, the battle which took place in the area was the 'forgotten war' and the 'last war' which took place at the frontier area in the land. The Hamgyeongdo Battle was characterized as the land and naval warfare which was intricately waged around the border between the Korea and Russia, and the East Sea.

Winning or losing the war was significant for both Russia and Japan. But after the Japanese troops consecutive victories at the battles in Manchurian region and the Vladivostok and Baltic Naval Fleets were defeated in a row, the Russian forces lost their initiative. Since July 1905, as the Russia troops deployed its Korean detachment unit in Hamgyeongdo areas and the Japan established the command headquarters in the northern part of Korea, the battles resumed between them.

Hamgyeongdo Battle was waged in large areas. Except for remote

mountainous regions in some Northwestern parts, the main cities and roads were devastated by war. Although the Japanese troops continued to win the battles and gained the overwhelming upper hand, the things were in ups and downs. On September 5 1905, Russia and Japan signed 「Treaty of Portsmouth」 and the two nations agreed to sign a ceasefire treaty in Hamgyeongdo areas, in September 16. However, the withdrawal of the Russia troops was completed on November 30. The war lasted for 21 months causing human lives, leaving physical and mental sufferings and damages in the region.

Key Words : Russo-Japanese War, Korean Detachment Unit, the command headquarters in the northern part of Korea, Treaty of Portsmouth, Vladivostok, Hamgyeongdo, Military Govern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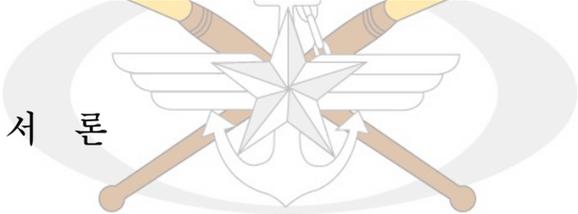


# 푸에블로호 사건을 둘러싼 북한과 미국의 접근

엄정식\*

1. 서론
2. 존슨 행정부의 초기 대응과 대북인식
3. 포로송환을 위한 북미협상과 미국의 대북인식 변화
4. 결론

## 1. 서론



1965년 본격화된 한국의 베트남전 파병 이후 미국은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수차례 강조하면서 한국과 밀월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1968년 초 연달아 발생한 북한의 무장공비 침투(1.21 사건)와 푸에블로호(Pueblo) 나포로 한미관계는 갈등을 겪게 된다. 한국은 존슨 행정부가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려는 도발보다 푸에블로호 나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자 반발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존슨(Lyndon B. Johnson) 대통령이 군사적 조치를 요구하는 국내외 여론에도 불구하고 푸에블로호 포로를 송환받기 위해 북한과 비밀협상에 나서면서 한미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푸에블로호 사건을 둘러싼 북미협상은 6·25전쟁 이후 양국이 처음으로 마주한 역사적 의미를 갖지만 국제정치적으로 볼때 미국이

\* 공군사관학교 군사전략학과 조교수

북한과 직접 접촉하는 과정에서 대북인식의 변화를 보였던 사례였다. 본 연구는 냉전기 미국의 대북인식 변화를 보여주는 최초의 사례로서 푸에블로호 사건을 분석한다.

그동안 기존 연구는 푸에블로호 사건을 미국의 위기관리에 대한 실패사례로서 분석했다. 이들 연구는 주로 군과 관련된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분야로 좁게는 푸에블로호 사건 초기에 보여준 위기관리방식을 검토하여 군사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집중한다.<sup>1)</sup> 비록 이들 연구가 사건 초기 존슨 행정부가 처했던 상황과 고려했던 대응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푸에블로호 사건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를 갖는다. 당시 미국은 베트남 전쟁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한반도에서 또 다른 전쟁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푸에블로호 사건은 종합적인 이해가 필수적이다. 또한 푸에블로호 사건은 1960년대 한미동맹의 맥락에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는 푸에블로호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한미동맹의 갈등에 초점을 두었으며 특히 주한미군 철수문제나 대한군사원조에 끼친 영향을 분석했다.<sup>2)</sup> 이들 연구의 함의는 당시에만 머물지 않고 탈냉전기 북한의 도발이나 한미관계까지 확대되기도 했다.<sup>3)</sup>

본 연구는 미국의 대북인식 변화라는 측면에서 협상과정에 초점을 두었으며 비밀해제된 1차 자료에 기초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

- 
- 1) 정성윤, "A Study on the Intelligence Activity and the Risk Assessment of the U.S. Military", 『국제관계연구』 제15권 제2호, 2010.; 양성철·문정인, "한미안보관계의 재조명: 푸에블로호 사건의 위기 및 동맹관리사례를 중심으로"; 김덕중 외 공편, 『한미관계의 재조명』, 마산: 경남대출판부, 1988.; Paul R. Schratz, "A Commentary on the Pueblo Affair", *Military Affairs*, Vol. 35, No. 3(October 1971); Mitchell B. Lerner, *The Pueblo Incident: A Spy Ship and the Failure of American Foreign Policy*(Kansas: University of Kansas, 2002); Michishita Narushige, *North Korea's military-diplomatic campaigns, 1966~2008*(New York: Routledge, 2010).
  - 2) 윤민재, "푸에블로호 사건과 한미관계", 『사회와 역사』 통권 제85집(2010. 3); 정성윤, "1968년 북한의 푸에블로호 나포 원인에 대한 연구", 『국제정치연구』, 제11집 제2호(2008); Byung Chul Koh, "The Pueblo Incident in Perspective", *Asian Survey*, Vol. 9, No. 4(April 1969).
  - 3) 박용수, "1990년대 이후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 푸에블로호 사건과 비교해 본 제1, 2차 북핵 위기의 특징", 『국제정치논총』 제47집 2호, 2007.

된다.<sup>4)</sup> 특히 포로송환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미국의 대북인식이 어떤 변화를 보였으며 대한정책변화에 끼친 영향은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과정추적 방법(process-tracing)을 활용했다. 본 연구는 1급 비밀을 포함한 합참과 CIA의 자료(NND932017-492~648), 국무성 연구보고서(Research Project No. 939-C), FRUS(Th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존슨 대통령의 회고록(The Vantage Point) 등을 분석했으며 공산권 자료가 수록된 2차 자료를 함께 분석했다.<sup>5)</sup>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이 사건 초기에 가졌던 인식과 북미협상을 진행하면서 가졌던 인식의 변화를 분석한다.

## 2. 존슨 행정부의 초기 대응과 대북인식

### 1) 푸에블로호 사건에 대한 초기 대응

1968년 1월 23일 원산 앞바다에서 미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가 북한에 의해 나포되었다. 북한 무장공비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청와대 앞 800m까지 다다른 사건이 발생한지 이틀만이었다. 푸에블로호가 나포되자 존슨 행정부는 긴급히 국가안보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 이하 NSC)를 열었다. 나포 경위와 상황에 대한

4) 본 연구의 미국 측 1차 자료는 2010.11~2011.1 동안 이루어진 Maryland(College Park) 소재 National Achie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II) 현지조사와 신옥희 교수(서울대)가 존슨 대통령 도서관(Lyndon Johnson Library)에서 수집한 자료에 근거한다.

5) 본 연구는 미국의 대북인식을 주제로 하기 때문에 미국 측 자료에 의존했다. 그러나 대북인식은 더 넓은 의미에서 북미 상호인식, 미국의 지역정책, 미국 국내정치와 연관성을 갖는다. 다만 본 연구는 다양한 요인들이 미국 정책결정자들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반영되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기존 연구들이 다루지 않은 1차 자료에 집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측 자료를 통해 북한의 입장을 다루지 못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발굴하고 있는 동구권 자료를 통해 푸에블로호 사건의 북한 측 입장을 분석하고자 한다.

정확한 정보가 접수되지 않은 자리에서 고위정책결정자들의 관심은 ‘북한이 왜 푸에블로호를 나포했는가?’에 집중되었다.<sup>6)</sup> 이 자리에서 맥나마라(Robert McNamara) 국방장관<sup>7)</sup>은 푸에블로호 사건이 1월 10일부터 계획된 것으로 북한은 미국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소련도 미리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즉각적인 군사적 대응은 시간상 어려웠다고 언급했다. 러스크(Dean Rusk) 국무장관도 소련이 베트남 전쟁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고자 미국의 협조 요청에 부정적이라고 분석했다. 헬름(Richard Helms) CIA국장도 소련과 북한이 결탁해서 베트남에서 미국의 관심을 돌리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대부분이 푸에블로호 사건에 대해 미국의 의도를 시험하기 위한 공산권의 전술적 탐색행위로 평가했다.<sup>8)</sup> 이처럼 미국은 1966년 이후 강해진 북한의 도발 맥락에서 볼 때 북한이 1.21 사건으로 베트남에 참전한 미국과 한국에 대해 시위를 벌였고 한발 나아가 푸에블로호 사건이라는 극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직접 연루시킨 것으로 판단했다.<sup>9)</sup>

1.21 사건과 푸에블로호 사건의 연관성도 검토되었다. 2월 1일 열린 미 상원 군사위원회 비공개청문회에서는 북한이 국내경제파탄의 불만을 돌파하고자 군사적 모험을 시도한 것으로 분석하면서 1.21 사건과의 연관성은 언급하지 않았다.<sup>10)</sup> 이러한 의견은 송환된 푸에블로호 승무원의 증언으로도 뒷받침된다. 푸에블로호 통신감청요원인 란젠버그(Langenberg)는 북한이 자신에게 정보를 빼내려고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sup>11)</sup> 함장인 부처(Bucher)도 “그들은 자신들이 엄청난 실수를

6) U.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64~1968 Volume XXIX Korea(Washington: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2000), pp.468~475.(이하 FRUS)

7) 맥나마라는 당시의 상황에 대해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때와 똑같이 신경을 곤두세웠다고 한다.

8) 양성철·문정인, 앞의 책, 1988, 68쪽.

9) Memorandum for See Distribution List, 1/23/1968, Subject: North Korean Intentions, Declassified from NND 565, 1968, Lyndon Johnson Library

10) “’68. 2. 1 미 상원군사위원회 비공개청문회 기록”, 『신동아』 1968년 8월호

11) 문화방송 시사교양국, 『MBC 창사 40주년 특별기획 이제는 말할 수 있다. 36회: 푸에블로호 나포사건』(서울: 문화방송, 2001), 3장, p.8. 본 연구에서 인용한 MBC 자료는 다

저지른 것이 아닌가 긴장해 있었다. 어떤 심한 처벌이나 보복을 당할까 걱정했던 것 같다”고 증언했다.<sup>12)</sup> CIA를 비롯한 대다수가 푸에블로호 사건을 1.21 사건과 연관해 사전에 계획된 것은 아니라고 봤다.<sup>13)</sup> 왜냐하면 미국은 북한이 무장공비를 침투시키기 이전에 북한 영해에서 정찰임무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반면 푸에블로호 사건이 1.21 사건의 관심을 분산시키기 위해 계획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sup>14)</sup>

그러나 대부분의 고위정책결정자들은 베트남 전쟁에 대한 관심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소련과 중국의 협조아래 북한이 계획한 일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과 대책을 논의한 존슨 대통령은 우선 의회에 사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의회에서 나오는 성명서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지시했다. 고위정책결정자들은 자신들이 판단한 북한의 의도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다양한 정책대안을 논의했다.<sup>15)</sup> 사건 직후 구성된 푸에블로호 자문그룹(Pueblo Advisory Group)은 세 가지 목표를 정해 존슨 대통령과 고위정책결정자들에게 보고서를 제출했다.<sup>16)</sup> 첫째, 나포된 승무원을 빠른 시일 내에 송환한다. 둘째, 북한에

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현지에서 수집된 1차 자료를 묶은 발간물이다. 서울대학교 도서관과 문화방송 자료실에 소장된 위 자료는 대부분 미국에서 수집된 원문과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수록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2차 자료보다 사료의 가치를 갖는다.

- 12) 문화방송 시사교양국, 2001, 3장, p.8; 심지어 소련의 조선과장인 트카첸코(Vadimp, Tkachenko)는 “우연이다 미국배인지도 모르고 잡아 놓고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 언급했다. 트카첸코의 증언과 달리 북한은 미국배임을 알고 있었지만 사전에 계획된 것은 아니었다. 문화방송 시사교양국, 2001, 5장, 22쪽.
- 13) Central Intelligence Agency(CIA), 1/24/1968, Intelligence Memorandum, Declassified from NND 562~564, Lyndon Johnson Library; Memorandum for See Distribution List, 1/23/1968, Subject: North Korean Intentions, Declassified from NND 565~566, Lyndon Johnson Library.
- 14) Memorandum for the President, undated/1968, Declassified from NND 591~597; Chuck Downs, *Over the Line: North Korea's Negotiating Strategy*(Washington: The AEI Press.) 1999. 송승중 역, 『북한의 협상 전략』, 서울: 한울아카데미, 1999. 192쪽. 이와 유사한 의견을 주장하는 북한 전문가로 척 다운스(Chuck Downs)가 있다. 그에 따르면 푸에블로호 사건은 1.21 사건으로부터 강대국인 미국이 저지른 간첩행위로 관심을 돌리기 위해 저질러진 행동이었고 한다.
- 15) Lerner, op. cit., 2002, p.126
- 16) Report on meeting of the advisory group, January 29, 1968, National Security Files, Files of Walt Rostow, Box 10, the President's file for

대해 군사적 행동을 할 지 모르는 남한을 회유한다. 셋째,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그런데 존슨 대통령은 첫 번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나머지 목표들이 제한받는다라는 것을 곧 깨달았다.<sup>17)</sup>

존슨 행정부는 세 가지 목표에 따른 정책대안으로 첫째, 정치 외교적 압력 둘째, 외교적 노력과 무력시위의 병행 셋째, 해군을 통한 군사적 작전을 고려했다.<sup>18)</sup> 이 중에서 무게를 두고 있었던 정책대안은 두 번째 외교적 노력과 무력시위의 병행이었다. 존슨 행정부는 무력시위의 일환으로 동남아시아의 병력운용계획을 검토함으로써 베트남 전쟁 상황을 우선했다.<sup>19)</sup> 또한 핵무기 사용을<sup>20)</sup> 포함한 11가지 군사적 조치를 검토했다.<sup>21)</sup> 미 상원 원자력위원장 잭슨(Herny Jackson)의 원도 “만일 한국이 남침을 당할 경우 미국은 한국방위를 위해 전술핵 무기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라고 언급했는데 실제로 당시 한국엔 푸에블로호 사건 이전부터 핵무기를 장착한 F-5E 전투기가 배치되어 있었다. 핵무기의 사용은 승무원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지만 북한에게

Korea and Vietnam, Lyndon Johnson Library. National Security Files

- 17) U.S. Department of State, The Diplomacy of the Pueblo Incident: Historical Office Research Project No. 939-C(Reserved) (Washington: Bureau of Publish Affairs Department of State, 1968), p.9. 결과적으로 존슨 대통령은 승무원 송환이 이루어진 11개월 후까지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하게 된다.
- 18) Memorandum for the President, undated/1968, Declassified from NND 591~597, Lyndon Johnson Library.
- 19) Memorandum for the Secretary of Defense, 1/25/1968, Declassified from NND 494, Lyndon Johnson Library.
- 20) 북한 무력화를 위한 공군작전(작전명 Fresh Storm)과 별도로 태평양 함대사령부에서는 핵전략 계획이 논의되었다. Memorandum for the Chairman, Joint Chiefs of Staff. 4/19/1968, 5/14/1968. DJSM-585-68, Lyndon Johnson Library; 해군 참모총장인 무어(Moorer)의 증언에 따르면 미국은 핵무기 사용방안(작전명 Freedom Drop)을 고려했다. 문화방송 시사교양국, 2001, 5장, 21쪽.; 문화방송 시사교양국, 2001, 3장, 3쪽.
- 21) FRUS XXIX. Korea. 1964~1968, 2000, pp.556~559. 당시 고려된 대응조치는 다음과 같다. 1) 소련을 통해 무력행사 위협, 2) 항공정찰, 3) 다른 정보수집함의 재투입, 4) 구출작전, 5) 원산항에 기뢰 매설, 6) 북한선박 압류, 7) 공중 폭격, 8) DMZ에서 남한이나 미국에 의한 도발, 9) 해군항구 봉쇄, 10) 일본 등의 자유진영체제의 경제적 제재, 11) 남한에서 폭격연습 실시

교훈을 줄 것이라는 논리가 깔려 있었다.<sup>22)</sup> 검토 결과, 1월 24일 밤 비공식회의에서 존슨 대통령은 한국과 주변지역의 공군력을 증강하고 공군과 해병대 예비역 일부를 소집하는 군사적 조치를 승인했다.<sup>23)</sup> 그러나 이 조치는 궁극적으로 군사적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려는 것이었다.

실제로 사건 직후부터 존슨 행정부는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다.<sup>24)</sup> 가장 먼저 소련에 중재를 요청했고 UN 안보리에 1.21 사건과 푸에블로호 사건을 상정하는 문제에 대해 검토했다. 국무부는 주한 미 대사관에 전문을 보내 이러한 사항을 박정희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협조를 구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미국은 박 대통령에게 푸에블로호 문제를 군사정전위원회(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이하 군정위)에서 다루려는 계획을 상의하지 않았다. 포터(William Porter) 주한 미 대사는 이 일이 한미관계에 끼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했지만 계획대로 미 국무부는 군정위 UN군 수석대표인 스미스(John Smith) 제독에게 1월 24일 군정위에서 푸에블로호 사건을 다루도록 지시했다.<sup>25)</sup>

22) Memorandum for the Chairman, Joint Chiefs of Staff, 1/31/1968, P310706Z ZFF4, Lyndon Johnson Library.

23) FRUS XXIX, Korea, 1964~1968, 2000, pp.483~495

24) 사건 직후 대응과 별도로 나포당시 왜 푸에블로호 나포를 저지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미 상원군사위원회 비공개청문회 기록이 자세히 설명해준다. 당시 어둡기 전에 월산에 도착할 수 있었던 유일한 수단인 남한 전투기뿐이었다는데 배제된 이유(신뢰할 만한 옵션 없음)는 1.21 사건 이후 남한의 도발을 우려, UN 군사령부를 고려, 공대지 능력 불비 등이다. What reaction forces were available and what were our reaction options?, Declassified from NND 641, Lyndon Johnson Library; 나포 당시 존슨 행정부에서 정찰기 출격을 포함한 군사적 대응을 할 수 없었던 이유로 북한의 공군력이 우위에 있었으며 날씨가 나빴고 이미 어두워졌다. 게다가 군 지휘부에서 실제 상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지 못한 상황에서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맥나마라 국방장관 증언했다. 동아일보, “68. 2. 1 미 상원군사위원회 비공개청문회 기록”, 『신동아』 1968년 8월호에서 재인용; The Diplomacy of the Pueblo Incident : Historical Office Research Project No. 939-C(Reserved), 1968, p.14; Memorandum for the President, undated/1968, Declassified from NND 597, Lyndon Johnson Library.

25) The Diplomacy of the Pueblo Incident : Historical Office Research Project

반면 박정희 정부의 초기 인식은 사뭇 달랐다. 흥미롭게도 푸에블로호 사건은 다른 한편으로 한국에게 안도감을 주었다.<sup>26)</sup> 박정희 정부는 1.21 사건과 푸에블로호 사건을 당연히 연관된 문제로 인식했고, 이를 통해 북한을 한미 양국의 공통된 적으로 부각시키고자 했다. 푸에블로호 사건은 궁극적으로 한국정부가 희망하던 대북군사용징이라는 조치를 미국의 힘을 빌려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게끔 했다. 1월 25일 정일권 총리는 미국 측의 강력한 응징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그리고 포터 대사와 본스틸(Charles H. Bonesteel) 사령관과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공동의 대안을 모색하려 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공개적으로는 한국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했다. 앞서 언급된 미국의 목표 설정과정에서 존슨 행정부는 승무원과 푸에블로호를 돌려받는데 있어 북한의 대남위협과 연계해서 한국과 협력할 것을 논의했다.<sup>27)</sup> 미국은 UN 안보리 소집과정에서 박 대통령과 협력한 것은 물론 안보리 소집과 관련된 발표문에서도 북한을 초대하는 것이 북한을 공식적인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라고 골드버그(Goldberg) UN 미국대사에게 지시했다.<sup>28)</sup> 이러한 조치로 볼 때 존슨 행정부의 초기 인식은 6·25전쟁 이후 고수해 온 ‘하나의 한국 정책(One Korea Policy)’으로 평가할 수 있다.

## 2) 베트남 전쟁과 북한에 대한 미국의 인식

푸에블로호 사건 직후 백악관에서 긴박하게 진행됐던 정책결정과정은 한마디로 ‘편의적인 냉전패러다임’으로 평가된다.<sup>29)</sup> 존슨 행정부의

No.939-C, 1968, p.2.

26) 양성철·문정인, 앞의 책, 1988, 60쪽.

27) 외교문서철 M/F: 룰번호 G0011, 파일번호 08, UNW-0148, 외교통상부 외교사료관; 문화방송 시사교양국, 2001, 15장, p.21, 국무성 정보비망록, 주제: 북한의 푸에블로호 나포.

28) FRUS XXIX. Korea. 1964~1968, 2000, pp.543~546.

29) Lerner, op. cit., 2002, pp.99~103.

정책결정자들 대부분이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푸에블로호 사건을 소련의 사주로 보거나 베트남 전쟁을 간접지원하려는 행동으로 판단했다. CIA 국장이나 테일러 대장도 북한이 북베트남을 도우려는 노력으로 사건을 이해했다. 북한과 소련이 공모하여 미국의 관심을 베트남에서 돌려보려는 시도로 인식하고 있었다.<sup>30)</sup> 이러한 인식의 배경에는 1월 31일 북베트남의 구정 대공세(Tet Offensive)도 영향을 끼쳤다. 이 대공세의 결과로 미국 내에서 베트남 전쟁에 대한 논쟁이 더욱 확산되었으며 결국 존슨 행정부는 1968년 3월 31일 베트남 문제 해결을 위해 월맹과 평화회담을 개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처럼 베트남 전쟁의 종전이 논의되면서 국무부 내 정책검토그룹(Korea Study Group)에서도 대한정책의 전환을 검토했다. 이 정책검토그룹은 미국의 베트남 전 종전을 전제로 주한미군의 감축을 검토했으며, 1968년 6월 미국의 대한정책의 전환을 건의하는 문건을 제출했다. 이 문건은 향후 2년 내에 베트남 전쟁이 종결되면 한국에 대한 안보정책에도 전략적 대안을 모색하도록 제시했다.<sup>31)</sup> 시기적으로 베트남 전쟁의 상황과 푸에블로호 사건의 일치는 존슨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독자적인 행동을 취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베트남 전쟁과 공산주의 국가들의 연관성은 미국 정책결정자들의 사고를 구속하는 중요한 틀이었으며 북한에 대한 인식도 예외는 아니었다. 존슨 대통령도 이러한 사고에 영향을 받아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했다. 그는 회고록(The Vantage Point)에서 밝혔듯이 스스로 냉전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정책결정에 참여했다.<sup>32)</sup>

그렇다면 소련과 중국은 어느 정도 개입한 것일까? 트카첸코에 따르면 소련은 사전에 나포 사실을 몰랐으며 사건 발생 이후에도 북한에서

30) Summary Notes of Presidents January 31, 1968, Papers of Lyndon Johnson, 1963~1969, Meeting Notes File, Box 2, Lyndon Johnson Library.

31) 강석률, 『닉슨 독트린과 데탕트 그리고 한미동맹 : 역제의 추구와 동맹국간의 갈등』,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25~26쪽.

32) The Diplomacy of the Pueblo Incident: Historical Office Research Project No. 939-C, 1968, p.9.

구체적인 정보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sup>33)</sup> 실제로 푸에블로호에서 확보한 미군의 암호기는 북한보다는 세계적 수준에서 미국과 경쟁하던 소련에게 더 이익이 될 수 있었지만, 북한은 사전에 이러한 의도를 소련과 상의하지 않았다.<sup>34)</sup> 또한 1960년대 말 소련은 일본과 시베리아 경제협력에 대해 협의하고 있었다. 소련의 입장에서 한반도의 갈등은 이익보다 손실이 큰 문제였다. 소련은 푸에블로호 사건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사건으로 인해 북한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 소련은 사건이 난 후 북한에게 자세한 정보를 요구했는데 북한은 아무런 답변이 없었으며<sup>35)</sup> 1968년 2월에는 미국의 사과를 기다리지 말고 배와 승무원을 돌려주라는 충고를 무시했다. CIA 보고서에 따르면 사건 초기 소련은 푸에블로호 사건으로 북한과 매우 냉담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sup>36)</sup> 한편 중국은 당시 국내 상황과 베트남 전쟁에 대한 태도에서 유추해 볼 때 북한이 모험주의를 견도록 강제하진 않을 것이다.<sup>37)</sup> 중국이나 소련 중 모험을 통해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전쟁으로 확대되길 원하는 국가는 없었다.<sup>38)</sup> 러너(Lerner)는 1968년 당시 북한은 소련이나 중국의 통제를 상당히 벗어난 독립적인 행위자라고 주장했다.<sup>39)</sup> 당시 소련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많은 정보수집함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과 공모한다면 자신들에게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었다.

33) 문화방송 시사교양국, 2001, 5장, 23쪽.

34) 문화방송 시사교양국, 2001, 5장, 23쪽.

35) Telegram #2913 from American Embassy Moscow to State Department, February 25, 1968, 1967~1969 central files, pol 33-6 box 2254, folder 2/25/1968,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II.

36) NSC Histories, Pueblo Crisis, 1968, Vol. 12, CIA documents, box 32, document #102, National Security Files, Lyndon Johnson Library.

37) Central Intelligence Agency(CIA), 1/24/1968, Intelligence Memorandum, Declassified from NND 564, Lyndon Johnson Library.

38) Central Intelligence Agency(CIA), 1/24/1968, Intelligence Memorandum, Declassified from NND 563~564, Lyndon Johnson Library.

39) Mitchell Lerner, "A Dangerous Miscalculation", *Journal of Cold War Studies*, Vol. 6, No. 1(Winter 2004), pp.7~8.

### 3. 포로송환을 위한 북미협상과 미국의 대북인식 변화

#### 1) 북미협상의 추진

사건 직후 조성된 한미관계의 협력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정부는 미국이 1.21 사건에 비해 푸에블로호 사건만을 중요하게 다루는데 반발하기 시작했다. 결정적으로 존슨 행정부가 북한과 포로송환을 위한 협상을 추진하면서 양국의 갈등은 증폭되었다. 박 대통령은 1968년 2월 1일 경부고속도로 기공식 연설에서 “우리의 자제와 인내에도 한도가 있다는 것을 북한 김일성 괴뢰집단들에게 우리는 엄숙히 또한 분명히 경고한다.”고 포문을 열었다.<sup>40)</sup> 박성범 취재기자의 증언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1.21 사태 때 날 까부시겠다고 내려왔을 때는 너희들 비교적 군에 경계령만 내리고 하더니 너희가 정작 이렇게 되니까 82명하고 나하고가 이게 내가 그것만도 못하냐”고 미국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sup>41)</sup> 미국도 이러한 상황을 몰랐던 것은 아니었다.<sup>42)</sup> 박 대통령은 포터 대사에게 베트남에 파병된 한국 병력을 철수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으며<sup>43)</sup>, 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미국은 북한과 협상하지 말 것과 푸에블로호 사건을 1.21 사건과 동등히 다룰 것을 존슨 행정부에 각서로 전달했다. 또한 국민감정도 악화되면서 곳곳에서 반미 데모가 일어났다.<sup>44)</sup> 미국은 왜 한미관계를 희생하면서까지 북한과 협상을 추진했을까? 사실 미국의 대응은 사건 초기 결정된 세 가지 목표에서 이미 예견되었다. 존슨 대통령은 첫 번째 목표인 승무원의 빠르고 안전한 송환을 가장 중시했는데 두 번째 목표(한국의 보복 자제)와 세 번째 목표(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 억제)는 첫 번째 목표를 달성

40) 문화방송 시사교양국, 2001, 3장, 5쪽.

41) 문화방송 시사교양국, 2001, 3장, 5쪽.

42) 문화방송 시사교양국, 2001, 5장, 22쪽.

43) Johnson, Lyndon. *The Vantage Point: Perspective of the Presidency 1965~1969*.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71) pp.385, 585.

44) 문화방송 시사교양국, 2001, 3장, 5쪽.

하는 데 있어 미국의 행동반경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였고 자연히 한국의 기대에 어긋날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는 미국의 국내정치적 영향도 작용하였다. 여론조사 결과<sup>45)</sup> 갤럽(Gallup)은 미국인 10명 중 4명만이 필요하다면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해리스(Harris)는 미국인들이 전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뉴욕 타임즈는 푸에블로호 사건에 대해 의회와 일부 국민들은 물론 해외에서도 영국을 제외하고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했다.<sup>46)</sup> 사실 휴전 이후 15년 동안 적대적인 모임만 지속되어 온 군정위에 대해 미국은 신뢰하지 못했다.<sup>47)</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노력들이 좌절되는 상황에서 푸에블로호 승무원들을 송환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던 군정위 회담에 어느 정도 낙관적인 기대를 숨기진 않았다.<sup>48)</sup> 러스크 국무장관은 개인적으로 50%의 성공 가능성을 접치면서 의회지도자들과의 모임에서 군정위를 가장 기대되는 채널로 설명하였다. 또한 사건 발생 지역이 공해상이므로 한국 내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도 하더라도 한국 근처기 때문에 정전협정 틀에서 해결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sup>49)</sup>

사건 후 최초의 북미접촉은 1월 24일 군정위 제261차 본 회의였다. 이 회의에서 북한은 과거에 UN사나 한국군의 헬기, 비행기가 북한 영공에 잘못 들어가 격추됐을 때처럼 푸에블로호 사건에 대해서도 UN사측이 정전협정 위반을 시인하고 사과하며 앞으로 그런 침입을 다시 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요구했다.<sup>50)</sup> 이는 푸에블로호 사건을 과거의 다른 사건들처럼 군정위를 통해서 협상하자는 의도였다. 1월 27일

45) *New York Times* 1968년 2월 9일.

46) *New York Times* 1968년 1월 31일.

47) Lerner, op. cit., 2002, p.124.

48) NSC Histories, Pueblo Crisis, 1968, Boxes 29 and 30, Vol. 5, day by day documents, National Security Files, Lyndon Johnson Library; NSC Histories, Pueblo Crisis, 1968, Boxes 36 and 37 Vol. 21, National Security Files, Lyndon Johnson Library.

49) Memorandum, Subject: Legal Basis for U.S. Actions, 1968, Declassified from NND 576, Lyndon Johnson Library.

50) '판문점 산증인 제임스 리 육성 증언', 『신동아』 1998년 4월호.

김일성은 더 많은 접촉을 의미하는 신호를 보내왔다. 북한측 군정위 수석대표인 박정국은 미국 군정위 간부를 통해 승무원은 무사하며 푸에블로호 사건은 미국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송환받고자 한다면 해결될 수도 있다는 비밀메시지를 보내왔다.<sup>51)</sup> 결정적인 계기는 1월 31일 평양을 방문하고 있던 루마니아 공산당 대표단을 위해 베퐁 만찬에서 김광협 총리가 “미국이 이 사건을 군사위협, 침략전쟁, 불법회의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오산이다. 미국이 이 문제를 전례에 따라 해결하고자 하면 그것은 또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언급함으로써 이루어졌다.<sup>52)</sup> 이 언급은 미 NSC에 보고되었고 ‘전례’라는 말에 1963년 미국의 헬리콥터 사건 때 비밀회의를 통해 인계받은 사실에 떠올린 버거(Burger) 국무차관보가 비공개협상을 제안했다. 러스크 국무장관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스미스 수석대표에게 판문점에서 비공개협상을 갖자고 요청하도록 지시했다.

예상대로 북한은 군정위에서 푸에블로호 문제를 다루자는 미국의 제안에 호응하였다. 1월 31일 김광협 총리는 푸에블로호 문제가 군정위를 통해서 협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2월 1일 국무성 대변인 매클로스키도 미국이 북한의 비공개협상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해서 나포 1주일 만에 판문점에서 미국과 북한은 협상을 갖기로 했던 것이다. 판문점을 통한 비공개협상의 착수는 일단 푸에블로호 나포사건을 위기사태로부터 벗어나게 했고 궁극적으로 장기적인 외교협상으로 전환시켰다. 2월 4일 포터 대사는 청와대를 방문하여 판문점 비공개회담을 군정위 회담의 일부로 간주하며 북한과의 쌍무회담으로는 취급하지 말라는 한국의 주장에 동의하여 일단 양해를 구했다. 한국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북한이 양자회담의 채널을 국제사회에서 국위를 과시하거나 또는 국가로서 사실상의 인정(de facto recognition)을

51) Telegram #8610 from American Embassy Seoul to State Department, January 27, 1968, country file, Asia and Pacific, box 257, Korea-Pueblo Incident, Vol. 1a, National Security Files, Lyndon Johnson Library.

52) 송승중, 앞의 책, 1999, 199쪽.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였다.<sup>53)</sup> 한국은 미국이 당면과제를 실용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한 나머지 광의의 한미동맹의 가시적 이익을 저해하는 대가를 치름으로써 북한의 손아귀에서 돌아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했다.

그러나 실제로 존슨 행정부는 북한과의 비공개회담 내용을 한국에 알리지 않았고 북한과의 협상에만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이 비공개협상 과정에서 한국을 어떻게 다루려고 했는지는 샤프(Sharp) 태평양지구사령관이 본스틸 주한미군사령관에게 보낸 다음의 전문에서 확인된다.<sup>54)</sup>

첫째, 현재 상황만 한국에 알려라. 둘째, 미국은 한국에서 제2전선에 연루되지 않고 외교적 수단을 통해서 푸에블로호 승무원의 송환을 달성하려 한다. 셋째, 우리의 전략을 한국과 토론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러한 토론은 우리의 신중히 고려된 Course of Action을 뒤엎을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미국이 군사력 사용을 결정한다면 제 시간에 당신에게 통지할 것이고, 당신은 아마도 한국에 통지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는 당신은 능력을 다해서 한국정부의 고위층(High levels)을 침묵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한국이 촉발시키는 모든 군사 행동에 미국은 자동으로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당신은 미국이 한국을 안심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에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 2) 비공개 협상과 미국의 기묘한 타협

판문점에서 열린 북미협상은 공개 협상과 비공개 협상으로 진행되었다. 외관상 교착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협상은 공개 협상보다 한결 격식에 구애받지 않고 실무적인 방식으로 진행

53) 송승중, 위의 책, 1999, 203쪽.

54) Telegram of Department of Defence from Sharp to Bonesteel 2/10/1968, O 100400ZZYH ZFF3 FM ADM SHARP CINCPAC HAWAII

되었다.<sup>55)</sup> 비공개 협상에는 공개 협상에서 늘 벌어지는 북한의 선전 공세도 찾아볼 수 없었다. 4차까지 진행된 비공개 협상에서 북한은 회담의 성격을 정부간 협상으로 격상하고자 했다.<sup>56)</sup> 비공개 협상 초기 북한은 미국이 외교적 노력에 중심을 두도록 하기 위해 다소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sup>57)</sup> 하지만 미국이 북한의 의도대로 비공개 협상에 무게를 두고 다른 협상수단을 포기하면서 북한은 이 협상이 정부간 일대일 대화라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2월 4일 협상에서 박정국 북한 대표는 미국이 양국간의 중요한 문제를 처리하자고 제안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포터 대사는 박 대표의 의도를 간파하고 다음과 같이 결론 내렸다. “박 대표의 목적은 이 협상을 정부간 공식 협상으로 완전히 포장하는 것이었다.”<sup>58)</sup> UN군 수석대표인 스미스 제독은 이에 대해 자신이 군정위 미군 선임임을 내세워 푸에블로호 사건에 대한 전권을 미국정부로부터 받았다고 대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슨 행정부는 북미협상 이외에 다른 선택이 없었기 때문에 북한의 의도가 현실화되는 것을 막기 어려웠다. 박정국 수석대표는 협상 초기에 보였던 예의를 점차 버리고 강경한 자세를 취해갔다. 북한은 비밀메시지를 통해 미국의 제안이 충분치 않으면 승무원들을 북한 법정에 세우겠다고 위협했고 미 국무성은 공개적으로론 무시하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sup>59)</sup> 비공개 협상을 통해

55) 미하원국제관계위원회 국제기구소위원회 편, 한미관계연구회 역, 『프레저 보고서 : 유신 정권과 미국의 역할』 (서울: 실천문화사, 1998), p.202.

56) The Diplomacy of the Pueblo Incident :Historical Office Research Project No.939-C, 1968, p.10.

57) Lerner, op. cit., 2002, p.144.

58) Telegram #3927 from American Embassy Seoul to State Department, 2/4/1968, 1967~69 central files, box 2256,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II.

59) State Department telegram #127759 to various embassies, 3/9/1968, NSC Histories, Pueblo Crisis, vol 15, boxes 34 and 35, telegram to Seoul, National Security Files, Lyndon Johnson Library; Memo to LBJ from Rostow, 2/17/1968, NSC Histories, Pueblo Crisis, boxes 29 and 30, vol. 7, day by day documents, National Security Files, Lyndon Johnson Library.

일정수준의 보장을 확보한 북한은 비록 미국의 분노를 자극하겠지만 군사공격을 하지 못할 정도로 모종의 공세적 행동을 취할 여유도 가졌다.<sup>60)</sup> 실제로 비공개 협상 중에도 북한의 도발은 계속되었으며 비공개 협상에 대한 선호도 낮아졌다.<sup>61)</sup> 이로 인해 비공개 협상의 횟수는 점차 줄었다.<sup>62)</sup>

반면 다른 방법이 없었던 존슨 행정부는 푸에블로호 사건 해결을 위해 군정위 비공개 회담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sup>63)</sup> CIA는 존슨 대통령의 허가 아래 군정위 비공개 회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비공식채널을 활용했다. 2월 14일 친북 성향의 영문 주간지인 The People's Korea 편집장인 손진영과 호주정보원과의 만남이었다. 여기서 미국은 판문점 협상이 실패할 경우 군사적 보복을 감행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또한 2월 29일 만남에서는 손진영 외에 조·소 중앙위원회 외교분과 위원인 박한기도 동석했는데 이 자리에서 호주정보원은 미국이 제3국의 사건 조사 참여를 원한다고 북한에 전달했다. 비공식채널에서는 주로 군정위 비공개 협상에서 미국의 새로운 제안을 북한이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호주정보원에게 한국 정부에는 비밀로 했던 협상내용을 상세히 제공했다.

비공개 회담이 진행되던 5월 미국은 군정위 수석대표를 스미스 제독에서 우드워드 소장으로 교체했다. 보통 회담 중간에 협상대표를 바꾸지 않는 관례에도 불구하고 포터 대사와 본스틸 사령관은 오래전부터 교체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있었다. 그들은 스미스 제독이 훌륭한 해군 제독임에는 틀림없지만 북한과 협상을 함에 있어 민첩성이 떨어지고 심리적으로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스미스 제독은 국가

60) 송승중, 앞의 책, 1999, 200쪽. 대표적인 사례로 11월 2일 울진 삼척지구 무장공비 사건을 들 수 있다.

61) 처음 한 달 동안 아홉 번의 회담이 열렸던 것에 비해 4월과 5월에는 각각 두 번, 6월에서 8월까지 각각 한번 밖에 열리지 않았다. 즉 처음 65일 동안 열세 번의 회담이 열렸으나 다시 열세 번이 열리는 데에는 263일이 소요되었던 셈이었다.

62) Lerner, op. cit., 2002, p.195.

63) The Diplomacy of the Pueblo Incident: Historical Office Research Project No.939-C, 1968, pp.32~35.

이익에 대해 정치적인 판단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sup>64)</sup> 사실 비공개 협상이 북한의 의도대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한 어느 정도의 책임은 협상대표인 스미스 제독에게 있었다. 협상대표에 대한 미국의 고민은 그가 유엔군사령관으로서가 아닌 미국정부의 대표로서 국무부로부터 협상과정에 대한 지시를 직접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국무부가 군정위 수석대표의 인선과 협상내용을 국가 차원에서 지시한 것은 사실상 북미협상이 국가간 협상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결국 미국은 15차 협상(4월 22일)에서 한 가지 큰 양보를 했다.<sup>65)</sup> 북한이 주장한 12마일을 보장하고, 푸에블로호가 정보수집함이었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한편 만일 북한 영해를 침입했다면 유감의 뜻을 표명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었다. 새로 부임한 우드워드 소장도 5월 8일 자신의 첫 번째 비공개 협상에서 미국 측의 미묘한 변화를 암시했다.<sup>66)</sup> 우드워드는 미국정부로부터 전권을 부여받았음을 강조하면서 푸에블로호 사건 이후 한번도 누그러뜨리지 않았던 미국의 요구사항을 변경하였던 것이다. 1) 북한의 자위권 발동으로 푸에블로호가 나포되었다는 증거의 인정, 2) 간접행위에 대한 사과, 3) 재발방지 보장, 4) 승무원에 대해 북한의 관대한 조치 요청이 그것이었다. 특히 이 협상에서 달랐던 것은 미국이 서명을 할 때 승무원을 인수받았다는 구문을 덧붙였다는 제안이었다. 그러나 북한이 이를 거부하면서 비공개 협상은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다.

미국의 새로운 돌파구는 의외의 곳에서 나왔다. 존슨 대통령의 임기가 다해가는 11월 제임스 레오날드(James Leonard) 국무성 한국담당관은 그의 아내 엘리놀(Eleanor)과 푸에블로호 사건에 대해 고민을 나누던 중 아내가 제안한 아이디어를 보고했다. 사과문에 서명하기

64) "Eyes only" telegram #109845 from Rusk to Porter, and telegrams #3938 and #3945, from Porter to Rusk, February 4, 1968, 1967~69 central files, pol 33-6 box 2256, folder 2/4/1968,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II

65) '관문점 산증인 제임스 리 육성 증언', 『신동아』 1998년 4월호.

66) 송승중, 앞의 책, 1999, 212쪽.

이전에 서명내용을 부인하는 발언을 하자는 일명 ‘레오나드 제안 (Leonard proposal)’은 이렇게 만들어졌다.<sup>67)</sup> 12월 2일 교착상태에 빠진 비공개 협상에 대해 카젠박(Nicholas Katzenbach) 법무장관은 존슨 대통령에게 선택 안을 담은 행동비망록을 보고했다.<sup>68)</sup> 카젠박은 차기 공화당 행정부가 푸에블로호 사건에 대해 지금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북한에게 최후통첩의 기회로 삼고자 했다. 마침내 12월 23일 마지막 협상에서 존슨 행정부는 먼저 승무원들을 구출하기 위해 서명은 하겠지만 그 내용은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을 남기고 북한이 인쇄하여 제출한 사과문에 서명했다. 사과문에는 미국이 영해 침범을 시인하고 사태의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북한 측이 승무원들을 관대하게 처리해준 것을 감사한다는 구절까지 들어 있었다. 또한 우드워드 소장의 서명이 미국 정부를 대표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는 끝까지 북미 비공개 협상을 국가간 협상으로 격상시키려는 북한의 의도를 잘 보여주는<sup>69)</sup> 동시에 박정희 정부의 방기 우려, 북한의 강경한 자세 그리고 미국의 연루 우려라는 3중 제약 속에서 미국이 이끌어낸 기묘한 타협의 결과였다.

### 3) 미국의 대북인식 변화

북한은 미국 정책결정자들이 가졌던 냉전패러다임과 달리 푸에블로호 나포를 독자적으로 수행했으며 사건 초기에는 군사적 충돌까지 각오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sup>70)</sup> 북한의 의도는 나포 이후 보여준

67) Armbrister Trevor, *Matter of Accountability: the true story of the Pueblo Affair*(New York: Coward-McCann, 1970), pp.334~335

68) *The Diplomacy of the Pueblo Incident* : Historical Office Research Project No. 939-C, 1968, pp.43~44

69) 홍석률, “1968년 푸에블로호 사건과 남한·북한·미국의 삼각관계”, 『한국사연구』, Vol. 113, 2001, 195쪽.

70) 외교문서철 M/F: 례번호 G0011, 파일번호 06, 외교통상부 외교사료관(유엔군 수석대표였던 스미스 제독은 푸에블로호 나포 당시 북한은 전쟁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Washington Daily News. “N. Korea Sought War”, 1969년 2월 3일)

행위를 통해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은 국내경제의 어려움을 회피하고 주체사상의 견재함을 대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푸에블로호 사건을 지속적으로 선전했다. 또한 한미갈등을 초래하기 위해 미국과의 비공개 협상을 성사시키는 과정에서는 다소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미국이 북한의 의도대로 비공개 협상에 전념하기 시작하자 강경한 자세를 취했다. 이때부터 북한은 푸에블로호 사건을 자신들의 의도대로 활용했다. 즉 비공개 회담 초기부터 비공개 회담을 미국과 북한의 국가간 회담으로 격상시키려고 하였고 국제사회로부터 국가로서 인정받기 위한 방안으로 회담에 임했다.

반면 박정희 정부는 미국이 ‘두 개의 한국 정책(Two Korea Policy)’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했다. 표면적으로 존슨 행정부는 한국의 우려를 달래려고 노력했지만 비공개 협상 초기에 스미스 제독의 언급이나 국무부가 협상을 직접 관할했다는 점에서 푸에블로호 사건은 미국의 대북인식이 변화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대북인식 변화는 한국을 달래기 위해 파견된 밴스 특사의 방한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밴스 특사는 한국을 방문한 이후 국무부, 국방부, CIA 등이 참여하는 연구그룹을 만들어 당시 대한정책을 검토하고 이제까지 ‘하나의 한국 정책’ 속에서 존재할 필요가 없었던 북한의 대남정책과 김일성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sup>71)</sup> 밴스 특사의 결과 보고로 시작된 북한에 대한 연구는 푸에블로호 승무원이 송환되던 날에 존슨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다. 다만 존슨 행정부의 임기가 거의 남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미국의 대북인식 변화가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되기는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기 행정부가 발표한 닉슨(Nixon) 독트린은 존슨 행정부 말기에 가졌던 인식의 변화와 맥락을 보여준다.<sup>72)</sup> 동맹국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했던 미국의 정책전환은 글로벌 수준

71) FRUS XXIX, Korea, 1964~1968, 2000, pp.376~391; 문화방송 시사교양국, 2001, 5장, 68쪽. 국무성의 대통령을 위한 비망록. 주제: 밴스 특사의 임무.

72) Victor Cha, *Alignment Despite Antagonism: The United States-Korea-Japan Security Triangle*(Stanford University Press, 1999), p.62.

에서는 베트남 전쟁, 한반도 수준에서는 푸에블로호 사건으로 부각되면서 미국의 대북인식 변화(두 개의 한국 정책)에 단초가 되었으며 1970년대 초 남북대화에 대한 기대로까지 이어졌다.<sup>73)</sup>

#### 4. 결 론

본 연구는 푸에블로호 나포사건에 대한 존슨 행정부의 초기 대응과 대북인식이 북미협상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비밀해제 된 1차 자료와 과정추적법을 통해 분석했다. 본 연구에서 다룬 핵심질문들은 “푸에블로호 사건은 미국의 대북인식에 어떤 영향을 끼쳤으며 북한의 의도는 무엇인가? 푸에블로호 사건을 둘러싼 북미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대북인식은 어떻게 변화했는가?”이다. 푸에블로호 사건에 대한 존슨 행정부의 초기 인식은 냉전적 사고에 지배를 받고 있었다. 미국은 푸에블로호 사건 이전부터 갖고 있었던 대북인식에 기초하여 푸에블로호 사건의 배경을 소련과 북한의 공모,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시도 등으로 해석하고 있었다. 이러한 해석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베트남 전쟁을 수행하는 상황에서 한반도에 제2의 전쟁을 수행할 수는 없었다. 이 시기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베트남 전쟁과 같은 글로벌 전략의 일부였기 때문에 푸에블로호 사건도 전략적 수준의 선후관계 속에서 전개되었다. 이러한 구조적 틀 속에서 북미협상에 임했던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을 안심시키는 동시에 나포된 승무원들

73) 박건영 외, “제3공화국 시기 국제정치와 남북관계: 7.4 공동성명과 미국의 역할을 중심으로”, 『국가전략』(성남: 세종연구소, 2003) 제9권 4호 72쪽. 1970년 2월 미상원 외교위원회 한국문제청문회에서 포터 주한대사와 브라운 차관보는 북한의 대남전술 변화 및 남북대화에 관해 한국지도부와 협의해 왔음을 증언하였다. 포터는 “67년부터 68년까지 간첩, 게릴라의 남파에 의한 도발적 전술이 주한미군 증강과 대한군사원조의 증가를 초래했다는 결론에 도달한 결과 북한은 대남도발을 최소한으로 줄임으로써 닉슨 독트린의 적용을 방해받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의 대남전술이 바뀌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송환해야 하는 두 가지 목표가 서로 충돌하는 딜레마에 빠졌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북한의 의도대로 북미 간 직접협상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은 나포 당시에는 군사적 충돌까지 감수했으며 군사정전위원회 비공개 협상에서 강경한 자세를 고수했다. 북미협상을 통해 북한은 국가간의 관계를 부각시키고 국내정치적으로 주체사상의 성과를 선전했다. 무엇보다 미국과 협상을 지속하면서 미 국무부의 직접 개입으로 전개된 협상자체가 북한의 국가적 위상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럼에도 미국은 협상 주도권을 북한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미국의 협상력(negotiation power)이 제한된 이유는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서 협상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인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를 한국과 미국 국내에 공개할 수 없었던 현실 때문이었다. 그 결과 미국은 박정희 정부의 방기 우려, 북한의 강경한 자세 그리고 미국의 연루 우려라는 3중 제약 속에서 전례 없는 기묘한 타협을 이끌어냈다. 나아가 밴스 특사의 방한 이후 존슨 행정부 내에서 북한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는 점은 미국의 대북인식 변화를 보여주는 또 다른 근거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1970년대 한반도 미니데탕트에 대한 미국의 기대가 존슨 행정부 말기 형성된 대북인식의 변화에서부터 형성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록 ‘두 개의 한국 정책’이 1970년대 미국 행정부 내에서 공개적으로 제시되진 않았지만, 닉슨 행정부뿐 아니라 카터 행정부에서도 데탕트라는 글로벌 전략을 한반도에 구현하고자 남북한을 국가 행위자로 인식했으며 그 시초가 1960년대 말 한반도 긴장국면, 특히 푸에블로호 사건을 둘러싼 북미협상과정에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미가 있다.

(원고투고일 : 2012. 12. 25 심사수정일 : 2013. 2. 19, 게재확정일 : 2013. 2. 25)

주제어 : 푸에블로호, 군사정전위원회, 존슨 행정부, 박정희 정부, 비공개 협상, 대북인식, 냉전적 사고, 두 개의 한국 정책, 밴스 특사, 과정추적법

<ABSTRACT>

## The Approach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surrounding the Pueblo Incident

Um, Jung-sik

This study used the declassified documents and the process-tracing method to analyzed how Johnson administration's initial reaction and perception toward North Korea regarding the Pueblo incident had changed.

Johnson administration's initial decision-making on the Pueblo incident had been dominated by the Cold War paradigm. The U.S. gave priority to the possibility of a plot between Soviet and North Korea and the diversion of the U.S. attention away from the Vietnam War.

However, North Korea played hardball at closed sessions of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s, emphasizing the relation between the two nations, and propagandizing the outcome of the Juche idea. Most importantly, the fact that the U.S. Department of State was involved directly in the negotiations resulted in the enhancement of North Korea's position as a nation. Moreover, following the visit of South Korea by Mr. Vance, the U.S. Envoy, Johnson administration started the research on North Korea, which signaled the changes in the U.S. perception toward North Korea. This showed that the mini-detente in the Korean peninsula in 1970s was the result of the changed perception of the U.S. toward North Korea in the late Johnson administration.

Key Words : The Pueblo Incident,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Johnson Administration, Park Chung Hee Administration, Closed Negotiation, Perception toward North Korea, Cold War Paradigm, Two Koreas Policy, Vance, Process-tracing Method

# 한국군의 발전과정별 군인가족 치우개선 변화 분석

홍 창 국\*

1. 서 론
2. 이론적 자원
3. 건군기와 전쟁 및 전후 정비기(1945~1960)
4. 국방체제 정립기(1961~1971)
5. 자주국방 기반 조성기(1972~1980)
6. 자주국방 강화기(1981~1990)
7. 국방태세 발전기(1991~현재)
8. 결 론

## 1. 서 론

한국군이 온갖 역경과 고난을 극복하고 세계 속의 강군이 되는 과정의 이면에는 군인가족이 함께하였음을 상기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60여 년 동안 한국군의 전투력 창출 형성 과정에서 군인가족은 다양한 형태로 군의 일부를 형성하여 왔다.

---

\*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박사과정 재학 중.  
E-mail: ckdrnr22@naver.com

한국군 창군이후 군인 가족들에 대한 연구는 정치·경제·사회 등의 환경 변화와 군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에 이르러 복지정책 등의 분야에서 단일 주제에 한정하여 논의되어 왔다. 이러한 희소성에 대한 연구 주제를 논의한 학자는 홍두승<sup>1)</sup> 등 일부에 불과하고, 역사적 사료에 근거한 처우개선의 변화에 대한 접근과 성과물은 논의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군의 발전과 함께한 군인가족들의 시대적 변화에 주목하여 문헌연구와 실증적 경험을 토대로 제도와 주거, 자녀교육과 복지 여건 측면의 변화를 분석하고 논의할 것이다. 군인가족에 대한 역사적 변화를 병시적(並時的)이고 통시적(通時的)인 관찰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한국군의 발전 구분에 따라 서술적·계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방법은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군인들의 무형전투력인 사기와 근기, 결속력의 한 부분들이 그들의 가족에게서 도출되는 것임을 고려하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발전하는 한국의 사회에서 확대되는 군의 역할과 기능에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관점에서 그들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정립하여야 한다.

따라서 서론에서는 연구 배경과 목적 및 연구 방법 등에 대하여 기술하겠다. 본론에서는 한국군의 발전과정 구분을 토대로 건군기와 전쟁 및 전후 정비기(1945~1960), 국방체제 정립기(1961~1971), 자주국방 기반 조성기(1972~1980), 자주국방 강화기(1981~1990), 국방

1) 홍두승, 『한국군대의 사회학』, 나남출판, 1996, 제12장 “군인가족의 고립과 적응”; “한국의 군인가족: 고립과 적응을 중심으로”, 『전략논총』 제2집, 1994,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등에서 군인가족들의 실태를 광범위하고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민간사회와 통합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논의하고 있다. 이외에 문재봉·최광현, “군 가족의 별거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전략: 미국군 선행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주간국방논단』 제1428호, 한국국방연구원, 2012; 최광현, “군인의 잦은 부대이동이 가족들에게 미치는 영향: 미군의 선행연구 사례와 한국군에 대한 시사점”, 『주간국방논단』 제1405호, 한국국방연구원, 2012; 광용수, “지역 환경에 부응한 군인가족공동체 복지증진방안”, 『주간국방논단』 제1377호, 한국국방연구원, 2011. 등은 주로 미군의 사례를 위주로 시사점이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주.

태세 발전기(1991~현재) 순으로 논의하겠다.<sup>2)</sup> 이러한 시대적 구분은 한국군의 전투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군인가족들의 무형적 역할을 감안하면 한국군의 발전과정 구분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결론에서는 제도와 주거, 자녀교육과 복지 여건에 대한 변화들의 특징적인 성과물을 도출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자원

한국군의 군인가족들은 한국의 안보적 상황과 군 특수성에 기인하여 주로 산악지역 및 오지 등에 군부대 주둔지가 형성됨에 따라 고립된 환경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일반시민들이 살아가는 도시와는 이격된 시·공간적 관계성이 분절된 상태에서 군인가족들만의 고유문화가 형성되었다.

일반사회와는 군 특수성의 영향 내에서 생활권을 형성하고 모체사회와는 분리된 환경을 조성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군인가족들은 남편의 직업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자녀 양육과 교육, 주거 문제, 복지 여건 등에 대한 욕구 충족에 제한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전후 한국 사회의 교통과 통신 등의 인프라가 발달되면서 군인가족에 대한 제도와 정책 변화 등으로 군인가족들도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모체 사회와는 완전히 분리되었던 군인가족들도 이러한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긴밀한 관계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 군인가족에 대한 일반적인 의미를 돌이켜보면 군인가족은 군인의 처와 자녀만을 군인가족으로 생각하였으며, 군인가족들도 흔히

2) 국방군사연구소, 『건군 50년사』, 1998; 육군본부, 『대한민국 육군 60년 발전사』, 2009. 등 군 관련서적은 대부분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시대 구분을 따르고 있다. 저자주.

이러한 범주 안에서 통용되어 사용하였다. 하지만 1997년 『군인복지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제도적으로 용어가 정립되어 사용하고 있다.

즉, 군인가족은 첫째, 배우자, 둘째,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셋째,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sup>3)</sup>

세계를 무대로 운용되고 있는 미군의 군인가족들에 대한 제도와 정책은 매우 포괄적이며 광범위한 형태로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이들은 양질의 민간인을 선별하여 획득하고 군사전문가로 장기간 활용하기 위해서는 군인가족들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또한 전투에서 발휘되는 무형의 전투력이 가족들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그들은 잘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미군들도 과거에는 단순한 형태의 처우개선 차원에서 군인가족을 지원하였으나 변화된 안보환경 속에서 군인가족과 관련된 정신적·신체적인 분야까지 지원하고 있다. 특히 군인가족들의 취업과 경력개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미군들의 노력은 그들의 과거에 대한 역사자료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연구, 분석, 개발하여 급속하게 변화하는 모체사회와 안보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 3. 전군기와 전쟁 및 전후 정비기(1945~1960)

전군기와 전쟁 및 전후 정비기에서 군인가족들에 대한 처우의 개념은 형성되지 못했으나, 6·25전쟁의 영향으로 비록 기본욕구를 충족할 수준은 아니었지만 군인가족들의 식생활은 일반 피난민들보다는 나은

3)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군복지기본법(법률 제11389호, 2012. 9. 22 시행)”, 2012. 8. 7,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4039&efYd=20120922#0000>> 제2조(정의) 참고.

수준이 지원되었다.

군인가족들에 대한 최초의 역사적 기록은 육군본부 군사감실에서 단기 4289년(서기 1956년) 6월 25일에 발간한 『6·25사변 후방전사(인사편)』<sup>4)</sup>이다.

한국군 창군 이전인 1949년 7월 군 원호 및 복지를 담당하기 위하여 육본 참모부에 후생감실(厚生監室)을 창설하여 군인 및 군무원 부양가족의 후생 및 복지사업을 전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의 수립과는 별도로 당시 반공제일주의에 의한 시대적 상황은 군인들에게 집중되었고 부양가족들에 대한 지원은 조직 측면이나 제도적인 준비가 형성되지는 못하였다.

당시 후생감실 기구는 행정·원호·체육·후생 등 4개과로 편성되어 주로 공비토벌부대에 대한 위문 및 위문품 수집 업무, 군 체육행사 및 향상에 관한 업무, 후생사업과 매점 및 군인호텔 관리에 관한 업무를<sup>5)</sup> 수행하여 군인가족에 대한 관심은 기대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창군기의 시대적인 혼란과 대립으로 기혼의 군인들은 숙소도 마련하기 어려웠으며 가족들은 대부분 별거하면서 어려운 환경에 적응하였다. 일부는 창군 대열에 참여하기 위하여 중국 등 외국에서 급하게 귀국하였으므로 가족들은 대부분 시간이 경과한 후에 입국하거나 불안한 국내 정세 때문에 미리 입국하는 등 군인들의 가족에 대한 개념은 전통적인 유교사상이 그대로 표출되었다.

창군 초기의 가족들은 주로 정부물자와 외국 원조물자를 배급받아 생계를 이어갔다.<sup>6)</sup> 당시 군인가족들을 위한 정부물자와 외국 원조물자가 무엇인지, 양이 얼마나 되는지는 문헌기록이 없어 정확한 통계는

4) 이 문서는 1962년 3월 25일 ‘육규 680-1(‘60. 1. 1)’에 의거 일반문건으로 등급 저하되었다. 총 500건을 생산 배부하였으나 파기하고 적은 양이 남아 있다.

5) 1949년 7월 5일 ‘육본 일반명령 제26호’에 의거하여 서울 한강로에서 창설되었다. 육군본부, 『팜플렛 600-15-1 육군인사역사(제1집)』, 1969. 379쪽.; 육군본부, 『육군발전사(상)』, 1970. 351~352쪽.

6) 육군본부, 『육군경리약사 제1권(1945-1962)』, 17쪽.

알 수 없다. 다만, 미군에서 지원한 군원물자의 일부가 군 계통으로 보급된 것을 사용하거나 부대에서 자체 생산하거나 사용하던 장비 혹은 물자의 일부를 활용하였다.

이처럼 한국군은 물론이고 일반 사회의 환경도 매우 열악하여 국가 체제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6·25전쟁이 발발하게 되었다. 6·25전쟁 초기에는 극도의 혼란으로 인하여 국방부나 육군본부 등은 계획적인 가족 지원을 하지 못하였으며, 군인가족들도 일반 국민들과 동일하게 전쟁의 어려움을 체험하였다. 이들은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며느리 혹은 딸로서의 역할을 당시의 상황에 맞추어 극복하였다. 전쟁의 정세가 차차 정비되면서 전장에서 희생하는 장병들의 사기를 위하여 가족들에 대한 구호활동이 제도적인 틀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육군본부에서는 6·25전쟁으로 남하하는 가족들의 원호 등에 주력하기 위하여 열차알선(列車斡旋), 구호수용(救護收容) 등에 집중하였으며 식량지원은 1950년 8월 10일부터 전재(戰災)군인 가족들을 위한 구호미(救護米)가 무상으로 배급되면서 시작되었다.<sup>7)</sup>

1951년부터는 정부에서 지급되는 군 공무원 부양가족미(扶養家族米)를 받아 생활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전국 주요 도시에 식량관리실(食糧管理室)을 편성하였고 가족들의 생활필수품을 염가로 제공하기 위한 영외주보(營外酒保) 시설이 전국 각 지구에 25개소가<sup>8)</sup> 운영되었다.

이러한 시설들과 물자들은 전쟁의 혼란 속에서 일반 시민들의 생활이 극도로 궁핍하였음을 고려해보면 상당히 많은 숫자의 양곡지급소와 영외주보 등이 운영되어, 군인가족들을 위한 정부와 유관 부대들의 각별한 배려 속에 궁핍한 생활은 제도적인 혜택으로 복지 수혜를 받게 되었다.

전쟁이 종료되자 동족상잔의 결과는 남과 북이 다 같이 참혹하였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약 450,000여 명의 국군 부상자와 137,000여

7) 위의 책, 13쪽.

8) 陸軍本部 軍史監室, 『六·二五事變 後方戰史 人事篇』, 1956, 164쪽.

명의 전사자 유족들을 돌보기 위해 정부는 1962년에 유족들에게 1인당 6,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1963년 8월 7일 『군사원호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법률제1389호)』을 제정하여 제도적인 조치와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전쟁으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남편과 사별한 군인가족들은 경찰가족 등과 함께 동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를 국가유공단체로 조직을 설립하여 제도권내에서 활동하게 되었다.<sup>9)</sup>

전쟁직후의 주거 환경은 시민사회나 군에서나 매우 열악하였다. 군에서는 군부대 막사를 만들기 위한 도구나 재료가 없었으므로 인력에 의존하여 현지에서 획득 가능한 재료를 활용하여 군부대 막사를 어느 정도 완성하게 되면서부터 가족들이 기거할 관사를 짓기 시작하였다.

군인 주거시설은 군부대 막사를 짓던 기술과 장비, 물자를 활용하여 군 막사 인근의 가용한 공터에 새로 짓거나 일반인들이 사용하던 빈 건물을 개조하여 비바람만 피할 수 있는 시설을 지어서 사용하였다.

이마저 지원이 제한되는 주거 소요는 주둔지 인근의 여유 있는 민간 주택의 월세 혹은 무료로 지원하던 단칸방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당시는 전후의 시기로 한국사회의 모든 것이 열악하였고 생활은 아주 궁핍하였으며 모든 것은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복지 여건 향상을 위한 조치로는 군 장병 및 군속들의 생활필수품을 염가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육군 PX(Post Exchange)는 1952년 12월 1일 정식 개점하였다. 이러한 시설과 물자들은 군인가족들에게도 생활의 혜택을 받게 하였다. 이 시설은 1960년 초에는 서울 등 9개 도시에 파견대를 설치하여 군인가족들의 생활을 지원하였다. 당시에는

9) 창립 초기에는 전국에 11개 지회를 구성하였으나 2012년 1월 현재 16개 지부 및 230개 지회가 활동하고 있다. 현역군인의 미망인은 26,583명이다.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조직현황”, 2012. 10. 9. <[http://www.kwwa.org/DR1001/FN1001DS\\_01.asp](http://www.kwwa.org/DR1001/FN1001DS_01.asp)>; 다른 서적에는 1963년 8월 12일에 창립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2003년 조직현황은 본회 1, 지부 16, 지회 224개소로 명시하고 있다. 국가보훈처, 『보훈연감(2003년)』 제24호, 2004, p.332.

회원증을 소지한 자에 한하여 도매 시세 가격에 거래가 되었으며 민간 상인의 개입을 금지하는<sup>10)</sup> 등 부패의 소지를 차단하고 군인가족들만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게 되었다.

당시 일반시민들은 피폐된 사회경제로 인하여 최저의 생활여건을 이 어갔기 때문에 이러한 군인가족들에 대한 기초생활 지원 노력은 일반 시민 대부분과 비교하면 매우 좋은 편이었다. 또한 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식품류 등에 대한 도움으로 비록 오지에서 고립되어 생활 하고 있었지만 식생활에 있어서는 별반 어려움이 없었던 시기였다.

#### 4. 국방체제 정립기(1961~1971)

국방체제 정립기에서는 자주국방과 경제건설이라는 국가목표에 종속 되어 군인가족들의 처우개선은 주로 군 직업의 제도화를 위한 기반을 형성하여 수혜를 받는 것에 치중되었다. 이 시기에는 주거와 자녀 교육 등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군 독자적인 지원이 시작되었다.

1960년 8월 20일부터 가족들을 위한 지원 업무는 원호관리국(援護管理局)이 창설되어 임무를 수행하였다. 기존의 후생감실과 홀병감실, 정병감실에서는 단순 업무만 지원하였으나 원호관리국이 창설되면서 가족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계획과 준비가 마련되어 창군이후 처음으로 군인가족들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이 만들어진 것이다.

1970년 12월 1일에는 원호관리국이 원호관리단으로 개편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군인과 가족들을 위한 복지분야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조직들로 인하여 군인가족들을 위한 생계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임무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10) 육군본부, 『팜플렛 600-15-1 육군인사역사(제1집)』, 1969, 381쪽.; 陸軍本部 軍史監室, 『六·二五事變 後方戰史 人事篇』, 1956, 151~152쪽.

된 것이다.

1960년대에는 군인연금과 군인보수에 대한 체계가 제도권내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군인연금은 1960년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되어 군인과 통합되어 운용하다가 군의 특수성이 고려되어 1963년 1월 28일 법률 제1260호로 독립된 『군인연금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국가 보상 차원에서 전역 후의 생활보장과 부양가족의 생계유지를 보장받게 되었다.

가족들이 사용하는 생계비는 최저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처우개선이 검토되어 1964년에는 ‘가족수당’ 지급이 실현되었고, 1965년 1월 27일에는 『군인보수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2045호』의 제정에 따라 실현되었다. 이로써 모법인 『군인사법』에 적용되는 군인보수 체계를 확립하게 되었다. 이러한 조치들은 안정적인 군의 임무수행과 생계유지를 도모하였고 군 직업의 제도화를 위한 기반을 형성하게 되었다.

당시 일반 시민 및 공무원의 낮은 소득과 복지 환경을 비교할 때 군인이 우위를 점하고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었다.<sup>11)</sup> 따라서 일반 시민들은 군인을 직업으로 선호하게 되었던 시기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1980년대 말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육군 최초의 군인주택과 아파트는 1964년 육본 원호사업으로<sup>12)</sup> 건립하게 되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3년도에 실시한 군인주택 공사계획 및 실적을 보면 국가지도자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1) 陸軍本部 軍史監室, 『六·二五事變 後方戰史 人事篇』, 1956, 179쪽.

12) 주택 건립 동기 및 경위는 전·후방 지구에서 근무하는 무주택 장병들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1963년 5월 육본에 군인주택위원회를 설치하여 건립 방안을 연구하던 중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특별보조금 1,000만 원을 지원하게 되어 본격적인 군인주택 건립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육군본부, 앞의 책, 394쪽.

〈표 1〉 1963년 군인주택 공사계획 및 실적

구 분	자금 및 출처	건물내역		기 간
		동/건평	세대수	
전방지구 군인주택	2,000만 원 (PX적립금)	150/9.38	150	'63.9.1~ '64.11.30
육대 군인주택	1,000만 원 (최고회의)	32/18.7	64	'63.10.1~ '63.12.15
서울지구 군인아파트	17,500만 원 (원호처)	9/674.7	432	'63.9.24~ '64.7.30

\* 출처: 육군본부, 『팜플렛 600-15-1 육군인사역사(제1집)』, 1969, 394쪽.

군인주택이 건립되면서 1963년 9월에는 정부의 산림녹화정책에 호응하여 상공부로부터 1964년도에 사용할 연탄 22,964톤을 배당받아 전방지구 및 서울지구 거주 군인 가족들에게 구공탄을 염가(전방 5.90전, 서울 6.30전)로 공급<sup>13)</sup>하였다. 당시 일부 도심지역에는 난방용으로 구공탄을 사용하였지만 대부분은 화목을 사용하였으며 오지 및 변두리인 관계로 화목 아궁이 등은 1980년대 후반까지 사용되었다.

군인주택의 보유현황을 개략적으로 기록한 최초의 문서는 1966년 12월 28일 국방부 기획국에서 발간한 『국방백서(1967)』이다. 이 문서의 육군편 인사 분야의 사기 및 복지 향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 내용을<sup>14)</sup>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의주거 장병의 주택난 해결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 오던 육군에서는 '63년도에 군인 주택 32동을 건립하여 64세대를 입주시킨 것을 비롯하여 '65년도에는 국고보조 25,000만 원으로 서울에 군인아파트를 건립하여 재경부대 장교 432세대를 수용하고 있으며 '66년도에는 6,000만 원의 예산으로 330세대분을 건립하게 되어 전체 소요 45,114세대의

13) 위의 책, 397쪽.

14) 국방부, 『국방백서』, 서울: (주)삼성인쇄, 1967, 158쪽.

약 2%를 해결하였다. '67년도에는 100동을 건립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연차별로 계속 주택난을 해결해 나갈 것이다.”

한국군의 군인주택에 대한 체계적인 종합 보유현황을 표기한 최초의 문서는 육군본부에서 1969년 발행한 『팜플렛 600-15-1 육군인사역사(제1집)』로서 1969년 5월 당시의 군인주택 보유현황은 <표 2>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2> 군인주택 보유현황

구 분 <sup>15)</sup>	보유(수) (동/세대)	세대 (건평)	건립연도	자금 (만원)	자금출처	
계	940/1,983			34,502		
원호주택	PX	157/161	9.4	64.8	2,230	PX 이익금
	기부	33/64	9.2	63.12	1,000	대통령 하사금
	대부	9/432	13.6	64.12	25,272	원호처 대부금
국고주택	97/380	8~10	66.10	6,000	국고금	
일반주택	644/910	14	창군~			

\* 출처: 육군본부, 『팜플렛 600-15-1 육군인사역사(제1집)』, 1969, 410쪽에서 재편집.

당시 군인주택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원호주택과 국고주택, 일반주택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주택은 국가지도자의 하사금과 정부기관인 원호처의 지원과 국고에서 할당된 예산으로 건립한 주택이었다. 이러한 환경은 국가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사기 진작은 물론이고 국가안보의 보루로서의 직분과 역할이 수행되도록 지원하였다.

15) 구분란의 용어 설명은 ① PX 주택은 원호자금(PX이익금)으로 건립된 주택, ② 기부주택은 대통령 하사금으로 건립된 주택, ③ 대부주택은 국가기관으로부터 대부받아 건립한 주택(원호처), ④ 국고주택은 국가기관으로부터 대부받아 건립한 주택(원호처), ⑤ 일반주택은 일제강점기부터 군용관사로 사용되어 온 건물과 부대자체에서 임의 건립한 주택이다. 육군본부, 앞의 책, 410쪽.

1960년대는 군에서도 군 자녀들의 교육환경에 대한 고충을 이해하고 제도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시작하였다. 군 자녀 최초의 유치원 교육은 1961년 5월 5일 어린이날 제5군단 최전방 사단에서 군 자녀를 위한 유치원이 개원되었다. 유치원생은 남녀 53명으로 남아가 24명, 여아가 29명이 입학하여 교육을 받았으며, 부모 2명을 운용하여 이들을 교육하고 1961년 12월 21일 제1회 졸업식<sup>16)</sup>을 거행함으로써 미취학 아동에 대한 교육여건을 마련되었다.

당시 북한군과의 직접적인 교전은 드물었지만 적과 직접 마주하고 있는 전방사단의 열악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 미취학 아동에 대한 유치원 운영은 획기적인 발상으로 당시 일반 시민사회에서도 보기 드문 교육환경을 조성하였다.

군인 자녀에 대한 교육대책이 처음 수립된 것은 1964년 원호사업의 비예산사업으로 시작되었다. 자녀들에 대한 군의 당면 문제는 전방에 거주하는 자녀들에게 원거리를 걸어다니는 학교까지 통학편의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1963년 12월 31일 육본에서 파악한 최초의 군 자녀 교통편의 제공 현황자료는 전방지역 취학 아동 수를 3,843명, 차량 통학 아동수를 250명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통학 편의 제공은 부대별 계획에 따라 지역적 환경을 고려하여 취학 아동에게 군용차량(버스)을 제공하도록 지시<sup>17)</sup>되었다. 1965년에는 전방지역 자녀에 대한 통학 차량 제공과 더불어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는 교육 장비와 기술지원 그리고 우수교원이 배치<sup>18)</sup>되었다. 이러한 조치들은 낙후된 전방지역에 거주하는 군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었으나 군 특성상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16) 당시의 지휘관은 파월사령관을 지낸 채명신 장군이였다. 제5군단, 『승진30년사(1953. 10. 1~1983. 10. 1)』, 1983, 194쪽.

17) 제1야전군에서 최초로 군인자녀를 위한 교육대책이 수립되어 시행되었다. 육군본부, 앞의 책, 395쪽.

18) 위의 책, 401쪽.

복지여건 측면도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1960년 초 복지단 매점의 피복부에서 처음으로 남자를 위한 양복과 가족을 위한 양장과 자녀들을 위한 아동복을 판매하게 되었고, 피복 세탁 및 수선과 시계와 라디오도 취급하게 되었다.<sup>19)</sup>

1961년도에는 식품류와 약품류, 의복류, 일용품 등 387개 품목, 62년도에는 연료와 가구류, 완구류, 주식류 등이 포함되어 984개 품목이 판매되었다. 1965년에는 중앙조달과 현지조달로 구분되어 236개 업체에서 1,522품종에 689개 품목이 거래되는<sup>20)</sup> 등 군의 복지 환경이 개선되면서 반사적인 혜택을 군인가족들이 받게 되었다. 당시의 이익금은 해마다 증가하여<sup>21)</sup> 재투자함으로써 복지여건을 개선하고 가족들을 위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사회의 일반가족들보다는 여유로운 생활환경이 유지되었다.

## 5. 자주국방 기반 조성기(1972~1980)

자주국방 기반 조성기에는 군인가족들의 처우개선은 주로 전후 원호사업과 자녀교육 및 생활 보장을 위한 법제화가 이루어져 제도권내에서 기반을 형성하게 되었다.

1965년에 시작한 월남전 파병은 1973년 3월에 모든 전투원들이 귀국하면서 종료되었다. 이 파병으로 한국은 국제적으로 6·25전쟁에 대한 은혜를 갚았고, 국내적으로는 경제 도약의 기반과 국방력을 강화

19) 1961년 5월 31일에는 전·후방 9개 지구(서울, 부산, 대구, 원주, 대전, 춘천, 일동, 전국)에 파견대를 운용하였다. 육군본부, 앞의 책, 381쪽.

20) 위의 책, 414~416쪽.

21) 1961년 당시 영외 PX는 없었지만 1962년 2개소, 1965년 46개소, 1967년 50개소로 늘어났으며, 총 판매액은 1961년 8,602만 원, 1965년 82,881만 원, 1987년 130,243만 원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위의 책, 414쪽.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약 5,099명의 전사·순직·사망자, 10,962명의 전상·부상자, 4명의 실종자<sup>22)</sup>, 그리고 10만여 명의 고엽제 환자들이<sup>23)</sup> 돌아왔다. 9년의 참전기 간 중 발생한 원호대상자 중 미망인 등록 숫자는 108,536명<sup>24)</sup>이었다. 전쟁으로 인한 미망인의 수는 상이군인과 기존 미망인들의 사망과 가입 등으로 인하여 증감을 유지하다가 2012년 7월 31일 현재 8,800명<sup>25)</sup>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정부의 원호지원은 주택지원, 영농축우지원, 장학금, 합동결혼식, 자립금 대출 등이었으나 아주 미미하여 제도적으로 충족하지 못하였다.<sup>26)</sup> 이후 1966년 5월 9일 ‘파월군 재해보상규정’을 마련하여 지원하였고, 1974년에는 ‘파월전상자 자립촌’을 건설하여 지원하는 등 법적이고 제도적인 노력을 전개하여 왔다.

1970년대까지 주거시설은 내·외부 환경이 열악하였으며, 주택의 난방은 화목 아궁이가 대부분이었고 부엌, 화장실, 씻는 것 등 모든 것이 불편하였다. 화목아궁이가 연탄아궁이 등으로 대체된 것은 새마을운동이 전개된 후인 1973년부터이다. 군에서도 가족들이 기거하는 주거시설을 먼저 개량하였다.

2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통계로 본 베트남 전쟁과 한국군』(서울: (주) 정문사, 2007), 40쪽.

23) 위의 책, 146쪽.

24) 월남전 원호대상자는 상이군인 393,816명, 미망인 108,536명, 고아 434,144명, 피난민 104,630명, 기타 104,630명으로 총 1,731,126명이다. 국방부, 『파월한국군전사』 제10권, 1985, pp.530~536; 주월한국군사령부, 『귀국보고』, 1973, 28쪽.

25)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의 실무자와 2012. 10. 12일 전화통화 결과이다. 저자주.

26) 國防部軍史編纂研究所, 『國史』: 公友開發, 2002), 770쪽.

〈표 3〉 최전방 1개 군단 주거 보유 현황(단위: 세대수)

구분	소요	보유	건립	계(%)	과부족(%)
계	4,560	577	256	733(16.0)	-3,857(84.0)
A	829	150	47	197(23.7)	-632((76.2)
B	1,150	126	55	181(2.4)	-969(84.2)
C	1,072	123	44	167(15.5)	-905(71.2)
D	659	80	42	122(18.5)	-537(81.4)
E	309	31	13	44(14.2)	-265(85.7)
F	471	67	55	122((25.9)	-349(74.0)

\* 출처: 제5군단, 『승진 30년사(1953. 10. 1~1983. 10. 1)』, 1983, 342쪽에서 재편집.

1976년도의 최전방 1개 군단과 예하 사단의 관사 소요 대 보유 현황을 보면 〈표 3〉과 같이 소요 4,560세대에 보유 577세대, 추가 건립 256세대로 총 733세대에 16%의 저조한 보유율을 유지하고 있었다. 전체 소요에 비하여 3,857세대가 부족하여 과부족율이 84%로 주거 욕구에 대한 충족률이 매우 저조하였다.

당시까지도 부족한 주택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사용하던 관공서나 일반 건물이 사용되었으며, 일본군들이 사용하던 건물도 있었다. 이외에도 6·25전쟁 복구기간에 군인들이 스스로 건축한 주택이나 일반인들이 사용하던 건물을 개조한 것도 있었다.

1972년에는 군 자녀를 위한 최초의 『군인가족 교육보호법』<sup>27)</sup> 제정되어 군인가족으로서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에게 수업료 및 기타 공납금을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군인가족들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군인의 사기를 양양을 위하여 제도적인 조치가

27) 이 법은 1989년 12월 폐지되고 ‘공무원 자녀에 대한 학비보조 제도’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법률 제2429호(1972. 12. 30. 제정, 1973. 3. 1. 시행), 대한민국 정부, “관보 제6340호”, 1972, 5664~26쪽.

강구되었다. 1973년에 박정희 대통령은 국방부 연두 순시에서 ‘직업군인 생활 안정책 강구 지시’를 하게 되면서 ‘면세품 제도’가 도입되었다.<sup>28)</sup> 1970년대 한국사회는 가전제품이 희귀하여 인기가 높았다. TV, 냉장고, VTR, 에어컨 등 7종에 대하여 1인 1매의 면세품 카드가 발급되었고, 수량과 구매주기가 통제되었으나 가족들에게는 상당히 가치 있는 혜택이었다. 특히 에어컨과 냉장고 등은 가족들에게 큰 인기를 누렸다. 일부는 본인의 혜택을 양보하여 처가나 시가에 선물함으로써 부모 혹은 고향사람들로부터 군인가족으로서 자긍심과 부러움을 느끼는 등 상대적인 우월감을 가지는 등 제도적인 수혜를 받았다.

## 6. 자주국방 강화기(1981~1990)

자주국방 강화기에서는 제도 및 주거면에서 기존의 단순 지원차원에서 탈피하여 사회의 변화 양상을 추구하게 되었으며, 자녀교육에 대한 지원에서도 지역위주에서 공간지원의 개념으로 변화되어 발전하게 되었다.

1980년대 한국은 사회와 경제의 급속한 발달로 인하여 일반 시민들은 경제적인 풍요를 생각하던 시기였다. 한국군에서도 이러한 환경 변화에 호응하여 1981년에는 원호관리단이 복지근무지원단으로 개칭되었으며, 국방부와 각 군에서는 본격적으로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시작하였다. 군내부에서도 사회 발전 추세에 부응하고 국민의 생활수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복지 상향 정책이 요구되었다. 특히 다른 직업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서 작전과

28) 현재는 『주세특례제한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에 의거하여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주류세와 교육세의 면제에 한정하여 시행되고 있다. 국군복지단, 『군 복지시설 안내』, 2012, 94쪽.

근무를 병행하는 군의 특수성이 고려되어 보다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대책이 수립되어 시행되었다.

제도 및 주거 측면에서는 1984년 2월 1일 군인공제회<sup>29)</sup> 정식으로 발족하게 되었으며, 이 조직은 회원 각자의 공제제도로써 높은 이자율과 장기간 수익으로 전역 시 목돈을 마련하게 함으로써 가족들에게는 좋은 투자처가 되고 있다. 이외에도 목돈마련적금이나 민간아파트를 건립하여 회원들에게 지원하는 등 가족들과 연관 있는 사업을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한편으로 군인가족들은 대부분 휴전선, 해안 및 내륙오지 등에서 문화시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잦은 근무지 변경으로 인하여 빈번한 이주와 이중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군 운영상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주택보급률 저조, 자녀교육의 어려움, 이사 및 이중생활비 추가지출 과다, 그리고 재산 증식기회 희소 등은 군인가족들이 직면하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sup>30)</sup> 또한 군인가족들은 한 지역에 영구 거주하기보다는 수시 이동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가 마련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1980년대 후반 일반 공무원들의 자가 보유율이 61%인데 비하여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군인들은 11.1%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 보유율도 영관장교 및 준사관, 선임하사관 등 대부분이 월남전 기간 중 파월수당 등으로 주택마련의 기회를 가진 데 기인하고 있다.

29) 군인공제회는 전역 장성의 군사연구 활동, 연금 수급 미취업자에 대한 학비보조사업 등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과 공제기금제도를 통한 목돈마련, 무주택자 아파트 저가 분양, 높은 이자의 목돈마련적금, 저리의 목돈 대출, 대학 신입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대학원 학비지원, 재해 위로금, 복지시설 운용 등을 시행하고 있다. 군인공제회, “정관”, 2011. 10. 17. <<http://www.mmaa.or.kr/contents.action?menuid=75>>.

30) 국방부, 『국방백서(1988)』(서울: 군인공제회 제1인쇄소, 1988), 247쪽.

〈표 4〉 1988년 주택보급률(단위: 세대수)

계급	계	위관, 중사	상사	준위	소령	중령	대령
대상	86,972	47,333	17,695	4,635	10,019	5,490	1,809
보유	9,673	2,317	3,312	1,575	482	1,056	931
%	11.1	13.1	18.7	34.0	4.8	19.2	51.5

\* 출처 : 국방부, 『국방백서(1988)』(서울: 군인공제회 제1인쇄소, 1988), 248쪽.

하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는 군 주거지역의 개념이 도심지나 도심지 인근에 대단위로 건립하는 형태로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도시의 확장과 교통 기반의 발달로 국민들과 가족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정책적인 뒷받침도 이루어졌다.

1988년부터 충청남도 계룡시 일대에 약 2천 세대 이상의 대규모 주거지역이 형성되면서 가족들을 위한 교육시설, 종합상가, 체육시설, 여가시설, 의료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구비하였다. 기존의 시민사회와 고립되어 있던 군 주거지역이 상호 자유롭게 교류가 가능하도록 형성되었다. 계룡대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일부 지방대학의 평생학습관 건립 등으로 시민사회와 밀접하게 통합되어 있으며 가족들도 평생학습 교육, 민간동호회 활동 등을 통하여 다양한 여가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군사주거단지로서의 지방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

2011년 11월에는 계룡대 지역 랜드마크로서 ‘계룡대 복합문화레저단지’ 조성을 위해 국군복지단·계룡대 근무지원단 간의 ‘계룡대 복합문화레저단지 공동 개발 협약식’<sup>31)</sup>을 맺었다. 복합문화레저단지가 조성

31) 총 사업비 약 55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이번 계획에서 계룡시는 행정시설과 스포츠센터·도서관 등 주민 편의시설을, 국방부는 쇼핑몰·숙박시설·병의원 등 군인 복지시설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민·관·군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과의 공유로 화합의 터전인 민·군 통합 복지타운으로 형성하는 사업이다. 국방홍보원, 『국방저널』 제456호, 2011, 61쪽.

되면 군인가족들의 복지 향상은 물론 지역 주민도 함께 공유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최고의 복지 및 주거시설로 변신하게 된다.

군인자녀들을 위한 제도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군인 및 군인자녀 대학 학자금대부’ 지원이 1981년부터 시행되었다. 실제 등록금 납부액을 국고 또는 군인복지기금에서 지원되었으며, ‘무이자 학자금’ 지원은 대부분 전역 시 퇴직금을 수령하여 일시에 채무를 상환하고 있다.

육군의 군 자녀에 대한 장학금 운영은 6·25전쟁 후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건립하여 운영하던 춘천 제1고등학교를 1982년 2월 28일 문교부에 이관하고 학교 운영기금 3억 원을 인수하여 1982년 7월 6일부로 ‘육군 장학회’를 설립하면서 시작되었다. 1986년까지 26억 원의 기금을 확보하여 연인원 1,247명에게 1인당 30~40만 원씩의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1983년에는 도시지역에서 학교를 다녀야 하는 군 자녀들을 위한 공동 기숙사가 설립되었다. 서울 영등포에 ‘창공학사’를 최초로 설립하여 지원한 이래 적은 양이지만 꾸준히 추가 건립하여 2012년 10월 현재 전국 대도시에 12개소를 완공하여<sup>32)</sup> 저렴한 가격에 편리하고 안전한 학습 환경을 지원하고 있다.

1980년도부터 국가경제의 발전에 따라 일반 시민들은 레저문화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으며, 군에서는 1982년부터 설악산, 용인 등에 콘도미니엄 10실을 매입하여<sup>33)</sup> 군인과 가족들에게 제공하였다. 1983년 12월에는 제주도에 현대식 장병휴양소를 건립함으로써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32) 서울 4개소, 대전 2개소, 춘천, 원주, 수원, 대구, 부산, 광주에 각각 1개소로 지역별 수용능력은 60~490여 명으로 편차가 심하다. 총 12개소에 1,062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용능력은 2,170명이다. 국군복지단, 앞의 책, 82쪽.

33) 육군본부, 앞의 책, 446쪽.

## 7. 국방태세 발전기(1991~현재)

국방태세 발전기에서는 그동안 산업화에 대한 보상 등의 차원에서 일반시민들은 삶의 향상과 복지에 대한 욕망이 분출되었다. 군인가족들의 처우개선도 제도, 주거, 자녀교육, 복지여건 등 전 분야에서 군의 특수성을 고려한 대책들이 적극적으로 강구되고 시행되어 모체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하면서 발전하게 되었다.

군인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 변화가 시작된 것은 1990년대에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는 관련 법령의 제정과 함께 제도적인 조치 등으로 군인가족들의 주거와 복지 환경은 급격하게 전환되어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1996년에는 군 복지시설의 지속적인 건립과 구매·관리 유지, 복지시설의 환경개선, 종사원의 인건비 지원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군인복지기금법』과 『시행령』을<sup>34)</sup> 제정하고 복지수혜를 사용자들에게 환원하기 위한 기금 운용이 시행되었다.

2007년 12월 『군인복지기본법』 제정에 따른 군 복지업무와 시설 등이 통합되었다. 이에 따라 2008년 9월 1일에는 국군복지단을 창설하고 이어서 2010년 1월 1일 3군 복지단이 통합되어 통합 복지를 위한 역할과 기능도<sup>35)</sup> 다양해졌다.

34) 마트, 호텔 및 콘도, 복지회관, 체력단련장 등 군 복지 및 체육시설의 운영을 통해 장병들에게 복지수혜를 제공하고 시설운영 수입금을 장병들에게 환원하기 위해 운용하는 기금으로 1996년 7월 1일 『군인복지기금법』 제정, 동년 7월 6일 동법 『시행령』을 제정하였다. 1999년에는 『군 복지기금관리·운용규정』을 제정하였다. 국군복지단, 앞의 책, p.11.

35) 통합복지단의 임무는 첫째,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둘째, 복지단에 배정된 군인복지기금의 운용, 셋째, 그밖에 국방장관이 지시하는 사항이다. 기능은 ① 군 복지증진을 위한 중·장기 복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② 군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③ 군인복지기금의 운용, ④ 군 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조달 및 운용, ⑤ 복지시설 운영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 ⑥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운영제도 개선, ⑦ 그밖에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군 복지관련 업무의 수행 등이다. 국방부, 『국군복지단령』 제2조, 2008.

지금까지 군인위주로 추진하던 복지사업을 사회통합차원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발전하는 복지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또한 현역 군인에 대한 지원위주에서 가족에 대한 지원을 병행 추구하는 복지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2008년부터는 『군인복지법기본법』에 의하여 군인공제회와 주택공사로부터 동시에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었다. 일반 민간주택을 공급하는 군인 특별공급 주택 입주 제도가 시행되어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에게 주택공사 등으로부터 군 배정물량을 공급받도록 하여 많은 인원들이 전국 각지에서 아파트를 배정받게 되면서 주거복지가 일부 완화되기도 하였다.

2008년에는 국방부 복지예산으로 운용하는 ‘맞춤형 복지제도’가<sup>36)</sup> 시행되면서 2010년부터는 가족들도 의료 보장보험의 수혜를 받게 되었다. 보장보험의 신설로 배우자와 20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 입원의료실비의 90%와 병실사용료도 지원하고 있다.

1990년과 2000년대에도 대단위 주거단지 건립은 2개소에서 추가로 건립되었다. 대전지역으로 교육기관이 이전하면서 약 2천여 세대로 구성된 자운대가 만들어졌다. 자운대내에는 종합상가, 복지회관, 교육기관은 물론, 실내수영장과 체육관, 종교시설, 지방자치제 출장소, 의료기관 등 가족들을 위한 복지 및 여가시설이 풍부하게 조성되었다. 2011년에는 지자체와 통합공원을 조성하여 여름밤에는 공연까지 하는 등 일반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있다.

2002년에는 전방지역인 강원도 춘천 도심지 인근에 12층 규모의 7개동이 건립되어 다양한 복지 및 여가시설을 근거리에서 접하게 되면서 가족들의 삶의 질도 향상되었다. 이러한 군의 정책으로 인하여 가족들과

36) ‘맞춤형 복지제도’는 사전에 설계된 복지 항목 중 자신에게 배정된 복지예산 한도 내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복지혜택을 스스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후생복지 제도이다. 기본항목은 각종 보험가입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하며 자율항목으로 분기별 배정되는 복지자금을 개인별로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국군복지단, 앞의 책, p.102.

일반시민은 더욱 밀착되고 관계성을 유지하면서 상호 우호적인 관계가 조성되었다.

1990년대부터 한국사회는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이 지대해졌다. 자녀 교육에 대하여 부모들이 가지는 기대가 증가하고, 그에 상응하는 교육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부모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1991년 국방부에서는 군 간부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의식과 그와 관련된 직무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군 간부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sup>37)</sup>을 하였다. 군인 중에 혼자 사는 경우가 132명으로 22.5%, 자녀 혼자 떨어져 사는 경우가 39명으로 6.5%, 군 생활에서 가장 애로점은 자녀교육으로 조사되었으며, 자녀교육은 주로 아내가 맡는다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잦은 전출과 이사 등으로 인하여 자녀들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해 주기가 아주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 자녀들이 경쟁대열에서 낙오하거나, 군 간부들이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을 다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자녀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으며 군의 사기에까지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1992년에는 군인공제회 부설기관으로 재단법인 ‘호국장학재단’이 설립되었고 1998년에는 3군의 장학기금이 통합하여 운용되었다. 2001년부터 ‘호국장학금’은 대학신입생 전원에게 ‘입학격려금’ 100만 원과 재학생은 장학금 50만 원을 1가구당 1명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 중·고등학생은 『자녀 학비 보조 수당규정』(대통령령 제10957)에 의거하여 학비에 한하여 지원받게 되어 일부분이라도 간접적인 사기를

37) 설문지의 제작에 있어서는 먼저 9개의 질문을 통하여 응답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본 다음, 자녀의 교육환경에 대하여 5개의 질문과 자녀 교육의 기대수준에 관한 13개의 질문, 자녀 교육과 관련된 직무만족에 대한 12개의 질문을 제시하였다. 또한 분석의 대상이 어느 한 부분에 치우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하여 응답자를 연령별, 계급별, 군별, 직책별로 세분화하여 최대한 균등하게 분해하였으며 실질적 가능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이를 대표하기 위한 표본으로 600명의 군간부를 추출하였다. 이 조사는 군 내부의 미공개된 설문으로 결과는 군 간부들의 자녀 지도를 위한 참고 교재를 작성하기 위하여 활용되었다. 국방부, 내부문서, 1992.

진작시켜 군 복무에 더욱 증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게 하였다.

1999년부터 시행된 ‘군인자녀 대학 특례입학 제도’는 국가유공 및 사회기여 대상 중의 하나로 직업군인의 자녀도 대상에 포함하여 시행되고 있다. 2008년도 기준 신분별 대학 현황은 장교가 58개 대학, 준사관이 75개 대학, 부사관이 81개 대학으로 총 81개 대학을 대상으로 장관추천 5개 대학, 해부대 지휘관 추천 1개 대학과 개인별 지원 대학으로 구분하여 시행되면서 매년 4~5개 대학이 증가되었다. 특례입학 대학 중 서울지역이 16개 대학, 기타는 지방대학이다. 연도별 합격 현황은 <표 5>와 같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sup>38)</sup>

<표 5> 연도별 합격자 현황(단위: 개소, 명)

구분	'99	'00	'02	'03	'04	'05	'06	'06	'07	'08
대학	3	13	28	43	49	56	60	62	75	77
인원	32	137	293	477	400	411	413	414	416	419

\* 출처: 육군본부 내부문서, 2010.

가족들이 가장 애로를 느끼는 자녀 교육문제는 잦은 이동에 따른 전·편입학 문제이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군인 자녀들을 정원 외 전·편입학이 허용되도록 전국 시·도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제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각 시·도별로 입학정원의 2~5% 범위 내에서 정원을 수시로 배정하거나 우선 배정하는 등의 배려를 한 것이다.

38) 장교는 연세대, 숙명여대, 성균관대학, 부사관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성균관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장교는 연세대와 숙명여대는 2003년부터 시행하였고 성균관대는 2008년부터 시행하였으나 숙명여대는 2005년부터 중단되었다. 부사관은 연세대는 1999년, 고려대는 2000년, 이화여대는 2001년부터 실시하였고, 숙명여대는 2002년~2004년까지 실시 후 2005년부터 중단되었다. 성균관대는 2007년에 1회 실시하였다. 연세대와 고려대, 이화여대도 각각 1~2회를 시행 후 중단되었다. 육군본부, 내부문서, 2010.

2000년대부터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군인끼리 결혼하는 부부군인이 증가하고 있다. 야근 및 출장, 훈련 등으로 가족들의 양육을 지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 해소, 아동의 안전한 보호 등을 위하여 전국 65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하여 국고로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의 양성평등 정책의 일환으로 휴가나 성과금 등 남성과 동일한 자격과 대우 및 혜택을 주고 있다.

이 시기의 한국사회는 도로, 교통, 통신 등이 급속히 발달하여 군인 가족들의 생활에도 많은 혜택과 변화가 있었다. 이 중 도로는 2009년 통계청 자료 현황을 보면 도로 총연장 104,236km가 포장되어 전체 도로의 79%가 포장됨으로써 '70년 대비 약 10배 정도가 증가<sup>39)</sup>되었다. 군부대 지역 중 가장 오지로 꼽히는 강원도 인제·양구지역에도 사회 기반의 혜택으로 서울까지 약 4시간, 속초까지 약 5시간 이상 소요된 이동시간이 2·3시간 이내로 단축되었다. 개인 차량의 보유수도 증가하여 전국 각지 어느 곳이든 마음만 먹으면 이동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세계 1위의 인터넷의 발달로 전방 오지의 군인가족들은 전국 각지의 쇼핑물을 통하여 안방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해외 직구매도 가능해졌다. 전국 각지의 군인가족들은 인터넷사이트를<sup>40)</sup> 통하여 정보를 교환하기도 한다. 자녀들도 발달한 인터넷으로 서울의 유명학원 강의를 수강할 수 있으며, 진학에 대한 정보도 받아 보고 있다. 가족들의 재산 증식에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투자 상담이나 정보를 받아 활용하기도 한다.

2012년 4월 현재 전국 군인 가족 거주지에 영외마트 114개소를<sup>41)</sup> 설치하여 연중무휴 운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대단위 아파트 지역인 계룡대와 자운대 등에서는 7개소의 쇼핑 타운이 늘 운용되고 있다.

39) 통계청, 2009년 도로포장률 통계자료 참고.

40) '내 남편은 군인(<http://cafe.daum.net/jung7511/>)' 등 다수의 카페가 인터넷 상에서 운영되고 있다. 저자주.

41) 국군복지단, 앞의 책, 91쪽.

과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다양한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영외마트에서는 일반 시민사회의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1,002개 품목(2012년 3월 기준)에 대하여 주문판매를 실시하고 있으며 꽃 배달 서비스, 장기 렌트카, 이사화물 서비스, 가전제품 등을 취급하여 군인가족들의 편의를 지원하고 있다.

2012년 국군복지단 휴양시설은 직영시설이 서귀포호텔 등 6개소의 휴양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육군에서는 계룡 스파텔 등 3개소, 민영콘도는 17개 업체 62개소를 회원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sup>42)</sup>

오늘날의 군인가족들은 과거와는 다르게 일반 시민들과 사고를 위한 친교 자리에 어색함이 없이 참가하고 있으며, 자녀의 양육에서도 군이라는 직장에서의 지나친 권위에 대한 복종 등의 방법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재량권을 보장함으로써 가정생활 양식도 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과거 오지와 고립으로 대별되던 군인 가족들의 생활 양식도 많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일반시민 사회와 더욱 가깝게 밀착됨으로써 상호보완적이고 보편적인 통합의 관계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 8. 결 론

지금까지 한국군의 발전과정별 군인가족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변화를 시대 구분에 따라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 속에서 제도와 주거, 자녀교육 및 복지여건에 대한 사료들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42) 직영시설은 서귀포호텔이 있고, 콘도는 화진포, 청간정, 대천1·2, 송정 등으로 263실의 객실이 있다. 민영콘도는 오너십 2,325구좌, 멤버십 311구좌로 총 2,696구좌 약 260개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체인은 전국에 62개소가 있다. 국군복지단, 위의 책, 23쪽.

한국군의 발전과정에 나타난 처우개선에 대한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군 특수성에 고착되어 폐쇄적이고 획일적인 형태에서 한국의 사회·경제·문화가 급속하게 변화 발전하면서 법령과 제도가 마련되고 시행되면서 조직적이고 합법적이며 보편적인 방향에 중점을 두고 모체사회의 틀 속으로 자리 잡게 되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주거 측면에서는 군 자체 자산에 의존한 주거 운용, 격오지 단위로 산재한 주거 환경, 보유율의 저하 등 독자형 주거형태가 형성되었지만 군의 주거정책이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면서 대단위 통합형 주거단지,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교류 등이 형성되면서 주거 환경과 여건이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

셋째, 자녀교육 측면에서는 군 특수성에 의존하여 격오지 내부에서의 교통 및 교사 지원 등 천편일률적인 교육 지원에 치중하였다. 그러나 사회 및 경제,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군 내부에서 탈피하여 도심지 공동 기숙사 운용, 다양한 장학제도 운용 등 개방된 사회와 공존하는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복지 환경 측면에서는 군 자체적으로 운용하던 복지시설이 개방되고, 시민사회의 시설도 함께 공유하면서 사회와 군인가족에 중점을 두고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관계로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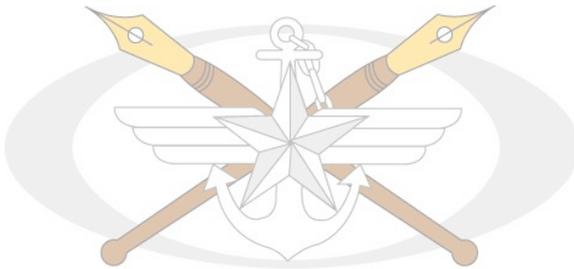
지금까지 논의한 한국군의 군인 가족들에 처우개선에 대한 분석은 모체사회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하위 조직인 한국군도 시·공간의 차이는 있으나 동일한 방향에 중점을 두고 변화되어 가는 것을 논의하였다. 이제 군인의 존재와 역할만을 인식하는 시대적인 통념은 배제되어야 하며, 군인의 중요성만 부각되어 군인 가족들이 분리되면 군의 무형전투력 창출은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군인과 군인가족은 원초적인 통합체이며 이러한 통합체는 일반시민 및 사회 구성원들과 긴밀하고 밀접하게 상호 통합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념 속에서 군인가족들에 대한 올바른 사료의 연구와 발전을 기대해 본다.

(원고투고일 : 2012. 11. 15 심사수정일 : 2013. 2. 19, 게재확정일 : 2013. 2. 25)

주제어 : 군인, 군인가족, 군인아내, 군인자녀, 가족복지, 군인복지, 가족사, 군인주택, 여가



<ABSTRACT>

## Republic of Korea Army's Advancement and Military Family History

Hong, Chang-gug

Professional Soldiers' wives require abilities in variety of areas where their husbands are not available due to the peculiarities of their job requirements. Living in an isolated environment, worse living conditions, frequent moving, poor housing, lack of support in child education and care, and limited medical service and lack of leisure facilities, with their husbands serving 24 hours as commanders, administrators, and instructors, they have to be experts in maintaining households.

The improve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rmy today owes much to the military families. Few people seem to recognize the sacrifices and sufferings of the military families, who contributed greatly to intangible combat power and to Republic of Korea Army's advancement into internationally recognized strong army through six decad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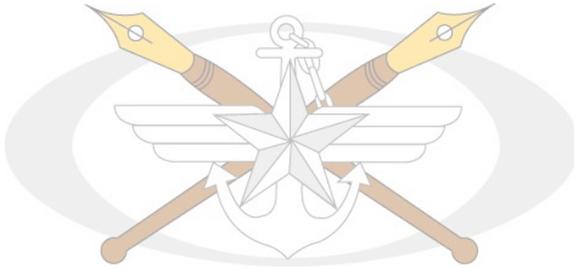
However, it is undeniable truth that while there are researches on the Korean army, there are not much researches on the military families. Just like women's study, the researches on military families have been neglected.

Finding the data and source materials on the Republic of Korea Army's military families will provide the basis for the future researches help making the political decisions on the military. Therefore this study on the Republic of Korea Army's advancement in history will be divided into the followings: establishment of the ROK(1945~1949) and the development of National Defense Position(1991~present). Through these timeline, data and sources on military families will be analyzed to find changes in them.

Through this research, hopefully, correct understanding of military

families will be possible and this will contribute to the future studies on the military.

Key Words : Professional Soldiers, Military Family, Professional Soldiers' Wives, Professional Soldiers' Children, Family Welfare, Military Welfare, History of Family, History of Military Families, Military housing, Leisure facilities



# 로마제국의 대(對)동방 군사정책: BC31~AD200

조영식\*

1. 머리말
2. 원수정 초기부터 네로 황제까지: BC31~AD68
3.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부터 트라야누스 황제까지: AD69~117
4. 하드리아누스 황제부터 세베루스 황제까지: AD118~200
5. 맺음말



## 1. 머리말

미국, 중국, 한국 등 새로운 지도자 선택을 통해 당면한 세계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저마다의 노력이 요동치는 가운데 지구상의 또 다른 저편에는 해묵은 분쟁을 빌미로 연일 포성이 그치지 않는 곳이 있다. 중동이 바로 그러한 지역으로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충돌 위기만큼이나 민족적 긴장상태가 몇지 않는 곳이다. 과연 그들의 역사가 어떠한가에 전쟁으로밖에 자신의 의지를 표출할 수 없는 불합리한 긴장상태를 이어나가야만 하는가? 근동에 관한 우리의 관심은 단순히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종교적 분쟁의 차원을 넘어 ‘강대국’과 ‘약소국’의 대결이라는 역사와 관련된 시공간적 범위를 확장시킨다.

---

\* 공군사관학교 인문학과 부교수

로마제국과 근동의 관계는 현존 사료가 주로 로마와 그리스 입장에서 기술된 것으로, 중립적 시각에서 근동지역에 대한 로마의 정확한 태도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같은 이유로 근동의 여러 국가가 로마제국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를 파악하는 것 또한 쉽지 않다. 이러한 질적 한계에 더하여 여기저기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는 비문, 파피루스, 조각상, 동전과 같은 고고학적 유산과 문헌사료 또한 충분히 남아 있지 않다. 이러한 사료의 질량(質量)적 한계에 더하여 근동에 관한 연구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서구의 시각에서 모호하게 정립되어 있는 ‘오리엔트’ 개념뿐만 아니라 그에 바탕을 둔 반(反)오리엔트적 경향에서 기인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료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에 관한 고대인들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요세푸스(Josephus), 스트라보(Strabo), 타키투스(Tacitus), 디오(Dio), 폴리비우스(Polybius), 유세비우스(Eusebius) 등은 자신들의 저작을 통해 그에 관한 부분적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 중 특히 요세푸스는 『유대고대사(Antiquitates Judaicae)』, 『유대전쟁사(Bellum Judaicum)』를 통해 유대역사에 관한 절대적 정보와 유대전쟁 원인에 관한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고 있으며, 지리학에 관심을 갖고 있던 스트라보는 파르티아 제국을 포함한 근동지역의 여러 종속국가에 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sup>1)</sup>

한편, 동시대 학자들 또한 3세기 이전까지 로마의 제국주의 성격과 관련하여 근동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sup>2)</sup> 로마의 정체가

1) F. Josephus, 박정수 역, 『유대전쟁사』, 서울: 나남, 2008; F. Josephus, 김지찬 역, 『유대고대사』,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7; C. Tacitus, 박광순 역, 『타키투스의 연대기』, 서울: 범우사, 2005; Cassius Dio, *Historia Romana*; Polybius, *Historiae*; Eusebius, *Historia Ecclesiastica*; Strabo, *Geographia* 등.

2) N. C. Debevoise, *A Political History of Partia*(Cicago, 1938); F. Millar, *The Roman Near East 31BC-AD337*(Harvard UP, 1993); F. Millar, *The Roman Empire and its Neighbours*(Weidenfeld and Nicolson, 1970); B. Issac, *The Limits of Empire*(Oxford UP, 1992); P. Southern, *The Roman Army: A Social & Institution History*(Oxford UP, 2007); E. N. Luttwak, *The Grand Strategy of The Roman Empire*(Baltimore, 1976). 로마 제국주의에 관한 국내 연구자로는 ‘방어적 제국주의’, ‘강요된 팽창’적 성격을 강조하는 김진경 외, 『서양고대사 연구』

공화정에서 원수정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그들과의 충돌이 어떠한 성격을 띠고 있었느냐에 관한 것이다. 로마의 팽창이 공세적이었는가 아니면 방어적이었는가에 관한 것으로, 연구는 주로 게르마니아, 브리타니아, 아프리카, 유대, 라인-다뉴브, 유프라테스 등 제국의 변경지역에서 일어났던 개별적 전쟁에 관련된 것이었다. 특히 로마가 팽창하는 과정에서 직접 조우하기를 꺼려했던 파르티아 및 사산조 페르시아 제국과의 개별적 전쟁을 포함하여 소위 '종속왕국(client kingdom)'의 위치에 있던 여러 국가와의 분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를 통해 로마제국의 변경선 확보와 관련된 군사정책의 성격을 파악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연구방식은 장구했던 로마역사에 있어 한정된 시기와 장소라는 시공간적 제한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초강대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을 위해서는 한 시대를 관통하는 일관된 정치군사적 행위가 있어야 한다. 마치 오늘날의 미국이 그러하듯이, 서양의 고대시대에 로마제국이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본 논문은 바로 이러한 시각에서 출발하고 있다. 개별전쟁의 과정과 결과 그리고 이후의 정치적 변화과정을 추적했던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본고는 로마가 공화정에서 원수정으로 변화하면서 근동지역에 대한 군사정책이 어떠한 과정과 의도를 갖고 있었느냐에 관한 것이다. 3세기 이전까지 로마제국이 추진했던 근동정책의 경향성에 대한 것으로, 그들이 동방의 여러 국가와 경험했던 크고 작은 분란과 전쟁을 총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군사적 측면에서 로마제국에 과연 중앙 통제적인 종합적 제국방어전략이 존재하고 있었는가에 관한 궁극적 질문에 대한 답변의 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

(서울: 한울아카데미, 1996), pp.355~395에 실린 신미숙의 글과 로마제국을 떠받치는 기저로서 로마군 병사의 모습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배은숙, 『강대국의 비밀』(서울: 글항아리, 2008)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 2. 원수정 초기부터 네로 황제까지: BC31~AD68

### 1) 원수정 초기부터 티베리우스 황제까지: BC31~AD37

기원전 31년 악티움 해전의 승리로 로마 공화정의 내전종식과 더불어 옥타비아누스의 일인 지배체제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당시까지 근동지역에 대한 로마의 군사적 지배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 기원전 63년 삼두정치의 한 축이었던 폼페이우스에 의해 유대지역이 로마의 영향 하에 놓이게 되었으나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정도까지 로마화가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상태는 2차 삼두정치기 안토니우스의 직접적인 영향 하에서도 계속되어 카파도키아(Capadocia), 콤마게네(Commagene), 유대(Judaea) 등 주요 왕국들은 독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시리아 북쪽 지역은 여전히 파르티아 제국의 끊임없이 위협을 받고 있었으며, 이집트 남부 해안지역까지 그들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상태는 악티움 해전을 전후로 변화하였다. 해전 이후 옥타비아누스는 ‘국가를 구한 자’의 칭호를 받으면서 ‘공화정의 회복’을 선언하였다. 원로원은 그에게 ‘아우구스투스(존엄한 자)’의 칭호를 부여하면서 ‘원로원과 로마인민(S.P.Q.R=Senatus Populusque Romanus)’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위임하였다. 원로원의 권위와 시민들의 위임을 바탕으로 그는 이전과는 사뭇 다른 새로운 ‘원수정(*principatus*)’라는 정치체제<sup>3)</sup>를 확립하였다. 제국의 평화와 안정과 직결된 변경선의 새로운 제국방어 군사전략은 속주를 재정비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는 이제까지 로마가 정복한 통치영역을 18개 원로원 속주와 10개 황제 속주로 분류하여 각기 다른 방어정책을 추구하였다. 근동지역에 대한 아우구스투스의 기본정책은 우호적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3) 프린키파투스(*principatus*)의 성격에 대해서는 ①공화정의 연속성, ②일인 지배체제, ③양두체제 등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자세한 내용은 김덕수, 「아우구스투스의 프린키파투스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서울대 박사논문, 1996), pp.1~7쪽.

이를 위해 아시아(Asia)와 비티니아(Bithynia)를 원로원 속주로 두었으며, 갈라티아(Galacia), 카파도키아 및 아르메니아(Armenia)에 대해서는 동맹국의 지위를 유지케 하였다. 이에 대해 키리키아(Cilicia)와 시리아(Syria)만을 파르티아에 대한 견제를 위해 황제 속주로 두었을 뿐이다.

파르티아 제국은 사실상 근동지역의 패권국가로서 로마보다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었다. 영토 또한 유프라테스강에서 인더스강에 이르는 광대한 영토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군사력에 있어서도 결코 로마에 뒤지지 않았다. 이는 서방 속주와는 다른 그 어떤 통치기제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동방에 '시리아' 황제 속주를 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황제 속주는 로마의 정규군단이 주둔했던 지역으로 황제가 직접 임명하는 군사령관(praefectus)이 파견되었다. 시리아 속주 총독은 군사령관직을 겸하면서 유프라테스강 건너 파르티아와 완충지대에 위치한 여러 종속왕국들에 대한 내부통제 및 질서유지의 임무를 맡고 있었다. 이를 위해 황제는 시리아에 4개 군단을 주둔시켰으며<sup>4)</sup>, 이를 토대로 인근지역에 대한 독자적인 군사작전을 펼칠 수 있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시리아는 동방무역의 요충지였다. 그곳에서의 경작된 변경선 운용은 동방과 서방을 잇는 대상로의 단절을 의미했다. 이에 아우구스투스는 개방적 형태의 변경선 설정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바, 그것이 바로 시리아 속주 내에서의 가도정비였다. 이를 위해 황제는 시리아의 헬리오폴리스(Heliopolis) 주둔군을 기점으로 다른 군사적 요충지를 잇는 도로를 정비하였다. 안티오키아(Antiochia)~팔미라(Palmyra)~다마스쿠스(Damascus)~베리투스(Berytus)로 이어지는 가도를 통해 대상로 확보는 물론 군사적 변경선을 설정하였으며, 특히 팔미라와 다마스쿠스를 연결하는 지역의 독립왕국들과도 동맹

4) 키루스(Cyrrhus)에 X Fretensis, 라오디케아(Laodicea)에 VI Ferata, 안티오키아(Antioch)에 III Gallica, 라판나에(Raphanea)에 VII Fulminata 군단이 배치되었다. 줄고, 「원수정기 로마황제와 군대」(고려대 박사논문, 2005), 16~17쪽.

관계를 수립하였다. 또한 베이루트 남쪽 페니키아 지방의 시돈(Sidon)과 티루스(Tyrus)도 반란을 빌미로 자유도시라는 자격을 박탈하고 대상도시로서 시리아 속주로 편입시켜 변경선에서의 각종 소요를 예방하고자 했다.<sup>5)</sup>

한편, 로마제국의 근동정책에 있어 또 다른 중요한 위치에 있던 유대왕국에 대한 군사정책은 어떠한가? 로마제국에 있어 유대왕국은 시오노 나나미의 “유대왕국은 유대 세계다”는 표현처럼<sup>6)</sup> 시리아와 별개의 문제였다. 아우구스투스 이전 예루살렘을 정복한 폼페이우스는 시리아와 동일한 속주를 만들지 않고 하나의 독립된 왕국으로 우호적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공화정 후반 2차 삼두정치기 유대의 헤롯 왕조는 이두마이아(Idumaea) 지역 출신의 안티파테르(Antipater) 이후에 성립되었다. 헤롯 이전 유대왕국의 하스몬 왕조는 히르카노스(Johannes Hyrkanus II) 2세와 아리스토볼로스(Aristobulos II) 2세의 내부적 권력투쟁에 몰두하고 있었다.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종교적 측면까지 가미된 권력투쟁에서 안티파테르는 폼페이우스로 하여금 히르카노스 2세 편에 서도록 설득하여 로마의 후원을 이끌어냈으며, 그 결과 로마의 영향을 받았다. 이후 안티파테르 아들인 헤롯 대왕은 공화정 후반기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의 권력투쟁 과정에서 카이사르의 도움으로 유대왕에 오르게 된다. 이에 그가 죽는 기원전 4년까지 친(親)로마적 성향을 보이게 된다. 왕이 된 이후에도 로마의 권력투쟁은 끝나지 않았고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의 경쟁에서 전자의 편에서 새로운 로마의 탄생과정을 지켜보았다. 이러한 헤롯의 유대왕국에 대한 아우구스투스의 군사정책은 그 태생적 상황에 따라 시리아와 같은 속주화 정책을 추구하지는 않았다. 원수정 초기 로마제국은 동쪽의 파르티아 제국과 남쪽의 아라비아 왕국에 대한 완충지역으로 유대왕국과 우호적인 동맹관계를 유지하고자 했으며, 헤롯 대왕 역시 친(親)

5) E. N. Luttwak, *The Grand Strategy*, pp.179~182; F. Millar, *The Roman Near East*, pp.38~39.

6) 시오노 나나미, 『로마인 이야기 6』, 한길사, 1997, 132쪽.

로마적 정책으로 화답하였다.<sup>7)</sup>

그렇다면 정작 파르티아에 대해서는 어떠했을까? 새로운 정체의 초대 황제로서 아우구스투스는 카이사르나 안토니우스처럼 파르티아 문제를 동방정책에 있어 핵심사항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황제는 파르티아와의 관계를 다른 속주와 달리 생각하고 있었다. 양국의 적대관계가 지속될 경우 야기될 경제적 이해관계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다. 양국은 유프라테스 강을 사이에 두고 대상로를 공유하고 있었다. 다마스쿠스(Damascus), 팔미라(Palmyra), 페트라(Petra), 아파메아(Apamea), 필라델피아(Philadelphia) 등 융성하는 도시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이에 대한 혜택을 양국이 공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우구스투스는 원수정 초기에 산적한 많은 난제들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그들과의 직접적인 전쟁을 회피하고자 했으며, 이는 왕위계승을 둘러싼 내분의 와중에 있던 파르티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원수정 초기 아우구스투스는 동방지역을 비롯한 제국의 안정된 변경선 방어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군사제도도 새롭게 개혁하였다. 개혁의 기본방침은 외부세계로의 정복이 아닌 방어에 있었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상비군 제도를 정착시켰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앙집권적인 군사전략을 수립하였다. 이를 위해 그는 공화정 후반기 최대 60여개 군단으로 증가되었던 군단수를 28개로 축소하였으며, 상비군으로서 병사들의 봉급지급은 물론 퇴직금까지 지급토록 하였다. 이를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기존의 아이라리움(*aerarium*) 이외에 피스쿠스(*fiscus*)라는 새로운 목적세를 징수하기도 하였다.<sup>8)</sup> 원수정 초기 로마제국은 시리아의 4개 군단을 중심으로 프톨레마이오스 남부지역의 해안선과 산악지역, 파르티아와의 변경선 등 동방의 핵심지역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었다. 이처럼 원수정 초기 아우구스투스는 공화정 후반기 극도의 혼란을 수습하고 새로운 정체를 수립하여 여러 정책을 표방하였던바, 특히 제국의 행정체계 개선과 속주들의 내적 안정은 물론 제국의 변경선을

7) F. Millar, op. cit., p.39.

8) 졸 고, 앞의 책, 155~159쪽.

확정하고 이를 수호하기 위한 중앙 통제적인 군사전략의 기초를 놓았던 것이다.

## 2) 가이우스 치세부터 유대전쟁까지: AD37~68

서기 37년 3월 가이우스(Gaius Julius Caesar Augustus Germanicus) 황제 등극은 이제까지 유지되고 있던 로마제국의 동방정책에 대한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가이우스는 황제가 총독을 직접 임명하는 황제 속주보다는 종속왕국의 국왕을 통해 지배하기를 선호하였다. 가이우스 치세 이후 유대지방에서 일어났던 사건과 그의 개인적 성향은 이러한 변화를 가능케 하였다. 가이우스 즉위 초기 로마제국의 동방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그리스인들이 유대인들에 대한 적대감을 폭발시켰던 것이다. 근동지역에서 정치, 종교, 인종 등 거의 모든 측면에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던 양쪽의 잠재되어 있던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 그리스인들은 항구에 정박되어 있던 선박뿐만 아니라 가이우스의 신상을 들고 회당에 난입하여 우상숭배를 금지하는 유대교를 비난하였다. 사태는 이를 수습해야 했던 이집트 군사령관 플라쿠스(Flaccus)의 미온적인 조치로 유대인을 탄압하는 모습으로 비춰졌다. 그의 입장에서 신경화를 자처하고 있는 가이우스 황제의 행동을 거슬리며 그리스인들을 진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sup>9)</sup>

유대인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로(Philo of Alexandria)를 단장으로 하는 사절단을 로마로 보냈다. 하지만 결과는 그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용이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이우스 황제가 그들을 만나주지 않았던 것이다. 황제는 오히려 그리스 사절단이 도착한 이후 양측을 동시에 만나고자 했다. 유대 및 그리스 사절단과 가이우스가 황제저택에서 만났다. 회담의 결과는 처음부터 유일신을 주장하는 유대측의

9) Josephus, 김지찬 역, 『유대교대사』, 542~548쪽.; F. Millar, op. cit., pp.187~188.

의도대로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성공은 거둔 듯하다. 가이우스 황제가 임명한 이집트 총독으로 하여금 알렉산드리아의 그리스인들이 더 이상 유대인들에 대해 폭동을 부리지 못하도록 명했던 것이다.

유대인에 관한 황제의 기인한 행동은 40년 갈리아 및 브리타니아 순행 이후에 다시금 발생하였다. 황제의 승리를 자축하는 개선식 과정에서 그리스인들이 가이우스 황제를 위한 제단을 세우는 등 신격화하였다. 이에 유대인들이 크게 반발하여 제단을 부숴버리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소식이 황제에게 전해졌고, 이에 황제는 시리아 총독인 페트로니우스(Petronius)에게 예루살렘 신전 안에 자신의 신상을 만들어 세우라고 명령하였다. 이에 동방지역의 모든 유대인들이 격렬히 반대했으며 폭동의 기미까지 확대되었다. 황제의 명령 이행을 주저하던 페트로니우스는 자결하라는 황제의 서신을 받았지만 때는 이미 황제가 암살된 이후의 일이었다. 이로서 사치와 압제 그리고 과대망상으로 얼룩진 그의 짧은 정치경력을 종식을 고하게 되었다.<sup>10)</sup>

가이우스의 이러한 유대인에 대한 도발적 행위는 이전까지 우호적으로 유지되던 로마제국의 동방정책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했다. 그리고 이러한 균열은 비단 유대인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아르메니아에 대해서도 발행하였다. 로마제국은 파르티아에 대해 로마의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조건으로 아르메니아의 직접지배를 용인해 주었던 것이다. 또한 티베리우스가 속주로 병합한 콤마게네에 대해서도 안티오쿠스에게 돌려주었으며, 헤롯 아그리파에게 과거 조부인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유대왕국의 거의 모든 부분을 맡기기도 했다.<sup>11)</sup> 이처럼 가이우스는 속주 국왕에 대한 통제를 통한 간접지배를 택하고 있었으며, 정책의 일관성보다는 변덕스럽고 도발적인 행태를 보였다.

이렇듯 가이우스는 유대문제를 이후에 들어서는 클라우디우스(Tiberius Claudius Nero Germanicus) 황제에게 미완의 숙제로

10) F. Millar, op. cit., pp.58~59.

11) F. Heichelheim, 김덕수 역, 앞의 책, 635~636쪽.

남겨 놓았다. 황제는 유대인 문제를 예루살렘과 알렉산드리아로 분리하여 대처하였다. 먼저 후자의 경우 그는 이집트에서 거주하는 그리스인과 유대인 사이의 공존을 주장하며 양자의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무엇보다도 동방의 변경지역에서 평화유지를 원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비해 전자의 경우 황제는 어렸을 때부터 로마에서 자라 가이우스와도 친분을 쌓았던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를 유대 왕으로 임명하였다.<sup>12)</sup> 하지만 그는 로마제국에 지배받는 유대왕국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다. 그는 이제까지 예루살렘에 금지되어 있던 성벽을 축조하기 시작하였으며, 인근의 로마 종속왕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고자 했다. 로마제국은 파르티아 제국과의 완충지역으로 종속왕국을 유지하며 그들과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헤롯 아그리파가 재위 3년 만에 죽음으로써 다시금 로마의 직접 통치를 받게 되었다. 이로써 유대와의 관계는 66년 유대전쟁 발발 이전까지 불안한 평화 상태를 유지해 나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듯 제국방어 군사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동방문제는 언제나 미해결의 상태로 남아 있었다. 이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파르티아와 관련되어 있는 아르메니아왕국, 그리고 유대문제가 우선적으로 정리되어야 했다. 두 문제 모두 결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니었으며, 율리우스-클라우디우스 왕가의 역대 황제들이 모두 골머리를 앓았던 문제였다. 네로 황제에 이르러 이러한 제국방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두 가지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였다. 54년 네로 황제 초기 로마제국에 새로운 위기가 찾아왔다. 파르티아의 공세적인 국왕 볼로게세스 1세(Vologeses I)가 예전의 역사를 들먹이며 아르메니아를 침입하여 형제인 티리다테스 4세(Tridates IV)를 왕으로 추대하여 친(親)파르티아 국가로 만들었다. 이에 네로 황제는 신속하게 저지 게르마니아 지역에서 성공적인 군사령관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코르블로(Cn Domitius Corbulo)를 급파하였다. 하지만 그의 신분은

12) F. Millar, op. cit., pp.37~38, 187~188.

카파도키아 및 갈라키아의 총독일 뿐이었다. 당시 근동지역의 모든 지휘권은 시리아 총독에게 있었으며, 그가 인근의 모든 지역을 관할하는 군사 작전권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시리아 총독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적 지휘체계는 코르볼로와 시리아 총독인 콰드라투스(Quadratus)로 양분될 수밖에 없었다. 요컨대 지휘체계의 혼란에 따라 즉시 전쟁에 투입될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다.<sup>13)</sup>

이에 코르볼로는 실제 전투 운용이 가능한 병력이 준비될 때까지 상황을 관망하였다. 양국이 모두가 정치 및 군사적 이유로 전투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로마의 입장에서 황제와 코르볼로 사이에 전략의 변화가 있으리라 예상되었다. 하지만 별다른 소식은 없었고, 이에 3년이 지난 58년에 이르러서야 아르메니아로 진격할 수 있었다. 파르티아 군대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과 대규모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었다. 몇 번의 소규모 전투가 치러진 이후 파르티아가 내세웠던 아르메니아 국왕 티리다테스가 아르메니아 수도인 아르탁사타(Artacsata)를 떠났다. 코르볼로는 별다른 군사적 손실 없이 소규모 전투와 협상을 통해 전쟁을 마무리하면서 친(親)로마 성향의 티그라네스 5세(Tigranes V)를 아르메니아 왕으로 추대하였다. 파르티아와 관련된 변경선 전투에서 잠시 동안의 평화를 얻은 셈이었다.

파르티아와의 본격적인 전쟁은 로마가 내세웠던 아르메니아 국왕 티그라네스 5세의 메디아(Media) 침공이 그 원인이 되었다. 메디아는 파르티아의 전통적 동맹국으로 아르메니아의 침공을 묵과할 수 없었다. 62년 파르티아의 블로게세스는 네로 황제가 코르볼로를 위해 파견한 모이시아 및 마케도니아 군단을 붕괴시키고 항복을 받아냈다. 이에 코르볼로는 시리아 총독으로서 파르티아 전쟁 수행을 위한 전권을 수임 받아 파르티아와의 일전을 준비하였다. 코르볼로는 제3 갈리카(III Gallica), 제5 마케도니아(V Macedonica), 제6 페라타(VI Ferrata),

13) F. Millar, *op. cit.*, pp.65~66.

제15 아폴리나리스(XV Apollinaris) 군단을 포함하여 발칸 및 이집트에서 파견된 기병과 보조군을 이끌고 카파도키아(Cappadocia)의 유프라테스 변경선을 넘었다. 이러한 외형적인 대규모 군사적 시위가 진행되면서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 또한 모색되고 있었다. 63년 전략에 능했던 코르볼로는 교섭을 통해 파르티아의 블로게세스에 대해 아르메니아에서의 로마의 수위권을 인정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는 파르티아를 비롯한 아르메니아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되었다. 이에 대한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그곳에 대한 로마의 직접적인 행동이 요구되었다. 이를 해결하는 방책으로 네로는 파르티아에 대한 점진적 포위 정책을 채택하였다. 남서부의 아덴지역을 로마의 군사적 강력한 거점으로 삼았으며, 잔지바르(Zanzibar)를 점령하여 해군 기지로 구축하였고, 흑해연안에 해군 순찰대의 창설 및 카스피 해안 북부와 동부의 월정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sup>14)</sup>

한편, 66년 유대지역에서는 그동안 잠복되어 대규모 반란이 발생하였다. 유대전쟁은 로마제국의 동방정책이 어떠한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세력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었던가를 보여주었다. 유대전쟁의 원인은 수많은 학자들의 연구가 있었고<sup>15)</sup>, 이에 대한 직접적 사료는 요세푸스의 <유대전쟁사>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유대전쟁의 깊은 원인은 유대교와 기독교 간의 내부적 분열, 로마황제의 문화정책, 로마 총독의 재정정책 등 로마제국 안에서의 유대의 특수성을 들고

14) Josephus, 박정수 역, 앞의 책, II. 1-4, 175~187쪽.; F. Millar, op. cit., pp.67~68.

15) M. Goodman, "The First Jewish Revolt: Social Conflict and the Problem of Debt", *Journal of Judaic Studies* 33, 1982.; L. Francis, "The Anti-Roman Revolts of the Jews and the Galileans", *The Jewish Quarterly Review*, New Series Vol. 68, no 2(Oct., 1977); Z. Solomon, "The Sicarii and Masada", *The Jewish Quarterly Review*, Vol. 55, no 4(Apr., 1967); ----, "Who were the Galileans?", *The Jewish Quarterly Review*, Vol. 64, no 3(Jan., 1974); 박양규, 「제1차 유대전쟁(AD66-70)의 원인연구」(고려대 석사논문, 2008); 김시열, 「제1차 유대전쟁이 기독교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웨스트민스터 신학대 석사논문, 2002); 이주현, 「헤롯과 유대교 분파-유대전쟁에 관한 연구」(광신대 석사논문, 2006) 등.

있다.<sup>16)</sup> 정치, 문화, 종교적 측면에서 그리스인과 유대인 사이의 깊은 갈등이 잠재되어 있는 가운데 카이사레아(Caesarea)시에서 그리스인들이 유대인을 공격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항의하였고 사태는 점점 험악해졌다. 이에 대한 로마당국의 대처는 미온적이었고, 사태는 견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었다. 이에 로마 황제는 시리아 총독 케스투스 갈루스(Cestus Gallus)에게 휘하 군단을 동원하여 진압케 하였다. 그는 카이사레아, 안티파트리스(Antipatris), 리다(Lydda)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진격하려 하였으나 오히려 강한 저항에 부딪쳐 철수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로 인해 반란은 모든 지역으로 확산되는 촉진제가 되었다.<sup>17)</sup> 이에 대해 네로황제는 시리아 총독 리키니우스 무키아누스(Licinius Mucianus)와 브리타니아에서 맹위를 떨친 베스파시아누스(Flavius Vespasianus)를 전쟁의 책임자로 임명하였다. 67년 6월까지 시리아를 기점으로 예루살렘 원정군이 재정비되었다. 원정군은 베스파시아누스의 제15 아폴리나리스(XV Apollinaris), 제5 마케도니아(V Macedonia), 제10 프레턴시스(X Fretensis) 등 3개 군단, 무키아누스의 3개 시리아 주둔군, 콤마게네의 안티오쿠스 4세, 이멧사의 소에무스 등의 보병 2,000명, 기병 1,000명, 아라비아 말쿠스의이 보병 5,000명, 기병 1,000명 등 총병력이 대략 60,000명에 이르렀다.<sup>18)</sup>

한편, 갈릴리 지역은 이방인들로 포위되어 있었음에도 적의 침입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다른 곳에 비해 토지가 비옥했으며 많은 가축들이 있었다. 여러 도시가 세워졌고 주민수도 최소한 15,000명 이상을 유지했다.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주민을 모아 적을 대적할 수 있을 정도의 군대를 조직하고 있었다.<sup>19)</sup> 그렇지만 로마제국 군대는 67년 갈릴리 지역을 거쳐 68년에는 예루살렘을 제외하고 유대의 거의 모든

16) Josephus, 김지찬 역, 앞의 책, 623~645쪽.

17) F. Millar, *Top. cit.*, pp.70~71.

18) F. Millar, *ibid.*, p.72.

19) Josephus, 박정수 역, 앞의 책, III. 3, 308~309쪽.

지역을 정복하였다. 9월 네로 황제의 죽음에 따라 예루살렘 정복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전투는 거의 1년 동안 지속되었고 최후로 예루살렘과 헤롯대왕이 축조한 헤로디움(Herodium), 마사다(Masada), 마흐레루스(Machaerus) 3개 요새만이 최후의 저항지로 남게 되었다.<sup>20)</sup> 최후의 결전을 앞에 두고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가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집트에서 황제의 선서가 이루어졌다. 베스파시아누스의 황제 추대는 동방지역에서의 정치적 통합을 위한 중요한 단계의 진일보를 의미했다. 카에사레아(Caesarea)에서 자신의 군단에 의해 먼저 황제로 추대되었고, 이에 따라 제국에서 안티오크의 중요성이 더해졌다. 베르리투스(Berytus)에서 시리아 총독인 무키아누스의 충성도 받았다.<sup>21)</sup>

이로써 로마제국은 안정을 되찾았고, 남은 과제는 예루살렘을 어떻게 정복하느냐에 있었다. 그에 대한 책임은 그의 아들 티투스(Titus)에게 맡겨졌다.<sup>22)</sup> 예루살렘 정복을 위한 병력규모는 로마제국 전체 병력의 1/7에 해당될 정도로 많았으며, 70년 4월~11월까지 동원되었다. 여기에서 강조되어야 할 사항은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로마제국의 속주 혹은 종속왕국 상태에 있던 그 어떤 민족이나 국가에서 제국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최소한 로마제국에 도전하는 민족주의 운동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함락된 예루살렘에는 제10 프레틴시스(X Fretensis) 군단이 약간의 기병대와 보병대와 함께 거의 2세기 동안 주둔해 있었으며, 총독은 법무관을 지낸 원로원 계층이 임명되었다. 속주총독 및 군단사령관으로서의 이중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다.<sup>23)</sup> 이러한 예루살렘의 위상은 로마제국의 근동지경의 변경선 방어와 관련되어 제국의 군대주둔에 있어 일정한 변화를 촉발시켰다. 군대를 주둔시킬 것인가의 변수는 지역적인 반란의 유무였다.

20) Josephus, 박정수 역, 위의 책, III. 3, 309~310쪽.

21) Josephus, 박정수 역, 위의 책, IV. 6, 96쪽.

22) Josephus, 박정수 역, 위의 책, IV. 6, 101~102쪽.

23) Josephus, 박정수 역, 위의 책, VII. 1, 251~252쪽.

이러한 의미에서 유대는 최소한 점령군으로서 군대의 주둔을 필요로 했던 것이다.

### 3.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부터 트라야누스 황제까지: AD69~117

#### 1) 베스파시아누스의 새로운 근동정책

유대전쟁을 비롯한 동방지역에서 여러 경험을 했던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는 전임자들의 수동적 방어 정책의 근본적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변경선 정책을 취하기 시작하였다. 동방지역의 변경선은 제국의 서방 및 북방지역과는 달리 자연적인 방어선이 존재하지 않았다. 시리아에서 흑해연안까지 사막지역으로 이어지는 변경선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파르티아와 접하고 있는 아르메니아에 대한 안정적 관리가 필요했다. 아르메니아에 친(親)로마적 성격의 인물을 국왕에 앉혀 주변의 여러 종속왕국들과의 친선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로마에 대한 적대행위 방지 및 파르티아의 팽창주의를 견제하고자 했던 것이다.

황제의 이러한 정책 배경에는 제우그마(Zeugma), 사모사타(Samosata), 멜리테네(Melitene)에 등 유프라테스 중상류 개방된 지역의 변경선을 방어할만한 로마군단이나 파견부대가 거의 존재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방지역에서 독자적인 작전권을 갖고 있던 시리아 주둔군 또한 기동성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했던 것이다.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는 이러한 동방지역에서의 군사상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단순한 군사적 동원 외에 외교수단을 활용하였다. 당시 동방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파르티아와의 상대적인 평화를 유지코자 했던 것이다.

이를 위해 황제는 동방지역의 속주체제 및 군단 주둔지를 변경하였다. 전쟁을 통해 정복된 유대에는 법무관급 원로원 출신 이상의 군사령관이 통치하는 속주가 되었다. 콤마게네(Commagene)는 종속왕국(dependent kingdom)으로서 시리아 속주로 편입되었고, 오론텐스(Orontes) 상류와 초원지역으로 확장한 에멧사의 소헤무스(Sohaemus of Emesa) 왕국과 팔미라 또한 시리아 속주로 편입되었다. 또한 카파도키아(Cappadocia)가 동방의 황제속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제12 풀미나타(XII Fulminata) 군단을 멜리테네(Melitene)에 그리고 새롭게 창설된 제16 플라비아(XVI Flavia) 군단을 사탈라(Satala)에 주둔시켰다.<sup>24)</sup> 이러한 두 군단을 기반으로 유프라테스강을 둘러싼 변경선을 상류지역에서 콤마게네를 거쳐 제우그마까지 확대하였다. 요컨대 사탈라(Satala)~멜리테네(Melitene)~사모사타(Samosata)~제우그마(Zeugma)로 이어지는 변경 지역에 제국의 주요 군사주둔지를 형성했던 것이다. 이러한 군단 주둔의 재조정은 군사전략적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그렇지만 정착 콤마게네는 73년 이전까지 여전히 종속왕국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는 로마제국의 동방정책의 기본전략을 반영한 것으로 종속왕국 체제를 유지하면서 군사적 전진기지(bridgehead)를 통한 지역별 통합형태의 방어체제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유프라테스강 양쪽으로 오른쪽에는 로마의 종속왕국으로 콤마게네(Commagene)와 그의 수도 사모사타(Samosata), 다른 쪽에는 여전히 파르티아 통제 하에 있던 오스로에네(Osrhoene)와 그의 수도 에멧사(Edesa)가 위치하고 있었다. 이 지역은 비옥한 초승달(fertile crescent) 지역으로 인구가 밀집되어 있었으며, 73년 이후 오른편의 제우그마에서 사모사타 사이의 영토가 로마제국에 편입되었다. 이러한 북쪽지역과 달리 유프라테스 남부지역에는 로마의 통제가 어느 정도까지 미치고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75년 팔미라 동북쪽으로 27km 떨어진 아르악(Arak)에 시리아 총독 트라야누스(Ulpianus Trajanus)가

24) F. Millar, op. cit., pp.80~81.

세운 군사 이정표는 어느 정도의 실마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sup>25)</sup> 이를 기점으로 가도는 오레스사(Oresa)~레사파(Resafa)~수라(Sura)~칼리니쿰의 발릭(Balikh)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초원지대의 이러한 가도가 오늘날의 국경선과 같은 변경선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 2) 트라야누스 황제의 팽창주의: 1차 대(對)파르티아 전쟁(113~117)

최초의 속주 출신 황제였던 트라야누스(Marcus Ulpius Traianus)는 베스파시아누스와 티투스 휘하에서 유대전쟁에 참여했던 부친의 영향을 받아서일까 동방지역에 대한 공세적 입장을 취하였다.<sup>26)</sup> 로마제국의 주요 방어선이 라인-다뉴브 강을 경계로 한 북방한계선이었지만 동방의 시리아 속주 또한 파르티아 제국과 유프라테스 강을 경계로 제국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변경선이었다. 트라야누스는 히스파니아, 게르마니아 지역의 사령관직을 수행하면서 황제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암살이라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황제에 오른 네르바(Nerva)는 이미 70을 넘기고 있었다. 네로 암살 이후 내전을 경험했던 그는 후계를 신속히 지명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고, 이러한 가운데 고지 게르마니아 사령관으로 재직하고 있던 트라야누스가 정치 전면에 등장하였다.

네르바 생존 당시 공동 황제로서 트라야누스는 게르마니아와 다뉴브 강을 잇는 ‘게르마니아 방벽’을 통한 제국방어 체제를 구축한 경험을 통해 라인강의 중류와 하류에 이르는 방어체제를 구축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것은 네르바의 급속한 사망으로 좌절되었고, 이는 이후 진행될 다키아와의 치열한 전쟁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101년부터 106년까지 진행되었던 대(對)다키아(Dacia) 전쟁은 로마제국 황제의 입장에서

25) G. W. Bowersock, "Syria under Vespasian", *JRS* 63, p.133.

26) 유대전쟁 시 부친은 제10(X Fretensis) 군단을 지휘하고 있었다. F. Heichelheim, 김덕수 역, 앞의 책, 685쪽.

제국의 지역방어가 얼마나 주요 관심사였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로, 로마 황제가 직접 지휘했던 전략상 가장 큰 규모의 원정중의 하나였다. 다뉴브강을 따라 주둔했던 7개 군단, 라인강 주둔군 2개 군단 등 군단 병 8만 명과 보조군 7만 명을 합하여 총 15만여 명이 동원되었다. 하지만 다키아 국왕 데케발루스(Decebalus)의 완강한 저항에 그 지역에 대한 정복은 쉽지 않았다. 일정한 휴전기를 거치며 전력을 재정비한 황제는 다시금 침공하여 데케발루스의 자살을 이르게 하였고 다키아를 속주로 병합하였음은 물론 그의 수도 사르미제게투스사(Sarmizegethusa)를 로마의 식민지(Ulpia Traiana)로 만들었다.<sup>27)</sup> 이로서 로마제국의 입장에서 가장 골치거리였던 라인-다뉴브 변경선을 안정화시켰던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동방지역이었다. 트라야누스 황제는 다키아와의 전쟁처럼 대(對)파르티아 전쟁을 구상하였다. 로마와 파르티아와의 관계는 시오노 나나미가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sup>28)</sup> 서방의 그리스 로마 문명과 동방의 페르시아 문명의 관계라 할 수 있다. 다키아 전쟁이 끝난 7년 후 트라야누스는 다시금 파르티아를 상대로 전쟁을 개시하였다. 유대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파르티아가 로마에 대해 그 어떤 군사적 행위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원군을 보내주겠다고 제안했던 사실을 감안하면 그들은 로마에 대해 평화를 원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파르티아에 대해 트라야누스 황제가 전쟁을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다는 사실은 로마가 얼마나 그들을 잠재적인 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짐작케 한다. 역으로 로마제국의 입장에서 제국의 변경선을 얼마나 안정화시키고자 했던가를 가늠케 한다.

트라야누스 황제의 파르티아 전쟁은 아르메니아 왕국과 관련되어 있었다. 파르티아의 왕 파코루스(Pacorus)가 친(親)로마적 성향을 보이고 있던 아르메니아 왕 트리다데스(Tridades)가 죽은 이후 자신의 아들인 악시달레스(Acidales)를 아르메니아 왕위에 앉혔던 것이다. 이후

27) F. Millar, op. cit., pp.272~273.

28) 시오노 나나미, 『로마인 이야기9』, 190쪽.

110년 파코루스가 죽은 다음 파르티아 왕위가 그의 동생 코스로이스(Chosroes)로 이어졌는데, 그가 당시 아르메니아 왕으로 있던 악시달레스를 폐위시키고 동생인 파르타마실리스(Partamasilis)를 왕으로 임명했던 것이다. 이는 아르메니아에 대한 파르티아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이러한 사실이 로마에 그 어떤 사전 통보도 없이 이루어졌던 것이다.<sup>29)</sup> 이에 대한 트라야누스의 반응은 신속했으며, 이를 계기로 그간 누적되어 있던 대(對)파르티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113년 가을 트라야누스 황제는 카파도키아 2개 군단, 시리아 3개 군단, 유대 1개 군단, 아라비아 1개 군단, 라인 군단 1개, 다뉴브 군단 2개 등 총 10개 군단의 약 5만 5천여 명과 이와 거의 동일한 수의 보조군 등을 합쳐 총 11만여 명의 병력을 동원하였다. 원정 중에 이미 구축되어 있던 아피아 가도와 트라야나 가도가 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였다. 114년 봄 트라야누스는 원정의 전초기지인 안티오키아를 떠나 유프라테스 상류 지역인 멜리테네(Melitene)로 진군하였고, 이후 더욱 북상하여 사탈라(Satala)에 이르러 다뉴브 군단과 합류하였다. 이곳에서 트라야누스 황제는 아르메니아와의 접경 도시인 에레게니아(Eregeia)로의 진군을 명하였고, 그 결과 카파도키아와 아르메니아를 통합하여 속주화하였으며 총독으로 콘술을 지낸 세베루스(Catilius Severus)를 임명하였다.

이를 시작으로 전쟁에 동원된 로마군은 아르메니아 전역으로 흩어져 주요 도시에 대한 정복을 개시하였다. 주요 도시인 니시비스(Nisibis), 메소포타미아 북부 여러 지역과 티그리스 강을 넘어 아르탁사타(Artacsata)를 경유하여 카스피해까지 이르렀다. 이후 116년 티그리스 강을 따라 남하하여 파르티아 왕국의 수도인 체시폰(Ctesiphon)을 향하여 큰 저항 없이 함락하여 로마제국의 황제로 처음으로 그곳에 자신의 흔적을 남긴 황제로 기록되었다. 이에 그는 북쪽의 카스피해를

29) F. Millar, op. cit., pp.90~93.

기점으로 티그리스 강을 따라 체시폰을 잇고 유프라테스 하류를 따라 홍해로 이어지는 명목상의 변경선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파르티아 제국은 로마와 같은 중앙 집권적 통치 구조를 갖고 있지 않았다. 지방 귀족들의 연합 형태로 왕을 선출하고 그에게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는 소위 지방 분권적 국가체제였던 것이다. 이에 트라야누스 황제가 안티오키아로 귀환하였을 때 정복되어 있던 지방 귀족들의 반란으로 다시금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이후 또 다른 원정의 시발을 알리는 신호였다. 이처럼 로마제국의 근동지역에 대한 정복활동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나갔으며, 그 면적은 대략 BC 31년 악티움 해전 당시에 비해 두 배에 이르렀다. 타우루스 산맥에서 출발하여 남쪽의 헤자즈(Hedjaz)에 이르는 산악과 초원의 경작 가능한 모든 지역, 그리고 유프라테스 상류에서 아락(Arak)에 이르는 자연적 장벽을 아우르고 있다. 이처럼 트라야누스 통치는 로마제국의 영토적 팽창에 있어 절정에 이르렀다.

대(對)파르티아 전쟁은 로마제국이 제국주의적 팽창을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사례가 되었다. 이는 로마제국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추구했던 오리엔트 세계에 대한 팽창적인 정복의 일환으로, 근동지역에서 종속왕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재정립코자 하는 징표였다. 원정을 위한 병력이 소집되었다. 제4 스키타아(IV Scythia) 군단은 제우그마(Zeugma)에서, 제16 플라비아 피르마(XVI Flavia Firma) 군단은 사탈라에서, 제VI 페라타(Ferrata) 군단은 사모사타에서, 그리고 제X 프레틴시스(Fretensis) 군단은 예루살렘에서 이동하였다. 더욱이 모이시아 주둔군 제11 클라우디아(XI Claudia) 군단이 원정군에 동참하였으며, 해군은 시리아 함대뿐만 아니라 미세눔, 라벤나 함대까지도 동원되었다. 원정의 경로는 육로인 경우 발칸반도-소아시아-양카라-킬리키아-시리아 관문을 통과하여 유프라테스강을 따라 파르티아의 수도였던 크테시폰으로 향해 나갔으며, 해로인 경우 소아시아 속주에서 출발하여 리키아를 거쳐 셀레우키아로 향했다. 해군의 도움을 받아 로마군단은 유프라테스 강을 도하해서도 계속하여 작전을 펼칠 수가

있었다.<sup>30)</sup> 전쟁의 결과 확대된 제국을 통제하기 위해 제2의 수도로서 안티오크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황제는 얼마간 그곳에 머물다가 소아시아를 거쳐 양카라와 발칸반도를 통해 로마로의 귀향길에 올랐다.

#### 4. 하드리아누스 황제부터 세베루스 황제까지: AD118~200

##### 1)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동방지역 순회 및 유대반란(132~135)

트라야누스 황제가 귀향하는 과정에서 들었던 동방지역에서의 동시다발적인 반란은 그를 무척이나 힘들게 하였다. 3년에 걸친 원정은 60세를 넘긴 황제에게 무리한 일이었고 로마로 귀환하는 도중에 숨을 거두었다. 이 소식이 안티오크에 있던 하드리아누스(Imperator Caesar Trajanus Hadrianus Augustus)에게 전해졌다. 시리아 주둔군은 그를 황제로 선포하였고, 이어 원로원의 공식적인 선포가 이어졌다. 하지만 그에게 남겨진 과제는 만만치 않았다. 유대반란, 브리타니아 원주민 반란, 마우리타니아족 반란, 사르마티아족 반란 등 서방 및 동방지역을 아우르는 제국의 곳곳에서 발생한 반란진압이 시급한 과제로 남겨져 있었다.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군사령관 마르키우스 투르보(Marcus Turbo)를 중용하였다. 그는 먼저 현재 진행형이었던 파르티아와의 전쟁을 수습해야만 했다. 하드리아누스는 트라야누스의 확장정책이 현시점에서 지속할 수 없음을 간파하고 내키지는 않았지만 파르티아 전쟁 이전의 상태로 사태를 매듭짓고자 했다. 티그리스강 동부 지역을 포기하고 아르메니아를 다시금 로마의 종속왕국으로 되돌렸던 것이다.

30) F. Millar, *ibid.*, pp.101~103.

그는 황제 재위기간 2/3 이상을 제국을 순회하는데 할애하였다. 그는 제국의 안전보장과 안정된 속주통치를 위해 변경지역을 직접 확인하고자 했다. 121년 이후 그는 갈리아, 라인지방, 브리타니아, 히스파니아, 시칠리아, 그리스를 순회하였고, 126년 카르타고를 거쳐 북아프리카 지역, 128년 이후 안티오키아, 알렉산드리아, 에페소스, 페르가몬 등 동방지역과 소아시아 지역을 순회하였다. 순회하는 동안 불안정한 변경선 회복, 각종 평화조약, 신전건립, 새로운 식민지 건설 등 제국을 위한 황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다. 그의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제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군사적 필요성에 의한 것이었다. 순행 그 자체가 그의 독특한 통치행위이자 수단이었던 것이다.

순행의 막바지에 그는 바르 코크바(Bar Kochba)와 벤 코시바(Ben Kosiba)의 지휘 하에 유대에서 반란이 발생하였다는 소식을 접하였다. 로마군에 대항하여 유대인들은 게릴라전으로 맞섰다. 이 전쟁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주장들이 교차하고 있다. ① 유대인들의 자유와 구원에 대한 열망 속에서 바르 코크바를 메시아로 보았다는 주장, ② 로마점령에 의해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로마 식민지인 아에리아 카피톨리나(Aelia Capitolina)를 세우고 유대인 성전에 주피터(Jupiter) 신전을 세우도록 명한 하드리아누스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 ③ 로마의 식민도시 건설과 유대인들의 할례를 금지시킨 하드리아누스의 친(親)그리스 정책, ④ 퇴역병들의 거주지와 전통적 교통 요충지로서 예루살렘에 로마 식민도시를 건설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 등 다양하게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다.<sup>31)</sup>

132년 바르 코크바(Bar Kochba) 반란소식을 접한 황제는 급히 시리아로 이동하여 브리타니아, 이집트 등 인근의 속주 주둔군을 소집

31) H. Mantel, "The Causes of the Bar Kochbar Revolt", *The Jewish Quarterly Review*, New Series, Vol 58, No. 3(Jan., 1968), pp.226~230; B. Issac, *The Limits of Empire*(Oxford, 1992), pp.104~106; 반기현, 「하드리아누스의 유대정책과 바르 코크바 전쟁의 원인」, 2010, 50~51Whr.

하여 진압군을 편성하였다. 개방성이라는 유대지역의 지정학적 특징에 따라 반란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신속한 처리가 필요했다. 율리우스 세베루스(Julius Severus)를 브리타니아에서 급히 소환하여 사령관의 임무를 맡겼다. 유대지역의 제10 프레틴시스(X Fretensis)와 제6 페라타(VI Ferrata), 이집트의 제22 다이오타리아나(XXII Deiotariana), 카파도키아의 제12 풀미나타(XII Fulminata), 시리아 총독인 마르셀루스(Marcellus) 휘하의 제3 갈리카(III Gallica), 제5 스키티카(V Scythica), 제3 키레나이카(III Cyrenaica) 군단 등 총 7개 정규군단과 비슷한 규모의 보조군이 투입되었으며, 그밖에 다키아, 라인-다뉴브 변경선과 이집트 등에서 크고 작은 보조군과 혼합군을 합쳐 전쟁에 투입된 병력은 총 10만여 명에 이르렀다.<sup>32)</sup>

전쟁의 진행과정은 소규모 부대를 중심으로 게릴라전을 구사하여 상대방을 서서히 몰아갔다. 느리지만 철저하게 적으로부터의 위협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소수만이 남아 최후의 결전지역으로 나갔다. 최후의 결전은 베타(Bethar)에서 있었고, 반란의 주모자인 바르 코크바의 죽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다. 전쟁의 결과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에서 추방하고 출입을 금지시켰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팔려나갔다. 말 그대로 유대인의 디아스포라가 진행된 것이다. 속주의 명칭 또한 유대에서 시리아 팔레스티나(Syria Palaestina)로 변경되었고 로마 식민시 아에리아 카피톨리나(Aelia Capitolina)가 건설되었다.

이후 황제는 유대지역을 포함한 근동지역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군사 요새지마다 군단을 주둔시켰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동방지역에서 로마제국의 변경정책은 거의 완성되었다. 즉 유프라테스 북쪽 지역을 경계로 사모사타(Samosata)와 제우그마(Zeugma)에 제16 플라비아 피르마 군단(XVI Flavia Firma)과 제4 스키티카(IV Scythica) 군단을, 시리아 팔레스티나의 라판네아에 제3 갈리카(III Gallica)

32) F. Millar, op. cit., pp.106~108.

군단을, 예젤(Jezeel)에 제10 프렌텐시스(X Fretensis)을, 카파르코티나(Caparcotna)에 제6 페라타(IV Ferata) 군단을 그리고 아라비아의 보스트라에 제3 키레나이카(III Cyrenaica) 군단을 배치하였다.<sup>33)</sup> 동방지역에서 이러한 로마 주둔군의 재배치는 로마제국의 제국주의적 팽창정책의 결과라 할 수 있으며, 황제의 정치적 안정을 위한 중앙 집권적 변경정책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불안정하게 남아 있던 동방지역에서의 확고한 변경선을 다시금 확인시켜줌으로써 제국의 안정된 방어 전략을 정립하고자 했던 것이다.

## 2)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2차 파르티아 전쟁(161~165)

로마제국의 상대적 평화기였던 안토니누스 피우스(Antonius Pius, 138~161)시대를 지나 철인정치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Marcus Aurelius, 161~180)는 후대의 역사적 평가와는 달리 제국에 많은 난제들을 안고 있었다. 전임자와는 달리 새로운 출발을 위한 강력한 변경정책을 추구하고자 황제는 재위 초기부터 위기를 맞게 된다. 로마에 불어 닥친 기근과 홍수, 지진, 갈라티아의 가뭄, 브리타니아 반란, 라인 변경선의 위협, 동방지역에서의 전운 등 제국의 서방과 동방을 막론하고 총체적인 위기가 불어왔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파르티아의 위협에 맞서 공동 황제 루키우스 베루스(Lucius Verus)를 파견하였고 그 자신은 서방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sup>34)</sup> 제국의 국방과 행정의 부담을 공동 황제가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바르 코크바 반란 종식 이후 동방지역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하드리아누스 황제에 의해 구축된 방어선을 통해 불안정했지만 평화가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파르티아의 볼로게세스 4세가 들어섬에 따라 로마제국과 새로운 긴장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33) F. Millar, *ibid.*, *Near East*, p.108.

34) F. Millar, *ibid.*, pp.111~112.

분쟁의 발단은 파르티아가 아르메니아를 재차 침범함으로써 야기되었다. 아르메니아에 대한 로마의 전통적인 정책은 동맹국으로 친(親)로마적 인물을 왕위에 앉혀 파르티아를 견제하는 것이었다. 불안정한 상태였지만 두 제국은 이전의 전쟁 경험도 있고 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잘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균형상태가 깨진 것이다. 아르메니아로 진군한 파르티아는 수도인 아르탁사타(Artacsata)를 침공하여 친로마파 왕을 몰아내고 반로마파 파코루스(Pacorus)를 왕위에 앉혔다. 근동지역 방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던 시리아 총독 코르넬리우스(Cornelius)는 카파도키아 총독인 세다티우스 세베리아누스(Sedatius Severianus)에게 파르티아 침입의 방어임무를 부여하지만 그들을 막을 수는 없었다. 실패의 책임에 따른 그의 비극적인 자살 소식을 접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긴급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상황은 황제의 직접 출정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자신이 철인 황제임을 자처했지만 현실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로마군 최고 사령관으로서 제국방어라는 임페라토르의 임무를 충실히 받아들인 것이다. 63년 봄 아르메니아에 대한 로마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이를 지휘했던 사령관은 브리타니아에서 긴급 투입된 스타티우스 프리스쿠스(Stattius Priscus)로, 그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전력을 재정비하였다. 패배한 전력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승리의 주역들이 등장했다. 제1 미네르바 군단의 클라우디우스 프론토(Claudius Fronto), 제10 게미니나 군단의 게미니우스 마르키아누스(Geminus Marcianus), 제3 갈리카 군단의 아비디우스 카시우스(Abidius Cassius)가 바로 그들이다. 전쟁의 진행과정은 크게 3기로 구분되었다. 제1기(161~63년)는 아르메니아에 침공한 파르티아군을 몰아내는 과정이며, 제2기(163~65년)는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 파르티아 진영으로 반격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제3기(165~66년)는 제2기 승리를 발판으로 티그리스 강을 건너 파르티아 내부 깊숙이 진군하여 전쟁을 종결하는 과정이었다. 로마군은 각 단계별로 신속하게 군사작전을 성공적으로 전개하였고, 에벡사, 니시비스, 세레우키아 등 파르티아의 주요 지역을 점령하여 그들의 영향

하에서 벗어나게 하였다. 그리고 전쟁 막바지에 제3기의 전쟁은 단순히 침략당한 영토의 회복이 아닌 파르티아에 대한 철저한 응징의 성격이 강했다. 티그리스 강을 건너 수도인 크테시폰을 비롯한 파르티아 내부까지 깊게 침투하여 약탈과 방화를 자행했던 것이다. 이러한 로마의 행위는 동방지역에서의 로마제국의 위상을 그들에게 강하게 각인시키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로써 로마제국은 파르티아 전쟁을 통해 동방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각인시킬 수 있었으며, 이에 동방의 크고 작은 여러 나라들이 친파르티아가 아닌 친로마 정책을 펴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비록 전쟁이후 군사력의 배치 과정에서 이전의 트라야누스 황제와 같은 뚜렷한 변경선의 재설정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을지라도, 로마제국은 동방지역에서 그들의 헤게모니를 각인시켜 주기에 충분하였다. 이처럼 제2차 파르티아 전쟁은 실지회복 및 상대방에 대한 절대적 우위의 재확인이라는 소기의 정치적 목적을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황제의 입장에서 중앙통제적인 변경선 방어정책의 일환이었음을 확인시켜주는 전쟁이기도 했다. 또한 다른 측면에서 이 전쟁은 이후 동방지역에서 역사적 현실로 등장하는 사산조 페르시아가 흥기하는 원인(遠因)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

### 3) 셉티미우스 세베루스의 군대개혁과 3차 파르티아 전쟁(197~199)

셉티미우스 세베루스(Septimius Severus)의 황제 등극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친위대에 의해 추대된 디디우스 율리아누스(Didius Julianus)는 혼란스런 로마제국의 정국을 수습하기에는 너무도 연로하였다. 근위대에 의한 제위의 판매라는 모욕 속에서 로마 시민과 병사들은 시리아 총독 페스켄니우스 니게르(Pescennius Niger)를 황제로 추대하였고, 거의 같은 시기에 브리타니아에서는 클로디우스 알비누스(Clodius Albinus)가, 다뉴브 변경선의 판도니아

총독 셉티미우스 세베루스가 황제로 추대되었다.<sup>35)</sup> 가장 먼저 로마에 입성한 세베루스는 기존의 이탈리아 출신 근위대를 해산하고 휘하 병사들로 새로운 근위대를 창설하여 이를 자신의 정치적 배경으로 삼았다.

세베루스 황제 치세가 193년부터 시작되나 실질적인 통치의 시작은 197년 이후의 일이었다. 제위 초기 4년 동안은 황제로 추대된 경쟁자들을 몰아내는 과정으로 격심한 권력투쟁의 양상을 보였다. 먼저 페르케니우스 니게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알비누스와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었으며, 이로 인해 그에게 상당한 권력을 양보해야만 했다. 시리아와 이집트를 거점으로 격렬히 저항하던 니게르는 세베루스의 신속한 원정에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고 결국 안티오크가 함락되었다. 이로써 니게르가 제거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알비누스였다. 그는 세베루스 못지않은 정치적, 군사적 배경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인지 세베루스가 메소포타미아에서 파르티아왕 볼로게세스 4세와의 전쟁 중에 원로원에 자신을 황제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그의 행위는 세베루스로 하여금 동방원정을 중지하고 우선적으로 그와 제위를 둘러싼 일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케 하였다. 알비누스는 갈리아의 루그두눔으로 이동하여 자신을 지지하는 브리타니아, 라인군단 등 총 8개 군단을 동원하였다. 이에 맞서 세베루스는 자신을 따르는 다뉴브 군단을 위시한 총 12개 군단을 동원하여 알비누스의 본거지였던 루그두눔을 점령하였으며, 그를 지지하던 속주와 원로원 의원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하였다. 이후 권력의 원천을 원로원이 아닌 군대를 배경으로 삼았으며, 황제의 권위와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군대를 위시한 각종 개혁을 착수하였다.

그는 첫째, 원로원의 위상 하락과 그를 대신할 만한 군대에 관한 우대정책을 실시하였다. 소위 ‘군사전제정(military monarchy)’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그는 군대개혁을 단행하였는데, 제일 먼저 근위대를 개혁하였다. 전통적으로 이탈리아, 스페인, 마케도니아, 노리쿰 지역에서

35) 당시 니게르는 8개 군단, 알비누스는 7개 군단, 세베루스는 12개 군단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 F. Heichelheim, 김덕수 역, 앞의 책, 766~768쪽.

충원되는 근위대를 자신의 휘하에 있는 다뉴브 군단에서 충원하였다. 그 역할도 단순히 황제의 측근부대 기능뿐만 아니라 중앙상비군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로마의 제국방어 전략의 일대 전환을 꾀하였다. 둘째, 병사들의 병영생활 개선을 위해 음주와 혼인을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병영 내에서의 사고 및 클럽활동을 활성화하였다. 셋째, 군대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원로원 출신 지휘관들을 기사출신 지휘관으로 교체하여 자신의 정치수단을 강화하고자 했다. 넷째, 전역 후 병사들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병사들의 봉급인상은 물론 퇴직금을 인상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군사개혁 조치를 통해 세베루스는 자신의 정치적 역량과 그를 뒷받침해주는 강력한 지지 세력으로 활용하고자 했던 것이다.<sup>3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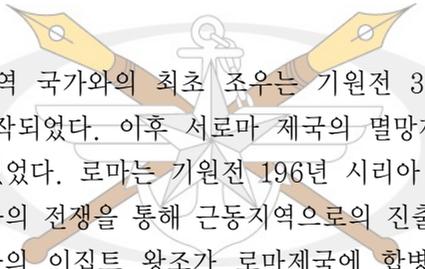
그렇다면 본 논문의 주요 관심지역인 동방에서의 황제의 군사정책은 어떠한가? 대외정책 분야에 있어 그는 제국주의적 중앙통제의 강력한 변경선 유지정책을 지향했던 이전 황제들의 노선을 따랐다. 이를 위해 원수정 이후 지속되었던 파르티아와의 전쟁 또한 재개하였다. 197년 세베루스 황제의 동방원정은 파르티아의 잠재적인 침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작되었다. 파르티아가 로마제국에 대해 또 다른 원정을 감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 비롯되었다. 군사력을 바탕으로 제위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황제가 되었다는 사실에서 비롯되었는지 제국 내에는 예방차원에서 진행된 이번 원정에 반대하는 그 어떤 세력도 존재하지 않았다. 전쟁은 이미 예상된 것처럼 큰 어려움 없이 유프라테스강을 넘어 파르티아 수도인 체시폰까지 진격하였다. 파르티아는 그들을 맞아 대적할만한 그 어떤 전력도 남아 있지 않았다.

이 원정은 단순히 세베루스 황제의 입장에서 자신의 정치적 통치행위의 필요성에서 비롯된 전쟁이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게 한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황제의 입장에서 보다 튼실한 현실적인 변경선

36) 참고, 앞의 책, 96~102쪽.

유지를 통한 중앙통제적 제국방어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황제의 의지가 자리잡고 있었다. 비록 아직까지는 황제의 확고한 의지에 따라 성공적인 전쟁수행이 가능했지만, 3세기 이후 역사적 현실로 나타나는 이민족의 동시다발적인 전쟁을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동방지역에서 전통적 강자였던 파르티아에 대한 로마의 일방적 승리는 그들을 대신할 새로운 왕조의 출현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후에 등장하는 사산조 페르시아는 로마제국에 있어 또 다른 시련의 시작을 의미했다.

## 5. 맺음말



로마와 근동지역 국가와의 최초 조우는 기원전 334년 알렉산더의 동방원정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서로마 제국의 멸망까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로마는 기원전 196년 시리아 셀류쿠스 왕실의 안티오쿠스 3세와의 전쟁을 통해 근동지역으로의 진출이 본격화되었으며, 클레오파트라와 이집트 왕조가 로마제국에 합병됨으로서 로마의 영향 하에 들어왔다. 이후 율리우스-클라우디우스 왕조시기에 점진적으로 근동과의 관계가 진전되어 서방의 변경선과 유사한 형태의 변경선을 구축하고자 노력하였다. 하지만 근동지역에는 로마제국보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소유한 파르티아 제국과 종교적, 인종적 독특성을 지닌 유대민족이 위치하고 있었다. 이러한 지역적 특징은 팽창기 로마제국과의 크고 작은 분열과 전쟁으로 표출되었으며, 이는 로마로 하여금 서방과는 또 다른 정치군사적 정책의 필요성을 요구하였다.

로마제국의 동방정책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대체적으로 방어적 성격의 군대 운용방식과 군단배치 상황을 들어 수동적 측면이 강조되어 왔다. 하지만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로마제국의 동방 진출은 대부분 능동적 팽창주의를 지향하고 있었다. 전쟁을 통해 새로운 영토를 확장할 경우, 로마제국에 반란을 꾀한 유대민족 토벌 시, 그들은 인접한

지역의 주둔군뿐만 아니라 관련성이 전혀 없는 서방의 군단마저 동원하는 총력전의 형태를 보였다. 전쟁의 실패를 용납하지 않았고 승리를 통해 헤게모니 국가로서의 위상을 각인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들의 군사적 행위는 언제나 적극적이었고, 공세적이었다. 율리우스-클라우디우스 왕조기 황제에 따라 간헐적으로 종속왕국을 통한 현상유지 정책을 지향하는 경향도 있었지만, 그것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으며, 이를 이은 플라비우스 왕조마저 중앙집중적 형태의 변경선을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군사행위를 마다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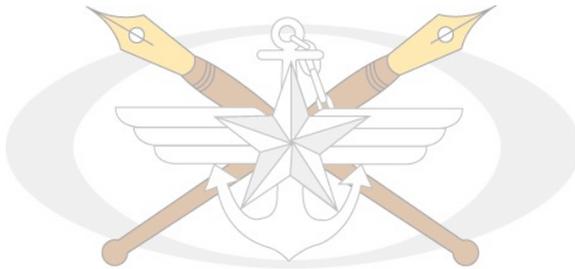
동방지역에서 로마제국의 이러한 제국주의적 전쟁은 동시대의 그 어떤 전쟁보다도 광범위하게 발생하였다. 로마는 원수정 성립 이후 끊임 없이 동방지역에서 중앙 통제적이며 튼실한 변경선을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그들은 크고 작은 전쟁을 피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그것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었다. 이로써 2세기 후반에는 파르티아 제국을 견제하기 위한 완충지대 체제가 사라지고, 그 지역의 신민들이 로마의 직접적인 통제하에 놓이게 되었다. 속주에서의 원활한 군사적 행위 및 상업 활동을 위해 새로운 가도가 건설되기도 했으며, 이는 동방지역이 개방적 초원지대로 게르마니아 방벽과 같은 유형적 변경선이 부재한 상황에서 그것을 대신할 용도로 사용하고자 했다.

본 논문은 3세기 이전까지 동방지역에서 일어났던 바로 이러한 개별적 사건과 전쟁을 살펴봄으로써 그 시대를 관통하는 일반적 경향성을 보고자 했다. 개별적인 역사적 사건이 각기 다른 상황과 배경 하에서 발생하듯이, 여러 황제들이 선택한 군사정책 또한 다양하게 나타났다. 즉, 왕조의 교체와 황제의 등극 과정에서 표출되었던 다양한 역사적 배경이 그들의 정책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로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황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지언정 3세기 이전까지 로마제국의 동방정책에 있어서는 어떤 일관성을 보이고 있는바, 그것은 바로 헤게모니를 바탕으로 하는 제국주의적 팽창주의 지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셉티미우스 세베루스 황제 이후 소위 ‘위기의 3세기’를

맞이하는 로마제국의 운명과도 무관할 수 없다. 위기의 3세기 이전까지 로마제국은 최소한 동방과의 관계에 있어 언제나 주도적인 입장을 취하고자 했던바, 이러한 경향은 황제의 개인적 관심과 상황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다.

(원고투고일 : 2013. 1. 1, 심사수정일 : 2013. 2. 19, 게재확정일 : 2013. 2. 25)

주제어 : 로마제국, 근동지역, 군사정책, 원수정, 유대전쟁, 제국주의, 파르티아 전쟁,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트라야누스



<ABSTRACT>

## The Military Policy of the Ancient Roman Empire against the Near East from 31 BC to AD 200

Cho, Young-si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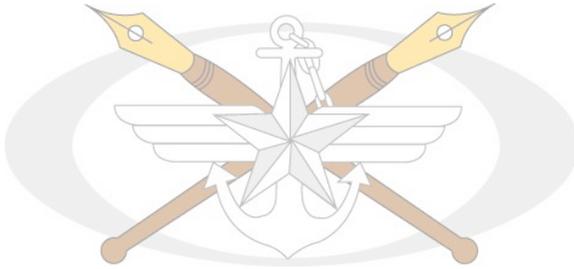
The existing researches on the policy of the ancient Roman empire against the near east argues that the policy was defensive in nature. But I would rather emphasize the policy was aggressive and offensive. When Roman emperors started the war with hostile countries near them, they mobilized their own forces stationed nearby as well as allied forces from far away country to stage the all-out war. They would not tolerate the failure in the war, but enhanced their pride through maintaining the hegemony by winning in the war. In this respect, they were always aggressive and offensive to win the war. Though the Julio-Claudian and Flavian dynasty had sustained intermittently peaceful period with the hostile neighboring countries, it was just a temporary period.

The Roman imperial wars with states in near east were fought in large areas than any other wars the Romans fought. Roman emperors tried to keep the strong boundaries tightly controlled by the central government. Since the latter part of the second century, the system of client-kingdom which served as buffer states to stop the Parthian Empire disappeared. the people in those areas were subject to the direct control of Rome.

This study shows the general tendency reflected in the individual incidents and wars in the near east during the Julio-Claudian and Flavian dynasty before the third century. As the individual historical incidents occurred under the different situations and backgrounds, the military policy adopted by the Roman emperors were diverse. The diverse historical realities at the times of the succession of each emperor played a key role in the policy making processes of the emperor.

Before the third century, with some differences in each emperor, there was consistency in Roman empire's near east policy. Roman empire, per se, maintained expansion of the empire based on keeping hegemony.

Key Words : Roman Empire, Near East, Military Policy, Principatus, Imperialism, Jewish War, Parthia Conflict, Octavianus, Antonius, Trajanus.



# 20세기 초 미 육군 개혁과정

- ‘개혁 정체 및 후퇴기(1904~1909)’를 중심으로\* -

설 인 효\*\*

1. 서 론
2. 대외관계와 국내정치
3. 군 개혁의 정체 및 후퇴 원인
4. 정규군 및 총참모부 개혁의 전개
5. 주방위군 개혁의 전개
6. 결론 및 함의

## 1. 서 론

20세기 초까지 미국은 대규모 정규군의 건설과 미국 전역을 포괄하는 군사동원체제의 수립을 거부하는 강력한 정치, 사회, 문화, 군사적

---

\* 본 논문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과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세기 초 미 육군 개혁과정: 반군사 전통의 극복과 수정』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으로 1899년부터 1916년에 이르는 ‘20세기 초 미 육군 개혁과정’ 중 1904년에서 1909년 사이의 과정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 연세대학교 정의과 BK21사업단 연구원(박사)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sup>1)</sup> 이러한 ‘반군사 전통(the Anti-Military Tradition)’<sup>2)</sup>은 독립 이전 식민시기부터 형성되어 20세기 초까지 100여 년 이상 지속되고 강화되어 온 것이다. 19세기 후반 기록적인 성장을 경험하면서 미국은 사회 전반의 큰 변화를 겪게 되었고, 1890년대 말 매킨리 행정부의 등장과 ‘미서전쟁(Spanish~American War)’의 결과로 19세기적 ‘농경공화국의 고립주의(the isolation of the agricultural republic)’에서 벗어나 해외 정치, 군사 사건에 적극 개입하고 다수의 식민지를 거느린 ‘명실상부한 제국(an empire true to the name)’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19세기 후반 남북전쟁 후 형성된 개혁 지향의 장교단은 이미 일련의 군 개혁을 단행한 바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시도는 대부분 전통적 반대에 부딪혀 실패하고 만다.<sup>3)</sup> 20세기 초 미 육군의 개혁이 비로소 성공을 거두게 된 계기는 미서 전쟁 이전부터 계속되었던 제국주의와 적극적 대외정책을 둘러싼 논쟁에서 미국의 새로운 역할과 해외로의 팽창을 주장해온 세력들이 정치적으로 승리한 것이었다. 이들은 식민지의 관리와 적극적인 대외정책의 지속을 위해 육군의 확대와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확신하고 있었다.<sup>4)</sup> 미 육군의 근대 개혁은 ‘신해밀턴

1) 설인효, “20세기 이전 미국의 군사전통: 반군사전통의 형성과 전개”, 『미국학』 제35집, 1호 서울대 미국학연구소, 2012, 149~189쪽

2) ‘반군사 전통(Anti Military Tradition)’은 군국주의(militarism)에 대한 반대를 의미하는 ‘Anti~militarism’과 다르며, 미주 대륙 내에서의 팽창이나 인디언에 대한 공격에서 나타나는 호전성의 존재를 부정하는 개념도 아니다. 이는 주로 군대의 구성방식과 동원체제의 수립에 관한 미국민의 특수한 정서를 일컫는 것으로 소위 ‘미국 예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의 군사적 측면이라 할 수 있다.

3) 설인효, 『20세기 초 미 육군 개혁과정: 반군사 전통의 극복과 수정』,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과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II. 예비적 고찰.

4) T. 루스벨트(Theodore Roosevelt)는 공화당 상원의원 롯지(Henry C. Lodge)에게 보낸 서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국가들 중 가장 뛰어난 국가들은 국가 스스로의 의지, 국가 자신의 국가로서의 권리와 국민들에 대한 책무를 가장 성실히 행하는 국가들입니다... 어떤 국가도 그 권한을 군사력으로 보장하지 않고는 결단코 이러한 위치에 오르지 없었습니다. Ronald J. Barr, *Neo~Hamiltonian Republican And Military Reform in the Progressive Era: 1898~1912*, Louisiana State University Ph.D. Dissertation, 1993, p.16에서 재인용.

주의자<sup>5)</sup>라 불릴만한 이러한 정치세력들의 후원과, 개혁을 지향해 온 장교단의 노력이 결합하여 비로소 결실을 보기 시작한 것이었다.<sup>6)</sup>

육군 개혁의 새로운 전기는 전쟁과 군사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은 갖추지 못했지만, 정치적 수완이 뛰어나고 개혁의 이면에 존재하는 정치적 대립 구조를 잘 이해하고 있던 새 전쟁성<sup>7)</sup> 장관 루트(Elihu Root)의 기용에 의해 마련된다. 개혁을 지향하는 장교단 인사들과의 교류를 통해 군 개혁의 기본 방향을 습득하게 된 루트는 군 개혁의 이면에 존재하는 정치적 대립 구조를 명확히 파악한다. 그 결과 그는 미국에서 군 개혁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전통과의 조화 추구, 대중적 인식의 확산, 정치적 투쟁과 타협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함을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루트는 개혁의 점진적 추구, 언론 보도를 통한 대중 여론의 선도, 전통적 요소의 적극적 수용, 새로운 논리의 제시에 의한 전통의 수정, 개혁 반대 세력과의 적극적인 타협 등, 19세기 후반 군 개혁가들이 갖추지 못했던 정치적 수완을 발휘하여 제도 개혁을 포함한 군 개혁의 1차적 과제들을 완수하게 된다.<sup>8)</sup>

그러나 20세기 초 미 육군의 개혁은 미국의 1차 세계대전 개입 전야인 1916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sup>9)</sup>, 루트가

5) '신해밀턴주의자(Neo-Hamiltonian)'란 헌팅턴(Samuel P. Huntington)이 처음 사용한 개념으로 19세기 후반 미국의 달라진 위상을 대변하며 해외 팽창의 필요성과 육군 개혁을 주장한 일련의 정치인 집단을 일컫는 것이다. 이들을 '신해밀턴주의자'로 명명한 이유는 이들의 주장이 흡사 건국 초기 적극적 대외정책을 표방했던 해밀턴(Alexander Hamilton)의 입장을 잇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 때문이다. Samuel P. Huntington, *The Soldier and the State: the Theory and Politics of Civil-Military Relations*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1985).

6) 육군의 개혁은 순수하게 장교단 내의 토의와 논쟁의 소산이기보다는 민간 정치인들의 작업의 결과였다. Huntington, 1985, pp.252~253.

7) War Department를 '전쟁성'으로 번역하는 것은 일본식 번역에서 유래한 것이며 '국무부' 등의 번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쟁부'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국내의 주요 문헌에서 대체로 2차대전 이전의 경우에는 '전쟁성'이라 번역하는 경우가 많이 이를 따랐음을 밝혀둔다.

8) 설인효, "20세기 초 미 육군 개혁과정: 개혁의 시작, 루트 개혁기(1899~1903)를 중심으로", 『미국학 논집』 제44집 3호, 한국 아메리카학회, 2012.

9) 20세기 초 미 육군 개혁과정 전체에 관해서는 설인효, 2012(박사학위논문)를 참고할 것.

성취한 개혁입법에 따라 총참모부(General Staff)가 수립된 1903년 말부터 1909년까지는 군 개혁이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많은 혼란과 정체, 후퇴를 경험한 시기였다. 이는 루트 개혁이 많은 불완전한 요소를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개혁 세력 내에서도 개혁에 대한 몰이해와 이해의 불일치가 상존했고, 무엇보다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의 저항이 강하게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sup>10)</sup> 상술한 바 1899년 이후 이루어진 루트 개혁은 전통과의 조화와 반대 세력과의 타협의 결과로 가능해진 것이었다. 루트의 이러한 정치적 수완은 오랫동안 불가능했던 제도 개혁을 실현했지만 개혁의 본의에서 벗어난 많은 한계와 향후 정치적 투쟁을 가능케 하는 모호한 영역을 남겼다.<sup>11)</sup>

군 개혁 세력 내의 이해의 불일치와 군 개혁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도 개혁의 본격적인 실행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었다. 대통령 T. 루스벨트는 전쟁성과 총참모부의 주요 요직에 자신과 친분관계에

10) Marc B. Powe, "A Great Debate: The American General Staff(1903~16)", *Military Review*, vol. 55, issue 4, 1975, p.78. 루트의 입법을 통해 육군 지휘체계의 효율성을 일신할 수 있는 새로운 틀/framework이 마련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제도적 변화가 하룻밤 사이에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전통, 관습, 대부분의 육군장교들과 의회 의원들, 미 대중의 시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American Military History*(Washington D.C.: United States Army, 2005), p.370. 총참모부는 처음에는 조직문제와 생존을 위한 투쟁에 열중할 수밖에 없었다. 이 시기의 참모총장은 (총참모부 내) 각국(Division)의 일반정책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방입하는 행정장교였다. 국무총리 비상기획위원회 역, 『미 육군 군사동원의 역사』,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History of Military Mobilization in the United States Army, 1775~1945*(CMH 104~10, 1984), p.222. 1910년에서 1911 이후에 총참모부가 동원개념의 실행을 위해 포괄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으며 그 이전의 모든 계획들은 정규군 예비부대의 창설, 새로운 지원법의 초안, 보급창의 설립 등 개별적인 문제에 국한되어 있었다.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84, p.224.

11) 이러한 모호성은 제도 변화 등의 이행기의 타협 전략의 일종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한 점에서 루트 개혁 이후의 정제 및 후퇴는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기존 제도를 변경하는 시기에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스크로넬은 이러한 루트의 타협전략이 남북 전쟁 후 정규군 장교단의 군 개혁 세력이 실패했던 군 개혁을 성취시킨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다고 평가한다. Stephen Skowronek, *Building a New American State: The Expansion of National Administrative Capacities, 1877~1920*(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p.221.

있는 인물들을 배치할 것을 고집하여 개혁의 수행을 어렵게 했다. 루트는 자신이 이룬 제도 개혁의 성과를 과신한 나머지 총참모부의 운행이 파행에 이르고 있음을 간파하지 못했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개혁의 실행을 위해 전면에 나서서 개혁 반대세력과 투쟁하고 개혁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개혁 실천 세력이 여전히 너무 부족했다.

그러나 개혁이 정체되고 후퇴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개혁에 대한 반대가 지속적으로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루트에 의해 이루어진 개혁은 여전히 종이 상에 존재하는 내용일 뿐이었다. 이러한 개선된 제도를 실행하고 현실화시킬 실질적인 세력과 이들에 대한 군 안팎의 지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개혁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었다. 전쟁성에 복무하던 한 장교의 말처럼 ‘총참모부를 설치하는 것과 그것을 올바르게 운영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다.<sup>12)</sup> 그리고 백여 년간 지속하여 온 ‘문화적 관성(cultural inertia)’은 단기간 내에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sup>13)</sup> 오랫동안 고수되어 온 장교단, 의원들, 대중의 태도와 시각이 하루아침에 고쳐질 수는 없었다.<sup>14)</sup>

이와 같이 1904년에서 1909년에 이르는 20세기 초 미 육군 개혁과정의 ‘정체 및 후퇴기’는 개혁 이행 이후에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과 이를 둘러싼 개혁 이행의 과제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12) William Lassiter, “Memoirs”, Box IX: 2. *Lassiter Papers*, United States Military Academy Library, West Point, New York. Jason Patrick Clark, *The Many Faces of Reform: Military Progressivism in the U.S. Army, 1866~1916*, Ph. D. Dissertation, Duke University, 2009, p.363에서 재인용.

13) Ronald Glenn Machoian, *Between the Old and the New: William H. Carter and the American Army*,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ssouri, 2002, p.290. 카터가 말년에 남긴 저술들을 분석하고 있는 맥코이안은 카터가 이러한 점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고 지적한다. 즉 참모부 내에서 총참모부가 겪고 있던 문제들은 단지 법률 규정의 불명확성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참모부 내에 형성되어 온 일종의 문화, 즉 일상적으로 반복되어온 관행들이 권위를 부여받은 상태로서의 문화에 의한 것이었다. Machoian, 2002, p.413.

14)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op. cit., p.370.

역사적, 학술적 의의를 가지며 향후 혁신적인 국방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할 한국군에도 많은 교훈과 시사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하에서는 먼저 제2장에서 육군 개혁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는 대외관계 및 국내정치 상황에 대한 분석을 제시한다. 이는 20세기 초 육군 개혁 시기 동안 미국이 경험했던 대외관계와 국내정치 상황의 대강을 보여줄 뿐 아니라 전체 개혁과정에서 해당 시기의 상황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어서 제3장에서는 먼저 당시 미 육군 개혁의 기본적 과제와 1903년까지의 진전 사항을 간략히 개관한 후 개혁이 정체되고 후퇴된 요인을 구체적으로 분석 제시한다. 제4장과 5장에서는 이러한 제약 속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던 군 개혁의 이행 상황을 ‘정규군과 총참모부 중심의 개혁’ 및 ‘주방위군<sup>15)</sup> 개혁’으로 나누어 각각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6장 결론에서는 본론의 내용을 정리하고 이러한 분석이 가지는 함의를 간략히 제시해 보도록 한다.

## 2. 대외관계와 국내정치

1903년과 1904년은 미국 대외정책에서 신해밀턴주의자들의 구상이 순조롭게 구현되었던 시기였다. 일본과 독일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면서 미국은 영국과의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발전시킬 수 있었고 중남미 지역과 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차츰 강화해 갈 수 있었다.

15) 주방위군은 미국의 전통적 지역 방위 조직인 ‘민병대(militia, or citizen militia)’가 근대적 형태로 발전된 것을 일컫는 말이다. 전통적 민병조직이 오늘날의 주방위군(National Guard)이란 명칭을 부분적으로나마 사용한 것은 대략 1800년대부터이다. 최초로 주방위군이란 명칭을 사용한 민병대는 뉴욕주 민병대(New York State's militia)로 일종의 명예로운 부대명칭으로 사용한 것이었다. 이 “National Guard”란 용어는 프랑스 혁명시기의 국민군 조직을 의미하는 프랑스어 “Grande Nationale”를 영어로 번역한 것이었다. National Guard에 대한 역사는 국방부의 관례에 따라 ‘주방위군’으로 하였는데 이는 영어 자체에 나타난 것보다 ‘National Guard’의 실제 사정을 잘 드러내는 점이 있다. 설인효, 2012(박사학위논문), 151~152쪽.

1903년 2월 의회는 ‘총참모부 법’과 함께 ‘상업 및 노동부(Department of Commerce and Labor) 수립에 관한 법’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해외무역 확장과 연방권의 강화를 지속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상업 노동부’는 대외무역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국내외의 산업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정부와 의회에 보고하는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1900년 10억 달러 수준이던 미국의 해외투자는 1908년이 되면 25억 달러로 두 배 이상 성장하게 된다.<sup>16)</sup>

그러나 적극적 대외정책과 군 개혁에 반대하는 의회 내의 분위기와 대중적 정서는 지속하였다. 1904년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초반부터 승기를 잡아나가기 시작하자 T. 루스벨트는 자신의 절친한 친구이자 열렬한 제국주의자인 우드(Leonard Wood)를 소장으로 진급시키고, 태평양 지역의 방위력 강화를 위해 하와이 진주만에 해군 기지를 건설하는 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의회는 이를 오래도록 거부했다. 1903년 이루어진 개혁 법안들에 대해서도 연방 군사력의 강화가 시민의 자유를 위협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민주당원, 지역정치인들, 여러 신문들에 의해 표출되었다.<sup>17)</sup>

1904년에는 암살당한 전임 매킨리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서 그 직을 승계하고 있던 T. 루스벨트가 대선에 나서게 된다. 1904년 6월 공화당은 T. 루스벨트를 대통령 후보로, 페어뱅크(Charles Fairbank)를 부통령 후보로 선정했다. 2주 후 민주당은 파커(Alton B. Parker)와 데이비스(Henry G. Davis)를 각각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로 지목했다. 1896년과 1900년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브라이언은 후보 지목을 고사했다. 그러나 브라이언은 공화당의 제국주의 정책과 반독점 조치(anti trust measures)를 공격하며 활발한 선거지원 활동을 벌였다. 그는 자신의 지명도를 이용하여 T. 루스벨트는 군국주의자이며 제국주의자라는 공격을 지속했고, 이를 통해 민주당 후보의 선전을 지원했다.

16) Richard L. Watson, *The Development of National Power: The United States 1900~1919*(Boston: Houghton Mifflin Co., 1976), p.69.

17) Barr, op. cit., 1993, p.242.

여기에 퇴임한 마일스(Nelson Miles)<sup>18)</sup>까지 나서 T. 루스벨트는 군국주의자라 비난하며 선거 운동에 가담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T. 루스벨트는 실제 선거에서 손쉬운 승리를 쟁취한다. 선거 결과 T. 루스벨트는 7백 5십만 표를 파커는 6백만 표를 얻었다. 이러한 표차는 1872년 이후 최대였다. 상원과 하원에서도 각각 57대 33과 250대 136의 우위를 확보했다. 이로써 T. 루스벨트는 저격당한 매킨리를 대신한 대통령에서, 스스로 정권을 획득한 대통령의 입장을 수립하게 되었다. 나아가 T. 루스벨트가 지지하는 적극적 대외정책과 해외팽창은 국민의 승인을 받아 더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T. 루스벨트의 당선 이후 1908년까지의 미국 대외정책은 태평양 지역에서 점차 구체화되어 가고 있는 일본의 야욕을 우려했던 시기로 특징 지워진다. 루스벨트가 이끄는 미국의 집권공화당과 행정부는 이러한 도전에 정면으로 대응할 것을 결의한다. 1905년 미국은 전쟁성장관 태프트와 일본 외무상 가스라(桂太郎) 사이에 밀약을 맺지만 이것이 외부에 공개된 것은 1924에 이르러서이며, 정권의 수뇌부조차 일본이 언제 배신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계속 가지고 있었다.

실제로 러일전쟁에 대한 육군 대학의 분석은 대부분 일본의 육군과 총참모부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위주로 하고 있다.<sup>19)</sup> 1905년 여름 T. 루스벨트가 전쟁성장관인 태프트에게 미국의 해안방어태세에 대해 검토를 지시했을 때 태프트가 가을에 발간한 보고서는 러일전쟁 사례를 기초로 뉴욕, 보스턴, 샌프란시스코와 같은 전통적인 본토 해안 요충지 뿐 아니라, 필리핀의 수빅 베이(Subic Bay), 진주만과 같이 태평양 지역의 요충지에도 충분한 해군력의 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골자로 하고 있었다. 이는 러일 전쟁에서 드러난 일본의 전력을 고려한 결과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907년 봄 의회는 T. 루스벨트가 요구해 온

18) 미 육군의 마지막 총사령관으로서 미 육군의 전통을 상징하는 인물임을 자처하며 루트 개혁을 방해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설인호, 2012(박사학위논문), 51~52쪽.

19) Annual Report of War Department Year Ended June 30, 1905, *Report of Secretary of War*(Washington: GPO., 1905), pp.19~29.

여러 정책들을 비로소 승인해 준다. 의회는 T. 루스벨트가 체결한 도미니카 공화국과의 합의를 비준하며 해군 확대 및 필리핀 요새 건설을 승인한다. 필리핀 사령관을 역임하면서 일본의 동향을 감시하고 있던 우드의 오랜 요청에 따라 일본인 이민에 대한 제한도 규정된다. T. 루스벨트 행정부는 해외에서의 미국의 이익을 지키겠다는 굳건한 의지 속에 5월 17일 온두라스(Honduras)에 정치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미 해병을 파견하기도 한다. 일본의 위협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일본과의 전쟁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힘을 얻으면서 T. 루스벨트는 군 개혁의 중요성을 재평가하게 되고 군 개혁을 위한 전향적인 조치들에 대해 정치적 지원을 해주게 된다.

1907년 말까지 일본의 실질적 행동은 없었지만 미국의 일본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었다. 이러한 우려는 1908년 봄 일본이 필리핀 반군을 지원하는 간첩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증거가 포착되면서 한층 강화된다. 차츰 미국과 일본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신중한 성격의 가스라 일본 총리는 일본 육군의 반대를 무마하며 유화조치를 전면에 내세우게 된다. 아직 일본은 미국이나 유럽의 국가들을 상대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 1908년 가을 ‘루트~다카히라 협정(Root~Takahira agreement)’이 체결된다. 이를 기점으로 한 동안 태평양 지역의 강대국 관계는 안정적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중미지역에 대한 개입은 쿠바 독립 후에도 계속되었다. ‘텔러 수정안’에 따라 쿠바는 1902년 자체 선거를 치른 후 독립했다. 그러나 곧 신생정부에게 모든 업무를 맡기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쿠바정부는 1906년 발생한 반란을 진압하는데 실패하게 된다. 이에 따라 미국정부는 반란의 진압과 법질서 회복을 위해 다시 쿠바에 개입하게 된다. 대통령 T. 루스벨트는 전쟁성장관 태프트의 조언에 따라 5천 명의 병력을 하바나에 투입했고 ‘쿠바평화군(Cuban Pacification)’이라 이름 붙여진 군대는 1909년까지 쿠바에 주둔하게 된다.<sup>20)</sup>

20)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op. cit., p.375.

미서전쟁의 결과로 획득된 필리핀 식민지는 중미지역과 운하의 중요성을 크게 부각시켰다. 주로 동부 해안에 있던 미 해군의 주력이 아시아 지역으로 신속히 파견되기 위해서는 미국이 운하의 자유로운 사용과 통제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서는 이 지역에서 미국의 정치적 영향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었다.<sup>21)</sup> 이에 따라 19세기 후반 이후 지속하여 온 중미지역에서의 경제적 이익과 함께 이 지역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은 점차 증대되었다. 1912년과 1917년에도 미국은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 다시 쿠바에 병력을 파견하게 된다.<sup>22)</sup>

1908년 여름 공화당은 새로운 대통령 후보를 물색하게 된다. 처음 T. 루스벨트는 해이가 사망한 후 국무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던 루트에게 대통령 후보직을 제안했다. 그러나 루트의 완강한 반대로 루트를 이어 전쟁성장관이 되었던 테프트를 선택하게 된다. 테프트는 식민정책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비롯하여 공화당 내 신해밀턴주의자들과 완전한 이해의 합치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인물이었다. 테프트는 이러한 차이를 인식하고 1908년 가을 여러 차례 신해밀턴주의를 지지하는 연설을 하게 되고 그 결과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최종 선출된다.

1908년 9월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되었다. 1896년과 1900년에 이어 세 번째로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선 브라이언은 공화당 정부의 거대기업 옹호와 제국주의적 대외정책에 대한 비판을 본격적으로 전개했다. 브라이언은 공화당 주도의 육군 개혁을 ‘군사주의’라 규정하며

21) 파나마 지역에서 발생한 콜롬비아 정부에 대한 반란은 대통령 T. 루스벨트가 이 지역에 군대를 파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고 T. 루스벨트는 이를 통해 확보한 정치적 영향력을 통해 파나마운하 건설권한을 획득하게 된다.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2005, p.376. 한편 T. 루스벨트는 파나마운하 건설의 임무를 육군에게 부여한다. 육군은 남북전쟁 당시 남부재건사업, 필리핀과 쿠바에서의 정부 재건사업 등의 경험을 살려 파나마 운하 건설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필리핀 지역에서 습득한 해충과 풍토병 방지에 대한 지식은 파나마운하 건설시 군 인력의 건강 증진에 큰 기여를 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ibid.*, p.377. 이러한 활동과 성과의 더욱 중요한 의미를 이를 통해 군이 점차 미국사회 내에서 평시에 존속할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다는 점이다.

22) 미국이 쿠바에 대한 개입정책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1934년에 이르러서이다.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ibid.*, p.375.

군사주의의 물질주의적 요소가 제퍼슨이 이상으로 삼았던 공화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sup>23)</sup> 제퍼슨적 이상, 지역분권주의, 위기 시에 자발적으로 구성되는 지원군, 국제정치적 고립주의는 여전히 미국인의 기본적인 이상으로 남아 있었고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선거 결과 여전히 공화당의 태프트가 승리를 거둔다. 결과는 이전의 두 차례의 선거에 비해 압도적인 것은 아니었다. 태프트는 선거인단 321석을 얻어 162석의 브라이언에게 승리를 거두었다. 득표수는 7백 5십만 표 대 6백 5십만 표로 그 격차가 1904년 T. 루스벨트와 파커 사이 격차의 2분의 1 수준이었다. 상원에서는 61 대 23석의 우위가, 하원에서는 219 대 172로 우위가 유지되었다.

대통령에 당선된 태프트는 농림부장관(the secretary of agriculture)를 제외하고 T. 루스벨트 시절의 모든 장관을 교체했다. 태프트는 루트에게 국무장관에 유임해 줄 것을 부탁하지만 루트는 이를 거절하고 동료 공화당원들의 요청에 따라 뉴욕주의 상원의원(junior senator) 지명을 수락한다. 태프트는 전쟁성장관도 제국주의자인 라이트(Luke E. Wright)에서 디킨슨(Jacob McGavock Dickinson)으로 교체한다. 디킨슨은 미시시피(Mississippi) 출신의 시카고(Chicago) 기업 전문 변호사로 라이트와 달리 제국주의 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지 않은 인물이었다. 태프트는 이외에도 장관 중 6명을 기업 변호사 출신에서 인선한다. 이를 통해 그는 미국 기업계의 효율성의 논리를 도입하고 더 이상의 국내정치적 개혁은 거부하는 보수주의적 행정부를 창출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공화당 내의 내분이 가속화된다. 개혁주의적 공화당원(Progressive Republicans)과 신해밀턴주의적 공화당원(Neo Hamiltonian Republican) 사이의 분열이었다. 군 개혁에 대해서도 루트나 우드, 라이트나 벨(Franklin Bell)<sup>24)</sup>과 같이 국제적 분쟁은

23) Donald D. Anderson, *William Howard Taft: A Conservative's Conception of the Presidency*(Ithaca N. Y.: Cornell University Press, 1973), pp.142~143.

24) 대표적인 개혁지향적 장교 중 하나로 4대 참모총장을 역임했다.

불가피하며 더 크고 효율적인 군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과 미국의 제국주의 정책은 제한적 수준으로 변경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 서서히 입장차를 키우게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군 개혁은 정치적 지지의 반감에 따라 더욱 표류하게 된다.

### 3. 군 개혁의 정체 및 후퇴 요인

20세기 초 미 육군 개혁의 쟁점은 다음과 같았다.<sup>25)</sup> 먼저 정규군 규모의 증대였다. 미국의 달라진 위상과 새롭게 확보된 식민지의 관리를 위해서도 정규군 규모의 증대가 반드시 요구되었다. 둘째로, 전쟁성장관과 총사령관 사이에 분열된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 영구보직제 하에서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참모부 제도를 혁신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개혁 장교단은 당시 육군의 새로운 표준으로 떠오르고 있던 독일식 ‘총참모부제’를 도입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반대로 인해 정규군 규모의 확장에 제한이 따르는 상황에서 유사시 정규군을 보완할 제1의 예비전력으로서 주방위군을 연방의 통제가 가능하고 잘 훈련된 집단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1899년부터 1903년까지 전쟁성장관 루트가 이루어낸 제도적 개혁의 결과로 1903년 8월 육군 총참모부가 출범하게 된다. 20세기 초 미 육군의 개혁과정에서 총참모부는 육군 개혁 세력들의 궁극적인 이상이자 미 육군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일소해 줄 개혁의 핵심목표였다. 그러나 총참모부는 1903년 출범 이후 1909년까지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뿐 아니라, 참모부 조직 내에서 올바른 위상을 확립하는 것조차 성공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전쟁성장관 루트의 교체 등 개혁 세력에 대한 정치적 지원이 약화되면서 육군 내의 상황은 오히려

25) 설인효, 2012(미국학 논집), IV. 군 개혁의 쟁점과 개혁 반대세력

더 악화되기도 한다.

이처럼 군 개혁이 정체되고, 후퇴했던 첫 번째 이유는 루트의 개혁 입법이 가지고 있던 자체적인 결함이었다. 상술한 바 루트는 육군 개혁이 갖는 정치적 본질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그 결과 그는 군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통과의 조화를 추구했으며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과도 적극적으로 타협했다. 이러한 정치적 수완의 결과로 루트는 오랫동안 거부되었던 일련의 제도적 개혁을 완수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개혁 입법의 본의는 상당부분 훼손되었고, 많은 영역이 모호하게 규정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부분이 결국 이후 개혁의 실천 과정에서 정치적 투쟁의 여지를 남기게 된 것이었다.

총참모부 법은 최종 단계에서 여타 참모부들에 대한 권한을 ‘통제(control)’가 아닌 ‘감독(supervise)’으로 규정하도록 수정되었다.<sup>26)</sup> 뿐만 아니라 총참모부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는 제2항(section 2)은 ‘국가 방위를 위한 계획(planning for national defense)’, ‘군사 작전을 위한 군의 준비태세 관련 보고서 발간(issuing reports on military readiness for operations)’, ‘전쟁성장관에 대한 전문적 조언(expert advice to the Secretary of War)’, ‘대통령에 의해 부여되는 다른 임무(performing any other duties assigned to it by the President)’의 네 가지로 규정되었다.<sup>27)</sup> 이러한 규정은 너무 광범위하고 추상적이어서 실무에 적용하기가 곤란했다.

기존 체제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던 각 참모부의 장들과 참모부 요원들은 이와 같은 규정을 적극 활용하여 총참모부를 무력화시키고자 노력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확보하고 있던 분야와 영향력을 잃지 않기 위하여 총참모부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도록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sup>28)</sup> 또 개혁 이전의 전통적인 참모부 체제가 행정부의 육군에

26) Annual Report of War Department, 1903, Vol. I, *Report of Secretary of War, Appendix A, an act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Army*, section 4, p.60.

27) Annual Report of War Department, 1903, Vol. I, *Report of Secretary of War, Appendix A, an act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Army*, p.59.

28) Machoian, op. cit., p.290.

대한 통제를 약화시켜 공화주의의 원리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해 온 의회 내 개혁 반대세력들도 이러한 활동을 묵인하거나, 오히려 지지했다.

이 시기 동안 개혁이 정체되었던 두 번째 이유는 개혁 세력 내의 개혁에 대한 이해 부족과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이었다. 먼저 대통령 T. 루스벨트는 자신의 개인적 친분을 근거로 전쟁성의 주요 인선을 고집하는 등 초기 전쟁성과 총참모부의 정상적 운영을 어렵게 하는 한 요인이 되었다. 그는 또 충분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총참모부에 적절한 역할을 부여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지 않았다.

1904년 전쟁성장관직에서 퇴임하는 루트도 군 개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여전히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는 자신이 이룬 제도 개혁의 성과를 과신한 나머지 퇴임 전까지 1년여 간 총참모부가 겪고 있는 문제를 묵도하면서도 이를 개선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다른 사안들에 보냈으며 퇴임을 앞두고 작성한 마지막 연례 보고서에서 여전히 자신이 이룬 개혁 성과와 총참모부의 운영 현황에 대해 만족을 표시했다.<sup>29)</sup>

루트를 이어 전쟁성장관이 된 태프트는 미국의 적극적 대외정책과 군 개혁에 대한 의지도, 비전도 갖지 못한 인물이었다. 더구나 태프트는 그가 재임하는 동안 참모총장을 역임했던 벨, 참모차장을 역임했던 샤피(Anda Chafee) 등과 개인적인 원한을 가지고 있었다. 필리핀 총독 시절 필리핀 내 군사정책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었기 때문이었다. 이들 사이의 불협화음으로 총참모부와 이를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할 군 개혁은 난항을 겪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태프트가 T. 루스벨트를 이어 대통령이 되면서 더욱 악화되었다.

T. 루스벨트와 루트, 태프트의 한계는 기록 및 연금 참모장(Army Records and Pension Department)인 에인스워드(Fred C.

29) Annual Report of War Department, 1903, Vol. I, *Report of Secretary of War*, pp.1~132. 이러한 점에서 총참모부의 기능과 위상에 대한 루트의 이해가 본질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평가도 제기된 바 있다. 루트 개혁에 대한 평가와 이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서는 Powe, op. cit., pp.77~79.

Ainsworth)를 등용하는 과정에서도 드러난다. 에인스워드스는 향후 1910년 우드가 새로운 참모총장으로 취임할 때까지 총참모부에 대한 최대의 대항세력으로, 총참모부 활동을 무력화하고 봉쇄하는 움직임을 주도했던 인물이었다. 에인스워드스는 뛰어난 행정력을 지닌 인물로 구 참모부 체제를 대표하는 인물 중 하나였다. 그는 이미 ‘총참모부법’ 통과 과정에서 총참모부와 나머지 참모부서들의 관계를 규정하는 문구를 수정하도록 하여 총참모부의 활동을 결정적으로 어렵게 만들기도 하였다.

에인스워드스는 자신이 지닌 행정력과 기업적 효율성의 가치를 앞세워 참모부 개편을 위한 3인 위원회의 구성, 기록 및 연금부와 부관감실(Adjutant General's Department)을 통합한 군 장관직(Military Secretary)의 신설 등을 제안한다. 에인스워드스의 의도를 알고 있던 카터(William Carter)는 참모부의 지나친 확대는 총참모부의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경고했지만, 루트는 ‘기업적 효율성’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여 에인스워드스를 ‘3인 위원회’의 장으로 임명하고, ‘군 장관직’의 신설도 받아들인다. 루트를 이어 전쟁성장관이 된 태프트는 군 업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업무를 에인스워드스에게 의존하게 되었고 에인스워드스는 이를 계기로 더욱 큰 권한을 획득하게 되어 총참모부의 영역을 점점 더 잠식하게 된다. 각 참모부의 장들은 에인스워드스의 이러한 활동에 편승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계속해 나간다.

오랜 반군 사상의 지속 속에서 개혁 세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못했던 것도 개혁 정체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1903년 8월 총참모부가 신설되었을 때 총참모부에서 근무하게 될 42명의 장교를 인선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일이었다. 총참모부 활동에 적합한 교육을 받아 본 장교는 단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참모총장을 비롯한 주요 요직에도 적합한 개혁인사를 임명하기 어려웠다. 루트 개혁을 이끌었던 대부분의 장교들은 여전히 40대로 주요 요직에 내세울 수 있는 연령과 지위에 오르지 못하고 있었다.

개혁 세력 내의 알력과 불협화음도 개혁의 진척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루트는 초대 참모총장 벨을 보좌하기 위해 코빈(Henry C. Corbin)을 참모차장으로, 카터를 부참모총장으로 임명했다. 두 사람은 루트와 함께 1903년까지의 개혁을 이끌던 개혁의 핵심 세력이었다. 그러나 코빈은 자신이 아닌 영(S.M.B. Young)이 참모총장이 된 것에 반감을 품고 2개월 만에 참모차장 직을 떠난다. 카터 역시 영에 대한 불만과 자신의 보직관리를 위하여 1903년 말 총참모부를 떠난다.<sup>30)</sup>

개혁 세력 내에 정규군을 중심으로 한 개혁 비전과 미국의 전통과 군사적 필요를 조화시키려는 시각이 서서히 대립하게 된 것도 개혁의 성과를 제한시킨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예컨대 웨스트포인트 출신의 카터는 정규군 중심의 사고를 고집한 나머지 우드 등 향후 개혁 중심 인물들과 여러 가지 세부사항들에서 의견의 불일치를 드러내게 된다.<sup>31)</sup> 이러한 사건들은 당시 군 개혁 세력의 기반이 여전히 매우 취약했으며 개혁 세력 내의 이해의 합치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을 드러낸다.

그러나 이 시기 동안 개혁이 정체되고 후퇴했던 가장 큰 이유는 여전히 개혁 반대 세력의 반대가 극심했기 때문이었다. 개혁 반대 세력들은 루트의 주도 하에 일련의 입법 조치에 의한 제도 개혁을 허용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개혁의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30) 루트 개혁기를 기친 후 루트 개혁의 중심 인물 중 하나였던 카터는 점차 개혁일선에서 물러나 필리핀 등지에서 전선 근무를 수행한 후 저술 활동에 몰두하게 된다. Machoian, 2002, pp.339~340. 이러한 카터의 행보는 단지 카터 개인의 선택만이 아니라 웨스트포인트 출신의 정규군 장교단의 개혁인사로서 카터가 추구하고자 했던 군 전문직주의적 개혁 비전이 점차 군 개혁의 주류로부터 폐기되었던 상황과 관련된다. 즉 루트 이후 신 해밀턴주의자들과 같은 정치 세력에 의해 지지를 받고 동시에 군 개혁에 대한 반대를 수용하여 개혁을 성사시킨 세력들은 순수하게 정규군 중심의 군사 전문주의에 입각한 개혁을 추진한 사람들이 아니라 미국의 전통과 새로운 군사적 필요를 조화시키고자 했던 인물들이었다. 1910년 참모총장이 된 우드와 불편한 관계에 있던 카터는 1912년이 되면 더 이상 자신이 바라는 바의 군 개혁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 결론짓게 된다. Machoian, op. cit., p.399.

31) Machoian, 2002, p.399; Clark, 2009, p.358.

기울이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이루어진 개혁에 대해서도 강한 반대를 지속적으로 표출했다. ‘육해군지(Army Navy Journal)’는 뉴올리언스(New Orleans)의 지역신문 ‘피카윤(Times~Picayune)’지의 기사를 인용하여 이러한 분위기를 보여준다.

총참모부에 속한 장교들이 이미 전쟁성의 모든 부서들을 장악하고 군 내에 군사적 과두체제(Military Oligarchy)를 형성하려 한다는 사실은 이미 명확해졌다. 그들은 군 내의 모든 것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 한마디로 참모총장은 사실상 총사령관의 직위까지 겸하게 될 것이다... 참모총장이 그렇게 광범위한 권한을 갖게 두어서는 안 된다.<sup>32)</sup>

군 개혁의 직접적 대상이 된 참모부의 장들과 요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잠식당하지 않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sup>33)</sup> 그들은 총참모부란 미국의 군사체제 내에서 아무런 효용가치도 갖지 못하는 기구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 총참모부가 제대로 된 업무 수행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선임자 우선 진급 원칙 하에서 오랫동안 진급을 기다려온 중위권 장교단은 우드의 진급을 시기하며 능력에 따른 진급 원칙의 도입에 강력히 반대했다. 상원의원 프록토(Redfield Proctor)에게 전해진 익명의 편지는 이러한 군내의 분위기를 잘 보여준다.

최근 진급한 장군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모두 전장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싸워온 전우들이 아니라, 안락한 참모업무를 해 온 사람들입니다... 현재 99%의 병사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드보다 뛰어난 군인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의사 출신인 우드가 10년 만에 소장이 되는 것이 옳다면 아마 그는 미국 역사상 그 어느 장교보다 더 많은 진급을 하게 될 것입니다.<sup>34)</sup>

32) "Army General Staff", *Times~Picayune, New Orleans, Army and Navy Journal*, Vol. 40(July 4, 1903), p.1111.

33) Machoian, op. cit., p.290.

34) Anonymous to Senator Redfield Proctor, Feb. 18, 1904, *Leonard Wood Papers*, Library of Congress, Washington, D.C. Bar, 1993, p.258에서 재인용.

의회 내의 군 개혁 반대세력들도 이러한 움직임에 합세했다. 그들은 1903년 이후 실질적인 군사 소요가 발생하지 않자 정규군 규모가 최저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노력했다. 그들은 군 개혁의 총아인 총참모부가 공화당과 신해밀턴주의자들이 주도하고 있는 제국주의 정책의 산실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러한 인식 하에 그들은 총참모부가 기존 참모부 조직 내에서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T. 루스벨트와 루트는 참모총장의 임명도 이들의 영향력 하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초대 참모총장 영과 그의 뒤를 이은 샤피의 기용은 모두 전통을 고수하고자 하는 세력들의 입장을 고려한 일종의 타협이었다. 두 사람은 모두 야전 장교 출신으로 이들을 참모총장에 임명함으로써 야전 장교가 전 군을 지휘한다는 ‘총사령관직의 전통’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자 했던 것이다. 의회 내의 군 관련 인사들은 여전히 상당수가 남북전쟁 참전 장교들이었고 T. 루스벨트와 루트는 이들의 영향력을 결코 무시할 수 없었다. 영과 샤피는 강직한 인물들로 총참모부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 다른 참모부장들과 투쟁했지만 총참모부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 4. 정규군 및 총참모부 개혁의 전개

1903년 중반에는 동년 8월 총참모부 도입을 앞두고 총참모부 수립에 필요한 42명의 장교를 선정하기 위한 검토 위원회(A Review Board)가 영을 소장으로 발족하게 된다.<sup>35)</sup> 샤피, 베이츠(John Bates),

35) 1903년 2월 14일 법에 의해 인가된 총참모부 인원은 참모총장 1명, 장군 2명, 장교 42명이었다. Annual Report of War Department for the Fiscal Year ended June 30, 1903(Washington: GPO., 1903), Vol. I, *Report of Secretary of*

랜돌프(Wallace P. Randolph), 카터, 블리스(Tasker Bliss) 등이 포함된 위원회는 기존 장교단에서 비교적 자질이 인정되는 요원들을 선발했으며 이 중 퍼싱(John J. Pershing), 마치(Peyton C. March), 딕맨(Joshep T. Dickman), 배리(Thomas H. Barry), 퀘델스(George Geothals) 등은 향후 능력 있는 총참모부 장교로 성장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발 장교들은 출범 당시 총참모부 업무에 대한 교육이 전무한 상태에서 총참모부가 무슨 일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지 못하고 있었다. 마치(Peyton March)는 후에 당시에는 아무도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몰랐다고 기술했다. 그는 이후 일본의 무관으로 파견되어 러일 전쟁 과정에서 일본 총참모부의 활약상을 책을 통해 보고서야 비로소 총참모부의 기능을 알게 되었다고 술회했다.<sup>36)</sup>

이러한 상황 하에서 초대 참모총장에는 영이 임명된다. 펜실베이니아의 피츠버그 출신인 영은 남북전쟁 시기 사병으로 입대하여 게티즈버그를 비롯한 주요 전투에 참전하였으며 네 차례나 진급했다. 1860년대 이후 30여 년간 서부에서 근무한 영은 미서전쟁 당시 T. 루스벨트의 연대장으로 활약했다. 이를 계기로 T. 루스벨트는 영과 가까워져 그를 1902년 독일 기동훈련 참관에 파견하고, 육군대학의 초대 학장으로 임명했으며, 총참모부 선발 검토위원회의 장으로도 선임했던 것이다.<sup>37)</sup>

그러나 영의 초대 참모총장 임명은 상술한 바 일종의 타협안이었다.<sup>38)</sup> 영은 웨스트포인트 출신도 아니었고 근무기간 동안 단 한 번도 기술학교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다.<sup>39)</sup> 그는 개혁에 우호적인 인사

*War, Appendix B. General Order appointing board of officers to select details for general staff, pp.61~62.*

36) Barr, 1993, p.245.

37) William Gardner Bell, *Samuel B.M. Young: Comanding Generals and Chief of Staff 1775~2005*(Washington, D.C.: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38) Barr, op. cit., p.232.

39) 기술학교는 남북전쟁 이후 19세기 후반 개혁 장교단의 노력으로 설립된 것으로 개혁 지

였으나 19말 이후 새롭게 양성된 개혁의 중심 세력은 아니었다. T. 루스벨트와 루트가 영을 선택한 것은 군 내에 총참모부와 능력에 따른 진급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남북전쟁 출신이자 전형적인 야전 장교(a career officer)인 영을 내세움으로써 이러한 반발을 완화할 수 있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그러나 좋은 군인이 곧 좋은 참모총장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

루트는 영을 보좌하기 위해 코빈을 참모차장(deputy Chief of Staff)으로, 카터와 랜돌프를 부참모총장(assistant Chief of Staff)으로 임명했다.<sup>40)</sup> 그러나 코빈은 자신이 참모총장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었다. 그는 부관감으로 오래 복무하면서 육군과 참모부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 정통해 있었고 미서전쟁 기간 중에 사실상의 참모총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또한 루트가 개혁을 추진하는 동안 그를 보좌하여 개혁을 성취한 일등공신이기도 했다. 그러나 코빈은 군 내에서 인기가 없었을 뿐 아니라 T. 루스벨트의 신임을 얻지 못하고 있었다. 전문 직업군의 신봉자로서 코빈은 미서 전쟁에서 T. 루스벨트의 활약을 폄하한 바 있었다.<sup>41)</sup> 결국 코빈은 영과 마찰을 빚고 취임 2개월 만에 총참모부를 떠나게 된다.<sup>42)</sup> 카터와 랜돌프 역시 향후 자신들의 진급을 위한 경력 관리를 위해 총참모부를 떠나면서 총참모부의 운영은 더욱 어려워진다.<sup>43)</sup>

취임 후 영은 대부분의 시간을 총참모부의 위상을 확립하고 다른 참모부서들의 공격으로부터 총참모부의 영역을 지키는데 보내야 했다.<sup>44)</sup>

---

향적 장교단 양성의 산실이었다. 설인효, 2012(박사학위논문).

40) Annual Report of War Department, 1903, Vol. I, *Report of Secretary of War*, pp.6~7.

41) Editorial, "The General Staff", *Army and Navy Journal*, vol. 40(June 13, 1903), p.1031. 참모차장에 보임됨으로써 코빈은 오히려 부관감 때 가졌던 권한의 상당부분을 잃게 되었다.

42) 코빈은 총참모부 내에서 개혁의 의미를 이해하는 유일한 상위 계급자였다. 따라서 코빈의 이탈은 총참모부 운영에 큰 타격을 주게 된다.

43) 1903년 말 카터는 필리핀으로 보임된다. Carter, 1917, p.59. 이러한 카터의 행보는 총참모부의 위상정립과 업무 수행을 더욱 곤란하게 한다.

44) Powe, op. cit., pp.79~80.

군 내에도 개혁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영을 보좌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나 부족했다. 코빈, 샤피, 카터, 크로이저(William Crosier) 등만이 개혁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참모부들의 공격 속에서 총참모부를 변호하고 옹호했다. 전쟁성 내의 총참모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미군 내의 독일 전문가인 션(Theodore Schwan)의 『독일군의 조직(The Organization of the German Army)』이 전 부서에 회람되기도 했지만 1894년 발간된 이 책은 독일 총참모부의 운영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월킨슨의 사상을 받아들여 루트가 수정한 미국식 총참모부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은 못 되었다.<sup>45)</sup>

1903년 10월 출범 2개월 만에 코빈이 영과 마찰을 빚고 총참모부를 떠남에 따라 후임으로 샤피가 참모차장에 임명되게 되었다.<sup>46)</sup> 샤피는 남북전쟁 참전용사 출신으로 쿠바와 의화단 사건에서 많은 활약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는 참모 업무에 관해서는 어떠한 교육과 훈련도 받은 바 없었다. 루트가 캐나다와의 국경 획정 문제로 다시 런던으로 떠나고 없는 동안 T. 루스벨트가 샤피를 임명한 것은 이러한 인선을 통해 군 내에 존재하는 총참모부와 능력에 따른 진급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없어지기를 바랐기 때문이었다.<sup>47)</sup> 그러나 상술한 바 개혁을 이해하지 못하는 인사들의 잇단 부임은 초기 총참모부의 기능 수행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었다.

영은 총참모부의 기능과 위상을 이해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다. 그는 로드아일랜드(Rhode Island) 주 뉴포트(New Port)의 해군대학(Naval War College)을 방문하여 해군의 운영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다.<sup>48)</sup> 그는 또 퇴임 시까지 계속해서

45) Barr, op. cit., p.242.

46) Annual Report of War Department for the Fiscal Year ended June 30, 1904(Washington: GPO., 1904), Vol. I, *Report of Secretary of War*, p.18.

47) Carter, op. cit., pp.264~268.

48) "Lieutenant General Young Leaves for Newport", *Army and Navy Journal*, Vol. 41(Oct. 10, 1903), p.133; Editorial, "Future of the General Staff", *Army and Navy Journal*, Vol. 41(Oct. 30, 1903), p.103.

육군의 분열된 지휘체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썼다. 그러나 각 참모부서들은 전통적으로 보유해온 권한들을 이용해 총참모부를 공격하려 했고 총참모부의 권위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참모부가 어떠한 실질적 성과도 산출할 수 없도록 업무에 협조하지 않았다.

특별한 군사적 소요가 발생하지 않는 가운데 정규군의 규모도 축소된 상태로 유지되었다. 1902년 10월 15일 법령에 의하면 정규군의 규모는 6만 9천 명 수준이었으며 1911년 10월 15일에는 병원단(Hospital Corps)과 필리핀 정찰병을 제외하고도 7만 4천 수준으로 병력규모가 가장 높은 시점이었다. 가장 낮은 시점인 1907년에는 정규군 규모가 5만 3천 수준이었고 1902년에서, 1911년까지 10년 동안의 평균 병력수는 6만 5천 수준에 머물렀다. 미국 내에 남아 있는 군대가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작은 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동안, 군대의 3분의 1은 국외에서 복무하고 있었다.<sup>49)</sup> 따라서 연대 규모 이상의 부대 훈련은 애초에 가능하지조차 않았으며 이러한 정규군으로 구성되는 위기 시 1차 방어선은 허술하기 그지없는 것이 될 것이었다.<sup>50)</sup>

그러나 이 시기 동안 루트 개혁의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04년 6월 최초의 육·해군 합동기동훈련이 실시되었다. 군간 협력의 부재는 미서 전쟁에서 지적되었던 주된 취약점의 한 가지였고 루트가 전쟁성장관에 취임한 후 줄곧 지적해 왔던 사항이었다. 향후 해외에서의 군사 활동 가능성을 생각할 때 이러한 훈련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그러나 군사력의 지나친 확대와 강화를 경계하는 세력들은 이러한 훈련조차 이루어질 수 없도록 노력해 왔다. 1904년의 첫 군사 훈련은 그러한 점에서 적지 않는 함의를 가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양군 합동훈련이 처음부터 성공적인 것은 아니었다. 양군은 처음 각 군의 입장이 우선임을 내세우며 훈련 참여를 거부하기도 했다.

49)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84, p.223.

50) 루트가 주도했던 미 육군 개혁의 기본 구상은 평시에 소규모로 운영되는 정규군이 위기 시에 1차 방어선을 형성하여 시간을 벌고 그 사이 주방위군 및 지원군을 동원하는 것이었다. 오랜 시간 동안 반군사 전통 하에 있던 미국으로서는 평시에 대규모 정규군을 보유한다는 것은 너무나 우월한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설인효, 2012(박사학위논문).

또 양군의 조직과 지휘체제의 차이로 인해 원활한 합동 훈련이 이루어 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관리하기 위한 육·해군 합동위원회(a Joint Army~Navy Board)가 설립되게 된다.<sup>51)</sup>

부대규모를 보다 확대하여 사단 단위의 부대가 자급 자족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개념이 제시되고 발전되었다.<sup>52)</sup> 1905년 총참모부가 발간한 야전 규정(Field Service Regulations)에 따르면 전시에 사단 단위의 편제를 운영하기 위한 훈련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1910년 정규군과 주방위군의 합동군으로 구성되는 3개 상시 보병 사단의 구성으로 발전된다. 이와 같은 부대규모의 확장은 20세기 육군의 새로운 표준으로 떠오르고 있었으며, 미서전쟁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된 후 루트에 의해 줄곧 주장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T. 루스벨트와 루트 등 개혁 추진 수뇌부의 오만으로 총참모부를 중심으로 한 육군 개혁은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전쟁성장관 루트가 자신이 이룩한 제도 개혁의 성과를 과신한 나머지 기존 참모부 체제를 옹호하며 총참모부의 활동을 곤경에 빠뜨리게 될 기록 및 연금 참모장 에인스워드를 군 개혁의 요직에 등용했기 때문이다.

에인스워드는 버몬트 주 출신으로 1874년 계약직 군의관(a contract surgeon)으로 군에 입대했다. 1885년 의무 참모부(Surgeon General's office)에 보임된 이후 1889년에는 의무 참모부 내의 기록 및 연금담당 부서에서 복무했으며 1892년 대령으로 진급하면서 당시 신설된 기록 및 연금참모부(Record and Pension Office)의 장이 되었다. 해당 업무는 남북전쟁 기간 동안의 군 복무 기록과 연금 문제를 다루면서 과도한 업무에 운영 마비되기 일쑤였다. 이때 에인스워드가 새로운

51) Annual Report of War Department, 1903, Vol. I, *Report of Secretary of War*, pp.8~9; William Felix Atwater, *United States Army and Navy Development of Joint Landing Operation, 1898~1942*. Ph. D. Dissertation, Duke University, 1986.

52)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op. cit., p.374.

기록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과다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 대응했고, 300여 명에 이르던 관련 요원 수를 42명으로 감축하기에 이른다. 이로써 지역구의 요구사항에 민감하고, 행정부의 인원 감축을 바라고 있던 많은 의회 의원들로부터 찬사를 받게 되었다.<sup>53)</sup>

공로를 인정받은 에인스워드 는 1899년 준장으로 진급한다. 상술한 바 1903년 11월 루트는 육군 지휘구조 개선을 위한 또 다른 시도로 새로이 ‘3인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sup>54)</sup> 이때 루트는 블리스, 신임 부관감인 홀(William P. Hall) 등과 함께 에인스워드를 위원장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루트는 총참모부의 역량을 과신한 나머지 총참모부의 업무 영역을 잠식하고 기존 참모부 체제를 고수하고자 하는 에인스워드의 잠재적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했다. 루트는 단지 에인스워드의 유능성과 그가 주장하는 기업적 효율성의 관점을 높이 평가했다. 3인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 에인스워드는 이를 계기로 참모부 내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군 개혁과 관련된 사항에 큰 발언권을 얻게 된다.

참모부 내의 실권을 장악하고자 했던 에인스워드는 더 나아가 군 내의 모든 자료를 그의 통제하에 두고자 부관감실 군사자료 일체의 관리 권한을 요구하게 된다. 에인스워드는 이미 코빈이 부관감으로 있는 동안에도 여러 차례 이를 시도하였으나 코빈의 반대로 무산되었었다. 그러나 1903년 10월 코빈이 총참모부를 떠나고 에인스워드가 ‘3인 위원회’의 장이 됨에 따라 그는 다시금 부관감실 자료의 통제권을 요구했다. 에인스워드의 주장은 총참모부 수립으로 부관감실의 업무 대부분이 사라졌고 기록에 대한 관리권만이 남았으므로, 기록 관리를 자신의 부서로 이관할 경우 부관감실의 폐지가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이는 효율성의 관점에서 불필요한 부서를 감축하는 것이므로 개선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53) Michael E. Deutrich, *Struggle for Supremacy: The Career of General Fred C. Ainsworth*(Washington, D.C.: Public Affairs Press, 1962), pp.23~36.

54) Annual Report of War Department, 1904, Vol. I, *Report of Secretary of War*, p.88.

루트는 에인스워드의 이러한 요구마저 받아들이기로 한다. 그 결과 부관감실은 폐지되고 군 내 모든 기록을 관리하는 군 장관직(Military Secretary)이 신설되는 것이다.<sup>55)</sup> 총참모부를 떠나 필리핀으로 향하던 카터는 이와 같은 참모부 권한의 지나친 확대는 향후 육군 개혁에 좋지 못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루트에게 경고하나 루트는 이를 무시한다. 카터는 에인스워드가 참모부 내에서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능력에 따른 진급, 전선과 참모부 사이의 보직 교류, 총참모부의 권한 확대와 같은 대부분의 개혁 시도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해 왔음을 잘 알고 있었다. 에인스워드는 대부분의 참모부장들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총참모부에 반대하는 참모부 사이의 동맹이 형성될 가능성이 컸다. 이에 반에 루트는 자신이 이룬 제도 변화의 성과를 지나치게 과신하여 에인스워드의 야심을 과소평가했던 것이다.

1904년 1월 초대 참모총장인 영이 퇴직함에 따라 그 후임으로 참모차장 샤피가 참모총장 직에 임명된다.<sup>56)</sup> 샤피는 영과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일선 근무 장교로 6개월 여의 기간 동안 참모차장으로 근무하기는 했으나 참모업무에 대한 사전 지식은 역시 불비했다. 카터나 우드, 와그너나 블리스 등 군 개혁에 대해 해박한 지식과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인사들은 상술한 바 여전히 계급상 너무 낮아 참모총장 자리에 보임될 수 없었다. 샤피는 영과 같이 강직한 성격의 인물로 참모부들의 공격으로부터 총참모부의 영역을 지켜낼 수는 있었다. 그러나 그는 총참모부의 올바른 지향점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는 못했다.<sup>57)</sup>

1902년 루트가 퇴임 의사를 밝힌 후 T. 루스벨트는 태프트를 후임으로 선정하고 의사를 타진했었다.<sup>58)</sup> 태프트는 처음에 군 문제에 대한

55) Annual Report of War Department, 1904, Vol. I, op. cit., p.88.

56) Annual Report of War Department for the Fiscal Year ended June 30, 1904(Washington: GPO., 1904), Vol. I, op. cit., p.18.

57) Powe, op. cit., p.79.

58) T. 루스벨트가 루트에 이어 군사 문제에 문외한일 뿐 아니라 신해밀턴주의적 사고에 동조하지 않는 태프트를 전쟁성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당시 미국에 확산되기 시작한 신해

무지와 정치 참여 의사가 없음을 이유로 수락을 거부하지만 T. 루스벨트의 지속적인 종용으로 결국 이를 수락한다. 태프트는 필리핀에서의 업무를 일단락 짓기 위해 1904년 초까지 시간이 더 필요함을 피력하고 루트가 이를 수락함에 따라 루트의 퇴임은 1904년 초로 연기되었다. 그러나 루트는 이 기간 동안 캐나다와의 국경 문제로 런던으로 파견되는 등 전쟁성 문제 외의 다른 문제들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1904년 2월 마침내 루트가 퇴임하고 태프트가 그 뒤를 잇게 되었다. 그러나 태프트는 군 문제에 대해 문외한이었을 뿐 아니라 미국의 과도한 제국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따라서 군 개혁에 대한 의지도, 비전도 결여하고 있었다.<sup>59)</sup> 더구나 참모총장인 샤피는 필리핀에서 미국의 군사정책 문제로 태프트와 심각한 대립 상태에 놓였던 인물이었다. 특히 T. 루스벨트의 재선을 앞둔 상황에서 기용된 그는 많은 시간을 대통령의 선거준비를 돕는 일로 보내야 했다. 이에 따라 태프트는 전쟁성 업무의 대부분을 행정능능한 에인스워드에게 일임하게 되고, 에인스워드는 전쟁성 내에서의 입지를 더욱 굳혀가게 된다.

참모부 내에서의 권한 강화를 위해 열을 올리고 있던 에인스워드는 '군 장관'직 수행을 위해 자신은 다른 부서들의 장보다 상위계급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태프트와 T. 루스벨트에게 설득하고 의회의 승인까지 이끌어내 자신을 소장으로 진급시킨다.<sup>60)</sup> 카터의 조언에 따라 루트는 이를 저지하려 해 보지만 이미 루트의 의견도 수용되지 못한다. 신임 참모총장인 샤피는 커져만 가는 에인스워드의 위상에 위협을 느끼며 그를 견제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참모부 업무에 정통하고 노련한 에인스워드에게 오히려 역공을 당하게 된다.<sup>61)</sup>

에인스워드는 실행하기 어려운 업무만을 총참모부에 부여하여 총참모부가 실질적인 성과를 산출할 수 없도록 하는 동시에 자신의 부서에서

밀턴주이가 여전히 폭넓은 정치적 기반을 갖고 있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59) Anderson, op. cit.; Skowronek, op. cit., p.221.

60) Skowronek, 1982, p.222.

61) Powe, op. cit., p.80.

많은 성과를 산출하는 업무들을 수행토록 함으로써 영향력을 계속 키워갔다.<sup>62)</sup> 이에 따라 에인스워드의 명망은 더욱 높아졌으며 태프트는 선거가 다가오면서 더 많은 권한을 에인스워드에게 위임하게 된다. 1906년 5월 태프트가 외국에 나가 장관직이 공석이었을 때 전쟁성에 대한 장관의 권한은 참모총장이 아닌 에인스워드에게 위임될 정도였다.<sup>63)</sup> 이 과정에서 총참모부의 권한과 권위는 에인스워드에게 의해 점차 잠식될 수밖에 없었다.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태프트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며 총참모부에 필요한 충분한 정치적 지원을 해주지 못한다. T. 루스벨트는 태프트가 필리핀에서 쌓은 경험을 고려하여 파나마 운하 건설 문제와 필리핀, 쿠바 등의 문제들을 그에게 일임한다. 참모총장 샤피는 여전히 태프트와 불편한 관계에 놓여 있었으며 이에 따라 태프트가 전쟁성 관련 업무를 에인스워드에게 일임하는 관행은 계속되었다. 태프트가 파나마 운하 건설과 식민지 관리 문제로 자주 자리를 비우는 동안 에인스워드는 사실상 전쟁성장관의 역할을 대신하며 전쟁성을 완전히 장악했다. 그 결과 육군 개혁의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총참모부가 참모부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참모부 업무에 종속되어 일상적인 행정업무를 처리해 주는 기관으로 전락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sup>64)</sup>

1905년 6월 국무장관 헤이가 사망함에 따라 루트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루트는 전쟁성장관을 제안받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수차례 고사하나 루트를 신임하는 T. 루스벨트의 강권을 결국 수락하게 되었다. 국무장관이 된 루트는 군 개혁이 본래의 의도대로 순항하지 못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총참모부의 강화를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다.

62) 뿐만 아니라 에인스워드는 오랫동안 자신의 권한 하에 있는 연금 업무를 통해 의회 내에서 인심을 얻어 온 바 있었다. Otto L. Nelson, *National Security and the General Staff*(Washington, D.C.: Infantry Journal Press, 1947), pp.80~83.

63) Skowronek, op. cit., p.222.

64) James E. Hewes Jr., *From Root to McNamara: Army Organization and Administration 1900~1965*(Washington, D.C.: Center for Military History, 1975), p.13.

루트는 미국의 해외팽창 전략과 군 전문화의 필요성을 기회가 될 때마다 지속적으로 제창한다.<sup>65)</sup> 루트는 T. 루스벨트에게 카터를 참모모부의 부참모총장으로 선임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T. 루스벨트와 태프트는 군 개혁의 방향과 그 중요성에 대한 이해의 차이로 이러한 제안을 수락하지 않는다.<sup>66)</sup>

1906년 1월 샤피는 참모총장직에서 물러난다. 샤피의 후임은 샤피의 친구이기도 한 베이츠(John C. Bates)였다. 베이츠는 퇴임을 얼마 남기지 않은, 현역에 남아 있는 마지막 남북전쟁 참전 장교였다. T. 루스벨트는 베이츠가 동년 6월 퇴임하게 되면 그 자리를 코빈이 물려받게 될 것이며, 그는 최초로 4년의 고정 임기를 부여받게 될 것이라 선언했다.<sup>67)</sup> 그러나 코빈은 건강 악화로 결국 참모총장직을 수행하지 못한다. 그는 필리핀 사령관직을 소장으로 진급한 우드에게 넘겨주고 미국으로 돌아와 휴식을 취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T. 루스벨트는 베이츠의 후임으로 벨을 선택한다. T. 루스벨트는 벨이 필리핀에서 보여준 활약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필리핀에서 본국으로 돌아온 후 벨은 레벤워스 요새에서 참모대학을 훌륭히 운영한 바 있었다. 벨은 루트의 육군 개혁에서 중요한 일부를 구성하는 ‘군 교육 개혁’을 완수한 인물로 평가되었다.<sup>68)</sup> 1856년생인 벨은 최초의 웨스트포인트 졸업생이자 남북전쟁 참전 용사가 아닌 참모총장이 되었다. 이는 군 개혁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육군 개혁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낳았다.

그러나 벨은 샤피와 마찬가지로 필리핀에서의 반군진압과정에서 태프트와 극도의 대립관계에 놓여 있었던 인물이었다. 벨은 태프트의 정책에 대해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 바 있었다. 결국 태프트는 벨을 배제하고 대부분의 업무를 에인스워드를 통해 하고자

65) Barr, op. cit., p.298.

66) Barr, ibid., p.296.

67) Carter, op. cit., pp.277~278.

68) Powe, op. cit., p.81.

했다. 1906년 9월 T. 루스벨트가 쿠바의 총독으로 태프트를 임명함에 따라 태프트는 다시 상당기간 동안 전쟁성을 떠나게 되었다. 그런데 태프트는 자신의 공석 중 대리인으로 벨이 아닌 에인스워드를 지명한다. 이는 참모부의 실질적인 일인자는 참모총장이 아닌 에인스워드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벨은 이와 같은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부임 초기 육군 개혁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의욕적으로 추진했다. 그는 여전히 분열적인 지휘구조를 일원화하기 위해 참모부 재편 방안과 정규군과 주방위군 합동훈련을 위한 7개의 기동훈련 캠프 신설 등 1903년까지 이루어졌던 개혁의 성과들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열성적으로 추진했다.<sup>69)</sup> 그러나 벨의 노력은 태프트의 무관심과 배제, 참모부들의 비협조와 공격으로 곧 좌절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벨마저 전쟁성의 정치에 적응하기 위해 노련한 에인스워드에게 점차 의존하게 된다.<sup>70)</sup>

1907년 일본의 위협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일본과의 전쟁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힘을 얻으면서 T. 루스벨트는 군 개혁의 중요성을 재평가하게 된다. 루트와 군 개혁세력은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T. 루스벨트를 설득함으로써 에인스워드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되어 총참모부가 재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일깨운다. 결국 대통령이 이 점을 인정하여 에인스워드의 군 장관직은 폐지되고 에인스워드는 과거의 부관감으로 복귀한다. 또 벨은 총참모부의 위상 강화를 위해 에인스워드와 동등하게 소장으로 진급하게 된다.

포병 부대의 재편성과 관련하여 1901년 통과되었던 포병 군단 개념을 발전시켜 해안과 육지 포병 군단으로 세분하는 등의 개혁조치도 실행된다. 그러나 T. 루스벨트가 곧 대기업의 통제와 같은 국내문제로 회귀하게 됨으로써 개혁은 다시 정체된다. 태프트는 자신이 자리를 비우는 동안 여전히 부관감 에인스워드에게 실권을 넘겨주었고, 벨은 에인스

69) Nelson, op. cit., pp.102~106.

70) Nelson, ibid., p.91.

워드의 명성을 넘어서 참모부를 장악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에인스워드의 사례에 자신감을 얻은 참모부장들도 벨의 권위를 무시하기 일쑤였다.

1908년 대선을 앞둔 T. 루스벨트는 태프트를 자신을 이을 대선 후보로 지명한다. 그 결과 태프트가 대선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는 동안 육군 개혁은 더 퇴보하게 된다. 1908년 협정의 체결로 일본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군 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도 감소되었다. 루트는 계속해서 카터의 총참모부 요직 부임을 추진하지만 T. 루스벨트와 태프트는 이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1908년 7월 태프트는 전쟁성장관직을 사직하고 T. 루스벨트는 후임으로 라이트를 임명한다. 라이트는 테네시(Tennessee) 주 출신의 법률가로 미국의 해외팽창에 대한 열렬한 지지자였다. 그는 1900년에서 1904년 사이 미국~필리핀 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태프트의 뒤를 이어 1904년부터 1906년까지 필리핀 총독직을 수행했다. 그는 1906년과 1907년 주일 미국대사로서 전쟁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본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미일 관계를 이끌었다.

그러나 라이트는 태프트와 마찬가지로 군사 문제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다. 라이트 역시 군 개혁의 추진을 정치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인사는 못되었다. 전쟁성에 부임한 라이트가 발견한 것은 비공식적으로 에인스워드에 의해 지배되고 참모부들이 총참모부 위에 굴림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었다.<sup>71)</sup> 벨은 건강마저 악화되어 각 참모부 참모진들의 공세에 무기력한 상태였고 이미 T. 루스벨트에게도 신임을 완전히 잃은 채 상황을 개선할 여지를 보이지 못하고 있었다.

대선에 당선된 태프트는 상술한 바 T. 루스벨트 하에서 장관직을 수행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을 교체한다. 태프트는 전쟁성장관도 제국주의 정책에 대한 뚜렷한 의지를 갖고 있지 않던 디킨슨으로 교체했다. 1909년 태프트와 디킨슨 하의 전쟁성과 건강 악화로 유약해진 벨의

71) Barr, op. cit., p.312.

총참모부는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부유하고 있었다. 정부 예산 절감을 표방하는 태프트의 신임 아래 기업적 효율성을 내세우는 에인스워드가 주도하는 비정상적 상황이 지속하고 있었다.

필리핀에서 돌아와 T. 루스벨트의 후원 하에 소장으로 진급하고 동부지구 사령관을 맡고 있던 우드는 이러한 현실을 통감하고 일련의 연설을 통해 군 개혁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T. 루스벨트와 루트, 롯지 등 신헌밀턴주의자들은 우드의 개혁의지와 신념, 추진력을 높이 평가하여 그를 새로운 참모총장으로 임명할 것을 결의한다. 행정부 예산 감축을 기조로 내건 태프트는 전쟁성의 국방 예산도 2억 1천만 달러에서 1억 6천만 달러로 삭감할 것을 선언한 터였다.<sup>72)</sup> 태프트는 예산 삭감에 대한 반대를 무마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1909년 말 참모총장으로 우드의 기용을 수락하게 된다.<sup>73)</sup>

## 5. 주방위군 개혁의 전개

주방위군 개혁법은 입법 후 상당한 성과를 거두는 것처럼 보였다.<sup>74)</sup> 1903년 법 하에서 주방위군은 ‘조직화되지 않은 민병대(unorganized militia)’와 ‘조직된 민병대(organized militia)’로 분리되었다.<sup>75)</sup> 이러한 구분은 전통적 민병대에 대한 애착을 고려한 것으로 이 중 ‘조직된

72) Palo Enrico Coletta, *The Presidency of William Howard Taft*(Lawrence KA: University of Kansas Press, 1973), pp.201~202.

73) Barr, op. cit., p.330. 1909년 부임한 우드는 1910년경부터 미 육군의 개혁을 새로이 중흥시키게 된다. 설인호, 2012(박사학위논문), V. 개혁 전환기 참조.

74) 미 연방헌법 상 주방위군은 기본적으로 각 주 소속의 군대이다. 그러나 정규군의 규모에 대한 사회적 제한이 존재하던 당시 미국에서 주방위군은 유사시 가장 먼저 동원될 수 있는 예비전력으로서 실제 육군을 구성하는 중요한 전력이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주방위군의 개혁은 미 육군 개혁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는 사안으로 다루어졌다.

75) Annual Report of War Department, 1903, Vol. I, *Report of Secretary of War, Appendix F. an act to promote the efficiency of the militia and for other purposes*, pp.73~79.

민병대'만이 연방 지원금에 대한 반대급부로 연방에 대한 통제를 수용하고, '조직화되지 않은 민병대'는 과거와 같이 순수한 주 통제 하의 병력과 조직으로 남도록 하였다.

그러나 1903년 이후의 상황은 주방위군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연방 지원금이 가지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여실히 보여주었다.<sup>76)</sup> 1903년 이후 주방위군은 사실상 '조직된 민병대'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며, 주된 발전이 이 부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또 '조직된 민병대'는 연방 지원금의 수령을 위해 기꺼이 연방의 기준과 규율을 받아들였다. 이러한 점은 결국 루트와 주방위군 개혁 세력 사이에 이루어진 타협이 상당히 효과적이었음을 나타내는 것이 되었다.<sup>77)</sup>

주방위군은 연방 정규군 명목으로 부여된 예산으로부터 정규군과의 합동 훈련 기간 동안 정규군에 준하는 급료를 지원 받게 되어 있었다. 대부분의 주방위군들은 이러한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sup>78)</sup> 1904년 9월 버지니아에서 행해진 양군 합동훈련에는 5천 명의 정규군과 2만여 주방위군이 참여했다.<sup>79)</sup> 보다 소규모의 훈련은 전국적으로 행해졌다. 전쟁성은 주방위군을 보다 효과적인 군사력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작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903년 전쟁성에 할당된 2백만 달러의 예산

76) 20세기 초 주방위군의 개혁과 근본적 변화는 연방 지원금의 지급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입증한 것으로 쿠퍼(Jerry Cooper)의 연구가 유명하다. Jerry Cooper, *The Rise of the National Guard: The Evolution of the American Militia 1865~1920*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97).

77) Louis Cantor, *The Creation of the Modern National Guard: The Dick Militia Act of 1903*, Ph. D. Dissertation, Duke University, 1963, p.266. 그러나 주방위군의 효율성은 여전히 의심스러웠다. 1903년 당시 주방위군의 총 규모는 10만여 명이었는데 훈련 정도는 주별로 제각각이었다. 1903년 법에 의해 주방위군과 연방군의 관계가 재정립되고 주방위군에 대한 연방의 통제가 규정되기는 하였으나 당시까지 주방위군은 여전히 각 주의 조직이었다.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84 pp.223~224. 1910년 의회의 요구에 의해 제출된 육군 대학의 군사 현황에 대한 분석 보고서에서 시민군은 여전히 1) 훈련 부족, 2) 체력 부족, 3) 정월 이탈, 4) 각종 장비 부족, 5) 부적절한 편제 등의 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84, p.225.

78) Machoian, op. cit., 344.

79) Annual Report of War Department, 1903, Vol. I, *Report of Secretary of War*, p.17.

중 70만 달러가 주방위군의 포병 무기 지원을 위해 쓰여졌다. 1904년 육군 예산법(Army Appropriation Act of 1904)에서는 포병 장비를 위해서만 58만 달러가 책정되었으며 별도로 1백만 달러가 정규군과 합동 훈련에 참가하는 주방위군 급료로 책정될 정도였다.<sup>80)</sup>

1908년에는 주방위군 제도의 일부 개선을 이루는 개정입법이 이루어진다.<sup>81)</sup> 1903년 법을 따라 1908년 딕 법(Dick Act of 1908)으로 명명된 이 법은 주방위군의 해외 파병 조건을 더욱 완화하고 있다. 1903년 법에서는 민병대에 관한 헌법상 규정의 제한을 우회하기 위하여 ‘조직된 민병대’의 경우라도 먼저 지원군(Volunteer Army)에 입대함으로써 해외에 파병될 수 있었다. 즉 주방위군이 아닌 ‘지원군’으로서 영토 밖에 파견되는 것이었다. 주방위군의 나머지 부분은 헌법상의 규정에 따라, 즉 침략을 격퇴하기 위하여 국내 영토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만이 허용되었다.<sup>82)</sup>

1908년 법은 이러한 절차에 따를 필요 없이 연방의 통제와 관할을 수용하는 ‘조직된 민병대’의 경우 곧바로 해외에 파병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해외파병 기간도 각 개별 병사의 주방위군 복무기간 내에서 자유로웠다.<sup>83)</sup> 더욱 중요한 점은 이러한 개정 법안을 주방위군 측에서 제안했다는 점이다. 상술한 바 1903년 이후 주방위군은 연방 통제에 대한 반대급부로 연방 지원을 수용한 조직된 민병대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전환은 매우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1908년이 되면 1903년에서와 같이 주방위군 내의 분열과 변화의 방향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 및 투쟁 조차 필요 없는 것이 되었다.<sup>84)</sup>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1908년 법은 주방위군 측의 전체적인 합의 하에 제출된 것이었다.

80) Cantor, op. cit., 265.

81)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op. cit., p.373.

82) Act of May 2, 1903, U.S., *Statutes at Large*, XXXII, Part 1, 927.

83) 즉 복무기간이 다 되어 제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외파병 기간의 법적 제한은 없었다. Act of May 27, 1908, U.S., *Statutes at Large*, XXXV, 399.

84) Cantor, *ibid.*, p.265.

주방위군은 또 국가의 제1예비전력으로 기능할 것을 강력히 희망하게 되었다. 이러한 위상의 확보를 통해서만 지속적으로 연방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가능하리라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주방위군의 주도세력도 변화하는 군사기술로 인해 지속적인 개선 없이는 주방위군이 더 이상 군사전력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1903년 법에서 주방위군은 위기 시 구성되는 지원병력의 핵심을 이룬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1908년 법은 위기 시 주방위군을 다른 어떤 지원군보다 ‘먼저 동원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다. 이로써 주방위군은 더 이상 자신의 부대를 떠나 지원군의 일원으로 해외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참여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지원군으로 먼저 전환해야 할 경우 부대가 해체되고 지원군 체제 속에 재편성되었지만, 주방위군으로서 참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부대 변경 없이 원래 부대의 일원으로 참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1908년 법은 또한 주방위군이 연방에 동원될 때 받아야 했던 신체 검사를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다.<sup>85)</sup> 이는 주방위군이 이미 정규군에게 요구되는 수준의 신체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다는 의미로, 주방위군의 전반적 수준 향상 및 주방위군에 대한 정규군 측의 신뢰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또 5인의 주방위군 장교로 구성되는 ‘민병대 분과(Division of Militia Affairs)’가 설립되어 정기적으로 ‘조직된 민병대’의 주요 사안에 대해 전쟁성장관과 논의할 수 있도록 되었다. 전쟁성 내의 이 조직은 이후 민병대국(Militia Bureau), 주방위군국(National Guard Bureau)으로 발전하며 주방위군의 체계적인 발전을 주도하게 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1908년 법에 의한 주방위군 제도의 개선은 여러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단계에 이르러 주방위군 측과 전쟁성 사이에 새로운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주방위군은 강력한 대 의회 영향력을 바탕으로 차츰 연방 통제력은

85) Act of May 27, 1908, *U.S., Statutes at Large*, XXXV, 399.

감소시키거나 동결하고 연방 지원은 확장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1910년 주방위군 측이 주방위군 자체훈련(armory drills)에 대해서도 연방 지원을 요구하면서 구체화되었다. 이후 주방위군은 1916년까지 매 회기마다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이를 요구하는 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sup>86)</sup>

그러나 전쟁성은 이러한 요구를 거부한다. 주방위군에 대한 연방의 통제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방위군의 입장만을 들어줄 경우 주방위군은 다시 연방의 통제 너머에 존재하는 각 주별 전력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전쟁성은 주방위군의 평상시 훈련에 대한 비용을 연방이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 반대급부로 보다 완벽한 연방 통제와 규율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통제수준 하에서 주방위군은 여전히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군사전력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주방위군에 대한 광범위한 전통적 지지와 의회에 대한 영향력으로 인해 전쟁성은 이에 대해 충분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결국 주방위군에 대한 연방의 통제력은 상당히 제약된 상태가 지속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혁 세력 내의 정규군 장교단은 중심으로 연방의 예비전력으로서 주방위군 대신 '연방 직속 예비군'을 창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설득력을 얻기 시작했다. 주방위군을 신뢰하지 않는 정규군 장교단은 이미 루트 개혁기부터 연방 정규군을 강화할 수단으로서 연방 정규군의 직접적인 규율을 받는 '연방 예비군'을 창설할 것을 주장해 온 바 있다.

이러한 주장에 따라 1908년 4월 의무 예비군 창설에 관한 법(The Creation of the Medical Reserve Corps)이 제정된다.<sup>87)</sup> 이 법은 수백 명의 의료 인력을 연방 예비군 명부에 기재해 두고 유사시 국가의 부름에 응할 수 있도록 해 두는 것이었다. 이 법은 미서전쟁 기간 동안 참전 지원군과 대중에 의해 가장 큰 문제로 인식되었던 의료체제의 붕괴를 시정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추진된 것으로 그 규모나

86) Cantor, op. cit., p.268.

87)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op. cit., p.374.

군 내에서의 영향이 큰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 법과 그 시행을 모태로 향후 미 연방 예비군의 창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점에 이 법은 의미 있는 출발점으로 기록되었다. 또한 이를 기점으로 연방 예비군의 창설에 반대하는 세력들의 반발도 거세게 일어나기 시작했다.

루트는 미국민의 전통적 정서를 고려하여 주방위군 중심의 예비전력 발전을 추진했었고 1904년 이후 이러한 방향의 주방위군 개혁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1908년 이후 주방위군과 전쟁성의 갈등이 다시 표면화되기 시작했고 군 개혁 세력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주방위군에 대한 대안으로서 연방 예비군 창설을 여러 방향으로 시도하게 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다시 한 번 주방위군과 정규군의 대립을 증폭시켰으며 연방 예비전력 창설은 새로운 논쟁의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sup>88)</sup>

## 6. 결론 및 함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총참모부 제도가 도입되고 주방위군 법이 개정된 1903년 말부터 1909년까지 육군 개혁은 제대로 된 성과를 산출하지 못한 채 정체되거나, 또는 오히려 후퇴했다. 대외적으로는 일본에 대한 우려가 지속하고, 국내정치적으로도 공화당 정권과 공화당 우위의 의회가 계속된 기간이었다는 점에서 개혁을 둘러싼 정치적 환경은 양호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개혁이 정체된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개혁에 대한 반대가 강하게 지속하였기 때문이며 이는 개혁이 실현되고 난 이후 개혁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여러 가지 사실들을 시사하고 있다.

88) 20세기 초 미 육군의 개혁은 1910년 개혁세력에 의해 오랫동안 양성되어 온 우드가 참모총장이 되며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설인효, 2012(박사학위논문)를 참고할 것.

1899년부터 1903년에 걸쳐 루트가 이룩한 제도 개혁의 성과들은 반대 세력들과 타협의 결과로 많은 부분이 불안정하거나 모호하게 규정되었고, 이러한 한계는 이후 개혁 실행과정에서 근본적인 문제로 작용하였다. 이 역시 기본적으로 개혁에 대한 반대가 극심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반대의 존재는 개혁의 이행과정에서도 계속 영향을 미쳤다. 개혁의 실천을 담당해야 할 전쟁성과 총참모부의 주요 요직에는 개혁을 대표하는 인물이 아닌 미군의 전통을 상징하는 인물들이 임명될 수밖에 없었다. 의회 내외의 군 개혁 반대세력들의 영향력이 여전히 막강한 가운데 이러한 인선을 통해 이들의 반대를 수용하고 완화해야만 했기 때문이었다. 이들을 보좌하여 개혁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개혁 추진 세력은 여전히 충분히 양성되어 있지 못했다. 또한 개혁 추진 세력 사이에도 잦은 알력 다툼과 개혁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불일치로 상시적인 불협화음이 존재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영, 샤피, 베이츠, 벨 등의 참모총장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육군 참모조직 내에서 총참모부의 위상을 확립하는데 보내야 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각 참모부의 장들과 참모부원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활용하여 총참모부가 제대로 된 업무 수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일상적인 행정 업무에 매몰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T. 루스벨트, 루트, 태프트 등의 판단 착오로 많은 권한을 얻게 된 에인스워드느 이러한 참모부의 활동을 진두지휘하며 총참모부의 권한 영역을 잠식해갔다.

주방위군 개혁은 초기에는 상당한 성과를 올리는 듯했다. 루트와 주방위군 측 개혁인사들 사이에 맺어졌던 주방위군 개혁의 공식, 즉 연방이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만큼, 주방위군은 연방의 통제와 관리를 허용하는 방식은 대부분의 주에서 성공적으로 적용되었다. 그러나 주방위군 측은 곧 연방의 통제는 최소화하고 연방 지원은 최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즉 전통적인 지역적 자율성은 고수하면서 현실적으로 요구되는 재정적 필요를 계속 충족하겠다는 것이었다. 지역구별로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방위군 측의 이러한

행동은 주방위군을 연방의 제1예비전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육군 개혁 세력의 구상에 큰 위협이 되었고, 결국 정규군 측의 견해를 대변하는 ‘연방 직속 예비군 제도’를 다시금 추진하게 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20세기 초 미 육군 개혁의 ‘정체 및 후퇴기’는 일단 성취된 제도 개혁의 이행에 대해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먼저 의회 민주주의 하에서 일련의 제도적 변화가 중요한 의미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올바른 이행을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요소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개혁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서는 정치세력에 있어서 뿐 아니라 실무적 차원에서도 개혁을 이해하고 지지하며 실천할 수 있는 충분한 인적 자원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조건이 조성되지 못할 경우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진 개혁은 유명무실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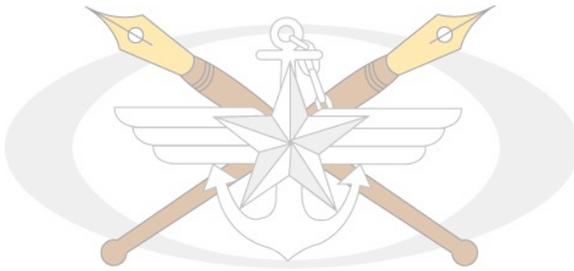
다음으로 개혁 세력 내에서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개혁의 방향과 성취 과정에 대한 정확하고 일관된 비전을 가질 필요가 있음이 드러났다. 본문에서 살펴본 미 육군 개혁과정은 개혁 반대세력의 노력뿐 아니라 개혁 세력 내의 분열이 개혁 이행 과정에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군 실무진과 정치세력 각각 그 집단 내에서 뿐 아니라 양자 간에 인적 네트워크의 구성 등 정기적 소통의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개혁 반대세력에 대한 충분하고 지속적인 설득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개혁 반대세력의 존재는 제도적으로 달성된 개혁의 실행을 어렵게 하는 지속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제도 개혁 달성 이후에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이 필요하며 이러한 설득은 정치적 수준과 실무적 수준 모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개혁은 제도적 수준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행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것이므로, 일단 개혁 반대세력도 제도 개혁에 합의한다면 그 실질적 이행을 위해 개혁의 본의가 손상되지 않는 수준에서 개혁안의 수정을 요구해야 할 것이며, 개혁 세력은 이를 명확히 요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은 정치적 타협의 결과였던

루트 개혁이 개혁 이행과정에서 초래한 여러 문제점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다.

(원고투고일 : 2013. 1. 1, 심사수정일 : 2013. 2. 19, 게재확정일 : 2013. 2. 25)

주제어 : 미 육군, 미국 총참모부, 주방위군, 개혁 이행, 개혁 정체, 개혁 후퇴,  
20세기 초 미 육군, 에인스워드



<ABSTRACT>

## United States Army Reform in the early 20th Century: Stalemate and Regression Period(1904-1909)

Seol, In-hy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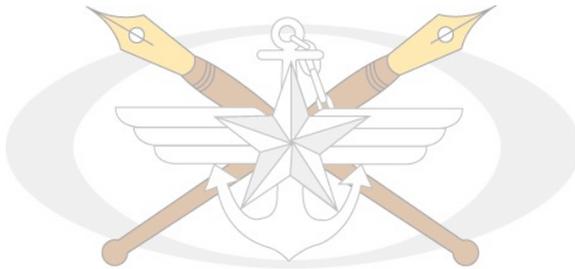
United States had had unique tradition of supporting local volunteer militia and avoiding large scale standing army. 'The Anti-Military Tradition' had prevailed since colonial time till the early 20th century. After experiencing the record increase in economic power and population, United States had changed in large scale in all aspects, and it finally turned from 'the isolation of the agricultural republic' to become 'an empire true to the name' especially after the advent of Mckinley administration and Spanish American War. United States Army Reform became possible when the new political groups who recognized the new status of their country cooperated with the reform minded officer corps having been raised after the Civil War.

Although the reform between 1899 and 1903 had accomplished a set of institutional changes which had been impossible before for almost 100 years, it was the results of a series of heavy compromises with opposing groups, so it had many limits and problems influencing the following implementation period. The period from 1904 to 1909 was recorded as a period of 'stalemate and regression'.

First of all the reform had its own vulnerability and limitation resulting from much compromises. Second, the reform group was not fully formed enough to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the reform. Finally and most importantly, the opposition against the reform was consistently high because the long tradition still persisted. Under these circumstances, reform was stagnant and regressed in all areas including the regular army and general staff reform, and the national guard reform. Consequently, the

stalemate and regression period of US Army Reform in the early 20th century shows well the difficulties of implementation of reform especially when the strong tradition against reform exists in one society.

Key Words : United States Army, Army reform, United States General Staff, National Guard, Implementation of reform. delay do reform, retreat of reform, Root Reform, United States Army in the early 20th Century, Ainsworth



# 왜 일본 육군은 단기결전, 백병돌격으로 나아갔는가?

- 근대 일본 육군의 제1차 세계대전 인식과 대응 -

심 호 섭\*

1. 머리말
2. 장기전·소모전 인식과 단기결전의 채택
3. 전투수행방식 재편의 한계와 백병돌격 전술의 강조
4. 맺음말

## 1. 머리말

미국의 대표적인 일본 군사사 연구자 존 다우어(John W. Dower)는 2차 세계대전 중의 일본군을 “이상한 규율과 전투 기술을 가진 초인(Supermen)”으로 표현하였다.<sup>1)</sup> 미군의 시각에 비추어 볼 때, 기관총의 십자포화 속으로 가감 없이 돌격하며 전원 전사하는 일본군은 진실로 이해하기 힘든 집단이었던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군사전략 및 전투수행방식을

\* 육군사관학교 군사사학과 전임강사

1) John W. Dower, *War without Mercy*, New York: Pantheon Books, 1986, p.9.

다루기로 한다.

제1차 세계대전(1914~1918)은 그 이전의 전쟁과는 질적으로 크게 다른 새로운 유형의 전쟁이었다.<sup>2)</sup> 그 특징적인 변화상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다. 첫째, 전쟁의 양상이다. 제1차 세계대전은 이른바 총력전이고 장기전이었으며 소모전이었다. 전후방의 구분 없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싸웠고, 단기간에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지 못한 채 전쟁이 장기화되었으며, 상대방의 전력을 일거에 박탈하지 못한 채 반복되는 전투에 의해 피아의 전력을 소모하던 전쟁이었다.

둘째, 전투수행방식이다. 제1차 세계대전의 공격과 방어에서는 이전의 전쟁에 비해 포병과 기관총의 화력이 큰 역할을 하였다. 특히, 방자의 화력이 공자보다 우세하여 진지전, 참호전의 전투가 전개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전투를 타개하기 위해 전차, 항공기, 독가스, 화염방사기 등 여러 새로운 무기가 출현하였다. 방어진지를 돌파하기 위한 ‘후티어 전술(Hutier Tactics)’,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구로(Gouraud) 장군의 중심방어 전술 등 새로운 형태의 전투 수행방식이 시도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양상에 대한 관심은 비단 구미열강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아시아의 일본에서도 지대하였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해 드러난 총력전 양상은 일본 육군의 국가총동원 구상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는 일본근대사 연구의 주요 쟁점인 군국주의 일본 태동의 단초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쟁점과 맞물려, 일본 육군의 제1차 세계대전의 전쟁양상에 대한 인식과 대응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일본 육군의 총력전 구상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2) 제1차 세계대전의 전쟁사적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이 참고된다. Roger Chickering, Strig Foster, *Great War, Total War*,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pp.19~33; 육군사관학교 전사학과, 『세계전쟁사』, 서울: 황금알, 2005, 253~254쪽.; 존 엘리스, 김병선 역, 『참호에서 보낸 1460일』, 서울: 마티, 2005, 129~141쪽.; 피터 심킨스 외 2명, 강민수 역, 『모든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 서울: 플래닛미디어, 2008, 69~124쪽.; John Keegan, *The First World War*, New York: Alfred A. Knopf, 1998, 조행복 역, 『제1차 세계대전사』, 서울: 청어람미디어, 2009, 252~291쪽.

이와 같은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제1차 세계대전의 영향을 받아 1920년대 육군의 총력전에 관한 인식이 높아졌으며, 이는 총동원의식의 고조와 총동원체제의 정비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한다. 또한 육군의 총력전 인식에는 다소 견해차이가 있었으나, 총력전 준비야말로 1920년대 이후 일본 육군이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추진하려고 했다는 점에 견해를 일치한다.<sup>3)</sup>

한편, 총력전 연구에 비해 제1차 세계대전의 주된 전쟁양상인 장기전·소모전과 전투수행방식에 대한 일본 육군의 인식과 대응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논의가 부족하다. 대표적으로 후지와라 아키라(藤原彰)는 1920년대 일본 육군이 추진한 군제개혁의 실패는 군대가 국민의 군대가 아닌 천황제의 계급적 군대였기 때문으로 결론짓는다.<sup>4)</sup> 또한 오오에 시노부(大江志乃夫)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육군이 구미열강의 군사적 흐름에 따라 가지 못한 이유로 이 시기 일본 육군은 전쟁의 교훈을 수용하는데 태만하였으며, 시베리아 출병에 따라 예산을 낭비하였기 때문으로 본다.<sup>5)</sup> 한편, 199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진 연구에서도 일본 육군이 1920년대 제1차 세계대전의 영향을 받아 군사개혁을 시도하였지만 파벌간의 다툼, 예산의 문제 등으로 변화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통해 일본 육군에 대한 비판을 가한다.<sup>6)</sup>

이처럼 일본 육군이 제1차 세계대전의 군사적 교훈을 받아들이지

3) 일본 육군의 총력전 수용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藤原彰, 「力戦段階における日本軍隊の矛盾」, 『思想』399, 1957; 藤原彰, 『軍事史』, 東洋新聞社, 1961; 高橋正衛, 『昭和の軍閥』, 中央公論社, 1969; 吉田裕, 「第一次世界大戦と軍部: 総力戦段階への軍部の對應」, 『歴史学研究』460, 1978; 額顯厚, 『総力戦体制研究——日本陸軍の國家總動員構想』, 三一書房, 1981; 加藤陽子, 『徴兵制と近代日本: 1868~1945』, 吉川弘文館, 1996; 山田朗, 『軍備拡張の近代史: 日本軍の膨張と崩壊』, 吉川弘文館, 1997; 戸部良一, 『日本の近代(9): 逆説の軍隊』, 中央公論社, 1998; 黒澤文貴, 『大戦間期の日本陸軍』, みすず書房, 2000; 小林英夫, 『編 日本 の 総 力 戦 体 制: 戦前・戦後の連続とアジア』, 有志舎, 2004 등이 있다.

4) 藤原彰, 『軍事史』, 東洋新聞社, 1961.

5) 大江志乃夫, 『日本 謀本部』, 中央公論社, 1985.

6) 前原透, 『日本陸軍用兵思想史』, 天狼書店, 1994; 山田朗, 『軍備拡張の近代史——日本軍の膨張と崩壊』, 吉川弘文館, 1997; 黒澤文貴, 『大戦間期の日本陸軍』, みすず書房, 2000; 黒野耐, 『帝國陸軍の〈改革と抵抗〉』, 講談社現代新書, 2006.

못했다는 인식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왜 일본 육군이 그러한 경향으로 흘러갔는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며, 특히 전투수행방식에 대한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의 군사적 특징에 대하여 일본 육군이 지녔던 인식과 대응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제1차 세계대전의 전쟁양상 즉 장기전·소모전에 대한 일본 육군의 인식과 대응을 밝힌다. 다음으로 새로운 무기 출현 및 전술변화에 따른 전투수행방식에 대한 인식과 대응을 분석하고자 한다.

## 2. 장기전·소모전 인식과 단기결전의 채택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한 일본 육군의 인식은 크게 육군성과 참모본부의 활동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겠다. 육군성은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직후인 1915년 ‘임시군사조사위원(臨時軍事調査委員)’을 설치하여 전쟁의 군사적 특징을 일본 육군의 전략 및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임시군사위원’은 제1차 세계대전의 군사제도, 무기, 전술 등 군사전반에 걸친 연구를 통해 『海外差遣者報告』, 『臨時調査委員月報』 등을 발간, 제1차 세계대전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이를 알리려고 노력하였다.<sup>7)</sup>

참모본부는 전쟁기간 및 전쟁 이후 독일, 프랑스, 영국, 러시아 등에 관전무관(觀戰武官) 및 시찰단을 파견하여 전쟁의 양상을 관찰하고 파악하고자 하였다. 1914년부터 1924년까지 참모본부가 파견한 시찰단은 약 220명에 달하며, 보고서는 1,145건 이상이다.<sup>8)</sup> 파견 군인의

7) 여기서는 군사부분뿐만 아니라, 재정, 금융, 교통, 국민생활에 이르는 총 335개 항목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육군은 이미 총력전 수행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8) 參謀本部第一部, 「部外秘 海外差遣者報告輯 大正三年以降」

계급은 육군대학을 졸업한 대위급이 많았으며, 이들은 러일전쟁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세대들이었다. 이들이 작성한 전쟁의 전황과 전훈(戰訓) 등에 관한 기사는 육군 기관지인 『偕行社記事』에 게재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참모본부에서는 『歐濼争 叢書』, 『歐洲戦争叢書特号』 등을 발간하였다. 이렇듯 참모본부는 제1차 세계대전의 전략, 전술적 교훈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렇듯, 육군성과 참모본부의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한 연구는 실제로 일본의 군사전략을 제시하는 『帝國國防方針』이나, 육군의 典範令 및 각 병과의 조전(操典)에 반영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서부전선에서는 독일과 영국·프랑스 연합군이 전투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한 채 참호를 사이에 두고 오랜 기간 동안 지루한 장기전·소모전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전쟁의 양상에 대해서 일본 육군 수뇌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먼저, 육군 참모차장 다나카 기이치(田中義一)는 제1차 세계대전의 교훈에 대해 “우리 국정(國情) 그리고 국민성은 지금 유럽의 전쟁과 같이 장기에 걸친 작전에는 불리한 것이 확실하며, 현재의 국력으로 장래의 적에 대해 절대적으로 우세를 점하기는 부족하다”고 평가하였다.<sup>9)</sup> 이는 일본의 국력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전쟁을 장기전·소모전으로 끌고 가는 것은 곤란하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근위보병 제2여단장 츠노 가즈스케(津野一輔)는 「유럽전에 관한 소감 일절(一節)」을 통해,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해 물적 전력의 중요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앞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장기전·소모전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sup>10)</sup>

위와 같은 수뇌부의 의견차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나타난 장기전·소모전 양상에 대한 일본 육군 내의 이른바 ‘근대화노선파’와 ‘현상

9) 田中陸軍中將, 「歐洲戦争ノ與ヘタル戰略戰術上ノ教訓」, 『偕行社記事』 제512호(1916년 12월), p.5.

10) 津野陸軍少將, 「歐洲戰ニ關スル所感ノ一節」, 『偕行社記事』 제529호(1918년 8월), pp.1~4.

유지파'의 노선 대립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근대화노선파’는 1924년부터 1927년까지 육군대신이었던 우가키 가즈시케(宇垣一成)를 중심으로 한 육군성의 군사제도 담당자들과 나가타 테츠잔(氷田鉄山)을 중심으로 한 러·일전쟁 후 형성된 실전경험이 없는 육군대학교 출신의 신흥 엘리트들을 주축으로 이루어진 파벌로, 1920년대 군의 개혁을 주창해왔다.<sup>11)</sup>

이들은 장기전·소모전의 가능성을 인정하였다. 우가키는 1925년 “단시일내에 전국(戰局)의 종결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개전 초기에 투입이 가능한 정예부대를 평시부터 준비해야 하며, 전쟁이 확대되어 지구전이 될 경우에는 국가총무장에 합당한 준비를 하는 것이 지극히 중요하다”고 말한다.<sup>12)</sup> 즉, 장기전·소모전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병력동원이나 물자 등을 준비하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수여도 근대화된 정예 상비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가능하면 정예 상비군이 결전을 통해 전쟁을 신속하게 종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하여 장기전에 대한 준비 또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근대화노선파’는 동원체제 정비와 무기의 현대화 등을 통해 장기전에 대한 준비를 역설한다.<sup>13)</sup>

이에 비하여 ‘현상유지파’는 우에하라 유사쿠(上原勇作) 참모총장을 중심으로 다나카 구니시게(田中国重) 참모본부 제2부장, 오타케 사와지(大竹沢治) 참모본부 제1부장 등 주로 작전을 담당하는 군령계통의 출신들로 이루어진 파벌이다.<sup>14)</sup> 이들은 일본은 경제적으로 취약하며 자급자족능력이 없기 때문에 전쟁을 장기전·소모전으로 치달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장기전·소모전에 대해 준비로 불필요하게 힘을 쏟기보다는, 오히려 단기결전으로 전쟁을 신속하게 종결시키는 데에 군사적 역량을 집중할 것을 역설한다. 이를 위해 상대가

11) 山田朗, 위의 책, p.110.

12) 陸軍省軍務局, 『帝國及列強の陸軍』, 1924, pp.4~6.

13) 黒野耐, 『帝國國防方針研究: 陸海軍國防思想の展開と特徴』, 總和社, 2000, p.139.

14) 山田朗, 위의 책, p.110.

본격적으로 전선을 구축하기 이전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기 위하여 평시부터 많은 수의 사단을 보유해야 한다고 하였다.<sup>15)</sup>

이처럼 일본 육군의 수뇌부 내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의 전쟁 양상인 장기전·소모전에 대한 대응에 대한 의견차가 존재하였다. 실제로 일본 육군의 장기전·소모전에 대한 대응이 일본의 군사전략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의 군사전략은 「제국국방방침」에 잘 정리되어 있다.<sup>16)</sup>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 「제국국방방침」의 요지(군사전략)<sup>17)</sup>

		1907년	1918년(1차개정)	1923년(2차개정)	1936년(2차개정)
국방의 방침 (군사전략)		공세주의 단기결전	공세주의 단기결전	공세주의 단기결전	공세주의 초기작전중시 장기전에 대비
가상 적국	육군	러시아	러시아, 중국	소련, 중국	소련, 중국
	해군	미국, 독일, 프랑스	미국	미국	미국, 영국
소요 병력	육군	평시 25개 사단 전시 50개 사단	전시 40개 사단	초기작전을 위한 40개사단	초기작전을 위한 50개 사단
	해군	(생략)			
개정 의 특 징		러일 전쟁 후 제정	1차 대전 후의 국제정세, 군비확장에 대응	워싱턴 회의 후의 국제정세, 군비축소에 대응	조약탈퇴후의 국제정세, 무한 군비확장에 대응

제1차 세계대전이 미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1차 세계대전 직후 개정된 1차 개정판(1918)과, 전쟁의 교훈에 대해 어느 정도 논의가 활발해졌으리라 판단되는 5년 후의 2차 개정판(1923)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차 개정판(1918)에서 일본의 군사전략은 단기결전과 공세주의이다.<sup>18)</sup> ‘근대화노선파’와 ‘현상유지파’의 논쟁이 진행되는

15) 黒野耐, 위의 책, p.140.

16) 「제국국방방침」은 1907년(明治40) 제정 후 3차례, 즉 1918년(大正7), 1923년(大正12), 1936년(昭和11) 개정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黒野耐, 위의 책, pp.23~26 防衛 防衛研 修所戰史室, 『戰史叢書 大本營 陸軍部(1)』, 朝雲新聞社, 1967를 참고할 것.

17) 防衛 防衛研 修所戰史室, 위의 책 참고.

18) 黒川雄三, 『近代日本の軍 略概史』, 芙蓉書房, 2003, pp.105~106.

2차 개정판(1923)에서도 단기결전을 위한 공세주의가 여전히 국방의 방침으로 여겨진다.<sup>19)</sup>

이후 일본의 군사전략은 기본적으로 단기결전으로서 조기에 전쟁을 종결시키는 것에는 변함이 없었다. 특히 1920년대 후반 이른바 파벌 다툼에서 승리한 ‘현상유지파’가 육군성 및 참모본부의 요직을 차지하면서 일본 육군의 군사전략의 방침은 “선제의 이를 점해 공세를 취하는 것을 본령으로 한다”는 공세주의와, “적보다 먼저 신속하게 희망하는 병력을 한 지점으로 집중시켜 적 야전군을 격파하는 것을 작전방침으로 한다”는 단기결전주의로 굳어지게 된다.<sup>20)</sup> 즉, 파벌 경쟁에서의 승패여부가 일본의 군사전략 결정에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이처럼 육군 내에서 제1차 세계대전의 교훈을 통해 장차전은 장기전·소모전이 될 것이며, 이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되긴 하였지만, 이후의 군사전략은 이전과 같은 단기결전으로 고착된다. 일본 육군은 장기전·소모전에 대한 준비보다는 이를 회피하는 방침으로써 단기결전을 고집하였던 것이다.

장기전·소모전의 수행을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군비가 증가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당시 일본 육군이 처한 외적 환경을 고려해 볼 때, 당시 1921년 워싱턴회의로 시작된 군축이라는 국제 및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군비확충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sup>21)</sup> 특히, 미국 및 유럽열강에 비하여 자원이 부족하고 경제적 능력이 취약한 일본이 장기전·소모전 양상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견해가 주를 이루었다.

장기전·소모전을 통한 전쟁에서의 승리가 실제 일본의 군사전략으로

19) 다만, 2차 개정판에서는 이를 위한 소요병력으로 “초기작전에 필요한 40개 사단이라는 상비전력”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육군의 소요병력에 “初期作戰을 위한 40개 사단”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작전’ 대신 ‘초기작전’을 언급한 데에는 육군이 초기 그 이후의 작전을 염두해 둔 용어선정으로 짐작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초기작전’의 언급은 육군이 장기전 양상을 예상하였으며, 이는 우카키를 중심으로 한 ‘근대화노선파’의 견해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 防衛庁 防衛研究所戰史室, 위의 책, pp.229~270 참고.

21) 加藤陽子, 위의 책, pp.223~224.

반영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물론 위에서 지적한 노선의 대립과 일본의 국력과 같은 전략환경이 큰 요소로 작용하였다. 그런데 ‘근대화노선파’와 ‘현상유지파’의 대립도 단기결전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군대의 질과 양 중의 선택 여부, 혹은 장기전·소모전 준비 여부에 대한 차이만 있었지, 결국 장기전·소모전에 대한 준비보다는 이를 회피하기 위해 단기결전을 우선시한 것이 육군 내부의 공통된 흐름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일본 육군은 장기전·소모전에 대한 준비보다는 이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단기결전을 구상하였던 것이며, 이러한 구상이 「제국국방방침」의 제2차 개정판(1923)에 반영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장기전·소모전을 회피하기 위한 단기결전이 군사전략의 방침으로 유지되고 강조됨에 따라 육군은 그 구체적인 수행방법으로 기동전·섬멸전 연구에 매진하였다. 특히, 포위섬멸전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당시 일본 육군이 지대한 관심을 가졌던 것이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한 독일군의 작전계획인 ‘슐리펜 계획’이다.<sup>22)</sup>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은 서쪽에는 프랑스, 동쪽에는 러시아라는 양면의 적에 맞서서 먼저 프랑스군을 최대한 빠른 시간에 섬멸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와 싸운다는 전략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려 하였다. 이를 위해 프랑스를 6주 이내라는 빠른 시일 내에 굴복시키기 위해, 단기결전으로서 우익과 좌익의 비율을 7:1로 하여 프랑스군을 포위섬멸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마른 전투에서의 패배 이후 프랑스군을 포위 섬멸하는 데 실패하게 되었고, 전쟁의 양상은 지루한 참호전 및 장기전이 되었다.<sup>23)</sup>

22) 參謀本部編, 「聯戦 前における陸軍の作戦計画とマルヌ聯戦の研究」, 『欧州戦史叢書』第34号, 1920; 參謀本部編, 「殲滅戰」, 『欧州戦史叢書』第特14号, 1921. 여기서는 1차대전 당시의 독일과 현재 일본이 놓인 비슷한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다정면작전의 수행, 경제력과 산업력의 한계로 인한 장기전보다는 단기결전, 내선작전을 강요받게 되는 부분, 통수권의 신봉이며 당시 일본육군이 생각한 가상적국이 소련(구러시아)과 중국이라는 점에서 러시아와 프랑스를 적으로 둔 독일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

23) Doughty & Gruber, Warfare in the Western World, Volume II, Lexington: D.C Health and Company, 1996, p.43.

전쟁 이후 일본 육군 참모본부에서는 독일의 작전계획이 실패한 것은 쉐리펜 계획 자체에 문제점이 있었다기보다는 이 계획을 수행한 당시 독일군 참모총장이었던 몰트케(Helmuth Johann Ludwig von Moltke)의 과감성과 이해력의 부족으로 인해 최초 쉐리펜 계획이 의도한 대로 작전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여겼다.<sup>24)</sup> 즉, 최초계획대로 과감하게 작전을 수행하였다면 프랑스를 패배시켰을 것이고, 전쟁은 장기전 양상으로 가지 않았으리라고 보았던 것이다.

또한 독일군이 러시아군에 대승리를 거둔 탄넨베르크 전투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이 전투는 당시 일본 육군의 참모본부, 육군대학교에서 “섬멸전법에 관한 원칙적 연구”로서 다루어졌다<sup>25)</sup>. 또한 섬멸전을 하는데 있어서 “소질(素質)이 떨어지는 적에 대한 적의 연구는 필요하며, (...중략...) 적의 통상적인 전법을 간파하고 이에 따른 전법을 연구하고, 섬멸전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기략을 육성함과 동시에 원칙 이외의 원칙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서술한다.<sup>26)</sup> 여기서 ‘소질이 떨어지는 적’이란 일본 육군의 가상적국인 러시아를 의미하며, 독일군이 러시아군에 대승리를 거뒀던 것과 같이 일본 육군도 같은 방법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 육군의 최상위 교범인 『통수강령(統帥綱領)』(1928)에서도 “공세로써 신속하게 적군의 전력을 격멸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신속한 집중과 과감한 기동을 통한 섬멸전을 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sup>27)</sup> 이러한 ‘신속한 집중’과 ‘과감한 기동’은 기계화부대의 신속한 기동이 아닌 보병의 기동이었으며, 이를 위해 일본 육군은 현장지휘관의 독단전행(獨斷專行)을 강조하고 장려하였다.<sup>28)</sup> 결국 일본 육군은 단기결전을

24) 大江志乃夫, 『日本參謀本部』, 中公新書, 1981, pp.144~145.

25) 參謀本部編 「開戰前における陸軍の作戰計畫とマルヌ開戰の研究」, 『歐洲戰史叢書』 第34号, 1920; 參謀本部編 「殲滅」, 『歐洲戰史叢書』 第特14号, 1921 참고.

26) 위의 책, 「殲滅」.

27) 參謀本部, 『統帥綱領』, 1928, p.1.

28) 여기서의 독단전행이란 작전에 대한 현장지휘관의 재량권을 의미한다. 자세한 내용은 좋고, 「근대일본 육군의 ‘독단전행’과 만주사변」, 『만주연구』 제12집, 2011, pp.161~164를 참고할 것.

군사전략으로 채택하였으며, 이를 성공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포위섬멸전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 3. 전투수행방식 재편의 한계와 백병돌격 전술의 강조

제1차 세계대전의 주전장인 서부전선은 진지전·참호전의 양상을 띠었다. 공자가 돌격을 하며 적진지에 대한 돌파를 감행하다가, 결국 방자의 포병 및 기관총 등의 화력에 의해 대량의 희생을 내는 모습이 반복되었다. 또한 양측이 공격과 방어를 번갈아 하며 결국 양측 모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전투가 반복되었다. 이러한 전쟁양상의 교훈은 공자의 공격보다 방자의 방어가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이었으며, 그 요인은 효과적인 화력의 사용에 있었다.

한편, 방어진지를 돌파하기 위한 다양한 공격전술이 개발되기도 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독일의 ‘후티어 전술’이다.<sup>29)</sup> 또한 공격 시 아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전투단위가 소규모 단위로 작아져, 전투원 개개의 전투능력이 중시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참호를 돌파하기 위해 처음으로 전차와 항공기 등 새로운 무기체계가 등장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후 유럽에서는 참호전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새로운 무기체계에 관심을 가졌다. 또한 이의 운용방법에 대해서 영국의 풀러(John Frederick Charles Fuller)의 ‘기계화전’, 이탈리아의 두헤(Guilio Douhet)의 ‘항공전’의 군사이론 등이 등장하였다. 영국의 리텔하트(Basil Herny Liddell Hart)는 풀러의 ‘기계화전’을 발전시키는 한편, 보병전술에 있어서도 전면적인 개혁을 제안하였다. 보병 화력의 주력은 기관총이며, 소총의 시대는 지났으며, 소총도 자동소총화

29) 자세한 내용은 육군사관학교 전사학과, 『세계전쟁사』, 황금알, 2005, 240~243쪽을 참고할 것.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그리고 보병의 전투대형은 이전의 밀집대형이 아닌 적 화력으로부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관총을 중심으로 산개대형으로 소산해야 한다고 하였다.<sup>30)</sup> 이처럼 제1차 세계대전 후 유럽에서는 새로운 무기체계의 수용과 이의 효과적인 활용에 따른 연구가 매우 활발하였으며, 이는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각국에 영향을 끼쳤다.

훗날 독일 육군은 새로운 군사이론과 무기체계를 그들의 군사전략에 맞게 수용하여,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격전이라는 전투수행방식으로 순식간에 강국 프랑스를 굴복시켰다. 물론 결과론적 입장에서 서전의 완벽한 승리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장기전 양상으로 흘러갔지만, 최초 그들이 구상했던 단기결전에서 대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물론 이는 전차의 집중적인 운용을 통해 이를 중심으로 한 빠른 기동과 근접폭격기의 지원 등 새로운 무기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용했기에 가능했던 것이었다. 한편, 독일과 같은 단기결전이라는 군사전략을 가지고 있었던 일본 육군 역시 전차, 항공기와 같은 새로운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군근대화’에 대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각 열강과 마찬가지로 일본 육군 내에서도 제1차 세계대전의 전투수행방식에 대한 인식과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강구하였다. 와타나베 조타로(渡辺錠太郎)<sup>31)</sup>는 “현 전투방법은 지나친 공격정신의 오용에 따라 무모한 돌격의 정신만능주의에서 오는 육탄전술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전쟁의 실상은 “포병과 기관총의 유효사정거리의 화력 앞에서 보병은 밀집대형을 유지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sup>32)</sup> 이와 같은 전쟁 시찰단의 보고서 등을 통해 일본 육군 역시 보병 전투에 있어서 기관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소총 위주의 밀집 돌격은 강력한 화력 앞에서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사실 또한 인식하고 있었다.

30) 김철환, 『전쟁 그리고 무기의 발달』, 양서각, 1997, 109~110쪽.

31) 육군소장, 1917년 네덜란드 무관, 1925년 육군대학교장, 1930년 타이완군사령관, 1935년 육군교육총감 역임. 자세한 내용은 秦郁彦編 『日本陸海軍總事典』 [第2版], 東京大学出版会, 2005.를 참고할 것

32) 渡辺錠太郎, 「歩兵操典ノ改正ニ就テ」, 『偕行社記事』 제554호, 1921.

이에 따라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육군에서는 상대의 화력으로 부터 피해를 줄이면서, 동시에 공격 시 효과적으로 기관총을 운용할 수 있도록 새로이 ‘소개전투(疏開戰鬪)’가 일본 육군의 기본전술로 도입되었다. 여기서 ‘소개전투’란 소총, 경기관총, 유탄수로 구성된 분대(分隊)를 기본단위로 하여 기동과 사격, 돌격을 실행하는 전투방식이다.<sup>33)</sup> “소개전투는 보병전투의 주요한 방식으로 적 화력의 효력을 감소시켜 아군의 화력과 돌격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것을 그 취지”로 분대단위 위주의 ‘소개전투’가 강조되었다.<sup>34)</sup> 이는 종래의 중대(中隊) 중심의 전투수행에서 비약적으로 세분화된 것이었다.

또한 전투 대형 역시 분대 단위의 소개대형으로 변화하였다. 『보병조전 초안 개정 이유서(步兵操典素案改正理由書)』(1921)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의 전투양상을 통해 화기와 화력의 위력을 고려하여 소개대형을 채용한다”고 하였다.<sup>35)</sup>

원래 일본 육군 보병의 전투수행방식은 다음과 같았다. 중대가 밀집대형으로 기동하다 전투 시작 직전에 산개로 전환하여 사격을 실시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중대를 기본 단위로 하는 백병돌격으로 전투의 승패를 결정짓는 것이었다.<sup>36)</sup>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포화로부터 피해를 줄이고 효과적으로 전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분대 단위 위주의 ‘소개전투’를 강조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 “우리 국가의 독특한 묘기” 또는 “우리 국민의 성격에 합당한 장래 전투에 있어서의 비결”로 칭송받는 이른바 일본 육군의 ‘장기(長技)’인 백병돌격(白兵突撃, 총검돌격, 착검돌격)도 그 운용방법이 변화하였다.<sup>37)</sup> 기존에 중대별로 행해진 돌격은 “최초의 돌격은 통상 소대장의 명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다”와 같이 소대단위로

33) 防衛庁 防衛研修所戰史室, 『戰史叢書 關東軍(1)』, 朝雲新聞社, 1969, p.34.

34) 陸軍省, 『步兵操典草案』, 1923, p.94.

35) 教育總監部, 『步兵操典草案改正理由書』, 偕行社, 1920, pp.2~3.

36) 위의 책.

37) 防衛庁 防衛研修所戰史室, 『戰史叢書 關東軍(1)』, 朝雲新聞社, 1969, p.30.

모여서 이루어지게 되었다.<sup>38)</sup> 또한 “스스로 호기를 발견할 경우 분대장이 돌격의 호령을 내린다”고 하는 것처럼 분대 단위의 돌격이 가능해졌다.<sup>39)</sup>

또한 『보병조전 초안 개정 이유서(步兵操典素案改正理由書)』(1923)에서 백병돌격의 시기에 대해 “(돌격은) 야간을 이용하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로 한다”고 하였다. 즉, 적의 사격으로부터 받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야간에 야음을 틈타 돌격을 행할 것을 제시하였던 것이다.<sup>40)</sup> 이처럼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육군의 전투방식에는 분대 위주의 ‘소개전투’가 채용되었으며 백병돌격의 방법 역시 변화가 있었다.

위와 같은 전투수행방식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무기체계를 도입하여 ‘군 근대화’를 이루려는 노력이 병행되었다. 이는 1923년 육군대신으로 취임한 우가키 카즈시게의 ‘우가키 군축’을 통해 본격화되었다. 1925년 실시된 군축은 “유래 없는 4개 사단 감축”이 주요 골자였다. 우가키는 사단 감축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육군의 근대화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실제로 이 기간 동안, 항공부대의 확충, 전차부대의 신설, 고사포부대의 신설 등 상당부분 군의 근대화가 이루어졌다.<sup>41)</sup> 하지만 국가 재정 부담 등의 이유로 목표로 했던 ‘군 근대화’는 온전히 달성되지 못했다.<sup>42)</sup>

또한 제1차 세계대전 중 서부전선 관전무관으로 활동하였던 포병장교들을 중심으로 보·포병 동시 증시론이 주창되기도 하였다. 이들은 전쟁에서 드러난 포병 화력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장차 포병 화력을 강조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육군의 근대화 과정에 있어서도 포병 화력의 증강에 대한 여러 논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군축의

38) 陸軍省, 『步兵操典草案』, 1923, p.120.

39) 위의 책.

40) 教育總監部, 『步兵操典草案改正理由書』, 偕行社, 1923.

41) 藤原彰, 『軍事史(上)』, 東洋經濟新聞社, 1961, pp.171~172; 川島正, 『軍縮の功罪』, 近代文芸社, 1994, pp.103~113. 여기에는 구체적인 규모, 편제 및 교육까지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42) 川島正, 위의 책, pp.154~155.

결과는 여전히 화력경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sup>43)</sup> 포병의 강화는 육군 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이는 우카키 군축에서 실시한 사단의 감축에 있어서도 보병보다는 포병 위주로 병력이 감축되었다는 사실에서 잘 알 수 있다.<sup>44)</sup>

결국, 군축을 통한 군 근대화 이후에도 일본 육군의 장비는 과거의 러일전쟁 당시에 비해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오히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무기체계 면에서 세계열강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 채 이른바 '2등 육군'으로 추락하고 만다. 대표적으로, 보병의 기본 화기는 러일전쟁 당시와 동일한 총검을 장착한 38식 소총<sup>45)</sup>이었으며, 이의 기본전술은 사격보다는 총검술에 의한 백병돌격 중심이었다. '소개전투'라는 새로운 전투수행방식이 도입되기도 하였지만, 화력보다는 정신력을 우선하는 일본육군의 전투 방식의 근간이 바뀐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1920년대 후반에 와서는 정신력을 강조하는 풍조가 팽배해진다. 교육총감 무토 노부요시(武藤信義)는 다음과 같이 훈시하였다.

필승의 신념은 전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요건이다. (...중략...) 하급 간부 또는 병졸의 신념에 동요가 일어나지 않게 하며 유해무익의 장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중략...) 전쟁의 승패로서 존중해야 하는 것은 정신적 요소와 훈련 상의 성과이다. 장차 이것이 우월하다면 다른 물질위력을 압도하여 승리의 길을 달성할 수 있다.<sup>46)</sup>

43) 大江志乃夫, 『日本參 謀本部』, 中公新書, 1985, p.143.

44) 山田朗, 『近戰戰爭의兵器思想動員』, 青木書店, 2006, pp.38~41. 이의 원인에 대해서는 육군이 포병 화력의 중요성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보병의 기득권 유지의 일환이었거나, 아니면 육군 내에서 보병의 전투력을 지나치게 맹신하였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료를 바탕으로 차후에 연구할 필요가 있다.

45) 38식 소총은 1905년부터 상용화된 일본 육군의 표준 개인화기이다. 기존의 소총과 비교해 볼 때 만주, 시베리아 등지에서 효과를 높이기 위해 모래, 먼지, 물 등의 이물질로부터 성능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설계되었다. 또한 구경을 기존의 6에서 7mm로 높여 살상력을 증대시켰다. 다만, 총검을 장착한 총의 길이가 170cm(총검 39.8cm)이며, 이는 당시 일본인 남성의 평균 신장 약 155cm에 비해 지나치게 길었다. 연발 장전이 되지 않고 한발 한발 재장전 후 발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38식 소총은 태평양 전쟁 시까지 사용되었다.

무토는 1920년대의 자유와 자율로 대변되는 ‘데모크라시’ 사조로부터 오는 군대 내의 동요를 막고 상대적으로 열세한 물질전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신적 요소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필승의 신념이 있다면, 다른 물질적 요소를 압도해 승리의 길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보병 위주의 백병돌격 강조는 ‘군 근대화’의 역풍과 그 실패에서 기인하였다. 물론 처음부터 ‘군 근대화’ 인식에 반대하는 여론은 존재하였다. “병기 등의 질과 수량을 제일 먼저 염려하는 오늘날에 있어서, 그들의 형식을 모방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포화의 효력은 결코 예상과는 다르며, 보병은 이런 화력을 기대하지 말고 오로지 전진해야만 한다”며, 처음부터 화력주의 맹신을 경계하는 인식이 존재하였다.<sup>47)</sup>

1928년 개정 『보병조전(步兵操典)』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물질적 요소를 강조한 결과 무형적 요소가 경시되고 말았다고 지적한다. 여기서는 당시 우가키 군축에 의해 군의 근대화가 시도되었지만 일부의 부대를 제외하고 근대화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sup>48)</sup> 물질적 전력이 충분히 강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전투력의 유지를 위해서는 더 이상 물질적 전력에 의존할 수 없으며, 이는 무형적 전력의 강조로 이어지는 것이다. 결국 이후 일본 육군은 ‘군 근대화’와 같은 군 개혁이나 물질적 전력의 강조보다는 정신력과 같은 무형적 전력의 강조를 통해 전투력을 유지하려고 하였다.

이 시기 일본 육군은 무엇보다도 공격정신(攻撃精神)을 강조하였다. 『步兵操典』(1928)에서는 ‘필승의 신념’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하였으며, 이 용어는 『戰鬪綱要』(1929)에서 일관되게 강조되었다. 또한 “훈련에 필승의 신념을 고취시키고 군기를 엄정하게 하여 공격정신이 충만한 부대는 물질적 위력을 배가시켜 전투할 수 있게 된다”고 평가하였다.<sup>49)</sup> 이처럼 1920년대 후반에 와서 육군 내에서 공격정신의

46) 河辺正三, 『日本陸軍精神教育史考』, 原書房, 1980, p.86에서 재인용.

47) 柴山重一, 『歐州戰爭教訓ノ採用ニ就テ』, 『偕行社記事』 554호, 1920.

48) 防衛庁防衛研究所戰史室, 『戰史叢書 大本營 陸軍部(1)』, 1967, pp.267~268.

49) 陸軍省, 『步兵操典』, 1928, p.2.

강조가 이전보다도 훨씬 강도 높게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리고 무형전력 즉, 정신력의 강조는 백병돌격의 강조로 이어지기 쉬웠다. 공격정신을 가장 잘 표현하는 전투수행방식이 백병돌격이기 때문이다.<sup>50)</sup> 돌격에 필요한 ‘필승의 신념’을 더욱더 강조하여 “승패는 병력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정신력에 기인하는 것이며, 공격정신이 뛰어난 군대는 약한 전투력으로도 강한 적을 물리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처럼 제1차 세계대전 이후 1928년 시점에 와서 육군의 전투 방식은 보병위주의 백병돌격을 재차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에 1920년대 초반에 새롭게 도입된 소개전투는 “아군의 화력과 돌격력을 발휘”하기 위한 부차적인 형태로 남게 되었다. 물론 돌격에 있어서도 중대단위에서 소대 및 분대단위로 또는 돌격을 하게 되었고, 야간의 어둠을 이용한다는 방법이 추가되었지만, 근본적으로 백병돌격이라는 기본전술에는 변화가 없었다. 이처럼 일본 육군은 보병전술의 근간을 바꾸지 못한 채, 러일전쟁 이후 신봉해온 ‘일본 고유의 전술’인 백병돌격을 고수하였다.

물론, 여기에는 일본 육군이 백병돌격을 통한 전투수행방식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1922년 러시아 제국의 붕괴와 소련의 탄생은 러·일전쟁 이전부터 육군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었던 러시아라는 가상적국 존재의 상실을 의미하였다. 한편, 섬나라라는 일본 고유의 지리적인 조건 탓에, 육군은 대륙에서 미국이나 유럽 열강과의 대규모 전투가 전개될 가능성을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1924년 「제국국방방침」에서 해군이 상정한 가상적국에서도 알 수 있듯이<sup>51)</sup>, 일본 군부 내에서는 미국이나 영국과의 전쟁은 해군이 수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육군은 이에 무관심하였다. 이에 따라 육군은 국방 예산의 확보와 군사적으로 육군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해 나가기 위해 2차 개정판의 가상적국에

50) 陸軍省, 『歩兵操典』, 1909, p.2; 위의 책, 『戰史叢書 關東軍』(1), p.30.

51) 자세한 내용은 주15), 16)을 참고할 것.

기존의 소련을 그대로 유지하고, 여기에 중국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현실적 고려 속에서 일본 육군은 소련이나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전쟁에서 세계열강과 동질의 화력장비로 무장을 해야 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당시 참모본부가 파악한 대 소련 및 중국 인식에서도 알 수 있다. 이미 1922년 참모본부에서는 소련이나 중국에 대해 “병력수 등 잠재적인 위협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구조적으로는 매우 약체임이 틀림없다”고 평가했다.<sup>52)</sup> 특히, 소련 육군이 제1차 세계대전 탄넨베르크 전투에서 보여준 모습 등에 근거하여, 소련 육군을 “훈련이 결여되어 있고 기본적 자질이 떨어지는 군대”로 평가하였다.<sup>53)</sup> 1926년 참모본부가 내린 소련 육군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에 의하면, “(소련 육군의) 편성, 장비는 우리군보다 낫지만, 소질, 통수능력 면에서는 우리군보다 훨씬 떨어지며, 그들의 3개 사단에 맞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2개 사단 정도면 충분하다”로 소련 육군을 과소평가하고 있다.<sup>54)</sup> 이러한 가상적국에 대한 경시는, 일본 육군에게 화력과 장비의 증강이 부족해도 러·일 전쟁의 승리 속에서 이미 효과가 입증된 기존의 보병 위주 백병돌격으로 중국 또는 소련과의 전쟁에서 승리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형성해주었다.

일본 육군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화력의 중요성을 인식하였으며, 새로운 전투형태로서 ‘소개전투’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결국, 총검을 사용한 백병돌격이라는 전술의 근간은 바뀌지 않았다. ‘군 근대화’라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한 채, 일본 육군은 공격정신과 같은 무형적 요소의 강조와 함께 백병돌격의 기존의 전투수행방식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52) 參謀本部, 「帝國陸軍ノ軍備ニ就テ」, 1922.

53) 謀本部編, 「殲滅」, 『欧州戰史叢書』第特14号, 1921.

54) 鈴木重康中僱 係文書, 「極秘 対露作戰図上演習表施要領」, 1926. 葛原和三, 「藩 陸軍の第一世界大戰史研究」, 『戰史研究年報』제4호, 防衛 究所, 2001, p.46 재인용.

## 4. 맺음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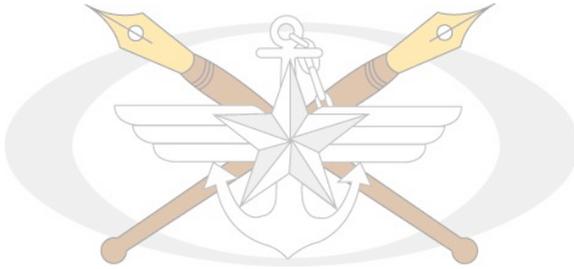
지금까지 일본 육군의 제1차 세계대전의 군사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장기전·소모전의 전쟁양상과 전투수행방식에 대한 인식과 대응에 대해 살펴보았다.

일본 육군은 장기전·소모전 양상의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해 새로운 전쟁양상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국력의 문제, 군 수뇌부의 노선대립 문제 등으로 인해 장기전·소모전에 대한 준비보다는 단기결전을 통해 이를 회피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와 동시에 단기결전을 달성하기 위해 작전술적인 차원에서의 포위섬멸전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었다. 일본 육군이 선택한 단기결전은 국력, 가상적국 등 당시 일본이 처해있는 전략 환경에 따라 결정된 합리적인 군사전략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해 단기결전으로 전쟁을 종결짓는 것이 쉽지 않음이 입증되었음에도, 장기전·소모전에 대한 대비를 간과한 단기결전 일변도의 전략구상은 결국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또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육군은 이른바 ‘군 근대화’를 통해 새로운 무기체계를 도입하려 했으며, 상대의 화력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분대 단위의 ‘소개전투’를 채용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인해 ‘군 근대화’는 실패로 돌아갔으며, 보병의 전투수행방식 역시 화력보다는 정신력을 보다 강조하는 백병돌격으로 나아갔다. 이는 물질전력의 확충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전투력을 정신력과 같은 무형전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논리가 일본 육군의 현실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일본 육군의 입장에서 제1차 세계대전은 새로운 전쟁양상과 전투수행방식의 흐름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일본 육군은 이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다. 오히려 그들의 대응은 새로운 흐름에 동참하기보다는 그와 다른 방법으로써 이를 회피 또는 극복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원고투고일 : 2013. 1. 1, 심사수정일 : 2013. 2. 19, 게재확정일 : 2013. 2. 25)

주제어 : 제1차 세계대전, 일본군, 일본 육군, 군사전략, 전투수행방식, 제국  
국방방침, 장기전, 소모전, 단기결전, 속전속결, 백병돌격, 총검돌격



<ABSTRACT>

## Why Did the Japanese Army Embrace Short-Term Decisive Warfare and Close Combat Assault?: How the Modern Japanese Army Recognized and Coped with the WWI

Shim, Ho-sub

As the Second Sino-Japanese War (1937~1945) and the Pacific War (1941~1945) unexpectedly developed into protracted wars of attrition, Japan was eventually defeated in the Pacific theater of the WWII. Another factor in Japan's downfall was the Japanese Army's warfighting style, which had not changed from the Russo-Japanese War. A typical combat in the Pacific War saw Japanese soldiers charging into the cross fire of the enemy machine guns until their annihilation, and that became an object of awe and caricature at the same time.

This paper discusses how the Japanese Army recognized and coped with the aspect of a protracted war of attrition like the WWI and the typical WWI warfighting style that put firepower at its center. This then tries to understand the behavior of the Japanese Army that caused its eventual demise in 1945. The Japanese Army recognized the need to prepare itself for a protracted war of attrition. Several factors including Japan's limited national capacity and the confrontation among the leading members of the army, however, led the Japanese Army to move away from such a preparation and toward short-term decisive warfare. Doing so, Japan would avoid being drawn into a protracted war of attrition. To that endeavor, the Japanese Army studied siege-and-annihilate operation in order to achieve short-term decisive warfare.

Given Japan's strategic environment such as her national strength and her potential enemies, the Japanese Army arguably made a reasonable

decision in embracing short-term decisive warfare. The WWI, however, had already shown the difficulty of achieving short-term decisive warfare. A strategy focusing only on short-term decisive warfare was bound to be limited in its effectiveness.

After the WWI, the Japanese Army also tried “modernization”, namely by introducing a new weapons system. It also employed Sokaisentou at the level of squad unit in order to minimize the damage from enemy firepower. Because of the lack of the budget, however, the “modernization” of the army failed. The army also abandoned Sokaisentou in favor of close combat assault that emphasized willpower over the actual firepower. It seems that the logic reflected the reality facing the army at the time. As material strength became unattainable, the army had to rely on intangible strengths such as willpower.

From the perspective of the Japanese Army, the WWI was an opportunity to join the Western imperial powers by recognizing and coping with new patterns of warfare and warfighting style. The Japanese Army, however, failed to keep up with the times. Rather, it chose to avoid facing this new situation or to take a detour, thereby failing to participate in the new era.

Key Words : World War I (WWI), Pacific War, Imperial Japanese Army(IJA),  
army, warfighting style, short-term decisive warfare, close  
combat assault

# 예방공격과 공격-방어이론

- 군사전략과 군사기술의 역할에 대한 연구\* -

박 준 혁\*\*

1. 서 론
2. 예방공격의 개념
3. 이론적 분석들
4. 사례 분석
5. 결 론: 사례별 특징 및 시사점

## 1. 서 론

예방공격(preventive attack)<sup>1)</sup>은 국제정치와 관련한 저서 및 논문  
에 빈번히 사용되어 온 용어이다. 이와 관련, 월츠(Waltz)는 국가가  
궁극적으로 평화를 원한다 할지라도 종종 상대국가에 대한 예방공격을

---

\* 본 논문은 필자의 미국 퍼듀대학교 정치학 박사학위논문, 『Offense, Defense, and Preventive Attack after World War II』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번역 및 보완해서 작성한 것임을 밝힌다.

\*\* 육군 중령(진), 한미연합사 기획참모부 근무(보병사단 대대장 취임 예정)

1) ‘예방전쟁(preventive war)’으로 자주 언급되기도 하나, 본 논문에서 다루게 될 핵심 이론인 ‘공격-방어이론’에서 제시된 ‘공격’ 용어의 취지를 살려 예방전쟁이 아닌 ‘예방공격’으로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감행하거나 고려하게 되는데, 그 이유로 공격의 이점이 존재하는 현 상황 하에서 예방공격을 실시하지 않으면 차후 공격의 이점이 상실된 상황 하에서 상대국가로부터 먼저 공격을 당할 위협 때문이라는 것이다.<sup>2)</sup> 특히 코펠랜드(Copeland), 반 에베라(Van Evera), 무엘러 등 (Mueller et. al.)과 같은 다수의 국제정치학자 및 안보전문가들은 예방공격이 빈번히 발생하는 시기를 국가 간 상대적 국력이 급격히 변화하는 때라고 주장하며, 이 시기에 국력이 급격히 증가 중인 도전국가에 대해 도전을 받는 국가는 상대적 국력이 더 이상 쇠퇴하기 이전에 패퇴시키고자 하는 동기에서 예방공격을 실시한다고 보았다.<sup>3)</sup>

위와 같은 예방공격의 동기와 관련한 주장은 특히 2차대전 이후 발생한 예방공격 (혹은 예방공격이 고려되어진) 사례들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타당한 설명력을 제공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시 말해, 전쟁과 관련한 대부분의 국제정치이론들은 강대국들 간의 전쟁발생 원인에만 이론 설명의 초점을 맞추다보니 정작 강대국이 중소강국들에 대해 가지게 되는 예방공격의 동기와 발생가능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기존 이론들은 강대국들 이외에 중소강국들 간에 발생하는 예방공격 사례들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은 세력전이의 위협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라크에 대해 2003년 예방공격을 실행하게 되었고 어떤 방식으로

2) Kenneth N. Waltz, *Man, the State, and War*(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9), p.7.

3) Dale C. Copeland, "Neorealism and the Myth of Bipolar Stability: Toward a New Dynamic Realist Theory of Major War", p.32 in Benjamin Frankel (ed.), *Realism: Restatement and Renewal*(New York: Frank Cass & Co. Ltd., 1996); Stephen Van Evera, *Causes of War: Power and the Roots of Conflict*(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99), p.4; Karl P. Mueller, Jasen J. Castillo, Forrest E. Morgan, Negeen Pegahi, and Brian Rosen, *Striking First: Preemptive and Preventive Attack in U.S. National Security Strategy*(Santa Monica, CA: RAND Corporation, 2006), pp.29~30.

신속한 승리를 달성할 수 있었는가? 반면, 1994년 북핵 위기와 관련, 미국은 북한에 대한 예방공격을 진지하게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실제 공격을 감행하지 않았는가? 다른 한편으로, 1956년 당시 이스라엘은 이집트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우세한 공격군사기술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왜 예방공격을 감행하게 되었고 어떻게 신속한 승리를 달성할 수 있었는가?

위와 같은 질문들과 관련, 본 논문의 목적은 ‘세력전이이론’(power transition theory)이나 군사기술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공격-방어이론’(offense-defense theory, 이하 공방이론)보다 우수한 설명력을 제공할 수 있는 보완된 전쟁이론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군사전략과 기술의 공방이론’(offense-defense theory of military strategy and technology)이 예방공격의 동기뿐만 아니라 예방공격의 승리나 역지의 가능성을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보완된 공방이론은 군사기술 이외에 군사전략을 새로운 변수로 제시함으로써 기존 공방이론에 비해 보다 폭넓은 설명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sup>4)</sup>

특히, 효과적인 방어전략은 예방공격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강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군사기술에서 비롯되는 중소강국들의 방어능력 열세를 상당부분 극복하는 승수효과를 지니고 있어 이들 중소강국들의 역지력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울러, 효과적인 공격전략은 예방공격국가가 우세한 공격군사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상대국가에 대한 예방공격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물론, 예방공격의 승리와 억제 가능성을 보다 잘 가늠하기 위해서는 지형, 동맹결속, 외교능력, 국내정치 등 보다 다양한 변수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처럼 많은 변수들을 고려할

4) 군사기술이라는 기존 공방이론 변수에 군사전략이라는 새로운 독립변수를 추가할 경우 이론의 간결성이 다소 약화되고, 특히 군사기술과 군사전략이라는 두 개의 독립변수간 상관관계가 발생하면서 인과관계의 정확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술하겠지만 독립변수로서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군사전략을 새로운 독립변수로 추가할 경우 보다 폭넓은 시각을 가지고 사례를 조망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경우 이론이 지녀야 할 간결성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시한 군사전략과 기술의 공방이론은 이론이 지녀야 할 간결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사기술 중심의 기존 공방이론이 지니는 설명력의 한계를 상당부분 극복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은 먼저 예방공격의 개념을 정의하고 예방공격을 설명해 왔던 세력전이이론과 기존 공방이론이 가지는 문제점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이후 새로운 설명변수인 군사전략에 초점을 맞춘 보완된 공방이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보완된 공방이론을 검증하기 위해 이스라엘과 미국에 의해 실시되거나 혹은 고려되어진 2차대전 이후 예방공격 관련 사례들에 군사전략과 군사기술 변수를 적용하여 분석할 것이다.



## 2. 예방공격의 개념

예방공격의 명확한 개념 정의를 위해서는 예방공격(preventive attack)과 선제공격(preemptive attack)의 개념을 정확히 구분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터커(Tucker)는 공격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적을 상대로 주도권을 쟁취하기 위해 먼저 감행하는 공격을 선제공격이라고 정의내린 반면, 예방공격은 공격하기 가장 유리한 시간에 의도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sup>5)</sup> 프리드만(Freedman)은 보다 더 엄밀한 선제/예방공격의 개념 구분을 시도한다. 그에 따르면, 적이 공격을 결정하거나 혹은 공격정후가 명확할 때 이러한 적의 공격이 시작되기 이전에 먼저 감행하는 공격을 선제공격이라고 정의 내린 반면, 현재 적으로부터 공격받을

5) Robert, W. Tucker, *The Just War: A Study in Contemporary American Doctrine*(Baltimore, MD: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60), pp.142~143.

가능성은 낮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 닥치게 될 적의 공격 가능성을 사전 제거하기 위한 차원의 공격행동을 예방공격이라고 정의하였다. 요컨대, 쌍방 모두 전쟁의 불가피성을 인식하는 일촉즉발의 위기상황 하에서 이러한 임박한 위협(imminent threat)을 제거하기 위해 상대방보다 앞서 공격하는 행동이 선제공격이라고 한다면, 예방공격은 전쟁의 발발이 당장 임박하지는 않았지만 비교적 가까운 미래에 일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이러한 위협을 사전 제거하기 위한 예방차원에서 앞서 공격하는 행동이라 할 수 있다.<sup>6)</sup>

위와 같은 시간적 반응의 차이를 통한 선제/예방공격의 개념 구분과 달리 몇몇 국제정치학자들은 적의 새로운 군사기술의 획득 혹은 개발과 관련하여 예방공격을 선제공격의 개념과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스나이더(Snyder)는 현존 적부대의 기동이나 부대전개를 사전 저지하기 위해 먼저 취하는 공격행동을 선제공격이라고 정의한 반면, 예방공격에 대해서는 적의 새로운 군사기술의 획득이나 개발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취하는 공격행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sup>7)</sup> 나아가 하스(Haass)는 대량살상무기(WMD)의 획득이나 개발을 시도하는 적대세력과 함께, 행동 예측이 곤란하고, 지정된 거점이 없는 테러리스트 조직을 예방공격의 표적으로 삼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sup>8)</sup>

정당성 측면에서 선제/예방공격의 개념을 살펴보면, 선제공격은 적이 확실히 먼저 공격을 할 것이라는 충분한 정황적 증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공격인 만큼 예방공격에 비해 국제사회로부터 높은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 가령, 1967년에 이스라엘이 이집트 주도의 아랍연합국들에 감행한 공격은 선제공격의 사례로 1956년의 이집트에 대한

6) Lawrence Freedman, "Prevention, Not Preemption",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26, No. 2(2003), p.106.

7) Jack Snyder, *Myths of Empire: Domestic Politics and International Ambition*(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91), p.160.

8) Richard N. Haass, *Intervention: The Use of American Military Force in the Post-Cold War World*(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1994), p.24.

예방공격 사례(시나이 전역)와 비교시 상대적으로 국제사회로부터의 비난을 모면할 수 있었는데, 이는 이집트가 아랍국가들과 연합으로 이스라엘을 곧 공격할 것이라는 충분한 정황적 증거(공격을 위한 대부대의 기동 및 전개)에 기반하여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을 감행하였기 때문이다.<sup>9)</sup>

지금까지 시간적 반응 측면, 신무기 획득 및 개발, 표적의 성질, 그리고 정당성 개념과 연계하여 선제공격과 대비되는 예방공격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위에서 제시한 1967년의 이스라엘 공격은 선제공격 사례로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선제공격은 예방공격에 비해 그 사례가 역사적으로 매우 드물다.<sup>10)</sup> 이러한 맥락에서 2003년 미국의 이라크 공격 또한 선제공격이 아닌 예방공격 사례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가령 2003년 이라크 공격 개시 이전 부시 행정부가 “예방(prevention)”이라는 용어 대신 “선제(preemption)”라는 용어를 그들의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 빈번히 사용하였는데, 이는 이라크에 대한 공격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적 차원의 용어선택으로 볼 수 있으며, 실제 공격형태는 예방공격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9/11테러와 관련한 알카에다 배후 연계 가능성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 의혹이 높은 사담후세인 정권의 위협(그러나 미국은 관련된 증거들을 발견하는데 실패함)을 사전 제거하려 했다는 측면에서 명백한 예방공격의 사례로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1956년 시나이 전역 역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대해 감행한 예방공격 사례<sup>11)</sup>라 할 수 있다. 한편, 1994년 북핵 위기는 당시

9) Richard K. Betts, “The Striking First: A History of Thankfully Lost Opportunities”, *Ethics and International Affairs*, Vol. 17, No. 1(2003), p.19.

10) Dan Reiter, “Exploding the Power Keg Myth: Preemptive Wars Almost Never Happen”, *International Security*, Vol. 20, No. 1(1995), pp.5~34.

11) 이스라엘에 대한 이집트의 당시 적대적 의도 및 행위를 이스라엘에 대한 이집트의 공격이 임박한 것으로 간주하여 시나이 전역을 이스라엘의 예방공격이 아닌 선제공격 사례로 볼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하지만 선제공격의 보편적 정의는 적의 대규모 병력이 명백한 공격의도를 보이면서 아측으로 대규모 실기동 및 전개를 하거나, 혹은 아측에 대한 핵투발 등이 임박하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을 때 선제적으로 취할 수 있는 아측의 공격행동으로, 덴 라이터(Dan Reiter)라는 국제정치학자는 2차대전 이후 실제 선제공격이 일어난 경우는 (1)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과 (2) 1967년 이스라엘-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예방공격을 진지하게 검토한 사례로서, 최종적으로는 예방공격이 아닌 협상전략을 채택하였다는 측면에서 예방공격의 억지 가능성과 연계하여 연구해 볼 가치가 있는 사례라 할 수 있다.

### 3. 이론적 분석틀

#### 1) 예방공격을 설명하는 기존 전쟁이론

##### (1) 세력전이이론

세력전이이론은 국가 간 상대적 힘의 변화가 예방공격의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의미있는 분석도구를 제공한다. 전통적인 관점의 세력전이이론은 도전국가의 힘이 지배국가의 힘에 근접할 정도로 증가하게 되면 최초 공격은 지배국가가 아닌 도전국가에 의해 일어난다고 보는 것인데, 그 이유는 현 국제질서의 권력 배분상태(international status quo)에 도전국가가 불만족을 느끼기 때문이다.<sup>12)</sup> 하지만 이후 세력전이이론은 도전국가가 현 국제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할 정도로 힘이 강해지기 전에 지배국가가 먼저 도전국가에 대한 예방공격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sup>13)</sup> 나아가 보완된 세력전이이론은 국제체제의 하위범주인 지역체제의 위계질서(regional hierarchy) 내에 분포된 중소강국들 간의 상대적 힘의 변화에 따른 예방공격 가능성을 설명하고자 함으로써 강대국 중심의 기존 이론의 설명력을 더욱 확장

아랍전쟁의 두 가지 사례로만 국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Dan Reiter, "Exploding the Power Keg Myth : Preemptive Wars Almost Never Happen."

12) A.F.K. Organski, *World Politics*(New York: Alfred A. Knopf, 1958), Ch. 12.

13) A.F.K. Organski and Jacek Kugler, *The War Ledger*(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Jack S. Levy, "Declining Power and the Preventive Motivation for War", *World Politics*, Vol. 40, No. 1(1987), p.84.

시키고자 하였다.<sup>14)</sup>

세력전이이론이 일부 예방공격 사례들을 설명함에 있어서 귀중한 분석적 도구를 제공하고 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세력전이이론은 여전히 국가 간 상대적 힘의 균형 변화를 예방공격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인으로 파악함으로써 힘의 커다란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2차대전 이후 빈번히 일어나는 강대국과 중소강국 간의 대결 양상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이론적 약점을 지닌다. 이러한 측면에서 세력전이이론은 초강대국인 미국이 이라크나 북한 등의 중소강국들에 대해 가지는 예방공격 동기와 예방공격의 발발 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다.

나아가, 세력전이이론은 힘의 균형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국가 간의 총체적 국력지표(총인구, 총 방위비, GDP 등)를 비교함으로써 총력적 예방공격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유용한 분석도구를 제시할 수 있으나 1956년 시나이 전역과 같은 단기간의 제한된 규모의 예방전쟁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설명력을 제공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소규모 국지적 예방공격에서는 쌍방 교전국들이 가진 인구, 자원, 경제력 등을 총체적 군사력으로 전환함에 있어 준비시간 제한, 교전지역의 지엽적 특성 등 다수의 제한사항이 존재한다. 따라서 국가 간 총체적 국력지표 비교에 의존한 세력전이이론은 소규모 국지적 예방공격 형태의 성공 가능성을 가늠하는데 있어 적절한 설명력을 제공하지 못한다.

## (2) 공격-방어이론

전통적 공방이론의 일반 가정은 공격의 이점이 현저할 경우 전쟁이

14) Douglas Lemke, "Small States and War: An Expansion of Power Transition Theory", pp.77~92 in Jacek Kugler and Douglas Lemke(eds.), *Parity and War: Evaluations and Extensions of the War Ledger*(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6), Ch. 4; Ronald L. Tammen, Jacek Kugler et. al., *Power Transitions: Strategies for the 21st Century* (New York: Seven Bridges Press, 2000), Ch. 3.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방어의 이점이 현저할 경우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이때, 공격은 방자의 영토 전체 혹은 일부분을 공격, 탈취 및 보유하기 위한 군사력의 사용을 의미하는 반면, 방어는 영토를 탈취하려는 공자를 저지하기 위한 군사력의 사용을 의미한다.<sup>15)</sup> 이러한 공방이론은 국제체제 내 물질적 힘의 배분 상태를 초점을 맞춘 구조적 현실주의(structural realism)에 비해 전쟁과 평화 추구의 동기와 관련한 국가단위별 행동의 변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특히, 초기 공방이론의 체계화 및 발전에 기여한 국제정치학자인 반 에베라(Van Evera)는 공격과 방어의 균형을 결정짓는 요소로 정복의 용이성(feasibility of conquest)을 들고 있다. 다시 말해, 타국의 영토를 정복하는 것이 얼마나 용이한가에 따라 국가는 공격 혹은 방어 전략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반 에베라(Van Evera)는 이러한 정복의 용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들로 군사력, 지형, 국내정치 및 사회적 영향요소, 방어동맹, 집단안보체제, 국가주의(nationalism) 등을 들고 있다.<sup>16)</sup> 하지만 이러한 광의의 공방이론은 많은 변수들을 포함함으로써 이론의 간결성이 부족하고, 특히 사회적 영향요소 등과 같은 비물질적 변수들을 이론적으로 검증하는데 커다란 애로사항이 있다.<sup>17)</sup> 또한 강대국들 간 전쟁발발 가능성에 주로 초점을 맞춘 전통적 공방이론은 2차대전 이후 강대국과 중소강국 간 혹은 중소강국들 간 빈번히 발생하는 공격 및 방어 양상에 대해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15) Keir A. Lieber, "Grasping the Technological Peace", *International Security*, Vol. 25, No. 1(2000), p.74.

16) Stephen Van Evera, *Causes of War: Power and the Roots of Conflict*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99).

17) Richard K. Betts, "Must War Find a Way? A Review Essay", *International Security*, Vol. 24, No. 2(1999), p.186.

## 2) 군사전략과 기술의 공격-방어이론

### (1) 공격-방어이론과 단일변수로서 군사기술의 설명력 한계

리버(Lieber) 역시 지나치게 많은 변수를 포함한 반 에베라(Van Evera)의 광의의 공방이론을 비판하면서, 군사기술이라는 단일변수만 가지고 공방이론을 검증할 것을 주장한다. 그는 “핵심적 군사기술의 균형(core balance of military technology)”이라는 단일변수만으로도 다양한 시대와 지역에서 일어났던 국가들 간 공격-방어 행동들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18)</sup> 이러한 군사기술 중심의 공방이론은 다음과 같은 공격 및 방어가설을 제시한다: (1) “기동향상 기술은 공격을 선호하게 한다(mobility-enhancing technologies favor offense)”<sup>19)</sup>; (2) “화력향상 기술은 방어를 선호하게 한다(firepower-enhancing technologies favor defense).”<sup>20)</sup> 가령, 독일의 앞선 전차기술이 전격전(blitzkrieg)이라는 공격교리를 발전시킴과 동시에 이러한 공격 이점의 증가는 전 유럽을 2차대전의 화마로 몰고 가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핵무기 개발에 따른 방어 이점의 급격한 증가로 2차대전 이후 적대적 강대국들 간에는 상호억지전략(대다수 공방이론가들은 이론 간 결화를 위해 억지를 방어의 일부개념으로 취급)을 선호하게 되었다. 이러한 군사기술의 공격 및 방어특성에 기반한 공방이론은 군사전략을 군사기술의 변화에 따른 종속적 변수로 취급한다. 가령, 축성기술이 발전하게 된 시기에는 방어전략이 지배적이며, 전차기술이 발전하게 된 시기에는 공격전략이 지배적이라는 것이 군사기술 중심 공방이론의 기본가정이다. 이러한 가정에 근거할 경우, 공격 혹은 방어전략의 선택

18) Keir A. Lieber, “Grasping the Technological Peace”, p.76.

19) *ibid.*, p.78.

20) *ibid.*, p.80. 하지만 이라크전에서도 보았듯이 화력지원수단이 자주화·기동화되고 화력전투 개념이 도입되고 있는 최근의 현실을 감안할 때 리버(Lieber)가 제시한 “화력향상 기술은 방어를 선호하게 한다”는 가설의 적절성에 대한 학계 내 새로운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여부는 궁극적으로 현존 무기기술체계의 특성(공격용 무기 혹은 방어용 무기)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에 이른다.<sup>21)</sup>

하지만 단순히 무기체계의 기술적 특성만을 가지고 공격용 혹은 방어용 무기의 구분, 나아가 공격전략 혹은 방어전략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가령, 1942년의 스탈린그라드 전투 이후 독일은 소련의 동부전선으로의 진출속도를 지연시키기 위해 다수의 전차사단을 방어적으로 운용한 바 있다.<sup>22)</sup> 즉, 공격용 무기로 일반적으로 인식되어 온 전차가 상황에 따라 방어적으로도 운용될 수도 있다는 부분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비록 어떤 무기체계의 기술적 특성이 공격 혹은 방어전략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할지라도 공격 및 방어작전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독립적 변수로 공격/방어전략의 중요성을 간과해선 안된다. 이처럼 군사기술의 종속변수가 아닌, 독립변수로서의 영향력을 가진 군사전략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본 논문은 기존 군사기술 중심의 공방이론을 보완하는 ‘군사전략과 기술의 공방이론’(offense-defense theory of military strategy and technology)을 새롭게 제안하면서 군사전략 변수를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 (2) 새로운 변수로서 군사전략과 공격-방어이론

예방공격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본 논문은 무기체계의 기술적 특성 이외에 군사전략을 또 다른 하나의 설명변수로 다룰 것을 제안한다. 가령, 1차대전 이전인 1905년 12월에 수립된 쉘리펜 계획(Schlieffen Plan)<sup>23)</sup>에 의거하여 독일은 프랑스를 먼저 공격해서 패퇴

21) Sean M. Lynn-Jones, “Offense-Defense Theory and Its Critics”, *Security Studies*, Vol. 4, No. 4(1995), p.666.

22) John J. Mearsheimer, *Conventional Deterrence*(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5), p.25.

23) 당시 독일의 쉘리펜 장군은 러시아군의 동원이 느린 점(6~8주)을 고려하여 러시아군은 최소한의 병력으로 견제하면서 프랑스군을 먼저 격파하고자 하는 일명 ‘쉘리펜 계획’을 수립하였다.

시킴으로써 서부전선에 병력을 집중한 반면(공격전략), 동부전선의 러시아에 대해서는 프랑스군을 먼저 섬멸하기 전까지 병력을 절약하면서 비교적 소규모의 방어군을 배치하였다(방어전략). 이러한 독일의 양면전략, 즉 공격 및 방어전략은 결코 독일이 가진 무기체계의 기술적 특성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닌, 그 자체의 전략적 목적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다.

이처럼 별도의 독립변수로서 영향력을 가진 군사전략의 특성을 감안할 때 비록 공격용 무기기술과 방어를 무기기술의 구분이 때때로 어렵다고는 하나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이론적으로 결합 가능한 전략과 무기체계 기술 유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공격전략과 공격용 무기의 결합; (2) 공격전략과 방어를 무기의 결합; (3) 방어전략과 공격용 무기의 결합; (4) 방어전략과 방어를 무기의 결합.

위와 같은 네 가지 결합 유형들 중에서 (2)와 (3)의 유형은 전략 목적에 따라 공격용 무기를 방어로 혹은 방어를 공격용으로 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군사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보완된 공방이론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1)과 (4)의 유형은 무기체계의 기술 특성과 전략적 목적이 일치하는 것으로 기존의 군사기술 중심의 공방이론에 부합하는 유형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때도 군사전략은 여전히 중요한 설명변수로 고려되어야 하는 바 그 이유는 공격/방어전략이 상황에 따라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립 운용되어지는가에 따라 무기체계의 효과 또한 극대화 혹은 극소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중강국은 강대국에 비해 열악하고 제한된 핵무기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접한 강대국의 동맹국을 불모로 한 효과적인 방어적 억지전략을 구사할 때 강대국으로부터 예방공격을 받을 가능성은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할 수 있다. 즉, 중강국은 예방공격을 고려할 가능성이 있는 강대국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방어전략 구사를 통해 방어무기체계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예방공격의 성공 및 억지 가능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왔으나 기존의 공방이론가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제정치 학자들이 이론적 검토에서 간과해 온 군사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군사전략이란 무엇인가? 본 논문은 먼저 군사전략의 일반적 개념적 정의와 함께, 동종의 유사개념들이라 할 수 있는 대전략(grand strategy), 작전술(operational art), 전술(tactics), 그리고 군사교리(military doctrine)의 개념들을 간략히 살펴볼 것이다. 이후 이러한 유사개념 검토를 바탕으로 새롭게 보완하고자 하는 공방이론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군사전략 변수의 개념과 유형을 조작화하고자 한다.

### (3) 동종 유사개념들, 그리고 군사전략 변수의 개념과 유형 조작화

먼저 대전략 개념에 대해 살펴보자. 얼(Earle)은 대전략을 전쟁이 개시될 경우 최대한의 승리(maximum likelihood of victory)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국가의 모든 정책과 군비증강 노력이 전쟁준비 중심으로 일체화된 전략으로 정의하였다.<sup>24)</sup> 하지만 이러한 전쟁지향적 대전략 개념은 평시 상태에 적용될 수 있는 대전략 개념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군사전략과의 개념 구분에 있어서도 모호하다는 단점을 지닌다. 한편, 비들(Biddle)은 대전략을 군사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외교, 사회, 문화 등을 총망라하는 국가안보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의 계획과 수단으로 정의한다.<sup>25)</sup> 하지만 이러한 포괄적인 대전략 개념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가안보목표 범위에 국가의 거의 모든 정책목표를 포함시킴으로써 이론 정립을 위한 개념의 단순화 및 조작화를 매우 어렵게 한다.

작전술 개념과 관련하여서는, 라이더(Lider)는 작전술을 성공적인 전투 조건을 창출하기 위한 대규모 부대의 운용이라고 정의하였다.<sup>26)</sup>

24) Edward M. Earle, *The Markers of Mordern Strategy*(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44); As cited in Julian Lider, "Towards a Modern Concept of Strategy", *Cooperation and Conflict*, Vol. 16(1981), p.217.

25) Stephen Biddle, "Strategy in War", *PS, Political Science & Politics*, Vol. 40, No. 3(2007), p.461.

26) Julian Lider, "Towards a Modern Concept of Strategy", p.225.

비들(Biddle)은 보다 구체적으로 전구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역 및 주요작전과 연계하여 군사력을 실제 전장에서 어떻게 조직, 통합 및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술(術, art)이라고 작전술을 정의하였다.<sup>27)</sup> 한편, 전술은 전역 및 주요작전을 구성하는 개별전투, 교전 및 공습을 수행함에 있어 어떻게 소규모 구성부대를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술(術)<sup>28)</sup>로서 대규모 부대 운용에 초점을 맞춘 작전술의 하위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작전술과 전술 개념은 실제 전장에서의 전투력 운용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평시 혹은 위기상황 발생시 상대국가로부터의 공격을 예방하기 위한 억지 개념을 제대로 다루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군사교리(military doctrine)는 국가/군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한 공식적인 지침<sup>29)</sup>으로 군사교범에서 빈번히 사용되어온 용어이나, 본 논문에서는 이론적 개념 조작의 단순화를 위해 군사교리를 군사전략과 별도의 개념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본 논문의 핵심변수라 할 수 있는 군사전략은 본래 대전략과 작전술의 중간개념으로 전시에 전세를 유리하게 이끌어 한 국가의 전쟁목표 달성에 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군사력 운용 방법을 지칭할 뿐만 아니라, 평시 혹은 위기상황 하에서 전쟁억지를 위해 한 국가가 군사력을 어떻게 계획, 조직 및 운용할 것인가에 관한 술(術)과 과학(科學)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sup>30)</sup> 본 논문에서는 주어진 전략적 상황에 대한 상황판단을 토대로 전시 예방공격의 신속한 승리 가능성뿐만 아니라 위기상황 하에서 예방공격의 억지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채택된 군사력 운용 방식을 군사전략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나아가 본 논문에서는 이론 간결화를 위해 위에서 설명한 작전술, 전술, 군사교리 등과 같은 동종 유사용어들을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고, 전략으로 총칭하고자 한다.

27) Stephen Biddle, "Strategy in War", p.462.

28) *ibid.*, p.463.

29) Colin S. Gray, "On Strategic Performance", *JFQ*(Winter 1995~96), p.31.

30) Marek Thee, *Military Technology, Military Strategy, and the Arms Race*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6), p.42.

보완된 공방이론을 위한 핵심변수로서의 군사전략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군사전략은 전시 혹은 위기상황 하에서 예방공격의 성공 혹은 억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가용부대 및 군사기술 무기체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계획, 조직 및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술(術)과 과학(科學)이다.**

한편, 군사전략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평시 전쟁예방을 위한 억지전략과 전쟁발발시 승리를 위한 방위전략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억지전략은 예방공격을 일으킬 경우 이익보다는 손실이 더 크다는 것을 상대 국가에 인식시켜서 공격행동을 사전에 자제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억지전략은 군사적 수단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외교, 사회심리, 문화 등 비군사적 수단들도 상대국가의 공격행동을 자제시킬 수 있는 총합적인 억지수단으로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연구목적 상 군사적 수단을 다룰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예방공격은 세 가지의 방위전략 유형(①수세적 방위전략, ②수세 후 공세적 방위전략, 그리고 ③공세적 방위전략) 중 공세적 방위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이스라엘은 주변 아랍국가들의 기습공격에 매우 취약한 좁은 국토의 한계성으로 인해 선제 혹은 예방공격에 주안을 둔 공세적 방위전략을 취하는 대표적인 국가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이 군사전략의 유형을 억지와 방위전략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공격에 초점을 맞춰 **성공적인 예방공격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공격전략과 예방공격의 효과적 억지를 위한 방어전략**으로 새롭게 구분하고자 한다. 특히, 이론 간결화를 위해 기존 공방이론과 마찬가지로 본 논문의 보완된 공방이론에서도 억지전략을 방어전략의 일부로 간주한다. 구체적으로 공격전략은 충격과 공포(Shock and Awe) 전략과 기습과 기만(surprise and deception) 전략 등에 기초하여 잠재적 예방공격국가가 표적국가에 대한 예방공격을 성공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전략을 의미한다. 반면, 방어전략은 전방방어 및 기동방어(forward defense/mobile defense) 전략과

간접억지(indirect deterrence) 전략 등에 기초하여 표적국가가 잠재적 예방공격국가의 예방공격을 효과적으로 억지하기 위한 전략을 의미한다.

#### (4) 공격 및 방어 세부전략 검토

공격세부전략으로 먼저 본 논문에서는 충격과 공포 전략을 제시한다. 이 전략은 최첨단 무기와 월등한 공군력에 의한 압도적이고 정밀한 공습, 뛰어난 정보 및 심리전, 신속한 기동전을 바탕으로 적에 대한 신속한 우위(Rapid Dominance)를 확보하여 전쟁초기에 적의 전쟁의지를 꺾어버림으로써 적의 붕괴, 자멸, 투항을 유도하고 전쟁을 결정적으로 종결짓는 형태의 공격전략이다. 충격과 공포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히 정보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에 기초한 정보우위를 전장에서의 상대적 전투력 우위로 전환할 것을 강조한 네트워크 중심작전(Network-Centric Operations)<sup>31)</sup>과 독일식 전격전(German blitzkrieg)<sup>32)</sup>을 현대적으로 적용하여 전쟁을 신속하고 결정적으로 종결짓고자 하는 신속결정작전(Rapid Decisive Operations)의 효과적인 적용이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된다.<sup>33)</sup>

먼저 네트워크 중심작전의 핵심은 최첨단 네트워크 센서 및 정보감시체계를 통해 인접부대 및 참모 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공유와 결심수립을 가능하게 하고, 이러한 정보우위를 바탕으로 적보다 빠른 작전반응속도를 유지함으로써 작전적 효과(operational effectiveness)를 극대화하는 데 있다.<sup>34)</sup> 아울러 정보우위에 기반한 네트워크 중심

31) 네트워크 중심작전은 탐지체계, 타격체계, 지휘체계 등의 여러 요소들을 통신체계를 이용하여 연결함으로써 보다 효율성 높은 작전을 수행한다는 개념이다.

32) 전격전의 요체는 신속한 기동력과 충격을 통해 적의 방어체계를 마비시키고, 이러한 마비상태를 이용하여 적 후방으로 깊숙이 침투, 적의 행정 및 통신체계를 전체적으로 무너뜨리는 데 있다.

33) Harlan Ullman and James P. Wade, *Shock and Awe: Achieving Rapid Dominance*(Charleston, South Carolina: Biblio Bazaar, 2007).

34) Jung-hyuk Choi, "Force Multiplying Factors of Network Centric Operations", *The Korean Journal of Security Affairs*, Vol. 14, No. 1(2005), p.143, p.146.

작전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신속결정작전의 핵심은 경량화된 최신예 기동부대에 의한 신속한 기동전, 압도적인 공중전력에 의한 전략적 정밀공습, 정밀타격 등을 통해 최단시간 내 최소피해로 신속하게 군사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다.<sup>35)</sup> 이러한 신속결정작전의 효과는 주요 표적에 대해 네트워크로 긴밀히 연결된 각 구성군 부대들에 의한 전 방향 동시공격 및 공격 후 적 반격을 회피하기 위한 신속한 분산을 통해 더욱 배가된다.<sup>36)</sup> 아울러 신속결정작전은 불필요한 소모전과 전력낭비를 지양하고 힘의 중심부라 할 수 있는 적 주요 체계간의 연결점인 핵심노드(Nodes)를 식별해내어 여기에 군사적/비군사적 수단을 망라한 조치로 결정적인 효과를 거둬으로써 최소의 피해로 신속하게 전략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효과기반작전(Effects-Based Operations) 개념과도 긴밀히 연계된다.<sup>37)</sup>

특히 충격과 공포 공격전략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합동성(Jointness)<sup>38)</sup>을 기초로 각기 다른 각 군 전력의 상호운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반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감시정찰, 자동화 지휘통제체계 등과 같은 기술전력의 전향적인 확보 노력뿐만 아니라 합동직위 근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적자원 개발 노력도 중요하다. 이러한 충격과 공포 전략이 적용된 최근의 예방공격 사례는 2003년 미국이 주도한 이라크 전쟁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의 사례 분석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35) Anthony H. Cordesman, *The Iraq War: Strategy, Tactics, and Military Lessons*(Washington, D.C.: The CSIS Press, 2003), p.161.

36) 랜드연구소의 에드워즈(Edwards) 박사는 네트워크의 고도의 연결성에 기초한 각 독립 단위 전투부대들의 이과 같은 동시공격 및 분산 방식을 “스워밍 전술(Swarming Tactics)”, 즉 “벌떼 전술”이라고 불렀다. Sean J. A. Edwards, *Swarming and the Future of Warfare*(Santa Monica, CA: RAND Corporation, 2005).

37) Edward A. Smith, Jr., “Effects-Based Operations”, *Security Challenge*, Vol. 2, No. 1(2006), pp.43~62.

38) 2006년에 제정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서는 합동성 개념을 “첨단과학기술이 동원되는 미래전장의 양상에 따라 총체적인 전투력의 상승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육군·해군·공군의 전력을 통합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방일보」(2010. 3. 17) 참조.

두 번째 공격전략으로는 기습과 기만전략을 들 수 있다. 예방공격과 기습은 기능적으로 유사한 개념이라 할 수 있지만 예방공격은 최상급 전략제대의 전구/전역 전략과 주로 연관되어 있는 반면, 기습은 이러한 전구/전역 전략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주력작전 혹은 전투와 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습은 예방공격을 통한 신속한 승리의 달성이라는 전구/전역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작전적 차원의 공격방법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론의 간결성을 위한 용어 통일을 위해 기습작전이 아닌 기습전략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러한 기습전략의 핵심은 적이 충분히 전투할 준비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적이 예상하지 못한 시간, 장소 및 방법을 이용, 적을 타격하는 것이다.<sup>39)</sup>

또한 기습전략의 성공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기만전략의 사용이 중요하다. 군사적 기만은 전술적, 작전적 혹은 전략적 이점을 획득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적의 오판을 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sup>40)</sup> 효과적인 기만전략을 위한 대표적인 세부 수행방법으로는 양공(Feint)과 양동(Demonstration)이 있다. 양공은 적을 기만하기 위하여 제한된 목표에 대해 실시하는 공격작전으로 적의 관심을 결정적 작전으로부터 전환하기 위한 여건조성작전이다. 한편, 양동은 적을 기만하기 위해 결정적 작전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실시하는 무력시위로 적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양공과 다르다.<sup>41)</sup> 이러한 기만전략은 기습전략의 성공에 기여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예방공격의 신속한 승리 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이스라엘은 예방공격에 필요한 공격군 사기술이 충분치 못한 상태 하에서도 효과적인 기습과 기만전략을 사용함으로써 1956년의 시나이 전역에서 이집트를 상대로 성공적인 전과를 거두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의 사례 분석에서 보다 구체적

39) Robert R. Leonhard, *The Principles of War for the Information Age*(New York: Presidio Press, 1998), p.184.

40) Scott Gerwehr and Russell W. Glenn, *The Art of Darkness: Deception and Urban Operations*(Santa Monica, CA: RAND, 2000), p.18.

41) *ibid.*, pp.19~21.

으로 살펴볼 것이다.

다음은 방어전략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지역방어의 한 형태인 전방 방어전략은 쌍방 간 접촉한 지상경계선에 근접하여 집중배치된 병력과 화력을 이용하여 상대국을 위협함으로써 상대국의 예방공격을 억지하는 전략이다.<sup>42)</sup> 특히 준비된 일련의 전방방어 진지 상에 포병화력을 집중배치할 경우 방어효과는 더욱 배가된다.<sup>43)</sup> 이러한 전방방어전략에서 방자는 공자의 공격에 대비하여 잘 준비된 진지를 구축하고 장애물을 사전 배치함으로써 유리한 방어전투환경을 조성한다.<sup>44)</sup> 이러한 준비된 진지를 돌파하기 위한 공자와 방자의 최소 병력비율은 일반적으로 3:1로 보는데, 이는 돌파전투의 성공을 위해 공자는 방자보다 최소 3배의 병력우세를 달성해야 함을 의미한다.<sup>45)</sup> 다음 장의 사례 분석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현 한반도에서 남북 간 휴전선을 중심으로 한 군사적 대치상황은 전형적인 전방방어전략의 구현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한반도에서 상호 잘 준비된 전방방어 전력 배치 상황 하에서 남북 간 공격전략을 사용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북한은 “공격을 작전(전투)의 기본형태”로 규정하고 있지만, 미군의 첨단감시자산 지원 하 한국군의 잘 준비된 전방방어태세를 감안시 과거 6·25 남침과 같은 형태의 기습공격을 재차 감행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방자의 효과적인 전방방어전략은 공자의 예방공격에 대한 억지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한편, 기동방어전략은 공격하는 적을 역습에 유리한 후방의 계획된 지역으로 유인하여 격멸하는 전략이다. 따라서 기동방어는 역습을 위해 우수한 기동성을 갖춘 강력한 타격부대의 역할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42) John J. Mearsheimer, “Mobile Defense, and the NATO Central Front”, *International Security*, Vol. 6, No. 3(1981~82), p.105.

43) Keir A. Lieber, “Grasping the Technological Peace”, pp.80-81.

44) Changhee Park, “Paradox of Strategy: Avoidance of a Decisive Battle and Strength for Defense”, *KNDU Review*, Vol. 10, No. 1(2005), p.168.

45) John J. Mearsheimer, “Why the Soviets Can’t Win Quickly in Central Europe”, *International Security*, Vol. 7, No. 1(1982), p.16.

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은 광활한 영토의 이점을 이용하여 독일군을 후방지역의 계획된 지역으로 유인, 성공적인 역습을 실시함으로써 독일군의 우세한 공격군사기술 능력을 상쇄하면서 전장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었다. 이는 소련의 효과적인 기동방어 전략에 기인한다.<sup>46)</sup> 이처럼 방자의 효과적인 기동방어에 직면하게 될 공자의 입장에서는 병참선이 신장되고 장기간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곤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신속한 승리를 우선으로 하는 예방공격의 목표와 상충된다. 따라서 방자의 효과적인 기동방어전략은 공자의 예방공격에 대한 역지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전방방어/기동방어전략의 구분에서 주의할 점은 역습이 기동방어전략의 전유물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군은 한국군의 역습과 유사한 개념인 “반돌격”을 방어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행동으로 간주하면서 한국군에 의해 전방방어지역이 돌파될 경우 신속히 제2제대 역량으로 반돌격을 실시하여 방어지역대로 침입한 한국군을 격퇴할 것을 강조한다. 즉, 전방방어전략에서도 침입한 공자를 격퇴하기 위한 수단으로 반돌격 혹은 역습과 같은 기동성을 갖춘 공세적 전투행동이 필요하다. 나아가, 방어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전방방어와 기동방어전략의 효과적인 배합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다수 공방이론가들이 역지를 방어의 일부 개념으로 본다는 점(가령, 군사기술 중심의 공방이론은 핵무기를 방어용 군사기술로 일반적으로 분류함)에서 보완된 공방이론은 간접역지전략을 방어전략의 일부로 다루고자 한다. 통상 상호역지는 냉전시대 미소 양국 간 대결처럼 거의 동등한 힘을 가진 양자 간의 대결에 상정할 수 있는 개념이다. 반면, 간접역지는 힘이 불균형한 양자 간의 비대칭적 대결에서 상대적 약소국이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다. 구체적으로 간접역지전략은

46) Wilhelm Agrell, “Offensive versus Defensive: Military Strategy and Alternative Defense”,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24, No. 1(1987), p.78.

힘이 열세한 표적국가가 예방공격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강대국과의 직접적 군사대결을 회피하는 대신 인접한 강대국의 동맹국을 가용한 대량살상무기 및 살상효과가 큰 재래식 무기로 위협함으로써 강대국의 예방공격 의지를 사전 억지하는 것을 의미한다.<sup>47)</sup>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북한이나 이란과 같은 중강국들은 핵무기를 가지는 것이 그들의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믿게 되었다. 요컨대, 핵무기는 이들 국가들에 있어 미국을 상대로 한국 혹은 이스라엘 등 미국의 동맹국들을 불모로 한 효과적인 간접억지를 위해 반드시 보유해야 할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된다고 볼 수 있다.

### 3) 연구가설 및 사례선정

본 논문에서 보완된 공방이론의 두 가지 설명변수는 군사전략과 군사기술이다.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 H1: 군사전략의 공방이론

H1a: 예방공격국가가 효과적인 공격전략을 가지고 있고, 표적국가가 비효과적인 방어전략을 가지고 있으면, 예방공격 및 신속한 승리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H1b: 예방공격국가와 표적국가 모두 효과적인 방어전략을 가지고 있으면, 예방공격의 억지 가능성은 높아진다.

#### H2: 군사기술의 공방이론

H2a: 예방공격국가가 월등한 공격군사기술을 가지고 있고, 표적국가가 월등한 방어군사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예방공격 및 신속한 승리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47) Robert E. Harkavy, "Triangular or Indirect Deterrence/Compellence: Something New in Deterrence Theory?", *Comparative Strategy*, Vol. 17, No. 1(1998), p.64.

H2b: 예방공격국가와 표적국가 모두 우수한 방어군사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예방공격의 억지 가능성은 높아진다.

H2c: 표적국가의 공격군사기술이 급격히 향상되어 예방공격국가의 상대적인 방어적 취약성이 증가하게 되면 예방공격의 억지 가능성은 낮아진다.

위 연구가설들을 검증함에 있어, ‘**효과적인**’ 또는 ‘**비효과적인**’ 공격/방어 전략의 구분에 대한 판단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여기서 효과적인 군사전략이란 잠재적 공격국가 또는 표적국가가 주어진 전략환경 하에서 군 병력과 군사기술, 지정치학적 요인(geopolitical settings)과 적의 약점 등을 잘 이용하여 예방공격의 승리 및 억지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군사전략에는 술(術)과 과학(科學)의 요소가 함께 내재되어 있지만, 전장의 불확실성과 마찰요소를 극복하고 군사전략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군사전략의 과학(科學)적 요소보다는 술(術)적 요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군사전략의 이러한 특성을 감안할 때, 군사전략의 효과성을 가늠하는데 있어서는 과학적 측면의 계량적 연구방법보다는 질적·기술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사례의 진행과정과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 보다 유용한 방법이다.

또한 위 연구가설들을 검증함에 있어, 많은 사례들을 다루는 계량적 연구보다 적은 사례를 다루는 질적 연구가 보다 적합한 연구방법이다. 그 이유는 역사적으로 예방공격과 관련한 사례 수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대화된 군사과학기술이 예방공격의 승리 및 억지의 가능성에 미친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시간적 범위를 2차대전 이후로 한정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는 강대국들 간 전쟁 사례에 초점을 맞추어 온 기존 전쟁이론들이 등한시한 강대국이 중소강국을 대상으로 예방공격을 실시하거나 고려한 사례 및 중소강국 간 예방공격을 실시한 사례를 적합한 연구사례들로 선정한다. 선정된 세 가지 사례<sup>48)</sup>들은

48) 독립변수의 변이(variation) 등을 고려하여 상기 제시한 5개의 가설(군사전략 가설 2개,

다음과 같다: (1) 1956년 시나이 전역; (2) 1994년 북핵 위기<sup>49)</sup>; 그리고 (3) 2003년 이라크 전쟁.<sup>50)</sup>

## 4. 사례 분석

### 1) 1956년 시나이 전역

#### (1) 배경 및 상황 요약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대한 예방공격을 감행하여 승리한 시나이 전역(The Sinai Campaign)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였다: (1) 이집트에 의한 아카바만(the Gulf of Akaba)의 이스라엘 상선 출입 금지; (2) 이스라엘 국경지역에서 이집트 후원 하 아랍연대 테러단체들의 빈번한 테러활동; (3) 체코슬로바키아를 통한 이집트의 소련제 공격용 무기 대량 구입.<sup>51)</sup> 먼저, 1954년 이후로 이집트에 의한

군사기술 가설 3개)을 정확히 검증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례가 필요하다. 따라서 방법론적 측면에서 검증 관련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8개의 사례가 요구된다. 하지만 2차대전 이후 예방공격의 사례가 제한되고, 지면의 제약 등을 고려하여 대표성 있는 사례 3가지만 선별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 49) 1994년 북핵 위기는 예방공격을 고려했으나 결과적으로 실시하지 않은 사례로, 여타 예방공격 실시 사례와의 차이점 도출을 위해 비교사례로 선정하였다. 이외에도 기타 예방공격 미실시 사례로 과거 미국이 소련의 핵개발(1945~50년)과 중국의 핵개발(1963~65년) 과정에서 예방공격을 고려하였다가 결과적으로 실시하지 않았던 사례들도 있으나 이들 국가들은 당시 강대국(Great Power)의 반열에 이미 올라가 있던 국가들이었고, 북한은 군사적으로 중강국(Middle Power)의 위치에 있는 국가로, 중강국인 북한이 어떻게 초강대국인 미국의 예방공격을 역지할 수 있었는가 하는 측면에서도 연구사례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 50) 바그다드 점령 이후 미국의 실패를 고려할 경우 2003년 이라크 전쟁을 미국의 예방공격 성공사례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본 논문은 최초 군사적 공격행위의 성공여부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바그다드 점령 이후의 미국의 안정화작전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논의의 문제로 하고자 한다.
- 51) Dayan Moshe, *Diary of the Sinai Campaign*(New York: Da Capo Press, 1966), p.4.

아카바만 이스라엘 상선 출입 금지로 수에즈(Suez) 운하로의 통행이 봉쇄됨에 따라 이스라엘의 경제 및 무역활동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sup>52)</sup> 이러한 가운데 1955년 2월경, 일부 아랍연대 테러단체들의 이스라엘 국경침입을 통한 테러활동이 이집트 군정보부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면서 이스라엘 정부의 반 이집트 감정은 더욱 악화되었다.<sup>53)</sup>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예방공격 결심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원인은 1955년 9월에 이집트가 소련의 대리국가인 체코슬로바키아와 체결한 무기구입 양해각서였다. 이를 통해 이집트는 체코슬로바키아로부터 대량의 소련제 공격용 무기를 구입(전투기, 폭격기, 전차 등)하였으며, 이는 이집트의 선제공격 가능성에 대한 이스라엘 정부의 위기감을 가중시켰다. 지형적으로 적대적인 아랍국가들에 의해 협소한 영토가 둘러싸인 상태에서 적 공중공격에 매우 취약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특히 체코슬로바키아로부터 대량의 소련제 전투기와 폭격기 구입을 통해 공중공격 우세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이집트 정권의 시도가 커다란 생존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다.<sup>54)</sup>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정부는 이집트에 대한 예방공격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그 결과 1956년 10월 29일 이집트 점령 하에 있는 시나이 반도에 대한 기습적 예방공격을 감행하게 된다.

## (2) 군사전략과 기술의 공격-방어이론 적용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1955년 9월부터 이집트는 무기 구입과 관련, 소련과 모종의 거래를 하기 시작했다. 이때,

52) Jack S. Levy and Joseph R. Gochal, "Democracy and Preventive War: Israel and the 1956 Sinai War", *Security Studies*, Vol. 11, No. 2(2001), p.24.

53) Jonathan Shimshoni, *Israel and Conventional Deterrence: Border Warfare From 1953 To 1970*(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88), p.77.

54) *ibid.*, p.80.

소련은 전면에 나서지 않고 체코슬로바키아를 대리국가로 내세워 소련제 무기를 이집트에게 공급하기 시작했다. 소련과의 이러한 비밀리 무기구매계약을 통해 이집트는 240대의 전투기, 60대의 폭격기 등을 포함한 대규모 공격용 무기를 추가적으로 확보하고자 하였다.<sup>55)</sup>

이러한 거래를 통해 이집트가 갖추게 될 우수한 공격무기체제로 인해 이스라엘 정부는 이집트의 선제공격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무기거래가 개시된 2주 후인 1955년 10월 이스라엘 총리인 모슈 샤레트(Moshe Sharett)는 이집트의 이러한 대규모 공격용 무기구입을 이스라엘 안보의 “전례없는 위협(unprecedented danger)”으로 간주하면서 이는 양국의 “군사력 균형에 결정적 변화(decisive shift in the balance of military strength)”를 가져오는 대사건이라고 규정하였다.<sup>56)</sup> 모슈 샤레트에 이어 이스라엘 총리가 된 벤-구리온(Ben Gurion) 역시 1955년 11월의 의회연설에서 전례 없는 이집트의 대규모 소련제 공격용 무기 구입으로 인해 이전부터 존재해 왔던 이집트 군사력 대비 이스라엘 군사력의 수적열세(quantitative inferiority)에 이어, 이제는 무기성능면에서도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비교시 질적열세(qualitative inferiority)에 직면하게 될 위험에 처했다고 개탄했다.<sup>57)</sup> 요컨대, 당시 이스라엘의 공격무기체계는 수적인 면에서는 이미 이집트에 열세였고, 질적인 측면에서도 이집트와 대등 내지 오히려 열세 쪽으로 기울고 있는 상태였다.

이집트가 소련제 공격용 무기의 대량구입을 통해 공격전력 증강을 꾀하는 사이 아랍국가의 반미정서를 의식한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판매를 주저하였다. 하지만 프랑스는 이 기간 기꺼이 이스라엘에 무기를 판매하였다. 그 결과 1950년과 1956년의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55) Ernest Stock, *Israel on the Road to Sinai, 1949~1956 With a Sequel on the Six-Day War, 1967*(Ithaca and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67), p.152.

56) *ibid.*, p.147.

57) Michael Brencher, *Decisions in Israel Foreign Policy*(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4), p.174.

공격용 무기(전투기와 전차) 수량 추이를 비교시 양국 모두 상당한 증가량을 확인할 수 있다: (1) 전투기: 이스라엘(40기 → 160기) / 이집트(35기 → 275기); (2) 전차: 이스라엘(40대 → 360대) / 이집트(80대 → 730대).<sup>58)</sup>

특히 이스라엘에 비해 이집트의 공격용 무기의 확연한 증가량은 주목할 만하다. 그 결과 이스라엘 군수뇌부는 이스라엘군의 훈련수준과 정신력이 우세하기는 하나 이집트의 소련제 공격용 무기의 대량 구입으로 인해 야기되는 이스라엘 무기의 상대적인 질적열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었다.<sup>59)</sup> 특히, 이집트의 전투기와 폭격기의 대량 구입에 따른 양국 간 공중전력의 불균형 발생은 지형적으로 아랍국가들에게 둘러싸인 상태에서 매우 취약한 공중방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예방공격 결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sup>60)</sup>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집트의 공격전력 증강에 따른 이스라엘의 방어적 취약성의 증가로 인해 예방공격을 위한 공격무기체계의 우세가 담보되지 못한 상태에서도 먼저 공격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 당시 이스라엘 군수뇌부의 판단이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스라엘 군사 전문가인 한델(Handel)은 당시 이스라엘 군수뇌부가 기동전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주력군은 기동성이 부족한 도보보병부대였으며, 또한 당시 군수뇌부는 자국의 공군력에 대해서 심각한 불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회고하였다.<sup>61)</sup>

이러한 상황 하에서 1956년 10월 29일 이스라엘은 이집트가 점령 중인 시나이 반도에 대한 예방공격을 감행하였다. 시나이 반도는 서쪽

58) N. Safran, *From War to War: The Arab Israeli Conflict*(New York: Pegasus, 1969), pp.217, p.228; as cited in Zeev Maoz, *Paradoxes of War: On the Art of National Self-Entrapment*(Boston: Unwin Hymann, 1990), p.55.

59) Karl P. Mueller et. al., *Striking First*, p.192.

60) *ibid.*, pp.191~192.

61) Michael I. Handel, "Israel's Political-Military Doctrine", *Occasional Papers in International Affairs*, 30,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Center for International Affairs(1973), pp.25~26.

으로는 수에즈만 및 수에즈운하, 동쪽으로는 아카바만 사이에 위치한 삼각형의 반도로 수에즈운하로의 이스라엘 상선 통과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반드시 차지해야 할 지리적 군사적 요충지였다. 특히 예방공격을 지휘했던 다얀(Dayan)은 시나이 반도 탈취를 위한 이스라엘 주력 지상군의 결정적 작전시 이집트군의 증원을 차단하기 위해 시나이 반도 서쪽 수에즈 운하와 인접한 제한된 목표에 낙하산 부대를 사전 투입하여 선점하는 것을 예방공격 성공을 위한 매우 중요한 여건 조성작전으로 보았다.<sup>62)</sup> 이는 곧 이집트군의 허를 찌르는 기습전략으로 각 수송기별 중대규모의 낙하산 부대인원들이 탑승한 16대의 이스라엘 수송기들은 4개 편대로 짝을 지어 목표지역까지 비행하였다. 특히 이집트의 레이더망에 포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사전 훈련된 이스라엘 수송기 조종사들은 목표지역까지 500피트의 저고도 비행을 실시하였으며, 목표지역 인근에 도달했을 때 1,500피트의 높이로 비행고도를 상향조정하여 낙하산 부대가 성공적으로 투하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63)</sup> 이는 한편으로 낙하산 부대에 의한 제한된 목표에 대한 공격 및 선점을 통해 수에즈 운하 일대 이집트 주력 지상군의 관심을 결정적 작전으로부터 전환하게 하였다는 측면에서 기만전략 수행방법 중앙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낙하산 부대의 기습적 투입을 통해 이집트군 주력을 수에즈 운하지역에 고착함으로써 시나이 반도 목표지역으로의 이집트군 증원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의 기습과 기만전략이 우세한 공격군사기술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성공적인 예방공격 성과를 거둘 수 있게 한 결정적 요인이다. 위에서 기술한 논거를 바탕으로 군사전략과 기술의 공방이론 연구가설을 검증시 유효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62) Dayan Moshe, *Diary of the Sinai Campaign*, p.36.

63) *ibid.*, p.77.

H1a: 예방공격국가가 효과적인 공격전략을 가지고 있고, 표적국가가 비효과적인 방어전략을 가지고 있으면, 예방공격 및 신속한 승리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H2c: 표적국가의 공격군사기술이 급격히 향상되어 예방공격국가의 상대적인 방어적 취약성이 증가하게 되면 예방공격의 억지 가능성은 낮아진다.

## 2) 1994년 북핵 위기

### (1) 배경 및 상황 요약

소련 붕괴에 따른 냉전 종결 이후 한반도에 형성된 불리한 세력균형으로 인해 북한은 고립감과 함께 위기의식을 느꼈다.<sup>64)</sup> 또한 북한은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한국과 점점 더 큰 경제력 격차가 벌어지게 되었다. 가령, 1994년 당시, 북한과 한국의 GDP 비율은 1 대 15였고, 인구 비율은 1 대 2였으며, 방위비 지출 비율은 1 대 6의 큰 격차를 보이고 있었다.<sup>65)</sup> 이로 인해 북한은 1993년에 사실상 무기 수입을 중단하게 된 반면, 한국은 여전히 세계적인 무기수입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sup>66)</sup> 이러한 상황 하에서 북한은 자구적 생존 마련책을 위해 비재래식 전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1993년 3월 12일 NPT<sup>67)</sup> 탈퇴를 선언하면서 북한은 핵 개발을 그들의 안보수단이자

64) Kenneth N. Waltz, "More May Be Better", in Scott D. Sagan and Kenneth N. Waltz(eds),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New York: W.W. Norton & Company, 2003), p.38.

65) Kenneth N. Waltz, "Institute on Global Conflict and Cooperation", IGCC Policy Papers(University of California, Multi-Campus Research Unit, 1995), p.7.

66) Jae-Jung Suh, "Assessing the Military Balance in Korea", *Asian Perspective*, Vol. 28, No. 4(2004), p.67.

67) 핵무기 확산금지조약(NPT :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은 1970년 5월 발효되어 현재 189개국이 가입되어 있는 국제 조약이다. 이 조약의 제9조 3항에서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의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이끌어 내는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하였다.<sup>68)</sup>

북한의 핵 개발은 미국에게 중대한 도전이자 한국과 일본에게는 심각한 위협이었으며, 이러한 위협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의해 더욱 가중되었다.<sup>69)</sup> 이에 대한 미국 클린턴 행정부의 최초 대응은 북한이 핵사찰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경제제재(economic sanctions)를 가하겠다는 것이었으며, 1994년 봄부터는 북한 핵시설에 대한 공중타격을 계획하기 시작했다.<sup>70)</sup> 더 나아가, 1994년 여름 동안 미국은 다수의 전차, 장갑차, 300기가 넘는 패트리엇 미사일 및 기타 지원부대들을 한국에 증파하기에 이르렀다.<sup>71)</sup> 그러나 1994년 6월, 전 미국 대통령인 지미 카터(Jimmy Carter)는 개인특사 자격으로 평양의 김일성을 방문하여 핵개발을 중단하는 대가로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 주선을 통한 상응하는 지원책을 제공할 것임을 약속하였다.<sup>72)</sup> 그 결과, 1994년 10월 21일, 북미 간 대화를 통해 일괄타협안(Agreed Framework)에 상호 합의하게 되었는데, 이는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은 경제제재 중단, 민용 경수로와 연료 지원, 안전보장 및 외교정상화를 내건 대타협안이었다.<sup>73)</sup>

---

고,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핵무기 비보유국'으로 명시하여 원천적으로 핵무기를 가지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핵을 보유한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 북한 등에 대해 핵무기 보유를 포기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매우 제한된 측면이 있다.

68) Don Oberdorfer, *The Two Koreas: A Contemporary History*(U.S.: Basic Books, 2001), p.305.

69) C. S. Eliot Kang, "North Korea and the U.S. Grand Security Strategy", *Comparative Strategy*, Vol. 20, No. 1(2001), p.27.

70) Terence Roehring, *From Deterrence to Engagement: The U.S. Defense Commitment to South Korea*(New York: Lexington Books, 2006), p.85.

71) Jung-Sup Kim, "The Security Dilemma: Nuclear and Missile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XVIII, No. 3(2006), p.97.

72) Terence Roehrig, *From Deterrence to Engagement*, p.86.

73) Leon V. Sigal, *Disarming Strangers: Nuclear Diplomacy with North Korea*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8), p.6.

(2) 군사전략과 기술의 공격-방어이론 적용

우선, 1994년 북핵 위기 이전 수량적 측면에서 남북 간 주요 군사력 비교는 다음과 같다.

〈표 1〉 북한과 한국 간 군사력 비교, 1991-92

구 분	북 한	한 국
전체 현역 병력	1,111,000	681,000
육군	1,000,000	550,000
탱크	3,700	2,300
포병전력	12,000	5,300
전투기	730	530

자료: 한국 국방부, 국방백서 1992~93, 부록: 남·북 군사력 비교 참조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1994년 북핵 위기 이전 북한은 한국보다 더 많은 병력과 무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질적 측면에서 살펴볼 경우 북한군 무기의 거의 절반가량은 1950~60년대에 만들어진 것들이어서 북한군의 재래식 전력 수준은 한국군에 비해 매우 뒤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sup>74)</sup> 주요 공격무기체계의 질적 수준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북한군 탱크는 1950~60년대에 도입된 구형 소련제 T-34, T-54/55, 및 T-59가 대부분으로 매우 노후화된 상태였다. 이에 반해 한국군은 1980년대에 도입된 미제 M-48A3 및 M-48A5s를 보유했을 뿐만 아니라 미제 최신형 탱크인 M1Abrams와 견줄만한 K-1 전차를 자체 생산함으로써 북한군 탱크와 비교시 질적수준에서

74) Michael O'Hanlon and Mike Mochuzuki,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How to deal with a Nuclear North Korea*(New York: The Brookings Institution Book, 2003), p.67.

월등한 우위를 점한 상태였다.<sup>75)</sup> 마찬가지로 북한군 전투기는 소련제 MiG-17, 19, 21로 한미연합군의 F-15s 및 F-16s와 성능 비교시 열세할 뿐만 아니라 만성적인 연료 부족으로 인해 조종사 개인별 훈련 비행 횟수도 1년에 겨우 여섯~일곱 번 정도밖에 실시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sup>76)</sup>

다른 한편으로 10만 명에 이르는 북한군 특수전부대가 북한군의 재래식 전력 열세를 상당부분 상쇄할 수 있는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될 수 있으나 문제는 이들을 침투시킬 수 있는 가용 기동수단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가령, 북한군 수송기나 AN-2기, 잠수함을 총가동하더라도 최대 탑승시킬 수 있는 특수전 병력은 5,000명에도 미치지 못한다. 수륙양륙함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최대 10,000여 명의 특수전 병력을 이동시킬 수 있다고는 하나 수륙양륙함의 가장 큰 문제점은 목표지역 도달 전 한미연합군에게 사전 탐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sup>77)</sup>

나아가, 주한미군 주둔 및 전력지원으로 한국과 북한의 실제 전력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짐에 따라 과거와 같은 북한의 기습 남침은 사실상 매우 어렵다. 이러한 전력 격차는 오히려 북핵 위기 해결을 위해 미국 정책결정자들이 예방공격 결정카드를 손쉽게 만들 수 있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지도 모른다. 실제로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예방공격을 진지하게 고려한 적이 있었고, 나아가 1994년 여름동안 상당 전력을 한국에 추가 전개시키기까지 하였으나 결국은 예방공격이 아닌 협상카드를 선택하였다. 물론 당시 김영삼 정부의 예방공격 계획 반대나 중국의 영향력 등이 미국이 최종적으로 협상카드를 선택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는 하나 본 논문에서 제시한 공방이론과 관련, 북한의 효과적인 방어전략 또한 미국의 예방공격을 억지하는 데 있어 커다란 영향을 주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75) Jae-Jung Suh, "Assessing the Military Balance in Korea", p.69.

76) Terence Roehring, *From Deterrence to Engagement*, p.83.

77) Pedro Almeida and Michael O'Hanlon, "Impasse in Korea", p.64.

먼저 북한의 전방방어전략과 관련하여, 1994년 당시 북한 전체 군사력의 약 70%가 DMZ로부터 96km 이내에 집중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10년 전인 1984년의 약 45%에 비해 대폭 증강된 배치 규모였다.<sup>78)</sup> 특히 서울에 근접하여 집중배치된 북한군의 장사정포는 한미연합군에게 심각한 위협요인이었다. 만약 화학무기까지 탑재해서 수천 발의 포탄을 포격할 경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및 경기지역의 피해는 실로 엄청날 것이며, 이 지역들에 대부분 위치한 한미연합사령부를 포함한 주한미군도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다.<sup>79)</sup> 이와 관련, 미 국방부는 제2의 한국전쟁이 일어날 경우 최초 개전 90일 동안 미군 사상자는 약 5만 2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였다.<sup>80)</sup> 이는 비록 추정치이기는 하나 148명이 전사한 1991년의 걸프전과 비교시 엄청난 사상자 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대의 전방추진배치 및 장사정포 집중 운용 등에 기초한 북한의 전방방어전략은 미국의 예방공격을 억지하는 데 상당부분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역시 한미연합군의 첨단정보자산을 이용한 북한군 동향 감시관측과 함께, 주한미군과 한국군 전력의 휴전선 부근 집중배치를 통한 완강한 전방방어전략 태세 유지로 6·25전쟁 이후 북한의 대규모 기습남침을 효과적으로 억지할 수 있었다.<sup>81)</sup> 이러한 전방방어전략과 함께 한국군은 만약 전방지역이 돌파될 경우 방어지역 중심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결정적 작전을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도로전부위주 중심방어전략을 발전시켜 나갔다. 나아가 기동성이 우수한 기계화 부대를 타격부대로 운용하여 한국적 특성에 맞는 전 전장 동시통합전투를 수행하고자 했던, 이른바 공세적 기동방어전략을 병행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78) Steven R. Prebeck, *Preventive Attack in the 1990s*(Alabama: Air University Press, 1993), p.22.

79) Michael O' Hanlon and Mike Mochuzuki,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pp.73~74.

80) Don Oberdorfer, *The Two Koreas: A Contemporary History*, pp.313-314.

81) Pedro Almeida and Michael O' Hanlon, "Impasse in Korea: A Conventional Arms-Accord Solution?", *Survival*, Vol. 41, No. 1(1999), pp.63~64.

북한군의 기습남침에 대한 억지력을 한층 강화시킬 수 있었다.

한편, 북한의 간접억지전략과 관련하여, 북한은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장사정포 등을 이용하여 인접한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위협함으로써 미국의 예방공격 의지를 효과적으로 억지할 수 있었다. 특히 당시 김영삼 정부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공격을 감행할 경우 서울이 북한의 핵 보복공격의 1차적 표적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sup>82)</sup>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의 간접억지전략은 북한군 재래식 전력의 현격할 열세를 상당부분 극복하는 매우 효과적인 예방공격 억지전략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핵무기는 미국을 상대로 한 간접억지전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매우 긴요한 수단이므로 북한의 입장에서는 체제생존을 위해 좀처럼 포기할 수 없는 카드이다.

전술한 것처럼, 한미연합군의 첨단정보자산과 우수한 무기체계, 공세적 기동방어전략의 발전과 함께, 특히 한국군의 잘 준비된 전방방어 전략은 북한군의 기습남침을 억제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한편, 장사정포, 대량살상무기, 미사일 등의 효과적 배치 및 운용에 기초한 북한의 전방방어와 간접억지전략 역시 북핵 위기 당시 미국의 예방공격을 효과적으로 억지하는 데 상당부분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기술한 논거를 바탕으로 군사전략과 기술의 공방이론 연구가설을 검증시 유효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H1b: 예방공격국가와 표적국가 모두 효과적인 방어전략을 가지고 있으면, 예방공격의 억지 가능성은 높아진다.

H2b: 예방공격국가와 표적국가 모두 우수한 방어군사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예방공격의 억지 가능성은 높아진다.

82) Selig S. Harrison, *Korean Endgame: A Strategy for Reunification and U.S. Disengagement*(Princeton and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3), p.130.

### 3) 2003년 이라크 전쟁

#### (1) 배경 및 상황 요약

1991년 걸프전 이후에도 미국과 이라크의 대립은 지속되었다. 특히, 사담 후세인 정권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지시를 어기고 대량살상무기 사찰담당관들을 추방시킨 직후인 1998년 12월, 클린턴 행정부는 대량살상무기 개발 저지를 위한 4일 간의 이라크 공습을 감행한 바 있다.<sup>83)</sup> 하지만 9/11테러 이전에는 미국이 걸프전처럼 이라크에 대한 대규모 군사개입을 할 것이라고 예상한 전문가들은 거의 없었다.<sup>84)</sup> 그러나 9/11테러 이후 미국에게 있어 가장 큰 위협은 더 이상 러시아나 중국이 아닌, 대량살상무기로 무장한 불량국가와 테러리스트 조직이었다. 9/11테러 직후 부시 행정부는 비합리적인 테러단체나 대량살상무기의 획득 혹은 개발을 획책하는 불량국가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냉전시대의 억지전략이 효과적이지 않음을 강조하며<sup>85)</sup>, 이러한 위협들이 현실화되기 이전에 미국이 먼저 행동해야 함을 2002년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를 통해 선언하였다.<sup>86)</sup>

9/11테러 발생 2개월이 지난 2001년 11월부터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에 대한 예방공격을 계획하기 시작했다.<sup>87)</sup>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에 대한 예방공격을 정당화하고 실행에 옮기게 된 배경에는 알카에다에 대한 사담 후세인의 대량살상무기 이전 의혹과 함께 9/11테러 배후에 이라크가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 그리고 후세인 정권이 핵무기를 포함한

83) Andrew Flibbert, "The Road to Baghdad: Ideas and Intellectuals in Explanations of the Iraq War", *Security Studies*, Vol. 15, No. 2(2006), p.314.

84) *ibid.*, pp.314~315.

85) Jeffrey Record, "The Bush Doctrine and War with Iraq", *Parameters*, Vol. 33, No. 1(2003), p.4.

86) The White House, *The 2002 National Security Strategy Report*(Washington, D.C.: The White House, 2002), p.iii.

87) Bob Woodward, *Plan of Attack*(New York and London: Simon & Schuster, 2004), p.30.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지속적으로 획책하고 있다는 부시 행정부의 강한 믿음 때문이었다.<sup>88)</sup>

특히, 북한이나 이란에 비해 약한 이라크의 군사력은 미국외교의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압도적인 군사력의 효용성(efficacy)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고자 하는 부시 행정부의 예방공격 결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sup>89)</sup> 따라서 예방공격을 합리화할 수 있는 확실한 정보를 얻지 못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우세한 군사무기체계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손실로 신속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확신 하에 2003년 3월 20일 미국은 이라크에 대한 예방공격을 감행하였다. 후세인 정권 전복을 목적으로 한 부시 행정부의 예방공격은 공격개시 후 두 달이 채 지나기도 전인 2003년 5월 1일 부시의 승전선언과 함께 종료되었다.

## (2) 군사전략과 기술의 공격-방어이론 적용

미국이 이라크에 대한 예방공격에서 신속한 승리를 이끈 결정적 요인에는 미국의 월등한 군사기술에 바탕한 충격과 공포 공격전략의 성공적 수행에 힘입은 바 크다. 이라크 전쟁을 승리로 이끈 프랭크(Frank) 장군은 2003년 7월 9일 미국상원 군사위원회에서 경량화된 기동부대의 뛰어난 속도, 육·해·공군의 우수한 합동성, 최신 C4I체계에 기반한 우수한 정보수집능력, 목표지역에 대한 타격의 정확성 등을 충격과 공포 전략의 근본 요체이자 이라크 전쟁에서 신속하고 결정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요인들이라고 설명하였다.<sup>90)</sup>

이라크 전쟁 성패 요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이라크군 재래식 전력은 1991년 걸프전 이전과 비교시 상당히 저하

88) Andrew Flibbert, "The Road to Baghdad", p.346; Jeffrey Record, "Nuclear Deterrence, Preventive War, and Counterproliferation", *Policy Analysis*, No. 519(2004), p.2.

89) Brian C. Schmidt and Michael. C. Williams, "The Bush Doctrine and the Iraq War: Neoconservatives Versus Realists", *Security Studies*, Vol. 17, No. 2(2008), p.195.

90) Anthony H. Cordesman, *The Iraq War*, p.2에서 재인용.

됨<sup>91)</sup>으로써 걸프전 초기 전투력 수준의 50~75% 정도의 전투력만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sup>92)</sup> 하지만 수량적 전투력(quantitative force strength) 측면에서 특히 지상군 병력의 경우 미국 주도 동맹 연합군에 비해 4 대 1 정도의 수적 우세를 보였다.<sup>93)</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 기동, 항공 및 타격능력의 월등한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동맹연합군은 전장에서 이라크군을 현격한 격차로 압도함으로써 이는 전통적인 3 대 1의 병력우세 개념(즉, 성공적인 돌파전투를 위해 공자대 방자의 병력비율은 최소 3 대 1은 되어야 한다는 개념)을 완전히 뒤엎는 혁신적인 승리였다.

특히, 미군의 압도적인 공군력 우세는 이러한 예방공격의 혁신적인 승리에 기여한 가장 결정적인 요소로 할 수 있다. 특히 목표지역에 대한 정확한 공중폭격을 위해 포탄의 70% 이상을 정밀 유도탄(precision-guided munitions)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9%를 사용한 걸프전과 대비된다.<sup>94)</sup> 또한 감시, 정보지원 및 전파방해 능력을 갖춘 무인항공기(UAVs), 정찰항공기(U-2), 이른바 공중지휘소 기능을 갖춘 합동감시 목표타격 레이더체계(JSTARS) 등 최첨단 정보기술자산의 지원 하에 미국의 고성능 전투기들은 이라크의 열악한 대공방어 시스템 및 목표물을 효과적으로 제압하였다.<sup>95)</sup> 반면, 이라크 공군은 약 320대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 중 절반 정도만이 전장에서 운용가능한 상태

91) 이라크 전쟁 직전 노드하우스(Nordhaus) 예일대 경제학 교수는 걸프전 이후 이라크의 전력 하락 및 미군의 비약적인 군사기술의 향상을 고려할 때 향후 이라크 예방공격 시에는 최소 15만 명에서 최대 35만 명의 병력만 참전하더라도 전쟁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95만여 명의 미군 주도 연합군이 참전한 걸프전 병력 규모와 비교할 때 매우 적은 병력이다. William D. Nordhaus,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a War with Iraq", in Nordhaus and Miller(eds), *War with Iraq: Costs, Consequences, and Alternatives*(Cambridge: American Academy of Arts & Societies), p.56.

92) Anthony H. Cordesman, *The Iraq War*, p.44~45.

93) Max Boot, "The New American Way of War", *Foreign Affairs*, "Vol. 82, No. 4(2003), p.45.

94) *ibid.*, p.46.

95) Anthony H. Cordesman, *The Iraq War*, pp.16~17, pp.31~32.

였으며, 조종기량 유지를 위해 연간 60~120시간의 비행훈련시간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조종사들은 연간 20시간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행훈련을 함으로써 조종기량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태였다.<sup>96)</sup> 아울러 네트워크로 연결된 각 구성군 부대들이 각기 다른 방향에서 일거에 한 장소의 중요 표적을 동시에 공격하고, 공격이 완료되면 신속히 분산함으로써 적의 반격을 피하는 이른바 “벌떼 전술(Swarming Tactics)”의 효과적인 사용으로 이라크군에 대한 충격과 공포 전략의 효과는 더욱 극대화되었다.<sup>97)</sup>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기술의 우세가 미국 주도 동맹연합군의 신속한 예방공격 승리(바그다드 점령시까지 단 26일 소요, 161명의 전사자 발생)를 달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즉, 미국과 이라크 간의 현격한 군사기술능력의 차이로 인해 군사 전략적 요소보다는 군사기술적 요소가 예방공격 결정 및 승패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은 이러한 전술의 이면에는 미국의 첨단군사기술과 함께 이를 창의적으로 적용한 합동성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합동성의 효과적 발휘를 위해서는 군사기술적 요소인 과학(科學) 못지않게 책략적 의미의 술(術)적 요소가 강조된 창의적 군사전략의 발전 및 적용이 여전히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이라크의 비효과적인 방어전략은 미국 주도 동맹연합군이 보다 손쉬운 예방공격의 성공을 달성하는데 역설적으로 기여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요컨대, 군사기술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이라크가 효과적인 방어전략을 구사할 수만 있었다면, 전쟁은 보다 장기화됨과 동시에 미군을 비롯한 동맹연합군에 훨씬 더 큰 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었다.

먼저 이라크군의 기동방어전략은 매우 비효과적이었다. 비록 미국 주도 연합군에 대한 이라크군 공화국 수비대의 간헐적인 역습이 실시되었다고는 하나 역습을 위한 기동시 화력 엄호 없이 개활한 지형을

96) *ibid.*, pp.22~23, p.42.

97) Sean J. A. Edwards, *Swarming and the Future of Warfare*, pp.280~285.

기동함으로써 오히려 동맹연합군의 좋은 공중타격 표적이 되었다. 아울러 중심방어진지 준비상태 또한 매우 부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맹연합군의 공격방향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여 병력을 배치함이 없이 동맹연합군이 공격 시작 후 진격함에 따라 방어위치를 우왕좌왕 바꾸는 일을 반복하였다. 이로 인해 동맹연합군의 공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작전기도가 빈번히 노출됨으로써 동맹연합군의 공중타격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sup>98)</sup>

또한, 사용가능한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지 못한 이라크는 미국에 대해 효과적인 간접억지전략을 구사할 수 없었다. 설령, 부시 행정부의 주장처럼 이라크가 당시 생화학 무기를 보유했었고 이스라엘이나 사우디 등 친미국가들에 대한 공격이 가능하였다고 할지라도 훨씬 더 큰 살상능력을 갖춘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여전히 이라크의 간접억지전략의 효용성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편으로 미국은 효과적인 기만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이라크군 13개 사단을 터키와 인접한 국경에서 고착 및 바그다드로의 증원을 차단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 미군의 터키 영토를 통한 이라크 진격에 대한 터키 의회의 강력한 반대로 미 제4보병사단은 장기간 터키 연안 군함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CIA 정보국은 터키가 비밀리에 미군의 자국 영토를 통한 이라크 진격을 허락했으며, 따라서 터키 의회의 공식적 반대는 단지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거짓된 정보를 후세인 정권에게 흘렸다. 이로 인해 이라크의 2개 공화국 수비대 사단 및 11개의 정규군 사단은 터키와 인접한 북쪽 국경 방어에 고착됨으로써, 후세인 정권 입장에서는 차후 바그다드 사수를 위한 증원 투입을 지연시키는 커다란 패착을 범하고 말았다.<sup>99)</sup> 한편, 터키 연안 군함에서 머문 미 제4보병사단은 이라크 13개 사단을 고착시킴으로써 이는 기만전략 수행방법 중 양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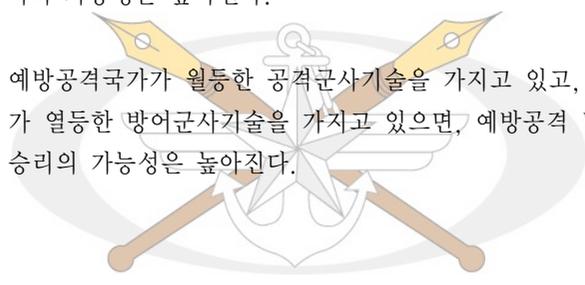
98) *ibid.*, pp.18~19.

99) Bob Woodward, *Plan of Attack*, p.325.

요컨대,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기술의 우위가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예방공격 결정 및 신속한 승리에 최우선적으로 기여한 결정적인 요소였다고 한다면, 미군의 효과적인 기만전략 사용과 이라크군의 비효과적인 기동방어전략 사용 및 사용불가능한 간접역지전략은 차선적으로 군사적 승리에 기여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sup>100)</sup> 위에서 기술한 논거를 바탕으로 군사전략과 기술의 공방이론 연구가설을 검증시 유효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H1a: 예방공격국가가 효과적인 공격전략을 가지고 있고, 표적국가가 비효과적인 방어전략을 가지고 있으면, 예방공격 및 신속한 승리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H2a: 예방공격국가가 월등한 공격군사기술을 가지고 있고, 표적국가가 월등한 방어군사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예방공격 및 신속한 승리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100) 미국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예방공격은 속전속결로 단기간 내 사담 후세인 정권을 제거함으로써 군사적 승리는 쟁취하였지만 이러한 전쟁에서의 승리가 ‘대량살상무기 제거’ 및 ‘민주주의 전파’라는 부시 행정부의 궁극적인 정치적(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절하였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판적 시각이 우세하다. 요컨대, 클라우제비츠(Clausewitz)의 저서 「전쟁론」의 “전쟁은 정치의 또 다른 연장”이라는 유명한 경구에 기초할 경우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예방공격은 전쟁의 정치적(정책적) 목적 달성에 부분적으로 실패하여 오히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국제지도력이 훼손되고 이슬람권 국가들의 반미감정이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는 테러와의 전쟁 수행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정치적 부담이 가중되고 군사 및 외교자원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등의 폐해를 가져왔다. 따라서 전쟁을 정치적(정책적)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 본 클라우제비츠의 관점에 기초할 경우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예방공격 개시는 수단의 적합성 측면에서는 적절하지 못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라크 전쟁의 정치적(정책적)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서의 적합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김재천·윤상용, “클라우제비츠 이론으로 본 ‘테러와의 전쟁’: 독일통일 전쟁과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 비교연구”, 「국가전략」 (2009년 제15권 2호), pp.5~34 참조.

## 5. 결 론: 사례별 특징 및 시사점

본 논문에서는 예방공격 사례 분석을 통해 세력전이이론이나 군사기술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공방이론보다 군사전략이라는 새로운 설명변수를 추가한 보완된 공방이론이 보다 나은 설명력을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가령, 공격군사기술이 우세할 경우 예방공격을 선호한다는 기존 군사기술 중심의 공방이론은 1956년 시나이 전역과 관련한 예방공격 사례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공격군사기술은 이집트의 소련제 공격용 무기의 대량 구입으로 인해 상대적인 열세로 기울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스라엘이 공격군사기술의 우세에 기반하여 이집트에 대한 예방공격 감행했을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이집트의 공격군사기술 향상에 따른 방어적 취약성의 증가로 인해 이스라엘이 예방공격을 결심하게 된 것이므로 더 이상의 세력전이를 허용하지 않기 위해 예방공격을 시도했다는 관점에서 세력전이이론이 군사기술 중심의 공방이론보다 이스라엘의 예방공격 동기를 설명하는 데 있어 보다 적합한 이론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세력전이이론 역시 우세한 공격군사기술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집트에 대한 예방공격을 통해 신속한 승리를 달성하였는지에 대해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요컨대, 국가 간 총력적 예방전쟁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총량적 국력(인구, GDP, 방위비 지출 등) 변화를 중요한 변수로 간주하는 세력전이이론은 총량적 국력을 공격 혹은 방어능력으로 즉각 전환하기 곤란한 시나이 전역과 같은 단기간 국지적 규모의 예방공격 사례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단점을 지닌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새롭게 제시한 군사전략과 기술의 공방이론 측면에서 본다면, 이스라엘은 부족한 공격군사기술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지점에 낙하산 부대 투입을 통한 효과적인 기습 및 기만전략으로 이집트 주력군의 시나이 반도 목표지역으로의 증원을 효과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예방공격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국지적 규모의 예방공격 사례를 설명함에 있어 군사전략과 기술의 공방이론이 보다 우수한 이론이라 할 수 있다.

한편, 1994년 북핵 위기와 2003년 이라크 전쟁과 관련, 군사기술 중심의 공방이론은 북한의 방어군사기술이 이라크의 방어군사기술보다 우세하였기 때문에, 예방공격의 손익계산 차원에서 미국이 이라크는 공격한 반면, 북한은 공격하지 않았다고 설명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북한과 비교시 여전히 압도적이고 월등한 군사기술 능력을 가진 국가이고, 동맹국인 한국군의 전력을 합산시 북한과의 전력격차는 더욱더 커지기 때문에 군사기술 중심의 공방이론의 관점에 근거할 경우 1994년 북핵 위기 당시 북한은 미국의 합리적인 예방공격의 대상이 되었어야 했다. 따라서 군사기술 중심의 공방이론은 북한과 이라크 사례의 결과적 차이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문제점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물론, 국내정치, 지형, 동맹결속, 외교 등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한 반 에베라(Van Evera) 식의 광의의 공방이론은 특히 동맹결속 차원에서 북한의 동맹인 중국을 중요한 변수로 고려하여 미국의 북한에 대한 예방공격 단념을 설명하려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광의의 공방이론은 동맹결속 변수 이외에 너무 많은 변수를 이론 설명식에 대입하여 설명하려 함으로써 이론의 간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단점을 지닌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새롭게 제시한 군사전략과 기술의 공방이론은 이론이 지녀야 할 간결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사례들의 결과적 차이를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가령, 군사전략과 기술의 공방이론은 군사기술 변수 이외에 잘 준비된 전방방어전략과 함께 대량살상무기, 미사일 등을 이용하여 인접한 미국의 동맹국(한국과 일본)을 볼모로 삼는 북한의 간접억지전략이 미국의 예방공격을 억지하는데 상당부분 기여해 왔음을 주장한다. 이는 기존 군사기술 중심의 공방이론과 비교시 보다 구체적이고 향상된 설명력을 제공한다. 다른 한편으로, 한미연합군의 첨단정보감시자산 및

우수한 무기체계와 함께 한국군의 잘 준비된 전방방어전략 역시 한국 전쟁 이후 북한의 기습남침을 억제하는데 크게 기여하여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반면, 이라크 전쟁의 경우,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압도적인 군사기술의 우세로 인해 공격군사기술이 우세할 경우 예방공격을 선호한다는 기존 군사기술 중심의 공방이론이 충분한 설명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적합한 사례로 판단할 수도 있다. 특히 미국이 이라크 전쟁에서 성공적으로 적용한 충격과 공포 공격전략은 그 특성상 첨단군사과학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전략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위의 관점은 설득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전쟁 사례와 관련한 군사전략 변수의 중요성을 간과해선 안 된다. 요컨대, 이라크가 효과적인 방어전략을 사용할 수 있었다면, 전쟁의 승패는 바꾸기 어려웠다 할지라도 전쟁의 장기화와 함께 미국에 보다 심각한 손실을 입힐 수 있었다. 하지만 이라크의 방어전략은 비효과적이어서 상대적인 군사기술의 열세에서 비롯되는 이라크의 방어적 약점을 더욱 심대하게 만들었다. 가령, 이라크는 중심방어진지 준비 미흡, 역습시 화력 엄호 미흡 및 빈번한 작전기도 노출 등으로 인해 동맹연합군의 좋은 공중타격 표적이 되었다. 반면, 미국은 효과적인 기만전략 사용을 통해 이라크 13개 사단을 터키 국경지역에 고착되도록 하여 바그다드 사수를 위한 결전 투입을 지연시킴으로써 신속한 승리 달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아울러 충격과 공포 공격전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요소로 합동성 강화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육·해·공군의 모든 전력을 유기적으로 동시통합 운용하여 전투력 승수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합동성 강화는 과학(科學)뿐만 아니라 특히 술(術)에 관련된 전략적 문제로, 단순히 특정 군사과학기술의 발전에만 의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유념해야 한다.

예방공격의 가능성과 결과를 설명함에 있어 쌍방 간 군사기술 수준의 격차에 따라 이라크 전쟁과 같이 군사기술 변수가 더 중요하게 작용할 때도 있고, 혹은 시나이 전역처럼 군사전략 변수가 보다 중요하게

작용할 때도 있다. 반면, 북핵 위기는 시나이 전역 및 이라크 전쟁과 비교시 군사기술과 군사전략 공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변수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군사기술 변수 이외에 군사전략 변수를 새롭게 추가한 보완된 공방이론은 예방공격 관련 사례를 보다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나아가 이러한 군사전략과 기술의 공방이론은 적대적 개별국가들 간 예방공격을 포함한 전면전 및 국지전의 개전 동기뿐만 아니라 이러한 전쟁의 억지 양상을 설명함에 있어 기존 이론들보다 보다 간결하면서도 향상된 설명력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군사전략 변수에 대한 이와 같은 예비적 연구를 통해 군사전략이 군인과 군사전문가들 사이에서만 연구되고 통용되는 특정집단의 전유물이 아닌, 안보관련 이론 발전을 위한 보다 일반화된 변수 내지 개념적 범주로서 관련학계의 일반학자들 사이에서도 보다 활발히 연구되어지길 기대하면서 이 글을 마친다.

(원고투고일 : 2012. 12. 1, 심사수정일 : 2013. 2. 19, 게재확정일 : 2013. 2. 25)

주제어 : 예방공격, 세력전이이론, 공격-방어이론, 군사전략, 군사기술, 승리와 억지 가능성, 공격군사기술, 방어군사기술, 공격전략, 방어전략

<ABSTRACT>

## Preventive Attack and Offense-Defense Theory: A Study on the Role of Military Strategy and Technology

Park, Jun-hyu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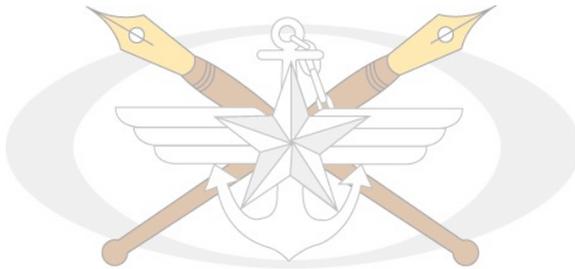
Most theories of war have paid too much attention to preventive attack cases between major powers, but paid too little attention to ones between major and minor powers and ones between minor powers. Taking this problem into accoun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offer a better theory, a complementary theory, than other theories of war, such as power transition theory and the existing version of offense-defense theory, in order to explain not only the probabilities of victory and deterrence related to preventive attack cases between great powers and minor powers but ones between minor powers.

This paper argues that offense-defense theory of military strategy and technology is a better theory to explain effectively than the probabilities of victory and deterrence by preventive attack. In particular, this revised version of offense-defense theory suggested in this paper provides military strategy as another important factor because understanding offensive and defensive action and probabilities of victory and deterrence between opponents is not possible by looking only at offensive or defensive military technology, that is, the offensive or defensive character of particular weapons systems; it should be comprehensively analyzed by taking into account the combination of military strategy and military technology.

As a new variable supplementing the existing version of offense-defense theory, military strategy is important especially in a weaker target state's defense because an effective defensive strategy can offset the target state's weaker defensive capability, which has inferior military technologies, compared to those of a stronger potential attacking state; it increases the

probabilities of deterrence of preventive attack. On the other hand, an effective offensive strategy can increase a potential attacking state's ability to successfully execute a preventive attack on a target state, even though it lacks advanced offensive military technologies: it increases the probabilities of preventive attack, including its possibilities of victory.

Key Words : Preventive Attack, Power Transition Theory, Offense-Defense Theory, Military Strategy, Military Technology, Probabilities of Victory and Deterrence, Offensive Military Technology, Defensive Military Technology, Offensive Strategy, Defensive Strategy



# 정밀유도탄의 발달: 1918~2010

문장렬\* · 문 권\*\*

1. 서 론
2. 유도폭탄
3. 순항미사일
4. 탄도미사일
5. 유도포탄
6. 결 론

## 1. 서 론

무기의 발달사에서 화약의 발명은 흔히 ‘혁명’으로 일컫는다.<sup>1)</sup> 그러나

\* 국방대 군사전략학과 부교수 \*\* 국방대 석사과정 졸(육군 대위)

1) 화약의 발명으로 초래된 전쟁양상의 혁명적 변화에 대한 논의는 Max Boot, *War Made New: Technology, Warfare, and the Course of History 1500 to Today*(New York: Gotham Books, 2006) 제1부 화약 혁명(Gunpowder Revolution) 참고. 그러나 여러 연구자들은 화약의 군사적 이용이 실제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군사사에서 하나의 혁명적 사건으로 보지 않는 경향도 있다. 예컨대, Bernard and Fawn Brodie, *From Crossbow to H-Bomb: The evolution of the weapons and tactics of warfare*(USA: Indiana University Press, 1973), Trever N. Dupuy, *The Evolution of Weapons and Warfare*(USA: Da Capo, 1984) 등 참고.

현대에 올수록 무기의 파괴력 자체의 증대보다 사거리와 정밀도, 운용의 효율성 등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는 기술의 발달로 인해 파괴력의 운반과 통제 수단인 고도화되고 정치적으로 대량파괴보다는 정밀타격이 선호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밀도의 향상은 '유도(guidance)'라는 개념이 기술적으로 구현됨으로써 비약적인 발전이 가능하게 되었다. 유도란 파괴력(탄두)을 발사 시점이 지난 후에도 표적에 근접시키는 기술이다. 1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총포의 탄자가 비행하는 경로가 발사시점에서 결정되었기에 사격술은 탄자의 물리적 속성과 사격제원에 국한되었다. 그러나 이후 기계, 전자, 광학, 컴퓨터 분야의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명실공히 유도무기(guided weapon)의 시대가 열렸다.<sup>2)</sup>

본 논문에서는 정밀유도탄(Precision Guided Munition: PGM)의 발달과정을 고찰하기 위해 정밀유도탄의 종류를 유도폭탄,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유도포탄으로 구분한다. 이는 유도방식이나 기타 기술적인 관점에서 분류한 것이라기보다는 운용의 목적과 방식 측면에서 분류한 것으로서 무기(weapon)의 발달사 연구에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각 연구대상을 다양한 구성품으로 이루어진 무기체계(weapons system)로 하지 않고 탄(munition) 자체에 국한시킨다.

유도폭탄(guided bomb)은 주로 항공기에서 투하된 후 표적으로 유도되는 폭탄을 지칭한다. 순항미사일(cruise missile)은 공기를 비행하는 무인비행체에 폭탄을 탑재한 무기이며, 탄도미사일(ballistic missile)은 비행궤적이 대기권을 벗어난 탄도를 갖는 로켓에 폭탄을 탑재한 무기이다. 유도포탄(guided projectile)은 포에서 발사되는 탄에 유도장치를 장착한 것이다. 이렇게 구분하여 발달과정을 분석하는 것은 종류에 따라 정밀유도탄의 발달과정이 상이하고, 그 용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종류에 따라 정밀유도탄의 운용개념이 상이하고,

2) 유도무기를 정의하는 유도의 개념과 방식에 대한 기술적 논의는 본 논문에서 상세히 개진하지 않지만, 일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다음 서지 등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최윤대·문장렬, 『군사과학기술의 이해』, 서울: 양서각, 2003, 110~134쪽, 국방부, 『WMD: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이해』, 서울: 국방부, 2007, 166~188쪽.

정밀성과 유도방식, 파괴력, 단가(單價)의 차이가 크므로 분리하여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4개의 유형으로 분류한 정밀유도탄의 발달과정은 정밀유도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정밀성과 유도방식의 발달과정과 사실상 일치한다. 따라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고찰하면서 아울러 일반적으로 무기의 발달은 비용-효과 측면에서 고효율을 지향하므로 정밀유도탄의 가격과 파괴력 변화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밀유도탄의 발달과정의 고찰을 위해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설정한다. 시간적 측면에서는 유도무기의 개발이 시작된 제1차 세계대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로,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의 정밀유도탄을 위주로 발달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유도방식을 제외한 정밀도, 단가, 파괴력은 수치로 나타내기 위해서 별도의 지표를 필요로 한다. 이에, 정밀도는 원형 공산오차(m)를 기준으로 하고<sup>3)</sup>, 단가는 참고를 위해 자료의 가용성 범위 내에서 당시의 달러화로 제시한다.<sup>4)</sup> 파괴력은 측정 방식에 따라 전혀 달리 표현될 수 있으므로 보편적인 지표화 방식을 찾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파괴력을 나타낼 수 있는 탄두중량(kilogram : kg), 파괴력(mega ton : Mt), 관통력(meter : m)을 이용하여 지표화하고, 이를 통해서 발달과정을 비교·분석한다.

3) 원형공산오차(Circular Error Probable: CEP)란 통상 표적 지점을 중심으로 발사된 탄의 50%가 확률적으로 분포되는 반경을 의미한다.

4) 단가는 시대별로 물가 변동이 있고 환율도 다를 뿐 아니라 기술의 확산과 발달에 따라 향상된 성능의 무기가 오히려 더 저렴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 저자들은 당시 단가(달러)들을 미국의 노동통계청(U.S. Department of Labor)에서 제공하는 CPI 인플레이션 계산기를 이용하여 현재(2012. 9. 15)의 원화로 환산을 시도했으나 그 결과치들은 본 논문에서 제시하지 않는다.

## 2. 유도폭탄

길레스피(Gellespie)는 미국의 해군자문위원회(Naval Consulting Board)의 프로젝트였던 공뢰(空雷, aerial torpedo)를 세계 최초의 유도탄으로 평가하고 있다. 프로젝트를 담당하던 스페리(Elmer Sperry)와 동료 엔지니어들이 1918년 3월 6일 롱 아일랜드(Long Island)에서 성공적으로 비행시험을 하였기 때문이다.<sup>5)</sup> 공뢰는 캐터링(Charles F. Kettering)에 의해 더욱 발전되었으며, ‘버그(The Bug)’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버그는 자이로스코프(gyroscope)라는 도구를 통해 방향을 통제할 수 있는 유도방식을 갖추었다. 이처럼 초기 유도탄의 대부분은 자이로스코프에 기반을 둔 관성유도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후, 캐터링의 공뢰 기술은 1920년대에 무선 통제(radio control)와 결합하면서 유도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그러나 초기의 유도탄의 정밀성이란 그다지 기대할 수 없는 것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있었던 ‘아프로디테(Aphrodite)작전’에서 그 당시 유도탄의 유도방식과 정밀도를 살펴볼 수 있다. 1944년 6월 26일, 공군의 지휘관이었던 두리틀(James Doolittle) 장군은 영국에 있는 제3폭격사단에 아프로디테로 명명되어진 실험적 프로젝트를 수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 아프로디테 작전은 무선 통제, TV 화상(television imaging)을 포함한 다양한 기술들을 사용하여 독일의 로켓 발사 지점을 폭격하는 것이었다.<sup>6)</sup> 낮은 정밀도를 향상시키고자 했던 기술적인 노력들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출현하게 되는 작전이였다. 하지만 그 작전은 독일의 시설에 결정적인 피해를 줄 만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다. 이러한 사례는 당시 유도탄의 정밀도를 가늠할 수 있게 한다.

5) Paul G. Gillespie, *Weapons of Choice: The development of precision guided munitions*(USA Alabama: The University Of Alabama Press, 2006), pp.14~16.

6) Headquarters, 3rd Bombardment Division, “Report on Aphrodite Project”, *AFHSO File Number B5529-1015*, Bolling AFB, DC(January 20, 1945), p.1.

독일의 프리츠(Fritz) X와 미국의 아존(Azimuth Only: Azon)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상용화되고 잘 알려진 유도폭탄이다. 프리츠 X는 독일이 개발한 대함 유도폭탄으로 1943년 7월 21일 시칠리아의 오거스타(Augusta) 항구에 대한 습격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이래로 연합군을 상대로 한 다양한 전투에서 활용되었다. 프리츠 X는 가시선내 수동형 라디오 지령유도방식(Manual Command to Line Of Sight: MCLOS)을 사용하였다. 이는 항공기 조종사가 점광 신호기로 폭탄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라디오 원격 조종으로 낙하 궤도를 수정하여 목표물로 유도하는 방식이었다.<sup>7)</sup> 숙련된 조종사는 프리츠 X의 원형 공산오차를 15m 이내로 줄였다.<sup>8)</sup> 아존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의 국방연구위원회(National Defense Research Committee: NDRC)의 노력으로 개발된 유도폭탄이다.<sup>9)</sup> VB-1(Vertical Bomb 1)으로 명명된 아존은 1944년에 상용화되어 1945년 초에 버마에서 사용되었다. 아존 역시 MCLOS 유도방식을 사용하였으며, 최상의 상태에서 원형 공산오차는 6.4m에 이르렀다.<sup>10)</sup> 하지만 이러한 유도방식은 상대방의 재밍(Jamming), 항공기 조종사의 숙련도, 기상, 사거리에 따라 정확도가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프리츠 X와 아존과 같은 MCLOS 유도방식을 사용하는 AGM-12 불펍(Bullpup)은 1959년에 미국 해군에 의해서 대량 생산되어 배치된 공대지 지령유도 미사일이었다. 불펍은 미국 공군이 표적을 파괴시키는 데 대단한 어려움이 있었던 한국전쟁의 경험에 의해서 개발되었다.

7) 유용원·김병륜·양욱·김대영, 『무기바이블』, 플래닛미디어, 2012, 232쪽.

8) "1.JmA-Special German weapons", 1jma.dk. [http://www.1jma.dk/articles/1jmaluftwaffe\\_gro\\_und\\_weapons.htm](http://www.1jma.dk/articles/1jmaluftwaffe_gro_und_weapons.htm).(검색일: 2012. 9. 10).

9) NDRC는 근접신관, 열·빛·레이더 호밍과 같은 자체 추적 유도방식, 수동식 유도폭탄의 발전을 이끌어 냈다. Joseph C. Boyce, *New Weapons for Air Warfare: Fire-Control Equipment, Proximity Fuzes, and Guided Missiles, Science in World War II, Office of Scientific Research and Development*(Boston: Little, Brown, 1947), p.257.

10) U.S. Army Human Engineering Laboratories, "The Accuracy of the Azon Guided Bomb as Affected by Battle Conditions in World War II", *DTIC AD number 600601*(May 1964), p.9.

불편을 발사한 후에는 정밀한 유도를 위해서 항공기 조종사는 가급적 미사일 뒤를 따라가야만 했다.<sup>11)</sup> 그러한 요구는 항공기와 조종사의 생존을 위태롭게 했고, 결과적으로 정확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AGM-62 월아이(Walleye)는 1960년대에 마틴 마리에타(Martin Marietta)사에 의해 생산되어, 미국에 의해 사용된 대표적인 TV 유도 방식의 유도폭탄이다. 월아이는 항공기로부터 목표물까지 활공하는 동안 유도시스템을 보조하는 텔레비전을 통해 방향이 조종된다. 폭탄 앞부분에 있는 텔레비전 카메라는 이미지를 항공기 조종실로 전송하며, 조종사는 목표물의 이미지가 스크린에 나타나면 조준하고 폭탄을 투하한다.<sup>12)</sup> 1967년 전투평가에서 월아이는 약 4.6m의 원형 공산오차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sup>13)</sup> 그러나 월아이는 1967년 베트남의 탄 호아(Thanh Hoa) 철교에 대한 직접 타격은 실패하였다.<sup>14)</sup> 월아이의 당시 단가는 약 92,000달러였으며<sup>15)</sup>, 374kg의 탄두로 콘크리트 46cm를 관통할 수 있는 관통력을 지녔다.<sup>16)</sup> 사실, 이러한 TV 유도 방식은 미국에서 제2차 세계대전부터 발전되어 왔으며, GB-4와 같은 초기 유도폭탄이 개발되기도 하였다. GB-4는 TV와 라디오 지령방식을 이용하였으며, 약 60m의 원형 공산오차를 가졌다.<sup>17)</sup>

1965년 베트남전쟁에서 미 해군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된 AGM-45 쉬라이크(Shrike)는 대표적인 초기 공대지 대방사(anti-radiation) 미사일이다. 쉬라이크는 수동 레이더 호밍 유도방식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베트남전쟁에 참가한 많은 조종사들은 쉬라이크를 선호하지

11) [http://en.wikipedia.org/wiki/AGM-12\\_Bullpup](http://en.wikipedia.org/wiki/AGM-12_Bullpup)(검색일: 2012. 9. 10).

12) [http://en.wikipedia.org/wiki/AGM-62\\_Walleye](http://en.wikipedia.org/wiki/AGM-62_Walleye)(검색일: 2012. 9. 10).

13) Headquarters Pacific Air Forces, "Second Generation Weaponary in Southeast Asia", *AFHSO File number CHECOK717.0413-80*, Bolling AFB, DC(September 10, 1970), pp.8, 11~13.

14) John Darrell Sherwood, *Nixon's Trident: Naval Power in Southeast Asia, 1968~1972*(Washington D.C: Naval Historical Center, 2009), pp.24~66.

15) GAO, "Weapons Acquisition: Precision Guided Munitions in Inventory, Production, and Development", *Letter Report GAO/NSIAD-95-95*(1995), pp.5~42.

16) <http://jdds.dtaq.mnd.mil/JDDS/>(검색일: 2012. 9. 16).

17) <http://en.wikipedia.org/wiki/GB-4>(검색일: 2012. 9. 10).

않았는데, 그 이유는 약 25%의 명중률밖에 지니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sup>18)</sup>

한편, 1950년대 후반에 출현한 레이저와 반도체 기술의 발달은 새로운 군사적 잠재력을 보여주었으며, 정밀유도탄의 정밀도와 유도방식에 중대한 변화를 이끌었다.<sup>19)</sup> 1963년까지 반능동 유도방식이 당시에 현존하는 가장 뛰어난 유도방식으로 인정받았으며, 그러한 반능동 호밍방식은 목표물을 조준하는 데 레이저를 사용하였다.<sup>20)</sup> 레이저 유도방식은 공중이나 지상에서 목표물에 레이저 빔을 비추면 항공기 조종사가 목표 부근 상공에서 폭탄을 투하하고, 폭탄이 목표물에 반사된 레이저 빔을 감지하여 목표물로 유도되는 원리이다. 1940~1960년대 초 시기는 라디오 조종과 자이로스코프의 사용으로 구분될 수 있으나, 레이저와 반도체에 의해 정밀유도탄은 획기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정밀유도폭탄의 개시는 제2차 세계대전이었지만 그 가치를 입증한 전쟁은 베트남 전쟁이었다. 레이저 유도폭탄은 1964년 미국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사(Texas Instruments)가 개발을 시작했다. 이러한 레이저 유도폭탄은 베트남전쟁에서 4년 동안 연 600대의 항공기가 기존의 폭탄으로 파괴하지 못한 탄호아(Thanh Hoa) 철교를 단 한 차례의 폭격으로 파괴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냈다.<sup>21)</sup>

레이저 유도폭탄은 1968년부터 베트남 전쟁에서 운용되기 시작했으며, 가장 유명한 레이저 유도 키트(kit)는 미국 레이시언(Raytheon)사와 록히드마틴사가 생산한 ‘페이브웨이(Paveway)’이다. 이후 개발된 페이브웨이Ⅱ는 반능동 레이저 호밍 방식에 TV 유도방식이 더해졌으며, 페이브웨이Ⅲ는 적외선 유도 방식을 사용한다. 반능동 레이저 호밍 유도방식을 사용하는 페이브웨이Ⅰ, Ⅱ의 원형 공산오차는 9m이다.<sup>22)</sup> 그리고 페이브웨이 마크(Mark) 84(페이브웨이Ⅲ)는 연장된

18) [http://en.wikipedia.org/wiki/AGM-45\\_Shrike](http://en.wikipedia.org/wiki/AGM-45_Shrike)(검색일: 2012. 9. 10).

19) Paul G. Gillespie, op. cit., p.69.

20) *Ibid.*, p.71.

21) 유용원 · 김병륜 · 양옥 · 김대영, 앞의 책, 232~234쪽.

22) <http://www.fas.org/man/dod-101/sys/smart/index.html>(검색일: 2012. 9. 13).

사거리 내에서 전례가 없던 약 6.1m의 원형공산오차를 기록했다.<sup>23)</sup> 페이브웨이Ⅱ의 단가는 1972년 당시 약 19,000달러였으며, 페이브웨이Ⅲ의 경우 1980년대에 약 56,000달러였다.<sup>24)</sup> 또한 페이브웨이Ⅱ는 89/202/240/428kg의 다양한 탄두를 사용하였으며, 페이브웨이Ⅲ는 240/428kg의 탄두를 사용하였다.<sup>25)</sup> 목표물의 성격과 요망수준에 따라 적절한 폭탄을 탄두로 사용하였던 것이다.

레이저 유도방식은 매우 정밀했지만 레이저 빔을 직접 비추어야 했으므로 상당부분 시각에 의존해야 했다. 또한 악천후에는 사용이 불가능할 때가 많았다. 산악 지형의 특성으로 안개가 짙게 깔리면 레이저 유도폭탄은 반사된 레이저 빔을 찾지 못해 오폭이 발생하기도 하였다.<sup>26)</sup> 걸프전쟁과 보스니아전쟁의 경험으로 미군은 정밀도의 향상과 악천후 극복 능력, 사거리 증대, 자동 유도방식 등을 요구했다.<sup>27)</sup>

이러한 요구에 응하기 위해, 미군은 걸프전쟁에서 사용된 유도탄과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위성을 이용한 목표물 탐색 장치를 조합한 최첨단 유도폭탄의 개발을 계획하였다.<sup>28)</sup> 마침내 1996년 7월 GPS지원폭탄(GPS Aided Munition: GAM)인 GBU-36이 개발되었다. GBU-36은 관성유도 장치와 GPS유도 장치를 통해 목표물로 접근하기 때문에 별도의 목표물 탐지 장치가 없는 공격용 정밀유도 폭탄이었다. GBU-36은 286/428kg의 탄두를 사용하였으며<sup>29)</sup>, 극히 소량만 생산되어 아프가니스탄전쟁과 이라크전쟁에서 전량 사용되었다. 이후 1996년부터 미국의 보잉사에서 합동직격탄(JDAM: Joint Direct

23) Headquarters 7th Air Force, "Pave Way Utility and Cost Effectiveness in Southeast Asia", AFHSO File number K7725506, Bolling AFB, DC(September 15, 1968), pp.18~19.

24) <http://www.fas.org/man/dod-101/sys/smart/index.html>(검색일: 2012. 9. 14).

25) <http://jdds.dtaq.mnd.mil/JDDS/>(검색일: 2012. 9. 16).

26) 유용원·김병륜·양욱·김대영, 앞의 책, 234~235쪽.

27) Paul G. Gillespie, op. cit., p.142.

28) John A. Tirpak, "The State of Precision Engagement", *Air Force Magazine* (March 2000), pp.28~29.

29) <http://jdds.dtaq.mnd.mil/JDDS/>(검색일: 2012. 9. 16).

Attack Munition)이라는 GPS유도폭탄이 본격적으로 생산되었다. JDAM은 고도 1만 4,000미터에서 투하되면 사거리가 약 28km에 달하며, 원형 공산오차는 13m이다. 그러나 상대의 전파방해로 GPS 수신이 불가할 경우에 관성항법장치(Inertial Navigation System: INS)에 의해 유도되어 원형 공산오차는 30m로 커지게 된다.<sup>30)</sup> JDAM은 240/428kg의 탄두를 사용하며, 콘크리트 2.4m를 관통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sup>31)</sup> GAO(Government Accounting Office)의 1995년도 자료에 따르면, GBU-36의 당시 예상단가는 약 231,000달러였던 반면에, JDAM의 당시 예상단가는 현재 약 56,000달러였다.<sup>32)</sup> 미국의 보잉사에서 제작하고, 2006년에 전력화된 GBU-39 역시 INS/GPS 유도방식을 활용하여 약 3m의 원형 공산오차를 구현하고 있다. GBU-39의 단가는 약 50,000달러(약 0.64억원)이며<sup>33)</sup>, GBU-39는 93kg이라는 소형 탄두로 콘크리트 1m를 관통할 수 있다.

미국에서 개발되었던 주요 정밀유도폭탄의 정밀성과 유도방식 발달 과정을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정밀유도폭탄은 개략적으로 관성유도, 라디오 원격 조종을 통한 수동 지령유도, TV 유도, 수동 레이더 호밍유도, 레이저를 이용한 반능동 호밍, 적외선(IR) 유도, GPS 유도방식의 순서로 발달하였다. 또한 이러한 유도방식들은 기존 유도방식에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키고, 상호 조합을 이루면서 정밀도를 높이고, 각종 변수들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달하게 되었다.

30) 유용원·김병륜·양욱·김대영, 앞의 책, 235~236쪽.

31) <http://jdds.dtaq.mnd.mil/JDDS/>(검색일: 2012. 9. 16).

32) GAO, op. cit., pp.5~42.

33) 합동참모본부, 「세계 주요 무기체계: 공대지 유도폭탄」, 「합참」 제49호(2011년 10월), 129쪽.

〈표 1〉 주요 정밀유도폭탄의 정밀성과 유도방식 발전과정

정밀유도폭탄	상용연도	원형공산 오차(m)	유도방식	당시 단가(\$)	
Azon	1944	6.4	수동형 라디오 지령		
AGM-62 Walleye	1966	4.6	TV	92,188	
Paveway	I	1968	9	반능동 레이저 호밍	
	II	1972	9	TV+반능동 레이저 호밍	19,000
	III	1980	6.1	적외선	55,600
GBU-36(GAM)	1996	6	INS / GPS	231,250	
JDAM	1996	13	INS / GPS	62,846	
GBU-39	2006	3	INS / GPS	50,000	

\* 기타 참고자료

- Kettering bug(1918): 관성유도방식, 단가 약 12,000달러
- Fritz X(1943): 원형공산오차 15m, MCLOS 유도방식
- AGM-45 Shrike(1965): 수동 레이더 호밍 유도방식, 명중률 25%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밀유도폭탄의 정밀도는 시대가 지나도 크게 변화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항공기에서 폭탄을 투하하는 방식에 있어서 항공기와 조종사의 생존성과 작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폭탄의 투하고도는 높아졌고, ‘발사 후 망각(fire and forget)’ 시스템을 발전시켜야 했다. 이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정밀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으나, 표에서 보는 것처럼 최근 유도폭탄의 정밀도는 이전에 비해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다. 이는 기술의 진보에 따라 정밀유도폭탄의 유도방식이 발달함으로써 항공기와 조종사의 생존성 향상에 부수되는 정밀도 저하 요인을 극복할 정도로 정밀도 자체가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미국의 주요 정밀유도폭탄의 단가는 전체적으로 낮아지고 있지만 종종 높아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무기체계의 단가가 근본적으로 기술력의 희소성, 개발비용, 탄두구성, 재료, 생산규모, 군사적 효과와

가치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개발된 정밀유도폭탄이 대량으로 생산되어질 경우 그 단가는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표 2〉 주요 정밀유도폭탄의 파괴력

정밀유도폭탄	상용연도	탄두중량(kg)	관통력(m)	비 고
AGM-62 Walleye	1966	374(191)	콘크리트 0.46	·
Paveway	Ⅱ	1972	89, 202, 240, 428	·
	Ⅲ	1980	240, 428	·
GBU-28	1991	272	콘크리트 6m	벙커버스터
GBU-36(GAM)	1996	286, 428	·	·
JDAM(GBU-31)	1996	240, 428	콘크리트 2.4m	·
GBU-37	1997	286, 428	콘크리트 6m	·
GBU-39(SDB)	2006	93	콘크리트 1m	·
GBU-43(MOAB)	·	8,482	콘크리트 18m	2004년 중단

\* 출처: <http://jdds.dtaq.mnd.mil/JDDS/>(검색일: 2012. 9. 16); 합동참모본부, 「세계 주요 무기체계: 공대지 유도폭탄」, 『합참』 제49호, 2011, 128~130쪽 참고 후 재구성.

〈표 2〉에서는 미국의 주요 정밀유도폭탄의 파괴력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탄두중량과 관통력을 기준으로 파괴력을 비교해 보면, 정밀유도폭탄의 파괴력은 일정한 패턴을 보이지는 않는다. 이는 탄두중량을 전적으로 늘리거나 줄이는 형태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정밀유도폭탄의 표적 성질, 임무, 전술 및 전략적 효과에 따라 적정한 규모의 파괴력을 창출하도록 조절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월아이의 관통력이 46cm에 그쳤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작게는 1m에서 크게는 18m까지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는 정밀유도폭탄의 초기 모델에 비해서 최근 모델들이 지하에 있는 상대의 시설물도 파괴할 수 있을 정도로 관통력이 증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파괴력을 정밀하게 집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화하였다.

### 3. 순항미사일

세계 최초의 순항미사일은 제2차 세계대전시 1944년 6월부터 독일이 영국 폭격에 약 10,000기, 벨기에 폭격에 약 6,000기를 사용했던 V-1미사일이다.<sup>34)</sup> V-1미사일의 유도방식은 자이로스코프를 이용한 관성유도였으며, 원형 공산오차는 12.8km로 알려졌다. 이러한 V-1미사일은 850kg의 아마톨(Amatol) 폭약<sup>35)</sup>을 사용하였다.

독일의 V-1에 충격을 받은 미국은 곧바로 V-1을 역설계하여 1944년 8월 8일까지 JB-2 룬스(Loons)를 만들어냈다. 또한 LST(Landing Ship Tank)에서 발사되는 해군용 순항미사일인 KGW-1을 개발했으며, 차후 잠수함에서 발사되도록 개발되었다.<sup>36)</sup> JB-2와 KGW-1은 910kg의 고폭탄을 사용하였으며, MGM-1 마타도어(Matador)와 MGM-13 메이스(Mace)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sup>37)</sup> JB-2와 KGW-1은 1945년부터 1950년까지 사용되었으며, 라디오 지령유도를 통해서 160km의 사정거리에서 약 400m의 원형 공산오차 범위에 이르렀다.<sup>38)</sup>

마타도어와 메이스는 모두 1Mt의 폭파력을 지닌 핵탄두를 탑재한 순항미사일이었다.<sup>39)</sup> 마타도어는 1952년에 레이더에 의한 라디오 지령 유도시스템을 지닌 A형, 1957년에 새니클(Shanicle) 유도시스템<sup>40)</sup>을 갖춘 C형이 상용화되었다. 그러나 마타도어는 1962년 도태되고

34) Thomas G. Mahnken, "The Cruise Missile Challenge Overview", *CSBA Backgrounder* (November 9, 2004), p.2.

35) 질산암모늄과 T.N.T의 혼합 폭약.

36) George Mindling and Robert Bolton, *US Air Force Tactical Missile, 1949~1969, The Pioneers, Raleigh*(North Carolina: Lulu.com, ISBN 978-0-557-00029-6, 2009).

37) [http://en.wikipedia.org/wiki/V-1\\_flying\\_bomb](http://en.wikipedia.org/wiki/V-1_flying_bomb)(검색일: 2012. 9. 10).

38) [http://en.wikipedia.org/wiki/Republic-Ford\\_JB-2](http://en.wikipedia.org/wiki/Republic-Ford_JB-2)(검색일: 2012. 9. 10).

39) <http://jdds.dtaq.mnd.mil/JDDS/>(검색일: 2012. 9. 16).

40) Shanicle: Short Range Navigation Vehicle, 사거리와 발사 각도를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하여 마이크로웨이브 방사체를 사용하는 유도방식이다.

메이스가 생산된다. 메이스는 마타도어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자동지형인식항법(Automatic Terrain Recognition And Navigation: ATRAN)을 갖춘 순항미사일이었다.<sup>41)</sup> 자동지형인식항법은 탑재된 영상지도와 실제 레이더를 통해 얻어지는 지형정보를 비교하면서 항로를 수정해 가는 유도방식 시스템이다. 이후 사거리를 증가시키고 관성유도시스템을 추가시킨 시리즈 B가 생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59년 도입된 메이스는 1970년대 초기에 도태된다. 마타도어와 메이스의 원형 공산오차는 약 520m로 알려져 있으며, 개발 당시의 단가는 각각 89만 달러, 45.2만 달러였다.<sup>42)</sup>

미국의 지속적인 순항미사일 개발과 함께 이루어진 중요한 성과로서 SM-62 스나크(Snark)와 레굴러스(Regulus)가 있다. 3.8Mt의 위력을 지닌 핵탄두를 탑재한 스나크는 대륙간 순항미사일의 초기 모델로 천측유도방식을 적용한 미사일이었다.<sup>43)</sup> 그 프로젝트는 1946년에 시작하였으나, 1955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우선 순위를 두는 등의 논란 끝에 1959년부터 1961년까지만 상용화되었다. 스나크의 원형 공산오차는 1957년 시험에서 31.5km, 1958년 시험에서 7.4km였다. 기술적 노력의 결과, 약 10,200km 사거리에서 발사되는 스나크의 원형 공산오차는 2.4km로 줄어들게 되었다.<sup>44)</sup> 1955년에 예상되었던 스나크의 단가는 약 147만 달러였다.<sup>45)</sup> 0.5Mt의 핵탄두를 탑재한 레굴러스는 미 해군이 잠수함에서 발사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통해 제작되었으며, 1955년부터 1964년까지 운용된 순항미사일이다.<sup>46)</sup> 레굴러스의 유도방식은 라디오 지령유도시스템의 일종인 ‘트라운스(Trounce)’라는 유도방식을 사용하였으며,

41) [http://en.wikipedia.org/wiki/MGM-13\\_Mace](http://en.wikipedia.org/wiki/MGM-13_Mace)(검색일: 2012. 9. 11).

42) [http://en.wikipedia.org/wiki/MGM-13\\_Mace](http://en.wikipedia.org/wiki/MGM-13_Mace)(검색일: 2012. 9. 11).

43) 천측유도방식이란 미사일의 비행고도가 대기권을 벗어나면 중간에도 별을 관측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별자리를 이용하여 자체의 위치를 측정하여 유도하는 방식이다.

44) [http://en.wikipedia.org/wiki/SM-62\\_Snark](http://en.wikipedia.org/wiki/SM-62_Snark)(검색일: 2012. 9. 11).

45) <http://www.astronautix.com/lvs/snark.htm>(검색일: 2012. 9. 15).

46) <http://jdds.dtaq.mnd.mil/JDDS/>(검색일: 2012. 9. 16).

원형 공산오차는 약 4.65km였다. 또한 레굴리스의 1958년 단가는 약 27만 달러였다.<sup>47)</sup> 이후 SSM-N-9 레굴리스Ⅱ가 관성유도방식으로 개발되었으나 폴라리스(Polaris)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개발에 치중한 나머지 예산상의 이유로 양산되지 못했다.

미국은 1960년대 운용이 간편한 고체 추진 방식의 탄도미사일이 등장하면서, 순항미사일의 개발과 운용을 포기했었다. 반면, 위협적인 미국의 항공모함에 대응해야 했으나 그러한 무기체계를 갖출 여력이 없었던 소련은 그 대안으로 순항미사일의 개발에 치중했다. 1967년, 이집트 해군이 발사한 소련제 스틱스(Styx) 함대함미사일에 이스라엘 해군의 구축함이 격침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미국은 1970년대에 들어 대함순항미사일 개발에 주력했다. 1977년 하푼(Harpoon) 대함 미사일을 해군에 배치하고, 1983년 성능을 더 향상시킨 다목적 순항미사일인 토마호크(Tomahawk) 순항미사일을 개발했다.<sup>48)</sup> 이렇게 순항미사일의 성능 향상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1950년부터 1980년 사이에 엔진, 재료, 연료, 유도기술의 꾸준한 발전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푼은 맥도넬 더글라스(MacDonnell Douglas)에 의해 개발되고, 221kg의 탄두로 강철 1~2m를 관통시킬 수 있는 전천후, 비가시적 대함 미사일이다.<sup>49)</sup> 하푼의 유도방식은 중간 순항단계에서 레이더에 의한 고도측정과 관성유도, 종말단계에서 능동 레이더 호밍유도를 사용한다. 하푼은 이러한 유도방식을 통해서 약 5m의 원형 공산오차를 달성한다. 또한 하푼 블록(block)Ⅱ와 같은 시리즈가 기술력의 발전과 함께 개발되었다. 블록Ⅱ의 유도방식은 관성유도방식에 GPS 유도방식을 더한 INS / GPS 유도방식으로 더욱 정밀도를 높였다.<sup>50)</sup> 차후 하푼 시스템은 원거리대지공격미사일(Stand-off Land Attack Missile: SLAM)로 더욱 발전되었으며, 246kg의 탄두로 콘크리트 1~1.5m를

47) <http://www.astronautix.com/lvs/regulus1.htm>(검색일: 2012. 9. 15).

48) 유용원 · 김병륜 · 양욱 · 김대영, 앞의 책, 215~216쪽.

49) [http://en.wikipedia.org/wiki/Harpoon\\_\(missile\)](http://en.wikipedia.org/wiki/Harpoon_(missile))(검색일: 2012. 9. 11).

50) BlockⅢ 프로그램은 미 해군에 의해서 2009년 4월에 취소되었다.

관통할 수 있다. SLAM 미사일은 중간단계에서 INS/GPS 유도방식, 종말단계에서는 영상적외선(IIR: Imaging Infra-Red)과 데이터 링크(Data Link)를 이용한 유도방식을 사용하여 사거리 130km에서 원형 공산오차 3m 이하를 달성했다.<sup>51)</sup> 하푼의 1977년의 단가는 약 53만 달러였으며, SLAM-ER(Extended Response)의 2000년도 단가는 약 79만 달러였다.<sup>52)</sup>

1983년부터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은 450kg의 고풍탄과 0.2Mt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으며 INS, 지형대조유도(Terrain Comparison: TERCOM), 디지털영상대조유도(Digital Scene Matching Area Correlation: DSMAC), GPS 유도방식을 사용한다.<sup>53)</sup> 토마호크는 일단 발사되면 미리 입력된 진로를 따라서 관성유도, 혹은 GPS에 의해 유도되며, 지상으로 접어들면 TERCOM에 의해 유도시스템이 지원을 받는다. 종말단계에서는 DSMAC 혹은 GPS에 의해 목표물로 유도된다.<sup>54)</sup> 이러한 유도방식을 통해 450~2,500km 사거리를 가진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은 원형 공산오차 10m 이내의 정밀도를 확보했다. 토마호크의 초기 개발단계에서의 당시 단가는 247만 달러였으나<sup>55)</sup> 1999년에는 약 57만 달러로 떨어졌다.<sup>56)</sup> 2003년에 새롭게 등장한 전술토마호크(Tactical Tomahawk: TACTOM)는 기존의 토마호크 미사일에 비하여 스텔스 성능과 네트워크 기능이 강화되었다. 따라서 생존성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토마호크 미사일이 사전에 입력한 목표물만 공격할 수 있었던 데에 비해 전술토마호크는 강화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비행 도중에 입력된 목표물 외의 다른 임의의 목표물을 지정해 타격할 수 있다.<sup>57)</sup> 전술토마호크의

51) 합동참모본부, 「세계 주요 무기체계: 공대지 유도폭탄」, 『합참』 제47호, 2011, 124쪽.

52) GAO, op. cit., pp.5~42.

53) <http://jdds.dtaq.mnd.mil/JDDS/>(검색일: 2012. 9. 16);

[http://en.wikipedia.org/wiki/Tomahawk\\_\(missile\)](http://en.wikipedia.org/wiki/Tomahawk_(missile))(검색일: 2012. 9. 11).

54) [http://en.wikipedia.org/wiki/Tomahawk\\_\(missile\)](http://en.wikipedia.org/wiki/Tomahawk_(missile))(검색일: 2012. 9. 11).

55) GAO, ibid., pp.5~42.

56) [http://en.wikipedia.org/wiki/Tomahawk\\_\(missile\)](http://en.wikipedia.org/wiki/Tomahawk_(missile))(검색일: 2012. 9. 11).

57) 유용원 · 김병륜 · 양욱 · 김대영, 앞의 책, 218~219쪽.

표적에 대한 유통성은 유도방식에 있어서의 획기적인 변화임에 틀림 없다.

〈표 3〉 주요 순항미사일의 정밀성과 유도방식 발달과정

순항미사일	상용 연도	원형공산 오차(m)	유도방식	당시 단가(\$)
JB-2 / KGW-1	1945	400	관성+라디오 지령	
MGM-1 Matador	1952	520	관성+라디오 지령	890,000
MGM-13 Mace	1959	520	자동지형인식	452,000
Harpoon	1977	5	레이더 고도측정, 관성, 능동레이더 호밍	527,416
Tomahawk	1983	10	INS, TERCOM, DAMAC, GPS	569,000 (1999)
SLAM-ER	2000	3	INS / GPS, IIR, Datalink	786,143

\* 기타 참고자료

- V-1미사일(1944): 정밀도-12,800m, 관성유도 방식
- Regulus(1955): 원형공산오차 4,650m, 관성+라디오 지령 유도, 26.7만 달러(1958)
- SM-62 Snark(1959): 원형공산오차 2,400m, 천측유도 방식, 147만 달러(1955)

이상의 내용 중에서 정밀성과 유도방식을 종합하면 〈표 3〉과 같다. 순항미사일은 관성유도, 라디오 지령유도, 지형인식, 천측유도, 능동 레이더 호밍 방식을 결합한 레이더 및 관성유도, IIR, GPS 유도, 데이터 링크를 통한 유도 기술들의 등장과 상호 결합을 통해 정밀도를 높여왔다. 약 250km라는 비슷한 사거리를 지닌 순항미사일로서, 1944년에 독일에서 운용되었던 V-1과 2000년에 미국에서 운용된 SLAM-ER의 정밀도를 비교하는 것은 흥미롭다. V-1의 원형 공산오차는 12,800m이었으며, SLAM-ER의 그것은 3m이다. 56년 동안 순항미사일의 정밀도는 단순 비교 시 4,000배 이상 높아졌다.<sup>58)</sup>

58) 이러한 단순 비교는 비슷한 사거리일 경우에 의미가 있으며 현대 순항미사일의 정밀도는 사거리보다는 종말 유도 방식에 더 크게 의존하므로 일반적인 비교의 수치적 결과는 신뢰도가 제한된다.

미국의 주요 순항미사일 단가 변화는 약간씩의 오름세를 보이기는 하나, 시간이 흐르면서 전체적으로 단가가 낮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그러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의 경우와 같이 동종일 경우 모두 시간이 지나면서 단가가 떨어진다. 이는 성능이 향상되어도 단가의 변화가 작거나 오히려 낮아지는 정보통신 기술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 주요 순항미사일의 파괴력

순항미사일	상용연도	탄두중량(kg)	폭파력(MT)	탄두 명칭(특성)
JB-2 / KGW-1	1945	910	·	HE
MGM-1 Matador	1952	1,360	1	핵, W-28
Regulus	1955	1,200	0.5	핵, W-27
MGM-13 Mace	1959	1,360	1	핵, W-28
SM-62 Snark	1959	2,812	3.8	핵, W-39
Harpoon	1977	221	·	강철 1~2m 관통
Tomahawk	1983	450	0.2	HE, 핵(W-80) 가능
SLAM-ER	2000	246	·	철근콘크리트 1~1.5m

\* V-1미사일(1944): 850kg Amatol-39

순항미사일의 파괴력은 과거보다 더욱 효율화되었다. 〈표 4〉에서와 같이 탄두중량은 분명 감소하였다. 핵탄두 순항미사일인 마타도어, 메이스, 레굴러스, 스나크를 비교에서 제외하더라도, 1945년의 JB-2/KGW-1의 탄두중량이 910kg인 반면에 하푼과 SLAM-ER의 탄두중량은 약 220~250kg 정도이다. 그러나 탄두중량이 감소했다는 이유로 파괴력이 감소했다고 볼 수는 없다. 발달된 기술을 바탕으로 정밀도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굳이 과거와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중량이 큰 탄두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밀타격을 추구하는 운용개념도 필요 이상의 탄두중량 증가를

피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순항미사일의 파괴력은 정밀도의 향상과 더불어 효율성을 추구해 왔다고 할 수 있다.

#### 4. 탄도미사일

최초의 탄도미사일은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시 1944년 9월부터 런던 공격에 사용했던 V-2미사일이다. V-2미사일은 관성유도방식이 사용되었으며, 자주 궤도를 벗어났고 매우 부정확하였다.<sup>59)</sup> V-2미사일의 원형 공산오차는 1943년 시험 당시 4.5km이었으며, 1944년 12월에 라디오 유도 통제 시스템이 도입된 후 2km로 줄었다. 그러나 실제 전역에서 영국을 목표로 발사된 518발의 V-2미사일 원형 공산오차는 평균 12km였다.<sup>60)</sup>

1953년 소련의 열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기술의 발전에 따른 위협에 직면하여 미공군은 전략미사일발전위원회(Strategic Missiles Evolution Committee)를 설립하고, 1954년에 그 위원회는 아틀라스(Atlas)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다.<sup>61)</sup> SM-65 아틀라스 미사일은 1959년부터 1965년까지 상용화되었다. 아틀라스 A~D의 유도방식은 관성유도와 라디오 지령유도를 혼용한다. 미사일이 자체 관성유도 시스템으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지상에 있는 통제소에 라디오를 통해 전달하고, 수정된 정보를 수신하는 방식으로 유도된다. 아틀라스 E, F는 완전히 독립적인 관성유도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유도시스템을 바탕으로 아틀라스는 1.4km의 원형 공산오차를 달성하였다. 비록 원형 공산오차는 컸으나 아틀라스 D의 폭파력은 1.5Mt이었으며, 아틀라스 E, D는

59) Bernard and Fawn M. Brodie, *From Crossbow to H-Bomb*, p.231.

60) <http://www.astronautix.com/lvs/v2.htm>(검색일: 2012. 9. 11).

61) [http://www.losangeles.af.mil/library/ballistic\\_missile](http://www.losangeles.af.mil/library/ballistic_missile)(검색일: 2012. 9. 11).

3.75Mt이었다.<sup>62)</sup> 또한 800기의 아틀라스를 도입하기 위해 당시 10억 달러가 소요되었는데<sup>63)</sup>, 이는 아틀라스의 당시 단가가 125만 달러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후, 미공군은 타이탄(Titan)과 토르(Thor)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타이탄 I 은 1955년부터 개발이 시작되었으며, 아틀라스 초기 시리즈와 같은 유도방식을 사용하였다. 타이탄 I 은 관성유도를 기본으로 하되 지상 통제소와의 라디오 교신을 통해 목표물로 유도되었으며, 원형 공산오차는 1.4km였다. 타이탄 I 의 폭파력은 3.75Mt이었으며<sup>64)</sup>, 1962년 단가는 약 150만 달러였다. 토르는 미 공군의 첫 번째 전술탄도미사일이었으며, 1.5Mt의 핵탄두로 무장되었다.<sup>65)</sup> 토르 미사일은 1957년에 설계되어 1959년부터 1963년까지 소련을 견제할 목적으로 영국에 배치되었다. 토르는 미국의 초기 탄도미사일 유도방식과 같이 라디오를 통한 지령유도방식을 더한 관성유도방식을 사용하였다. 토르는 1,850~3,700km 사거리와 3.2km의 원형 공산오차를 목표로 설계되었으나, 약 1km의 원형 공산오차를 달성하였다.<sup>66)</sup> 토르의 1958년 단가는 75만 달러였다.

1950년대 말부터 미 공군은 타이탄 II와 미니트맨(Minuteman)과 같은 제2세대 탄도미사일 개발에 주력한다. 1963년부터 1987년까지 운용되었던 타이탄 II는 지상 통제소의 보조를 받지 않는 자체적인 관성유도방식을 사용하였다. 타이탄 II는 자이로 센서(gyroscopic sensor)인 IMU(Inertial Measurement Unit)와 IBM ASC-15라는 미사일 유도 컴퓨터를 탑재하였으며<sup>67)</sup>, 원형 공산오차는 약 900m였다.

62) <http://jdds.dtaq.mnd.mil/JDDS/>(검색일: 2012. 9. 16).

63) Heuston Consulting, Inc., The Database of Cost References by Group-PDF #2, <http://www.Coldwarweaponsystemcosts.com>(검색일: 2012. 9. 15).

64) <http://jdds.dtaq.mnd.mil/JDDS/>(검색일: 2012. 9. 16).

65) [http://en.wikipedia.org/wiki/PGM-17\\_Thor](http://en.wikipedia.org/wiki/PGM-17_Thor)(검색일: 2012. 9. 11).

66) [http://en.wikipedia.org/wiki/PGM-17\\_Thor](http://en.wikipedia.org/wiki/PGM-17_Thor)(검색일: 2012. 9. 11).

67) David K. Stumpf, *Titan II: A History of a Cold War Missile Program*(University of Arkansas Press, 2000), pp.63~67.

타이탄Ⅱ는 9Mt의 거대한 폭발력을 보유하고였으며<sup>68)</sup>, 1969년 당시의 단가는 약 316만 달러였다.<sup>69)</sup> 1962년과 1965년에 각각 상용화된 미니트맨Ⅰ, Ⅱ는 고체 로켓 부스터와 관성유도에 사용되는 디지털 컴퓨터 사용이라는 두 가지 발전을 이루었다. 상용 반도체 및 컴퓨터 기술의 향상은 유도 기술을 한층 더 발전시켰으며, 1970년에 미니트맨Ⅲ이 등장한다.<sup>70)</sup> 미니트맨 시리즈는 약간의 기술적 진보가 있으나 관성유도 방식이 사용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최대 사거리가 13,000km인 미니트맨Ⅲ의 원형 공산오차는 120m이었으며<sup>71)</sup>, 당시의 단가는 700만 달러였다.<sup>72)</sup> 미니트맨Ⅲ는 MIRV(Multiple Independently-targeted Reentry Vehicle) 형태로 3개의 탄두로 무장되었으며, 각각의 폭발력을 합하면 1~1.5Mt 정도가 된다.<sup>73)</sup>

한편, 미군은 핵 보복능력의 생존을 위해 폴라리스(Polaris)와 포세이돈(Poseidon)과 같이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잠대지 탄도미사일(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SLBM)을 개발하였다. 폴라리스는 1961년부터 1996년까지에 운용되었고, 관성유도방식으로 유도되었으며, 약 4,600km의 사거리를 보유하고였다. 원형 공산오차는 초기에 1.8km이었으나 차후 개선된 관성유도시스템에 의해 약 900m로 향상되었다.<sup>74)</sup> 폴라리스의 1964년 단가는 약 123만 달러였다. 1971년부터 1992년까지 운용되었던 포세이돈 역시 관성유도방식이 사용되었으나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이루어진 정밀도의 향상으로 원형 공산

68) <http://jdds.dtaq.mnd.mil/JDDS/>(검색일: 2012. 9. 16).

69) Heuston Consulting, Inc., The Database of CostHeuston Consulting, Inc., The Database of Cost References by Group-PDF #2, <http://www.Coldwarweaponsystemcosts.com>(검색일: 2012. 9. 15).

70) [http://en.wikipedia.org/wiki/LGM-30\\_Minuteman](http://en.wikipedia.org/wiki/LGM-30_Minuteman)(검색일: 2012. 9. 11).

71) Duncan Lennox Surrey, *IHS Jane's Weapons: Strategic 2012~2013*(UK Bracknell: IHS Global Limited, 2012), p.77.

72) [http://en.wikipedia.org/wiki/LGM-30\\_Minuteman](http://en.wikipedia.org/wiki/LGM-30_Minuteman)(검색일: 2012. 9. 11).

73) <http://jdds.dtaq.mnd.mil/JDDS/>(검색일: 2012. 9. 16).

74) [http://en.wikipedia.org/wiki/UGM-27\\_Polaris](http://en.wikipedia.org/wiki/UGM-27_Polaris)(검색일: 2012. 9. 11).

오차는 450m로 줄어들었다.<sup>75)</sup> 포세이돈의 1973년 단가는 396만 달러였다. 폴라리스는 각각 200kt의 폭발력을 갖는 3개의 탄두로 구성되었으며, 포세이돈은 각각 100kt의 10개 탄두로 구성되거나 40kt의 14개 탄두로 구성되었다.<sup>76)</sup>

한편, 미국은 1972년 소련과의 전략무기제한협정으로 인해 탄도미사일의 양을 늘리는 것보다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을 택했다.<sup>77)</sup> 그 결과 피스키퍼(Peacekeeper)와 미지트맨(Midgetman: 일명, Small ICBM)을 개발하였다. 1986년부터 2005년까지 배치되었던 피스키퍼는 각 475kt의 폭발력을 지닌 10개의 탄두로 구성된 MIRV 미사일이었다. 이전보다 개선된 관성유도방식으로 피스키퍼는 최대사거리 9,000km와 원형 공산오차 120m를 달성하였고, 그 단가는 약 7,000만 달러였다.<sup>78)</sup> 미지트맨은 475kt의 폭발력을 갖춘 소형 대륙간 탄도미사일로서 고정식 사일로(silo)에서 발사되는 취약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하도록 고안되었다. 미지트맨은 1991년에 최초로 비행 시험에 성공했으며, 사거리가 11,000km에 달하고, INS/GPS 유도방식을 사용한다. GPS 유도방식을 더한 미지트맨의 원형 공산오차는 90m이다.<sup>79)</sup> 시카고 트리뷴(Chicago Tribune)의 1986년 기사를 보면, 500기의 미지트맨을 배치하기 위해 적어도 430억 달러가 소요된다고 예상하였다.<sup>80)</sup> 이는 미지트맨의 단가가 약 8,600만 달러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이 개발한 탄도미사일이 핵탄두만 탑재한 것은 아니다. 고풍탄

75) [http://www.missilethreat.com/missiles-of-the-world/id.92/missile\\_detail.asp](http://www.missilethreat.com/missiles-of-the-world/id.92/missile_detail.asp) (검색일: 2012. 9. 11).

76) [http://www.missilethreat.com/missiles-of-the-world/id.92/missile\\_detail.asp](http://www.missilethreat.com/missiles-of-the-world/id.92/missile_detail.asp) (검색일: 2012. 9. 11); [http://en.wikipedia.org/wiki/UGM-27\\_Polaris](http://en.wikipedia.org/wiki/UGM-27_Polaris)(검색일: 2012. 9. 11); <http://jdds.dtaq.mnd.mil/JDDS/>(검색일: 2012. 9. 16).

77) [http://www.losangeles.af.mil/library/ballistic\\_missile](http://www.losangeles.af.mil/library/ballistic_missile)(검색일: 2012. 9. 11).

78) [http://en.wikipedia.org/wiki/LGM-118\\_Peacekeeper](http://en.wikipedia.org/wiki/LGM-118_Peacekeeper)(검색일: 2012. 9. 11).

79) [http://en.wikipedia.org/wiki/MGM-134\\_Midgetman](http://en.wikipedia.org/wiki/MGM-134_Midgetman)(검색일: 2012. 9. 11).

80) Stephen Chapman, "Midgetman's Price—and its value", *Chicago Tribune*, March 19, 1986.

탄두를 탑재한 미국의 대표적인 탄도미사일은 1972년에 상용화된 MGM-52 랜스(Lance)와 1991년부터 상용화된 ATACMS(Army Tactical Missile System) 시리즈가 있다. ATACMS는 지상부대의 전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랜스의 후속 모델이다. 엄밀히 말하면 랜스의 경우, 화력지원을 위해 고폭탄 탄두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100kt의 위력을 지닌 핵탄두를 탑재하기도 하였다. 랜스는 관성유도방식을 사용하여 약 150m의 원형 공산오차를 달성하였으며, 1978년 단가는 약 21.5만 달러였다.<sup>81)</sup> ATACMS 블록 I은 관성유도방식을 사용하였으나, 1998년부터 상용화된 블록 IA에서는 INS/GPS 방식을 사용하여 10~50m의 원형 공산오차를 달성하는 등, ATACMS 시리즈의 유도 방식은 계속 진보하였다.<sup>82)</sup> ATACMS 블록 IA의 단가는 104만 달러로 알려져 있다.<sup>83)</sup>

〈표 5〉 주요 탄도미사일의 정밀성과 유도방식 발전과정

탄도미사일	상용 연도	원형공산 오차(m)	유도방식	당시 단가(천\$)
Titan I	1955	1,400	관성 + 라디오 지령	1,500(1962)
Atlas	A~D	1,400	관성 + 라디오 지령	1,250
	E~F		관성	
Thor	1959	1,000	관성 + 라디오 지령	750
Polaris	1961	900	관성	1,230(1964)
Titan II	1963	900	관성	3,160(1969)
Minuteman III	1970	120	관성	7,000
Poseidon	1971	450	관성	3,957(1973)
MGM-52 Lance	1972	150	관성	215
Peacekeeper	1986	120	관성	70,000
Midgetman	1991	90	관성	86,000(1986)
ATACMS Block 1A	1998	10~50	INS/GPS	1,040

\* V-2미사일(1944): 원형 공산오차 12,000m, 관성 및 라디오 지령 유도방식

81) NRDC, *Nuclear Weapons Databook*(1984) pp.284~285, [http://docs.nrdc.org/nuclear/nuc\\_840\\_00001a\\_01.pdf](http://docs.nrdc.org/nuclear/nuc_840_00001a_01.pdf)(검색일: 2012. 9. 17).

82) [http://www.missilethreat.com/missiles-of-the-world/id.74/missile\\_detail.asp](http://www.missilethreat.com/missiles-of-the-world/id.74/missile_detail.asp) (검색일: 2012. 9. 17).

83) GAO, op. cit., pp.5~42.

미국 탄도미사일의 정밀도와 유도방식의 발달과정을 요약하면 <표 5>와 같다. 이는 세계 모든 국가의 정밀도와 유도방식의 발달과정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개략적인 변화의 추세를 알 수 있게 한다. 유도방식의 변화는 크지 않으나 관성유도방식 내부의 기술적 진보로 인하여 정밀도가 크게 향상된 것을 알 수 있다. 1944년 독일의 V-2미사일과 1991년 미국이 실험했던 미지트맨의 원형 공산오차를 비교하면 약 100배, ATACMS 블록 IA와 비교하면 1,000배 이상 향상되었다.<sup>84)</sup>

탄도미사일 단가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과거에서 현재로 오면서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체로 점점 단가가 높아진다. ICBM이나 SLBM의 단가는 워낙 큰 무기체제이므로 전술 탄도미사일과 비교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나, 유사한 종류의 탄도미사일인 랜스와 ATACMS 블록 IA를 비교해 보더라도 약 2배 정도 단가가 올랐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탄도미사일의 파괴력은 핵탄두의 파괴력의 발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탄도미사일의 개발 초기였던 1950년대부터 엄청난 위력을 지닌 수소폭탄이 시험되었기 때문에 탄도미사일의 파괴력의 발전과정을 계량적으로 논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실제로 <표 6>에서와 같이 1950년대와 최근의 탄도미사일의 폭발력은 큰 변화가 없다. 하지만 파괴력을 발휘하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단탄두가 아닌 MIRV이나 자탄을 탑재한 탄두형태로 변화했다는 것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이는 파괴력의 수준의 변화가 아니라 운용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를 의미한다.

84) 순항미사일의 경우(각주 57)와 마찬가지로 단순 비교 수치의 의미는 제한적이다.

〈표 6〉 주요 탄도미사일의 파괴력

탄도미사일	상용연도	폭파력(MT)	탄두 명칭(특성)
Titan I	1955	3.75	W-38
Atlas	A~D	1.5	W-49
	E~F	3.75	W-38
Thor	1959	1.5	W-49
Polaris	1961	0.6(3×200kT)	W-58
Titan II	1963	9	W-53
Minuteman III	1970	1.05(3×350kT), 1.425(3×475kT)	W-78, W-87
Poseidon	1971	1(10×100kT), 0.56(14×40kT)	W-76, W-68
MGM-52 Lance	1972	100kT	W-70(혹은 HE)
Peacekeeper	1986	4.75(10×475kT)	W-87
Midgetman	1991	0.475	W-87
ATACMS Block 1A	1998	.	160kg(단/자탄)

\* V-2미사일(1944): 1,000kg Amatol 폭약

## 5. 유도포탄

포에서 발사되는 유도포탄은 크게 직사화기용 유도포탄과 곡사화기용 유도포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사화기용 유도포탄의 개발은 1960년대 서방 국가들이 전차포에서 발사 가능한 대전차용 유도탄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시작되었다. 곡사화기용 유도포탄은 탄착 정확도가 높은 장점으로 인해 1970년대 초 미국, 소련, 서유럽국가에서 개발이 시작되었다.<sup>85)</sup>

직사화기용 포발사 유도포탄이 소련에서 다양하게 발전했기 때문에 간략히 유도방식의 발달과정을 살펴보면, 유도방식이 최초 반자동

85) 안승열, 「포발사 유도포탄(CLGP)」, 『국방과 기술』 제325호, 2006, 58~67쪽.

가시선 지령 유도방식(Semi-Automatic Command to Line Of Sight: SACLOS)에서 레이저 빔 편승 유도방식(Laser Beam Riding)으로 변화되었다. 세계 최초의 대전차용 포발사 유도포탄은 소련이 1981년에 전력화에 성공한 9K112/9M117 코브라(Kobra)였다. 코브라는 SACLOS를 사용하였다. 코브라 이후의 직사화기용 유도포탄인 베스천(Bastion), 리플렉스(Refleks), 9M117, 9M119 KASTET, SHEKSNA 모두 레이저 빔 편승 유도방식이다.

미국은 뒤늦게 1992년에 120밀리용 XM943 STAFF(Smart Target Activation Fire and Forget)의 예비 시험에 성공했다. STAFF의 표적 감지 및 추적은 전방주사 밀리미터파 센서(Forward-Scanning Millimeter Wave Sensor: FSMMWS)를 이용한다.<sup>86)</sup> 탄도비행 중 FSMMWS에 의해 표적이 탐지되면, 탄두가 표적정렬을 이루도록 탄체를 회전시킨 후 기폭하여 전차의 상부를 향해 폭발성형 관통자(Explosively Formed Penetrator: EFP)를 발사한다.<sup>87)</sup> 그러나 XM943 STAFF은 기술적 난이도로 개발이 취소되었다.

하지만 미국의 ATK사가 개발 중이던 MRM-KE(Mid Range Munition-Kinetic Energy)와 레이시온에서 개발 중이던 MRM-CE(Chemical Energy)가 2006년 시험발사에 성공하였다. MRM-KE에는 밀리미터파 탐색기(seeker)가 적용되었으며, 반능동 레이저 호밍 유도방식으로 보완되었다. MRM-CE에는 반능동 레이저, 밀리미터파 레이더 및 IIR로 구성된 다중모드 탐색기가 적용되었다. 이러한 종말단계의 호밍유도방식의 유도탄은 정확도가 높고, 위장표적의 탐지도 가능하며, 비가시선 영역의 목표물도 타격할 수 있다.<sup>88)</sup> MRM-KE와 MRM-CE의 정밀도는 현재 잘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독일과 러시아가 합작하여 개발 중인 대전차용 포발사 유도포탄

86) 위의 글(책), 59쪽.

87) 김형규·박우동·최상경, 「120밀리 전차포용 지능탄약의 분석」, 『한국방위산업학회』 제16권 제1호, 2009, 76쪽.

88) 박우동·이정민, “지능탄약의 개발현황 및 발전방향에 대한 고찰”, 『한국방위산업학회』 제14권 제1호, 2007, 150~151쪽.

SPEAR의 원형 공산오차가 0.7m 이내라는 점을 참고할 만하다.<sup>89)</sup>

미국의 곡사화기용 유도포탄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박격포용 유도포탄으로, 탄두중량이 17.2kg인 120밀리 XM395 PGMM(Precision Guided Mortar Munition)이 있다. 박격포용 유도포탄에 사용되는 유도방식에는 종말탐색기형, 반능동 레이저 호밍 유도방식, GPS/INS 유도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고<sup>90)</sup>, PGMM에 사용된 유도방식은 반능동 레이저 호밍 유도방식이다. 7km 이상의 사거리에서 PGMM의 원형 공산오차는 1m일 정도로 정밀도가 매우 높다.<sup>91)</sup> PGMM의 단가는 1만 5천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sup>92)</sup>

〈표 7〉 주요 포발사 유도포탄의 정밀성과 유도방식 현황

구 분	포발사 유도포탄	상용 연도	원형공산 오차(m)	유도방식	비고
직사 화기	XM-943 STAFF	1992	·	전방주사밀리미터파	120mm 대전차
	MRM-KE	2006	·	밀리미터파 탐색기, 반능동 레이저 호밍	대전차
	MRM-CE	2006	·	밀리미터파 탐색기, IIR, 반능동 레이저 호밍	대전차
곡사 화기	M-712 Copperhead	1982	·	관성+반능동 레이저 호밍	155mm
	M-982 Excalibur	2007	5	GPS / INS	155mm
	XM-395 PGMM	2010	1	반능동 레이저 호밍	120mm 박격포

\* 단가 자료(\$)

- M-712 Copperhead: 45,000(1997)
- M-982 Excalibur: 53,620(2007)
- XM-395 PGMM: 15,000(추정)

89) SPEAR는 레이저 기반의 반자동 빔 편승기술을 유도방식에 적용하고 있다. 김형규·박우동·최상경, 「120밀리 전차포용 지능탄약의 체계분석」, 77쪽.

90) 박우동·이정민, 앞의 글, 144쪽.

91) [http://en.wikipedia.org/wiki/XM395\\_Precision\\_Guided\\_Mortar\\_Munition](http://en.wikipedia.org/wiki/XM395_Precision_Guided_Mortar_Munition) (검색일: 2012. 9. 13).

92) Greg Bischer, “Precision Guided Mortar Munition(PGMM) XM395”, 1999 *International Infantry & Small Arms Symposium*(22 June, 1999).

야포에 의해 발사되는 미국의 유도포탄으로 마틴 마리에타가 1975년부터 개발을 시작해 1982년에 배치한 155밀리 코퍼헤드(Copperhead, M-712)와 2007년부터 상용화하기 시작한 155밀리 M-982 엑스칼리버(Excalibur)가 있다. 코퍼헤드는 최초에는 자유비행을 하다 중간단계에서 관성유도를, 종말단계에서 반응동 레이저 호밍 유도방식이 사용된다. 코퍼헤드의 탄두중량은 22.5kg으로 6.69kg의 콤포지션(Composition) B폭약으로 채워져 있다.<sup>93)</sup> 코퍼헤드는 2003년에 이라크전쟁에서 사용되었으며, 1997년의 단가는 4만 5천 달러였다.<sup>94)</sup> M-982 엑스칼리버는 안티잼(Anti-Jam) GPS/IMU 항법장치를 탑재해 위성으로부터 위치 정보를 받을 수 있으며<sup>95)</sup>, 원형공산오차 5m 이내의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2007년 이라크에서 최초로 사용되었다.<sup>96)</sup> 관통탄, 65개의 자탄, 혹은 2개의 장갑차량 감지 및 파괴탄(Sense And Destroy Armour: SADARM)탄으로 탄두를 구성할 수 있는 엑스칼리버의 단가는 5만 4천 달러 정도이다.<sup>97)</sup> 미국을 비롯한 군사강국들은 유도포탄의 사거리 연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차를 줄이기 위해 비용대비 효과가 우수하고, 탄도수정이 가능한 1D/2D 탄도수정신관을 개발하고 있다.<sup>98)</sup> 미국은 포발사 유도포탄의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표 7>과 같다.

미국의 주요 포발사 유도포탄 단가 현황은 직사화기용 포발사 유도포탄은 개발이 취소되었거나 개발 중이므로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찾기가 어려운 반면에 곡사화기의 경우 단가 변화를 제한적으로나마 살펴볼 수 있다(<표 7>). 유도포탄은 다른 유도무기에 비해 대량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단가는 대체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93) <http://jdds.dtaq.mnd.mil/JDDS/>(검색일: 2012. 9. 16).

94) [http://en.wikipedia.org/wiki/M712\\_Copperhead](http://en.wikipedia.org/wiki/M712_Copperhead)(검색일: 2012. 9. 13).

95) 안승열, 「포발사 유도포탄(CLGP)」, 67~68쪽.

96) 박우동·이정민, 앞의 글, 153쪽.

97) Leland S. Ness and Anthony G. Williams eds., *Jane's Ammunition Handbook 2011~2012*(UK Bracknell: IHS Global Limited, 2012), pp.746~748.

98) 박우동·이정민, 위의 글, 154~155쪽.

〈표 8〉은 미국의 주요 포발사 유도포탄의 파괴력 자료를 제시한다. 포발사 유도포탄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고 상용화된 것은 최근이므로 파괴력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비교적 단순로운 탄두로 구성되어 있는 코퍼헤드에 비해서 엑스칼리버의 탄두 구성은 더욱 다양하고 다기능적이다. 뿐만 아니라 자탄을 활용하여 살상력을 증대시켰다.

〈표 8〉 주요 포발사 유도포탄 파괴력

구 분	포발사 유도포탄	상용연도	탄두중량(kg)	비고
곡사 화기	M-712 Copperhead	1982	22.5(6.69)	콤포지션 B
	M-982 Excalibur	2007		관통, 65개 자탄, 2개 사담 자탄
	XM-395 PGMM	2010	17.2	.

## 6. 결 론

이상에서 정밀유도탄의 발달과정을 유도폭탄,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유도포탄으로 구분하여 각 무기의 정밀도와 유도방식, 단가, 파괴력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미국의 경우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미 있는 추세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최초 캐터링 버그, V-1, V-2와 같이 재래식탄으로 시작된 정밀유도탄은 핵의 등장으로 핵탄두의 발전과 운명을 같이 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시 재래식탄으로 형태를 바꾸고 있다. 이는 핵의 파괴력이 증대되면서 핵 사용 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대두되고, 제한전과 재래전의 개념이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핵 감축의 노력은 정밀유도탄의 형태가 재래식 고퍽탄 형태로의 변화에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둘째, 정밀유도탄의 정밀도가 놀랍게 발전하였다. V-2, V-1미사일에 비해 단순 비교 시 탄도미사일의 정밀성은 1,000배, 순항미사일의 정밀성은 4,000배 이상 향상되었다. 정밀유도폭탄의 경우에는 정밀성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으나 정밀도와 밀접하게 연관된 신뢰성, 항공기의 생존성, 작전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발전은 기술적 능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많은 기술의 개발과 동시에 정밀유도탄의 정밀도가 높아졌으나, 그 중에서도 레이저, 반도체, 컴퓨터, GPS의 발전이 주효했다.

셋째, 정밀유도탄의 단가는 탄도미사일을 제외하고, 대부분 낮아지는 현상을 보였다. 정밀유도폭탄, 포발사 유도포탄, 순항미사일은 일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과거에 비해 기술적 안정화로 인해 정밀유도탄의 개발비용이 크지 않고, 과거의 플랫폼을 활용하거나 변형시켜 사용하여 비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유지 및 관리, 인원의 교육 시스템에 드는 비용이 초창기 정밀유도탄의 개발 시에 비해 줄어들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또한 정밀유도탄의 단가는 동일 종류의 탄에 대해서 수요가 많을수록 낮아진다. 따라서 획기적인 기술 개발이나 생산 시스템의 변화가 없다면, 탄도미사일을 제외한 정밀유도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가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정밀유도탄의 파괴력 측면에서 탄두중량이나 핵탄두의 폭발력은 큰 변화가 없으나, 관통력이 증가하였고, 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탄두중량이나 폭발력은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정밀유도탄의 정밀성이 커짐에 따라서 같은 탄두중량이나 폭발력으로 목표물을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MIRV나 자탄을 탑재한 탄두와 같이 탄두를 분리시켜 상대의 대공방어에 대한 생존성을 높이거나 원하는 효과를 증대시켰다.

다섯째, 정밀유도폭탄은 지속적으로 발전이 이루어졌던 반면에, 순항

미사일의 경우 탄도미사일의 효용성에 밀려 1960년대에 잠시 개발이 지연되었었다. 그러나 정밀유도탄에 대한 관심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군사 이론가들은 정밀유도탄의 정밀타격력을 활용한 다양한 전술 및 전략을 개발하였다. 예컨대, ‘공지전투’, ‘정찰-타격 복합체’, ‘신시스템 복합체계’<sup>99)</sup>, ‘OODA 루프(Observe-Orient-Decide-Act Loop)’, ‘네트워크 중심전’, ‘5원 이론’, ‘병렬전쟁’, ‘효과중심작전’, ‘신속결정작전’과 같은 개념들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개념들은 이미발전하고 있는 정밀유도탄의 가능성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역으로 정밀유도탄은 이러한 개념에 의해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포발사 유도포탄의 개발이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정밀유도탄의 정밀성이 획기적으로 증대되면서, 소부대급 전술무기체계 영역에도 정밀유도탄이 개발되어 확산되고 있다. 이는 비교적 저렴한 비유도식 포탄보다는 비싸지만 정밀성이 높은 포발사 유도포탄이 더 효율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원고투고일 : 2013. 1. 1. 심사수정일 : 2013. 2. 19. 게재확정일 : 2013. 2. 25)

주제어 : 정밀유도탄, 유도폭탄,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유도포탄, 유도방식, 정밀도, 공산오차, 파괴력, 단가

99) William A. Owens, “The Emerging System of Systems”, *U.S. Naval Institute Proceeding*, vol. 121, No. 5(1995), pp.36~39.

<ABSTRACT>

## The Evolution of Precision Guided Munitions from 1918 to 2010

Moon, Jang-nyeol · Moon, Kw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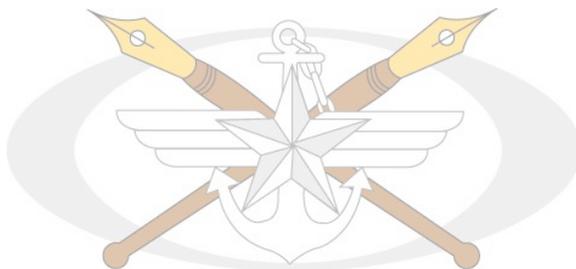
This paper reviews the history of development of precision guided munitions(PGMs) since the end of the World War I. We classify the PGMs into four categories: guided bombs, cruise missiles, ballistic missiles, and cannon-launched guided projectiles. For each category, the precision, the guidance system, the destruction power, and unit price are reviewed, with the factors of analysis being appropriately quantified.

The review primarily focuses on the precision and the guidance mechanism of the PGMs which comprises their essential and defining characteristics. The review covers the time period from 1918 to 2010 and analyzes the PGMs mainly developed by the United States. Precision is estimated by the circular error probable (CEP) and the destructiveness by the weight or the yield of the explosive payload. The unit prices are presented through a conversion into current values.

The overall trends are identified as following: First, the PGMs used solely the conventional explosives in the initial development stage but always tended to be combined with the nuclear warhead in the later stages. Second, the improvement in the precision was accelerated by immediately adopting the state-of-the-art technologies in such areas as mechanical, electronic, communication, and optical engineering. Third, the unit prices of the PGMs show a general decrease except for the ballistic missiles. Fourth, the destructive power of PGMs has been reinforced as the precision has improved, which means a great increase of the operational efficiency of the weapons. Fifth, the cruise missiles underwent a stalemate of development in 1960s overweighed by the strategic importance of the

ballistic missiles but have been regaining the momentum as the modernization of the new operational concepts and technologies develop, especially in the post-Cold War era.

Key Words : Precision Guided Munition (PGM), Guided Bomb, Cruise Missile, Ballistic Missile, Cannon Launched Guided Projectile, Guidance System, Precision, Circular Error Probable, Destruction Power, Unit Pr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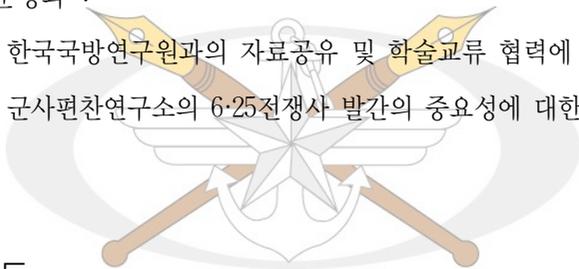


## 연구소 동정

### 1. 연구소장 유관기관 방문활동

- 국사편찬위원회 방문
  - 방문일정 : 2012. 11. 26
  - 수행인원 : 연구관리담당관 외 1명
  - 방문성과 :
    - ① 국외자료 수집 현황과 절차에 대한 협의 진행
    - ② 국사편찬위원회 자료수장고 및 열람실 견학
- 이승만연구원 방문
  - 방문일정 : 2013. 1. 23
  - 수행인원 : 연구관리담당관 외 1명
  - 방문성과 :
    - ① 이승만연구원과의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 논의
    - ② 한국전쟁기 이승만 대통령의 전쟁지도 관련 사진집 발간 협의
- 국가기록원 방문
  - 방문일정 : 2013. 2. 7
  - 수행인원 : 연구관리담당관 외 1명

- 방문성과 :
  - ① 국가기록원과의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 논의
  - ② 기록물 관리의 절차 및 처리 등에 관한 현장 견학
  - ③ 한국전쟁 정전 60주년 기념사진 활용 방안 논의
  
- 한국국방연구원 방문
  - 방문일정 : 2013. 2. 21
  - 수행인원 : 연구관리담당관
  - 방문성과 :
    - ① 한국국방연구원과의 자료공유 및 학술교류 협력에 관해 논의
    - ② 군사편찬연구소의 6·25전쟁사 발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공유



## 2. 인사이동

- 연구소 직원 신규 임명
  - 한환구 중령 : 군사사부(2013. 1. 29)

## 자료 기증은 군사사 연구의 생명입니다.

〈정보자료실 제공〉

군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계신 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연구소는 최적의 자료 보존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여러분이 제공한 자료는 생생한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 〈자료기증 안내〉

#### ◇ 수집대상자료

- 전사자료 : 한국전쟁, 월남전쟁에 관한 피아 작전관계 문서, 지도, 사진 등 전사자료와 참전증언 자료
- 군사사 자료 : 군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군사문헌, 고증 사료

#### ◇ 수집방법

- 소장자료를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거나 전화 또는 서신으로 소장 자료 제공 의사를 알려주시면 출장 방문하여 수령하겠습니다.

(비제공 자료는 복제 후 반환)

- ※ 기증해 주신 자료는 영구 보존되며 장병 및 국민들에게 공개 활용됩니다.

◇ 연락처

- 주 소 : (☎140-021)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용산동 1가 8번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정보자료실
- 전 화 : (일반) 02)709-3188, 3199  
(군) 900-1686, 1688

〈자료이용 안내〉

◇ 공개자료 종류

- 장 서 : 역사, 군사도서 등
- 사 료 : 한국전쟁, 월남전쟁, 국방, 군사사, 수기 등
- 기 타 : 학술논문, 수기, 회고록, 간행물 등

◇ 장 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정보자료실(전쟁기념관 4층)

◇ 이용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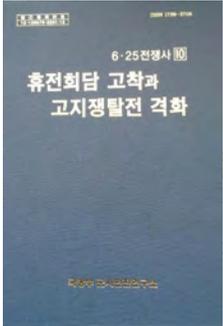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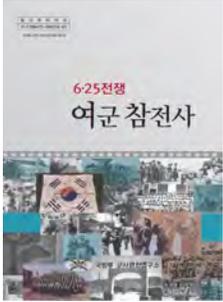
- 평 일 : 09:30~17:30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 휴무

◇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 주 소 : [www.imhc.mil.kr](http://www.imhc.mil.kr)
- 주요내용 : 소장도서목록, 연구소 역대발간서적 원문서비스,  
거제도포로수용자/호국전몰용사공훈록 DB 검색 등

## 신간 도서 소개

구 분	내 용
<p><b>한국근대 군사사상사 연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사사부</li> <li>• 신국판</li> <li>• 2012. 12. 25.</li> </ul> 	<p>『한국 근대 군사사상사 연구』는 근대 한국의 군사와 국방의 발전을 사상사적으로 조명한 연구서다. 일제강점기의 항일무장투쟁의 성장과정을 군사조직과 무기체계, 군사교육훈련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국방·군사의 사상과 정책의 법제화(제도화)를 통한 실현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였다.</p> <p>한국 근대 군사사상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서로서 선진강군을 지향하는 우리 국군의 현대적 군사사상을 정립하는 데 기여하리라 본다.</p>
<p><b>러시아와 일본의 전쟁 그리고 한반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사사부</li> <li>• 신국판</li> <li>• 2012. 12. 26.</li> </ul> 	<p>본 사료집은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 그리고 한반도’라는 주제 하에 국경과 전장에서 작성된 첩보전신첩, 보고서, 전투일지 등 러시아 사료를 선별, 번역, 편찬한 것이다. 현대 동북아 국제질서를 1945년 소련의 대일전 참전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1904~05년에 발생한 ‘러일전쟁’에서 시작된 ‘러·일전쟁’의 갈등구조에 크게 좌우되었다는 관점에 주의하였다.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놓였던 한민족은 식민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성찰해 보길 기대한다.</p>

구 분	내 용
<p><b>『6·25전쟁사』 제10권</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쟁사부</li> <li>• 크라운판</li> <li>• 2012. 12. 30.</li> </ul> 	<p>군사편찬연구소에서 2003년 이래 추진해 온 6·25전쟁사 편찬사업의 10번째 결실이 탄생했다.</p> <p>‘휴전회담고착과 고지쟁탈전 격화’가 부제로 달린 이 책은 1952년 한 해 동안의 유엔군과 공산군의 전쟁수행정책 및 휴전회담 진행과정, 계속된 양측의 군사작전 진행 상황을 기술하였다. 총 9개 장으로 구성되어 전략적 측면의 전쟁사와 지상 및 해·공군작전을 균형적으로 서술함으로써 전쟁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였고, 각 작전에 대한 성격 및 의의를 분석하고 제전장기능에 따른 ‘분석 및 평가’를 도입하여 야전 및 군 교육기관에서의 활용도를 제고하였다.</p>
<p><b>6·25전쟁 여군참전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쟁사부</li> <li>• 신국판</li> <li>• 2012. 12. 14.</li> </ul> 	<p>『6·25전쟁 여군참전사』는 육·해·공군 및 간호장교, 학도의용군, 유격대원, 철도군속, 민간 간호요원, 민간예술대원 등으로 군번도 없이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참전한 여군 및 여성들의 참전활동을 종합한 내용이다.</p> <p>6·25전쟁 때 개인의 목숨보다 국가를 먼저 생각하고 행동에 옮긴 참전 여군 및 여성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기여하고, 향후 여군 발전을 위한 연구와 정책수립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p>

## 『軍史』誌 投稿案内

### 1. 원고 내용 및 범위

- 가. 국내외 군사정책/전략·군사제도·전쟁/전투에 관한 역사적 내용
- 나. 한국의 국방 및 안보와 관련한 정치사·외교사·軍事史 분야에 관한 내용
- 다. 가·나항과 관련된 연구논문, 서평, 연구동향, 자료소개, 연구논문 번역 등
- 라. 기타 군사편찬연구소 연구활동과 부합되는 글  
 ※ 투고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함.

### 2. 원고 작성요령

- 가. 원고는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한문과 원어는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첫 번에 한하여 괄호 안에 표기함.
- 나. 원고 분량은 각주를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
- 다. 註는 각주를 원칙으로 하고 각주 번호는 반괄호 안에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함. 각주의 표기는 저자, 「논문」, 『계재지 또는 저서』, 발행처, 발행연도, 페이지의 순서로 함.  
 예 : 홍길동, 「00에 관한 연구」, 『군사』 제80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1, 99~101쪽
- 라. 외국어로 된 경우 각주의 표기는 저자, 서명, 발행지,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의 순서로 하고 서명은 이탤릭체, 쪽수는 'p', 'pp'로 표기한다.  
 예 : Hong Gildong, "History of Republic of Korean Army", *Military History*, Vol. 82(2012. 3), p. 40.  
 Hong Gildong, *Korean Military History*(New York: Mcgrow-Hill, 2010), pp.100~110
-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존 『軍史』誌를 참조하기 바람.

### 3. 투고 요령

가. 원고는 그대로 게재할 수 있는 완성된 형태의 한글 파일(000.hwp)이어야 하며 원고 제출은 E-mail로 전송하여야 함. 단, 외국어로 작성할 경우는 MS워드 사용 가능

(군사지 편집위원회 E-mail : imhc2@mnd.go.kr)

나. 전송시 인적사항, 연락처, 논문 초록(국문·영문, 각 A4지 2매 이내), 주제어(Key Word) 10단어(국문·영문) 등이 명기된 ‘투고신청서’와 ‘저작물이용허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양식은 연구소 홈페이지 ‘연구소 소식’ -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사용)

※ 영문초록은 250~300단어 내외로 작성

다. 공동집필의 경우, 대표집필자 명의로 ‘투고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집필자는 각주에 표기함.

### 4. 원고 심사 및 고료

가. 원고의 게재 여부는 당 연구소에서 심의를 거친 후 결정함.

나. 접수된 원고는 게재 여부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다.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함.

※ 국방부 본부 및 산하기관의 공무원, 군인, 군무원에게는 원고료, 심사료 등을 지급하지 않음.

라.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당 연구소에 귀속됨.

### 5. 발간시기 및 원고 접수기간

연간 4회 발간(3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12월 15일)함. 따라서 1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3월에, 4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6월에, 7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9월에, 그리고 10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12월에 게재함.

## 6. 문의 / 연락처

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우편번호 : 140-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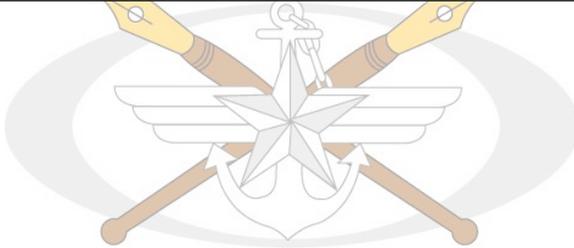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軍史』誌 편집위원회

- 전화 : 02-748-1667(한환구)
- FAX : 02-709-3111
- E-Mail : imhc2@mnd.go.kr

나. 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

[www.imhc.mil.kr](http://www.imhc.mil.kr)

내용 : 연구소 소개, 소식, 정보자료실(소장도서, 인명DB  
검색 등), 신간안내, 회원모집



## 연구윤리예규

군연-예16

제정 2007. 7. 1

부분개정 2008. 12.1

부분개정 2009. 11.1

###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예규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대상)** 이 예규는 본 연구소 내 연구편찬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모든 연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3 조(적용범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 의한다.

#### 제 4 조(용어의 정의)

①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사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사료·사진·증언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

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기여를 한 연구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연구자와 동등하거나 유사한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연구소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본 연구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및 기능)** 연구소 운영위원회는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①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 ③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 ④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 ⑤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⑥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 2 장 연구진실성 검증

### 제 6 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 ① 제보자는 기획운영실장에게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에 한하여 허용한다.
-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③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제 7 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 ①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1. 제보내용이 제4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 ③ 예비조사는 기획운영실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 8 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 ① 예비조사 결과는 운영위원회에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연구지원 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 제 9 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 ① 본조사는 운영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조사위원회의 구성)

- ① 조사위원회는 소장이 임명(위촉)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조사위원회 위원은 부·실장 또는 해당 분야 전공 연구원으로 하며, 필요시 외부인사를 1인 이상 위촉할 수 있다.
-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 ④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제11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 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소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 제12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② 소장은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기관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 제14조(판정)

-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 ②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5조(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 ① 조사위원회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본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 보고서”라 한다)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 제3장 검증 이후의 조치

#### 제16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

- ① 최종 보고서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해당 연구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제출하며,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선 조사과정 중이라도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제17조(결과에 대한 조치)

- ①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운영위원회는 소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②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18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기획운영실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최종 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1 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軍史誌』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 학술지입니다.  
(’08년 선정)

□ 편집위원장

양영조(군사편찬연구소)

□ 편집위원 (가나다순)

기광서(조선대학교)

김영관(제주대학교)

김중수(군산대학교)

김창석(강원대학교)

김태국(연변대학교)

박영준(국방대학교)

백기인(군사편찬연구소)

신명호(부경대학교)

심현용(군사편찬연구소)

오영섭(연세대 이승만연구원)

이명환(공군사관학교)

이민웅(해군사관학교)

이완범(한국학중앙연구원)

이재범(경기대학교)

조성훈(군사편찬연구소)

진석용(대전대학교)

□ 편집간사

이상호(군사편찬연구소)



軍 史 2013/03 (第86號)

2013年 3月 8日 印刷

2013年 3月 15日 發行

發行處 國 防 部 軍 史 編 纂 研 究 所

(우편번호: 140-021)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TEL : 748-1667 FAX : 709-3111

發行人 李 陽 九

印刷處 國 軍 人 쇄 창 (13038207)

本誌에 실린 論文內容은 當 研究所의 公式見解가 아님.